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English Bible: Manuscript Evidence"

로버트 사전트 목사

Pastor Robert Sargent

Bible Baptist Church

1701 Harns Road

Oak Harbor, Washington 98277

USA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2012년 4월 24일 초판 발행

번역 : 정동수, 김재근

발행인 : 정 동 수

발행소 : 그리스도 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69-7

등록번호 238

인쇄소 : 디앤피디자인프린팅

관련소유 : 그리스도 예수안에

문의 : (032) 872-1184(Tel)

(032) 232-0129(FAX)

홈페이지 : www.KeepBible.com

E-mail : webmaster@KeepBible.com

ISBN 89-92485-01-8 03230

본서의 영어 제목은 'English Bible: Manuscript Evidence'입니다. 본서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미국 'Bible Baptist Church'의 Robert Sargent 목사와의 계약에 의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에 있습니다. 본서는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권위역본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ה

히브리어 구약성경

BIBΛOΣ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
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목 차

목 차	iii
서 문	v
1. 서 론	1
2. 계 시	15
3. 영 감	21
4. 전 달	43
5. 정경의 확정	65
6. 보 존	87
7. 부 패	117
8. 해 방 I	149
9. 해 방 II	171
10. 번 역	183
11. 절 정	207
12. 출 판	231
13. 차 별	243
14. 확 산	283
15. 격 론	317

서 문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우리는 이 강의안을 목회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개요에 대한 '모든 것' 혹은 성경 번역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작품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강의안에 충분한 여백을 두어서 목회자와 교사가 실로 포괄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료를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이 강의안을 학생들에게 나눠 줄 것을 제안한다.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이 우리에게서 복된 일이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과 노력의 양으로 인해서 당신이 저자의 수고를 존중하여 사전 허락 없이는 일부라도 복사하거나 번역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주문:

Bible Baptist Church Publication

1701 Harns Road,

Oak Harbor, Washington 98277

USA

전화: 360-675-8311

e-mail: baptist@whidbey.net, sargent@whidbey.net

웹사이트: www.BaptistPublications.org

제 1 장

서 론

독자께서 성경에 관해 강의하는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 책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교리적 기초와 본문적 기초 그리고 역사적 기초에 관해 명료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 연구 과정의 목표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연구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학생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온 성경의 일반적인 역사를 알려 준다.
- B.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본들의 증거와 그것들의 특징 및 성경 번역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이해시킨다.
- C.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저등 (본문) 비평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 D. 학생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경 역본에 관한 쟁점들을 이해시킨다.
- E.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한 교리를 확고히 붙잡도록 한다.
- F.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학생들의 확신을 강화시킨다.
- G. 학생들이 성경기록과 아울러 사실에 비추어 킹제임스 성경을 자신 있게 방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한다.
- H.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존경심을 키워 주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며 설교와 전도와 개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강화시킨다.
- I. 학생들을 격려하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준비시킨다.

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II. 연구 과정의 중요성

우리가 성경에 대해 믿는 바는 곧바로 우리가 다른 모든 교리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를 결정한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모든 교리에서도 멀리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와 기독교는 성경과 함께 서든지 아니면 성경과 함께 넘어진다!

시편 11편 3절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하지 않는가?

A. 어느 성경인가?

신학 전쟁은 기독교계 역사의 대부분의 시점에서 늘 있어 왔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위대한 교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외부의 도전을 받았고 방어되었다. 그 결과 신조들이 작성되었고 전쟁이 벌어졌으며 격렬한 논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교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20세기는 ‘성경 전쟁’의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지만 아마도 성경 자체에 대한 격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경 전쟁 초기 수십 년 동안에는 주로 저자(영감)와 권위(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그 결과 기독교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두 개의 뚜렷한 진영으로 크게 분할되었다. 아마도 ‘근대주의자’와 ‘근본주의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일 것이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부의 수십 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가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도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모든 신학적 논쟁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많은 감정과 흥분과 더불어 맹위를 떨쳐왔으며 때로는 실제적 진실보다 인신공격으로 격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는 ‘과연 어느 것이 바른 성경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다양한 역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주장하는 바와 스타일도 다르고 중요한 교리 구절들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리가 좁은 길이라면 이 많은 역본들이 다 올바른 리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가? 하는 것이다. 계시록을 기록한 잉크가 마른 지 이미 1900년이 되었고 그래서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성경은 소실되어 완전하지 않은 책이 되고 말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B.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가 매우 불명확하고 그분의 말씀들이 너무 혼동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마구잡이로 골라잡은 아무 역본에서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토록 긴 세월 동안에 그것이 분실되도록 할 만큼 서투르게 일을 진행하셨단 말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순수하고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성경이 실제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사라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대답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 책의 주된 관심사는 앞서 말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신빙성 (Authenticity)’에 대한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느 성경이 그것인가?

성경이 전달되어 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고 놀랄 만하며 소박하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들(단어들)이 영광의 왕좌로부터 나와 나약한 우리 손에까지 전달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III. 강의 개요

제1장: 서론

- I. 연구 과정의 목표
- II. 연구 과정의 중요성
- III. 강의 개요
- IV. 연구 과정의 개관
- V. 평가 방법
- VI. 참고 도서

제2장: 계시

- I. 계시의 정의
- II. 계시의 설명
 - A. 일반계시
 - B. 특별계시
- III. 계시의 비교

제3장: 영감

- I. 영감에 관한 성경의 진술
- II. 영감의 정의
 - A. 합류 영감
 - B. 축자 영감
 - C. 완전 영감
 - D. 무류 영감
 - E. 절대 확실한 영감
- III. 영감에 대한 이론
- IV. 구약성경의 영감
- V. 신약성경의 영감
- VI. 영감의 증거

제4장: 전달

- I. 언어와 기록의 발전

- II. 영어의 발전
- III. 성경의 언어와 기록
- IV. 성경 본문의 전달
 - A. 사본 종류
 - B. 사본 재료
 - C. 사본 용어

제5장: 정경

- I. 정경과 정경 자격의 의미
- II. 정경 자격의 기준 또는 시험
- III. 정경 확정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
 - A. 호모로구메나
 - B. 안티레고메나
 - C. 외경
 - D. 가경
- IV. 구약성경 정경
- V. 신약성경 정경

제6장: 보존

- I. 보존 교리
- II. 보존의 논리
- III. 보존의 범위
- IV. 보존에 대한 다양한 견해
- V. 보존의 본질
 - A. 책으로서 성경의 영속성
 - B. 성경 본문의 순수성
- VI. 구약성경의 보존
 - A.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언
 - B.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비유대인들의 증언
 - C.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증언

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D. 표준 히브리어 본문

E. 통용되는 표준 히브리어 본문

VII. 신약성경의 보존

A. 구 라틴어 성경

B. 구 시리아어 성경

C. 고딕 역본

D. 슬라브어 성경

제7장: 부패

I. 본문 부패의 본질

II. 본문 부패의 배경

III. 본문 부패의 중요 중심지

IV. 본문 부패의 가장 중요한 주체

V. 본문 부패의 결과

A.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틴 성경

B. 라틴 별게이트

VI. 칠십인역(LXX) 문제

제8장: 해방 I

I.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기반

II. 에라스무스

A. 에라스무스의 생애

B. 에라스무스의 작품

C. 에라스무스와 그의 본문에 대한 비판

D. '요한의 콤마'

III. 공인 본문 - 텍스투스 리셉투스

제9장: 해방 II

I. 사본 수집과 편집 시기

A. 폴리글롯 성경들

B. 수용 본문의 비평본

C. 티센도르프의 연구

- II. 주요 신약성경 영설 사본
- III. 주요 신약성경 소문자 사본
- IV. 주요 신약성경 파피루스 사본

제10장: 번역

- I. 번역에 관한 고려 사항
- II. 고대 영어 번역본들
- III. 중세 영어 번역본들
- IV. 위클리프의 영어 역본
- V. 틴데일의 영어 역본
- VI. 커버데일 성경
- VII. 매튜 성경
- VIII. 그레이트 성경
- IX. 제네바 성경
- X. 비숍 성경
- XI. 랭스 두에 성경

제11장: 절정

- I.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적 환경
- II. 킹제임스 성경의 제안
- III.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 IV.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
- V.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의 기초
- VI.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

제12장: 출판

- I. 킹제임스 성경의 판들
- II.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 III. 킹제임스 성경의 수용
- IV.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8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V.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

제13장: 비평

- I. 과학적 성경 비평의 정의
- II. 과학적 성경 비평의 역사적 배경
- III. 고등 비평 고찰
- IV. 저등(본문) 비평 고찰
- V.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 VI.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반박
- VII. 수용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 사이의 주요 차이

제14장: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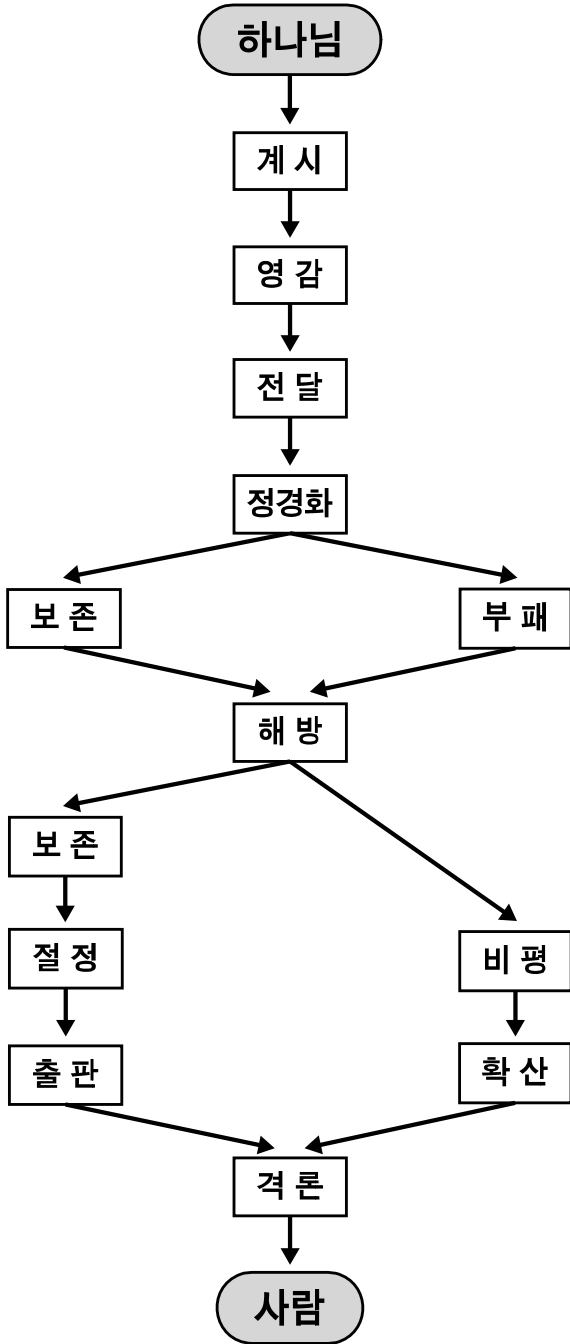
- I.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개정
- II. 20세기 초의 왜곡
- III. 20세기 후반의 왜곡
- IV. 현대 번역 방법
- V. 현대 왜곡에 대한 시험

제15장: 격론

- I.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 문제 개요
- II.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주장
- III.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주장

IV. 연구 과정의 개관

다음의 도표는 이 연구 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보여 주며 성경이 전수된 방법에 대한 역사적 기초를 묘사하고 있다. 이 도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 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날마다 손에 들고 있는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된 과정'이라 부를 수도 있다.



1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IV. 평가 방법

A. 분기별 평가

분기별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 과제물 평균 점수50%
- 2. 분기별 시험50%

B. 과정 평가

과정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 평균 분기별 점수70%
- 2. 연구 논문30%

C. 평가 시스템

- A+ 97-100%
- A- 94-96% 매우 우수
- B+ 90-93%
- B- 87-89% 우수
- C+ 82-86%
- C- 79-81% 보통
- D 70-78% 보통 이하
- F 70% 낙제
- I 불완전 이수(이수하기 위해서는 1주차로 복귀해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깎이게 된다.

- (하나님께서 막으신 경우가 아닌데도) 과제물을 늦게 제출했을 때
- 하루에 2점씩 감소.
- 아무 이유 없이 정규 강의에 결석할 때.
- 이러한 결석이 분기당 3회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분기별 평가는 F가 된다.
- 부정확한 철자와 문법 (목회자는 이러한 면에서 능숙함을 배워야 한다.)

VI. 참고 도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도서들을 소개한다. 이 주제에 속한 이런 저런 책들은 이 강의안을 준비할 때 조사하고 참조한 것들이다. 주의할 것은 이 책들을 반드시 '추천 도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다음의 책들 안에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옹호하는 책인데도 - 교리적 오류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태도가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아래 나열된 도서 가운데 구입하려는 것이 있을 때는 자신의 목회자에게 먼저 묻고 지도를 받기 바란다.

A. 성경 총론

- Ewert, D. From Ancient Tablets To Modern Translation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3
-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0
- Geisler N. L & Nix W. E. From God To Us, 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81
- Kenyou, Sir F. The Story Of The Bible, London: John Murray, 1944
- Bruce F. F. The Books And The Parchments, Old Tappan, New Jersey: Revell 1984

B. 성경 본문과 본문 고찰

- Pickering, W. N.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Nashville, Tennessee: Nelson, 1977
- Ruckman, P. S. The Christian's Handbook Of Manuscript Evidence, Palatka: Pensacola Bible Press
- MacLean, W. The Providential Preservation Of The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Gisborne, New Zealand: Te Rau Press, 1977
- Burgon, J. W. The Revision Revised, Collingswood, New Jersey: The Bible For Today(Classic reprint), 1984
- Fuller, D. O. Which Bible?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 1975
- Fuller, D. O. True Or False?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 1973

1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Hills, E. F. Believing Bible Study. Des Moines, Iowa: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1977
- Ruckman, P. S. The Christian's Handbook Of Biblical Scholarship. Pensacola, Florida: Bible Baptist Bookstore, 1988
- Robertson, A. T. Introduction To Textual Criticism.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Doran & Company, 1925
- Sturtz, H. A. The Byzantine Text-Type An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ashville, Tennessee: Nelson, 1984

C. 킹제임스 성경

- Grant, F. W. Translating The Bible. Edinburge: Nelson, 1961
- Beal, D. A Pictorial History Of Our English Bible. Greenville, South Carolina: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82
- Paine, G. S. The Men Behind The KJV. Grand Rapids, Michigan: Baker, 1977
- McClure, A. W. The Translators Revived. Worthington: Maranatha Publications
- Cloud, D. W. Myths About The King James Bible. Oak Harbor, Washington: Way Of Life Publications, 1993 개정
- Grady, W. P. Final Authority. Schereville, Indiana: Grady Publication, 1993
- Waite D. A. Defending The King James Version. Collingswood, New Jersey: The Bible For Today Press, 1992
- Reagan, D. F. The King James Bible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 Knoxville: Trinity Baptist Temple
- Cimino, D. The Book. harlingen: Wonderful Word Publishers.
- Van Bruggen, J. The Future Of The Bible. Nashville, Tennessee: Nelson, 1972
- Lackey, B. Why I Believe The Old King James Bible. Chattanooga, Tennessee: Personal Publications
- Hills, E. F.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Des Moines, Iowa: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1979

D. 왜곡된 성경 검토

- Fowler, E. W. Evaluating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Watertown, Wisconsin: Maranatha Baptist Press, 1981
- Nowlin, G. The Paraphrased Perversion Of The Bible. Collingswood, New Jersey: The Bible For Today Press, 1975
- Lewis J. P. The English Bible From KJV To NIV. Grand Rapids, Michigan: Baker, 1981
- Coy, C. H. The Inside Story Of The Anglo American Revised New Testament. Personal Publication, 1973
- Countess, R. H. The Jehovah's Witnesses' New Testament.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1987
- Cloud, D. W. Unholy Hands On God's Holy Book. Oak Harbor, Washington: Way Of Life, 1985
- Moser, M. L. Jr. Good News For Modern Man The Devil's Masterpiece. Little Rock, Arkansas: Challenge Press, 1970
- Cloud, D. W. The Bible Society, The Good News Bible, And the Apocrypha. Oak Harbor, Washington: Way Of Life, 1985
- Moser, M. L. Jr. The Case Against The Living Bible. Little Rock, Arkansas: Challenge Press, 1973
- Moser, M. L. Jr. The New English Bible Satan's Polluted Translation. Little Rock, Arkansas: Challenge Press, 1971
- Vance, L. M. A Brief History Of English Translations. Pensacola, Florida: Vance Publications, 1993
- Cloud, D. W. Dynamic Equivalency - Death Knell Of Pure Scripture. Oak Harbor, Washington: Way Of Life
- Ward, N. Famine In The Land. Grand Rapids, Michigan: Which Bible Society

제 1 장

복습 문제

1. 성경론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
2.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벌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학적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3. 그러한 쟁점의 결과로 기독교회는 어떻게 분할되었는가?
4. 오늘날 '보수주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 논쟁은 어떤 것인가?

제 2 장

계 시

‘계시’(revelation)는 열어서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하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심을 말한다.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시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며 또 다양한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오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한다(히 1:1-2;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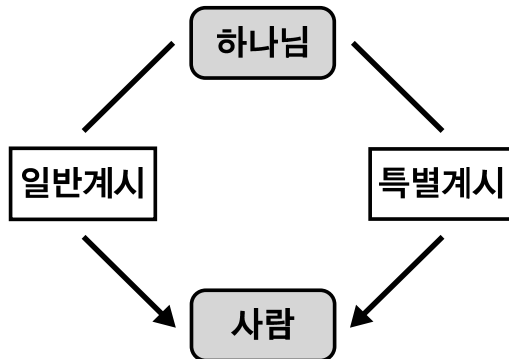
I. 계시의 정의

“계시란 이전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열어서 드러냄으로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계시의 목적은 진리라는 점에서 모든 계시는 초자연적이다(신29:29).

II. 계시의 설명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1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A.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란 자연적인 것들이 발산하는 빛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며 지성이 있는 모든 창조물을 향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1. 창조물(시19:1-6; 사40:12,26; 행14:17; 시8:1; 104:24)
2. 역사(시9:16; 단4:25)
3. 양심(롬2:15)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증언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나 구원 계획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로마서 1장 18-20절에 의하면 일반 계시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1절에 주어져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 창조물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영향을 받아 왔다(창3:17; 롬8:22). 그래서 창조물의 증언은 손상을 입었고 희미해졌으며 이제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기념하는 상징이 되었다.
2. 사람 자신도 자연이 제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올바르게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B. 특별 계시

특별 계시란 이 세상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는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마 11:25-27; 엡3:3, 5; 벰전1:12).

이런 종류의 계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람에게 임한다(히1:1).

1. 꿈을 통해서(창37:5-10)
2. 환상을 통해서(단2:19; 8:1; 10:1)
3. 우림과 둠뭇을 통해서(민27:21)
4.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해서(삼상3:1-10, 21)
5. 짐승을 통해서(민22:28)
6. 천사를 통해서(눅1:26-37) 등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다(요1:14; 14:9).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은 성경이다(롬16:25-26).

시편 19편 7-14절에 의하면 특별한 성경 계시의 효과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계시는 사람을 구속(救贖)하며 치료하는 특징이 있다.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a. 죄의 결과 때문에(앞에서 설명한대로)
- b. 하나님의 초월적 특성 때문에(그분은 사람과 분리되어 거룩하시므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스스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
- c. 하나님의 성품(그분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특별 계시가 없다면 무기력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는 불완전하며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일반 계시만 있는 곳에서 그래 왔듯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롬1:20)”.

“일반 계시가 없다면 특별 계시는 능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며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의 측면에서 기초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일반 계시를 떠나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에 관한 더 큰 계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거나 신뢰할 수 없고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¹⁾

III. 계시 비교

성경 교리에 대한 논쟁과 연관해서 몇 가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계시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비교해서 설명하겠다.

A. 계시와 영감

1. 계시는 진리를 알려 준다. 반면에 영감은 진리가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한다.
2. 성경은 계시를 담고 있다. 반면에 전체 성경은 다 영감을 받았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서술한 내용을 두 가지 다른 출처로부터 얻었다.

- a. 특별 계시 - 창조 이야기, 사탄의 타락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만 알려 주실 수 있는 일들

(1) Warfield B. B.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Pennsylvania: Baker, 1948

18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b. 주관적 관찰 - 홍해를 건넌 일처럼 인간 기록자가 본 사실 혹은 현존하는 문서로부터 알게 된 사실(에스라 6장 1-12절)

두 종류의 이야기가 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영감은 두 경우가 다 오류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증한다.

3. 계시는 점진적이다. 반면에 영감은 총체적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를 모두 계시하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진리가 수백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벧전1:9-12).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실례는 다음과 같다.

- a. 하나님의 이름
- b. 메시아의 오심

그러지만 점진적 영감이라는 것은 없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동일하게 영감을 받았다.

B. 계시와 조명

조명은 계시나 계시된 진리에 대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해력을 말한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님의 조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요 2:20, 21, 27).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인간 기록자들에게 조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 자체는 성경의 영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때때로 성경 기록자들의 말들은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 얻은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있었다.
2. 때때로 성경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적고 있는 것을 이해도 했고 자신들이 적고 있는 말씀들(단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음을 인지하기도 했다(삼하23:2 참조). 이런 경우에 인간 기록자들은 자기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조명을 가지고 있었다.
3. 때때로 성경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적고 있는 말씀들(단어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은 인지했지만 그 말씀들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했다(단12:8-9 참조).
4. 때때로 말씀을 이야기한 사람은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도 인지하지 못했다(요11:49-52 참조).

이제 요점은 이렇다. 인간 기록자에게 조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영감은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즉 단어들)가 진실되게 기록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9,10절 - 계시 - '공개'

고린도전서 2장 12절 - 조명 - '발견'

고린도전서 2장 13절 - 영감 - '문서화'

제 2 장

복습 문제

1. '계시'는 무엇인가?
2. 왜 모든 계시는 초자연적인가?
3. 계시의 두 종류는 무엇인가?
4.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시는가?
5. 일반 계시의 결과는 무엇인가?
6. 왜 일반 계시는 불충분한가?
7. 특별 계시의 결과는 무엇인가?
8.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9. 성경 계시는 점진적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10. '조명'은 무엇인가?
11. 조명은 영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 성경 기록자들이 자기들이 기록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원천은 무엇인가?

제 3 장

영 감

‘영감’(Inspiration)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법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계시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신 뒤 이 계시를 문서 형태로 기록하셨다.

여기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번개에 의해 매우 높은 산에 새겨질 수도 있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의 권좌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몰몬교에서 이야기하는 쿠모라 언덕 위에 묻힌 니파이트의 판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기원과 영감에 관해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I. 영감에 관한 성경의 진술

영감 교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참조 구절 두 군데는 다음과 같다.

A.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성경 구절은 영감의 두 가지 측면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1. 인간 기록자 -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말하였느니라.”
2. 신성한 저자 -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 특별한 구절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기록의 능동적인 원인이심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움직이시는’(moved) - 그리스어 ‘pheromenoi’ - 이라는 단어는 ‘나르다’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 기록자들의 실수를 교정하려고 그들의 뒤를 쫓으시거나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간 기록자들은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씀들(단어들)을 실어 날랐다. 즉 하나님께서 단어들을 주시면 그들은 그것들을 날라 기록했다. 여기에 사용된 동일한 그리스어는 사도 행전 27장 17절에서 ‘밀려갔더니’(driven)로 번역되었는데 거기서 이 단어는 폭풍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람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성경의 영감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하나님은 40세대를 거쳐서 약 1600년 이상의 기간에 다양한 직업과 교육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인간 기록자들

2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통일성을 지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B.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이다. ‘영감’(inspiration)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theopneustos’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었다’(God-breathed)는 뜻이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한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II. 영감의 정의

영감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그들 고유의 문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용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경을 의심하며 성경을 거부하는 기독교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경 영감 이론들’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용어를 잘 숙지해야 한다.

A. 합류 영감(Confluent Inspiration)

합류(合流) 영감은 성경기록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두 행위자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위에서 밝힌 대로 영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관여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영감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나 성도들의 새로운 출생과 같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고 신비이다.

많은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 권위 있게 말씀하셨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1. 행4:25 - “또 [주께서]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2. 행13:35 -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사8:1; 30:8 등도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의 예화는 합류 영감이 의미하는 바가 ‘기계적 받아쓰기’(mechanical dictation) 이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필기도구를 들고서 종이 위에 필기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다 쓰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단어들을 내가 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한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실제로 필기를 한 것은 필기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필기도구는 사람 손에 의해 움직여야지만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다. 기록된 단어들은 필기도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기록자가 쓴 글자의 모양은 그가 골라 쓴 필기도구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가는 펜으로 쓴 글자는 크레용이나 6호 붓 혹은 펠트 매직펜으로 쓴 것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따라서 성경기록은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단어들을 기록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펜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의 개성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스타일, 기억력, 직관, 판단력, 특이성과 그들의 연구를 사용하셨다.”

주의: 이 예화는 사복음서의 스타일과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삶은 네 가지 시각에서 묘사되고 있다. 이 예화는 또한 고린도 전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진술한 것 즉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영감 받았지만 어느 부분은 영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진술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과거의 계시 즉 바울이 인용했던 계시와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온 새로운 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영감은 새로운 계시와 이전 계시 둘 다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에 기록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성경구절을 10절, 25절, 40절과 비교하면 이 점을 더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다.

B. 축자 영감(Verbal Inspiration)

축자(逐字) 영감은 성경기록의 바로 그 단어들(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감은 개념이나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 단어에까지 이른다(고전 2:13; 마24:35; 렘1:9 등 참조).

사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영감은 철자(jot - 요드)는 물론 철자의 일부분(획)에까지도 적용된다(눅16:17 참조).

많은 성경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들’(단어들)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다(출24:4; 신6:6; 12:28; 17:19; 18:8; 27:3; 31:12; 32:1, 45, 46; 수8:34-35; 24:26; 삼상8:10; 삼하23:2; 시12:6; 잠30:6-7; 렘7:27; 23:36; 26:2; 30:2; 겔3:10; 단10:9-11; 마4:4; 눅4:4; 요8:47, 17:8; 딤후4:6; 벧후3:2; 유17; 계1:3; 22:18-19).

C. 총체적 영감(Plenary Inspiration)

‘총체적’(plenary)이란 단어는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그러므

2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로 총체적 영감은 성경기록 전체가 영감 받았으며 성경의 각 부분이 같은 수준으로 영감 받았음을 의미한다.

딤후3:16 -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D. 무류 영감(Inerrant Inspiration)

‘무류’(無謬)라는 말은 ‘거짓이나 틀린 것이 입증될 여지가 없다’란 의미이다. 무류 영감은 성경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히6:18; 딤후1:2; 민23:19; 요10:35 참조).

이러한 영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주어졌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이 모두 정확하게 알려지고 기록되었다. 영감은 결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는다.

“성경기록이 말하는 것은 인간 대행자를 통해서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¹⁾

(‘성경기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서 9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9장 16장과 창세기 12장 1, 3절과 각각 비교해 보면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수 있다.

E. 절대 확실한 영감(Infallible Inspiration)

이것은 성경이 교리에서도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속임수를 가르치지 않는다(시119:160; 요17:17 참조).

‘절대 확실하다’(infallible)는 말과 ‘무류하다’는 말은 종종 서로 같은 뜻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뜻에는 차이가 있다.

- ‘무류하다’(inerrant)는 것은 기록한 것에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다.
- ‘절대 확실하다’(infallible)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 혹은 교리에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다.

“절대 확실하다는 것(infallibility)은 본문을 통상적으로 문법적으로 강해할 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즉 성경기록이 의도하는 주장으로 분명하게 한정된다.”⁽²⁾

다시 말해 절대 확실하다는 것은 시적 언어나 상징적 언어의 사용, 직유법, 과장법, 알레고리, 우화, 상징법 등을 사용한 것을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1) Boice J. M, Does Inerrancy Matter? Oakland, California: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pg 13

(2) Pinnock, C. H,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 Philadelphia, Pennsylvan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pg 13

대부분의 경우에 영감 받은 것은 권위가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어떤 내용은 영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욥기는 하나님, 욥, 사탄, 욥의 아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의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성경의 진술 중 어떤 내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거나 성경기록에 있는 다른 진술들과 정반대인 것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도 영감은 받았지만 권위가 있지는 않다.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혹은 무지에 의해 이처럼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III. 영감에 대한 이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 앞에서 정의한 바를 믿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계 내부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주의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력한 신학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A. 보수주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영감 이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 역동적 영감

영감에 대한 이 견해는 보통 ‘기계적 받아쓰기’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기계’에 불과했으며 단지 수동적 도구였다고 생각한다.

축자 영감, 총체적 영감, 무류 영감, 절대 확실한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는 비난을 자주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합류(合流) 영감의 신비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계시록 2장 1, 8, 12, 18절; 출애굽기 34장 27절 등은 명확하게 받아쓰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그럼에도 이런 유형의 구절들은 여전히 인간 기록자의 ‘스타일’을 담고 있다.

답변: 우리는 성경의 여러 책에서 스타일의 차이점이 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영감이 순전히 받아쓰기만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획일적인 스타일이 존재했을 것이다.

2. 개념적 영감

이것은 다른 말로 ‘사상 영감’(Thought Inspiration)으로 알려져 있다. 이

2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견해는 성경의 사상, 개념, 메시지만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침례교 신학자 스트롱(A. H. Strong)은 이와 같은 견해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성경의 다른 ‘역본들’을 사용할 근거를 쉽게 제공하고 있다. - “그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답변: 성경 자체가 축자 영감을 가르친다(고전2:13).

B. 근대주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영감 이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1. 부분 영감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영감 받았고 어떤 부분은 영감 받지 않았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겉표지와 겉표지 사이 어디에선가 영감 받은 성경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견해를 붙잡는 사람들도 어느 부분이 영감 받았고 어느 부분이 영감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은 영감 받은 것으로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논증과 증거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이 담긴 부분만을 영감 받은 것으로 믿는다. 이 경우 대개는 ‘이치에 맞는가?’가 그 기준이 된다.

이 이론과 비슷한 것으로는 ‘등급 영감’(Degree Inspiration)이 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 -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 다른 부분보다 - 예를 들자면 모세의 율법 - 더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본다.

답변: 성경은 총체적 영감을 가르치고 있다(딤후3:16). 이 이론은 매우 주관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권위를 창조해 낸다.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영감 받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따라서 (학자, 신학자 등)의 사람이 권위가 된다.

2. 은총 영감

다른 말로 ‘천재 영감’(Genius Inspiration)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성경 기록자들이 신앙심이 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최근의 다른 크리스천 ‘거물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령님에 의해 깊이 있고 특별한 종교적 통찰력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천로역정」과 같은 번연의 작품이 사도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과

같은 수준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오류가 들어가기 쉽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영감’을 셰익스피어, 마호메트, 공자 등과 같은 비크리스천 작가들의 경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답변: 이와 같은 영감이 가능했다면 왜 성경을 대신할 다른 책이 기록되지 않았는가(참조 - 계시록 22장 18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기록 자체가 영감의 대상이지 기록자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준다.

3. 자연 영감

이 이론은 ‘조명’ 혹은 ‘보편적 크리스천 영감’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의 주장자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모든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영감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영감 받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경기록은 영감 받은 사람들의 작품일 뿐이다.

답변: 이 같은 이론은 앞의 2번과 비슷하므로 같은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다. 조명, 열광, 열정, 성령 충만 등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영감이 아니다. 성경기록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를 기록한 것이다.

C.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영감 이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1. 비신화적 영감(Demythological Inspiration)

이 견해는 성경이 그 시대의 전설 스타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독자들이 할 일은 성경을 ‘비신화화 하는 것’ 즉 신화를 따로 벗겨내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볼트만은 일단 성경에서 이런 종교적 신화들을 벗겨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관한 진짜 메시지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객관적, 역사적, 명시적 계시를 붙잡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³⁾

이 이론의 한 가지 예가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그들은 창세기에서 처음 두 장은 순전히 신화이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진화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이 생기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즉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사실이지 아니다!

답변: 이렇게 되면 성경이 주관적으로 된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또 다시 사람이 권위가

(3) Geisler N. L. & W. E. From God To Us, 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81: pg 20

된다.

2. 사적 조우 영감

이것은 신정통주의의 덜 극단적인 견해이다. 이 견해는 성경은 불완전한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기록된 것을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개인적 방식으로 ‘관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한다.

(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에 의하면) 영감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감정을 최초로 번역한 것’이다. 틸리히(P. Tillich)는 “성경 기록자들의 영감은 계시를 보여 줄 가능성이 있는 사실들을 그들이 수용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창조적으로 반응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들은 성경 기록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일에 대한 기록자들의 반응이다. 따라서 우리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그 기록된 반응을 관통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동일한 만남에 참여할 수 있다.

실존주의 신학자 바르트(K. Barth, 1886-1968)는 성경이 숨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브루너(E. Brunner)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들 즉 단어들 안에서) 명시적이지 않고 언제나 (말씀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한다.”⁽⁴⁾

답변: 이와 같은 영감 이론에 기초한 신학은 감정적이며 신비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사람이 권위가 되게 한다. 이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롬1:21).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생기는 타당한 개념과 척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순전한 환상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직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⁵⁾

IV. 구약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 교리는 한두 군데 증거 본문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영감 교리는 기록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직접적인 진술이나 혹은 서술한 내용에서 입증된 직접적인 진술에 의해 성경기록의 전체 페이지에서 발견된다.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4) Ibid, pg 21

(5) Pinnock, C. H,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 Philadelphia, Pennsylvan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pg 8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A. 구약성경 기록자들은 대언자였다.

대언자는 그의 생업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 ‘대변자’였다. 신명기 18장 18-22절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대언은 참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만을 말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참조 - 출7:1-2; 민22:18; 왕상14:18; 겔3:17; 암3:8

구약성경의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모두 대언자였다. 이것은 그들이 기록한 책들의 특징을 보여 준다.

1. 모세 - 호세아 12장 13절; 신명기 34장 10절
2. 사무엘, 나단, 갓 - 역대기상 29장 29절
3. 다윗 - 사도행전 2장 30절
4. 솔로몬 - 열왕기상 11장 9절과 민수기 12장 6절
5. 다니엘 - 마태복음 24장 15절
6. 아히야, 잇도 - 역대기하 9장 29절

이 사람들과 대언적인 책들의 기록자들을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기록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B. 구약성경 기록자들은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을 인용했다.

1. 여호수아 - 모세의 율법을 인정했다(수1:8)
2. 에스라 - 예레미야서를 ‘주의 말씀’으로 언급했다(스1:1)
3. 에스라 - 학개와 스가라의 대언을 인지했다(스5:1)
4. 다니엘 - 예레미야서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단9:2, 11-13).

여기서는 사사기도 언급되고 있음에 유의하라.

5. 스가라 - ‘이전의 대언자들’(역사서들)을 언급했다(스7:12)

C. 구약성경의 책들은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여겼다.

1. 율법의 판들은 궤 속에 보관되었다(신10:2).
2. 모세의 책들은 낭독하도록 명령이 주어졌다(수1:8).
3. 사무엘의 저작들은 성막에 보관되었다(삼상10:25).
4. 이스라엘은 율법이 낭독될 때 일어섰다(느8:5)

3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D. 율법의 영감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 - 토라(Torah)

1. 출애굽기 20장 1절 -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출 32:16; 35:1 참조)
2. 레위기 1장 1절 -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레위기 8장 9절 - “주께서 명령하신”
4. 민수기 1장 1절 -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5. 민수기 2장 1절 -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6. 민수기 4장 1절 -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7. 신명기 1장 3절 -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신”

참조 : 신명기 4장 2절

참조 구절 - 삿3:4; 왕상8:53; 왕하14:6; 대하3:14; 35:6; 단9:12; 스6:18; 느13:1

E. 대언서들의 영감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 - 느비임(Nebhiim)

1. 전기 대언서

- a. 여호수아기 24장 26-27절; 열왕기상 16장 34절
- b. 사사기 1장 2절 “주께서 이르시되”
- c. 역대기상 29장 29절

2. 후기 대언서

‘주가 말하노라’나 이와 동등한 표현이 무려 3800번 이상 나타나고 있다. 사1:2, 10; 8:1; 45:1; 50:1; 렘1:6-9; 2:1-2; 10:1-2; 11:1; 겔1:3; 2:7 등 참조.

F. 성문서들의 영감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 - 케투빔(Kethubhim)

1. 다윗 - 사무엘기하 23장 2절
2. 솔로몬 - 열왕기상 3장 9-10절 (잠언에서 성취됨); 전도서 12장 10절
3. 욥 - 욥기 42장 7절

G. 구약성경 영감에 대한 신약성경의 증언

아마도 구약성경 영감에 대한 가장 큰 증언은 신약성경에서 발견될 것이다. 구약성경을 인용한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고 있으며, 구약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수용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332번 직접 인용하고 언급했으며 이 같은 인용 외에도

참조 구절, 암시 등을 모두 합치면 1000번 이상이나 구약성경이 사용되었다. 이 같은 증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약성경 전체를 언급함

- a.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사도행전 17장 11절, 히브리서 4장 12절 등은 주로 구약성경 전체를 언급하고 있다. 참조 - 마가복음 7장 13절
 로마서 15장 4절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즉 구약성경 전체]…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 b. ‘성경기록’(52번), ‘기록된바’(133번), ‘성취하려 함이더라’(30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4번)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 구약성경 안에 인정받은 권위가 있음을 가리킨다.

2. 구약성경의 특정 부분을 언급함

- a. 율법 - 마5:17-18; 7:12; 12:5; 행13:39; 24:14; 고전14:21; 고후3:15; 갈3:10; 히10:28
- b. 대언서 - 마26:56; 눅1:70; 18:31; 요1:45; 행3:21; 7:42; 28:25; 히 10:15-17(렘31:33-34); 롬1:2; 벧전1:11
- c. 성문서 - 눅24:44; 행1:16; 4:25; 마22:43-44.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문맥은 시편 82편 6절을 언급하고 있다.

3. 구약성경의 특정 책을 언급함

(우리가 가진 구약성경 39권과 동일한 책인) 히브리어 구약성경 24권 중에서 20권이 신약성경에서 권위 있게 인용되고 있다.

나머지 4권에(사사기-룻기, 역대기, 에스더, 솔로몬의 아가) 대해서도 2권에 있는 사건(히브리서 11장 32절,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다른 2권에 대한 암시(요한복음 5장 1절)가 신약성경에서 발견되고 있다.

H. 구약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셨다. 누가복음 24장 25, 27, 44-45절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예수님은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다 -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3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2. 예수님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확인해 주셨다 - 마태복음 19장 4-6절
3. 예수님은 창세기의 홍수 기사를 수용하셨다 - 마태복음 24장 37-39절
4.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믿으셨다 - 누가복음 17장 28-29절
5.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확증해 주셨다 - 마태복음 12장 40-41절
6. 예수님은 종종 이사야를 인용하셨다 - 마태복음 13장 14-15절
7. 예수님은 다니엘을 대언자로 인정하셨다 - 마태복음 24장 15절
8.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신적 영감과 절대 확실함을 가르치고 믿으셨다 - 마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리스도와 기독교는 성경과 함께 서거나 무너진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과 및 성경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다.

앞서 언급한 1에서 7번까지의 내용은 꽤 오랫동안 '고등 비평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왔다. [13장 참조].

참조 구절 - 마6:29; 8:4; 12:3-4, 42; 19:5-7; 22:31-32; 막2:24-28; 7:10; 12:19, 26; 눅4:25-27; 11:51; 20:37; 요3:14; 6:32, 49.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적 지상 사역을 '기록된바'로 시작하셨고(마4:4) '기록된바'로 끝내셨다(눅24:46).

V. 신약성경의 영감

신약성경의 영감은 세 가지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다.

A. 그리스도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성경을 미리 인증하셨다.

참조 - 고린도전서 2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1절.

B. 신약성경의 내적 증언

1. 베드로후서 3장 15-16절은 바울의 기록들을 성경기록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누가복음 10장 7절을 성경기록으로 인용하고 있다.
3. 에베소서 3장 1-5절.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a. 계시 - 3, 5절 -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셨나니”, “이제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같이” 유다서 17절 참조.
- b. 영감 - 3절 - “내가…적은 것과 같으니라.”
- c. 보존 - 4절 - “너희가 읽을 때에”

C. 신약성경의 주장

- 1. 누가복음 1장 1-4절 “완전히 이해한”
- 2. 로마서 16장 26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20절; 3장 3, 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 3.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3절
- 4. 계시록 1장 1절

VI. 영감의 증거

A. 내적 증거들

‘내적 증거’는 성경 책의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 내부에서 나오는 증거를 의미한다.

내적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성경은 창조, 사탄의 말, 사람들의 마음속,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
- 2. 놀랄만한 통일성
 성경은 (40세대 동안) 1600년이라는 시간에 세 대륙에 걸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록자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단일한 교리와 구조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한 가지 주제가 있고 그 안에서 전혀 충돌이 없다!
- 3. 초자연적인 교리
 성경 교리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본성과 상충된다. 성경이 단지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3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a. 하나님에 대한 교리

무한하시고 최고 통치자시며 삼위일체이시고 거룩하시며 사랑 많은 신 인격체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꾸며낸 가지각색의 신들을 비교해 보라. 성경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람의 유한한 지성을 초월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창안해 낼 수 없다.

b. 사람에 대한 교리

천하고 비열하고 죄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성경이 사람을 묘사하는 것은 결코 자연인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심지어 다윗과 같은 '영웅'의 훌륭한 죄도 언급되어 있다.

c. 죄에 대한 교리

자연인은 죄를 축소하고 세상을 드높이지만 성경은 정반대다. 자연인이 지옥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기록하려 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d. 구원에 대한 교리

사람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추구한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라면 그 안에 행위를 통한 구원 계획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다.

4. 예언의 성취

성경은 메시아, 유대인, 이방인, 도시들, 세상 사건들을 다루는 수많은 예언들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이런 사실에 있어서 성경은 유일무이하다. (참고로 코란은 예언적인 내용이 극히 적다.)

성경의 3분의 2 이상은 기록될 당시에 예언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에서 대다수의 예언이 이미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영감의 외적 증거이다.

메시아 예언만 해도 놀랄 만하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수난, 부활, 승천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 24시간 동안에만 약 21가지의 구체적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발생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다.

B. 외적 증거들

'외적 증거'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증명하고 있는, 성경 밖에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많은 증거 중에서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 수 있다.

1.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신빙성은 성경의 진술의 진실함이나 성경의 무류(無謬)와 관계가 있다 - 시편 119편 160절.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은 '성경이 진리라'는 '첫째 진리'로부터 교리에 접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전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므로 성경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질문은 '성경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는가?'이다.
- 테스트는 '성경의 진술을 알려진 사실과 비교하는 것'이다.

a. 과학적 신뢰성

성경에 과학적 내용이 가득하지만 성경 자체가 과학에 대한 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확정된 과학적 지식과 언제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 i. 성경은 전혀 모순 없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 있다.
 - 인간 해부학(이사야서 59장 1-13절).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언급된 것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 식물학(마태복음 6장 28절)
 - 생물학(마태복음 6장 26절)
 - 지리학(이사야서 40장 22절은 지구가 구형임을 보여 준다. 누가복음 17장 34-36절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밤에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음식 준비를 하며, 어떤 사람은 낮에 들에서 일하는 모습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 줌으로 이러한 사실을 예시하고 있다!)
- ii. 성경은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오래 전부터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드러내었다.
 - 피의 중요성 - 레위기 17장 11절
 -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 - 욥기 26장 7절
 - 보이지 않는 별의 개수 - 창세기 22장 17절; 신명기 1장 10절

3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짐승의 번식 방법 - 창세기 1장 24-25절
- 다른 행성들의 존재 - 히브리서 1장 2절
- 공기가 무게를 지닌다는 사실 - 욥기 28장 25절
- 해류의 존재 - 시편 8편 8절; 이사야서 40장 16절

주의: 성경은 과학적 경험주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다. 사실 성경은 '땅의 사망'(사11:12), '땅의 기둥들'(삼상2:8),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시50:1)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주 공격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성경은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쉽게 관찰한 것에 의거하여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의 일부분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b. 고고학적 신뢰성

아마도 성경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가장 큰 외적 증거는 고고학자의 삽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고고학은 성경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i. 지형학적 신뢰성

지형학은 땅의 배치와 관계 있다. 성경의 장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968년 시리아 북부에서 발견된 에블라 서판은 주전 2300년경에 존재한 어떤 왕국과 관련이 있다. 서판 하나에는 다섯 개의 도시가 실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창세기 14장에 그것들이 나열된 순서대로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때까지 고등 비평가들은 이 도시들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다.

ii. 지리학적 신뢰성

성지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성경에서 사막이 있다고 한 그곳에서 사막을, 성경에서 산이 있다고 한 그곳에서 산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성경 예언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게 될) 예스르엘 평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곳은 지중해에서 요르단 계곡까지 가로지르는 산이 없어 전략적 요충지를 이루는 평야이

다.

iii. 인종학적 신뢰성

창세기 10장에 있는 민족들의 가계도와 성경에 언급된 다방면의 이주는 모두 확인되었다. 어떤 민족들의 기원, 풍습, 왕, 노예 생활, 승리 등은 모두 고고학에 의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히브리인들의 계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했음이 입증되었다. 우르의 발굴로 인해 이곳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표현된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도시였음이 밝혀졌다.

iv. 연대기의 신뢰성

동시대 사회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의 사건들, 사건들의 순서, 관련된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부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자주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발견을 통해서 로마는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으며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절차로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에 약술되어 있듯이) 백성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어떤 비명(碑銘)에는 퀴리니우스(Quirinius) - 성경의 구레노 - 가 주전 7년경 시리아의 총독이었다고 밝혀져 있다(눅2:1-3).

v. 역사적 신뢰성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물론 인물, 장소, 민족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비명(碑銘)과 기념물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벽이 바깥쪽에서 붕괴된 것, 이집트에 히브리인들이 거주한 것, 바빌론에 벨사살이 존재한 것 등은 비평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실증한 짝 놀랄 만한 발견의 일부이다.

2. 성경으로 인해 변화가 된 사례들

남의 도움 없이 성경 읽기만을 통해서도 남자와 여자들은 거듭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후5:17). 술주정뱅이가 맑은 정신을 갖게 되며 창녀가 순결하게 되고 죄로 파멸된 인생이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 참으로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달리 민족들의 진로를 변화시켰다.

38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3. 무진장한 성경의 보물

다른 책과는 달리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매주 수천 편의 설교가 이뤄지고 수십 권의 책이 인쇄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선포하고 있다.

시편 19편 10절, 119편 162절 참조.

4. 성경의 명예로운 약속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이 약속한 바를 받는다(수 1:8).

5.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생각에 대한 성경의 신비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해할 수 있다.

6. 번역에 있어서 성경의 유일무이한 적응성

사람이 쓴 많은 책과는 달리 성경은 다른 언어로 올바르게 번역될 때에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바르게 번역된 성경의 메시지는 여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7. 성경의 기준 - 거룩하면서도 실행할 수 있다.

십계명은 한때 영국과 미국 법률의 근간이 되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그렇다.)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려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 통치 시절에는 유효하게 실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650개 이상의 의회 법안이 폐지되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형제는 한때 폐지되기도 했지만 다시 부활하여 많은 나라의 법령집에 들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복습 문제

1.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인용하십시오.
2.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하십시오.
3. 영감의 두 가지 측면(인간적/신적)은 무엇인가?
4.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움직이시는’의 의미는 무엇인가?
5.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영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6. 영감을 정의하십시오.
7. ‘합류’ 영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8. ‘축자’ 영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9. ‘총체적’ 영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0. ‘무류’ 영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 성경과 관련해서 ‘절대 확실한’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2. 영감 문제에 대해서 근대주의자는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13. 대언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14. 구약성경 대언서들의 기록자들은 모두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15. 다니엘은 구약성경에서 어떤 책을 던지시 언급했는가?
16. 구약성경에서 “주가 말하노라”라는 표현은 몇 번이나 나타나는가?
17. 다윗은 자신의 기록물의 영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8.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9. 그리스도께서 확인하신 (근대주의자들에 의한) 구약성경에 대한 불신앙의 세 가지 영역을 열거하십시오.
20. 사탄이 그토록 맹렬하게 성경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21.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신약성경을 미리 입증하셨는가?
22. ‘영감의 내적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3. 영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적 증거는 무엇인가?

24. '성경의 통일성'이 영감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5.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외적 증거는 무엇인가?
26.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은 영감에 대한 어떤 견해 때문에 자주 비난을 받는가?
27. 역동적 영감 이론은 무엇인가?
28. 어떤 사실이 이 이론을 반박하는가?
29. 개념적 영감 이론은 무엇인가?
30. 이 이론을 반박해 보시오.
31. 영감에 대한 신정통주의의 (일반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32. 우리는 성경의 신빙성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33. 성경은 과학적 조명하에 성경 자체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34. 고고학과 고대 기록문서는 어떤 영역에서 성경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증언하는가?
35. 영감은 '영감 받은 사람'에게 있는가, '영감 받은 기록물'에 있는가?
36. 하나님, 사탄, 사람들의 기록된 말들에 대한 영감의 효과는 무엇인가? 역사와 예언과 관련해서 답하십시오.

연구 과제 1

다음 주제 중 네 개에 대해서 150-200 단어로 짧게 논술하시오.

1.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성경은 종교적이고 윤리적 문제를 언급하는 진술에서만 무류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면서 진화론을 붙잡을 수 있는가?” (여기서 진화론을 반박하는 논설은 필요하지 않다.)
4. 성경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에 고고학이 기여한 바를 예로 드시오.
5.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생명 없는 녹음기’가 아니었음을 예증하시오.
6.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강조하는 것에 근거해서 ‘개념적 영감’에 대해 답변하시오.
7. 바울 서신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음을 입증하시오.

(답변할 때에 적절한 성경 구절을 써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바란다.)

제 4 장

전 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영감이라는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글자 형태로 기록되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형태로 기록하는 수단이 필요했다.

이번 강의는 그러한 수단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다.

언어 - “단어나 중요한 뜻을 가진 소리로 사상을 표현하는 것” - 웹스터

기록 - “문자와 단어로 표현하는 사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글자나 문자를 쓰는 행위나 기술” - 웹스터

필기재료 - 용이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인 물건

I. 언어의 발달

A. 언어는 초자연적으로 사람에게 부여되었다

창세기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9-10절에 의하면 사람은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장 20절은 첫 번째 사람이 매우 총명하였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가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선사시대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원숭이인 돌대리 같은 존재가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으르렁거렸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적 개념과는 상반된다.

그때 주어진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그 언어가 바벨탑까지 이어졌음은 분명하다(창11:1).

B. 땅의 많은 언어는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창세기 11장 9절은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이유를 보여 준다. 지금 세상에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만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주전 2250년경에 발생했다.

44 킨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C. 언어들 은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다

창세기 10장에는 바벨탑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 인류가 민족별로 나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물리적 구분은 물론 인종적 구분도 가리킨다.)

그때 이후로 민족들의 언어들 이 사투리, 지리, 외교, 교역, 이주, 시간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해 온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 언어들 이 기본적으로 창세기 10장 25절에 있는 구분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창10:5, 20, 31 참조).

D. 구약시대의 언어들

이 시대의 언어들 은 셈의 후손인 셈족 계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네 개의 어족으로 분류된다.

1. 아카드어 - 바빌론어/아시리아어

아카드어는 고대 수메르 사람들의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수메르 사람들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비(非)셈족 사람들이로서 바빌론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바빌로니아를 차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

수메르 사람들은 그들이 남겨 놓은 수천 개의 췌기문자 점토판 때문에 잘 알려졌다.

영거에 의하면 수메르는 ‘시날’(창11:2)로도 알려졌다. 따라서 수메르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 이전의 ‘셋 종족’(Sethite)이라고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 있다.⁽²⁾

2. 아람어 - 시리아어

아람어는 셈의 아들인 아람(창10:22)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었으며 시리아의 언어로 불렸다(왕하18:26; 사36:11; 단2:4; 예4:7 참조).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아람어는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전에 거하던 메소포타미아 즉 바닷아람의 언어였다. 아람어의 초기 형태는 창세기 31장 47절에서 볼 수 있다.

아람어는 꽤 광범위하게 퍼졌고 영구적인 언어가 되었다. 그것은 주전 6세기에 중동의 주요한 언어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막5:41; 7:34; 15:34)와 사도 시대(롬8:15의 ‘아바’, 고전16:22의 ‘아나테마 마라나타’ 등)에는 팔레스타인

(1)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0: pg. 153

(2) 참조 : Unger, M. F. Unger's Bible Dictionary, Chicago: Moody Press 1969: pg. 1017

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페르시아 포로 시절에 아람어를 배웠는데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들의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물론 포로기 이후의 모든 대언서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리스가 주전 330경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아람어는 쇠퇴했지만 동방 혹은 안디옥 기독교의 언어로서 맥을 이어나갔다. 초기 성경 번역본 중 일부인 구 시리아 성경, 타티안의 디아테싸론 그리고 페시타 역본은 시리아어로 기록되었다.

그 이후에 아람어는 주후 7세기경에 아랍이 중동을 정복하면서 쇠퇴했다.

3. 히브리어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가나안의 언어’(사19:18; 습3:9), ‘유대인의 언어’(느 13:24)로 언급되고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불린다(눅23:38; 계 9:11; 16:16 등 참조).

‘히브리’(Hebrew)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호칭(창14:13)에서 나오며 ‘넘어오다’, ‘저쪽 편에서’란 의미가 있다(수24:14).

역사적 비교 언어학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500년 동안 아카드어, 아람어, 가나안어, 이집트어의 영향을 받아온 히브리어가 이집트 탈출 시대에 최고로 발달했다고 생각한다.

히브리어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언어로서 묘사가 생생하고 그림 같은 스타일이며 은유와 직유가 풍부하다. “히브리어는 생각과 이성에 말하기 보다는 마음과 감성에 말한다. 히브리어는 전달되는 메시지를 단순히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느끼게 하는 그런 언어다.”⁽³⁾

히브리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s) 즉 하나님에게 사람의 형상과 기질을 부여하는 것과 신인동감론(anthropopathisms) 즉 하나님에게 사람의 감정을 부여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자체 방언을 가지고 있다(삿12:6; 막 14:70).

4. 아랍어

아랍어는 오늘날 셈족 언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로 현재 세계 십대 언어에 속해 있다. 아랍어는 코란과 이슬람의 언어이며 동시에

(3) Geisler N. L & Nix W. E. From God To Us. 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81: pg 129

4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아랍 민족들의 언어이다.

E. 신약시대의 언어

신약성경의 언어들은 아리아어족 혹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한다. 이것은 야벳(이방인) 계열이며 언어적 이동이 동쪽(인도와 이란)으로 그리고 서쪽(유럽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1. 인도유럽어족의 구분

언어학자들은 종종 이 어족 계열을 열 개의 계파로 나눈다.

- a. 인도어계 - 산스크리트
- b. 이란어계
- c. 슬라브어계 -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 d. 발트어계 -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 e. 튜턴어계 - 독일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아이슬란드어
- f. 켈트어계 - 게일어, 웨일스어, 브르타뉴어
- g. 이탈리아어계 - 라틴어, 그리고 로망스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포르투갈어 등
- h. 일리리아어계 - 알바니아어
- i. 트라코-프리지아어계 - 아르메니아어
- j. 그리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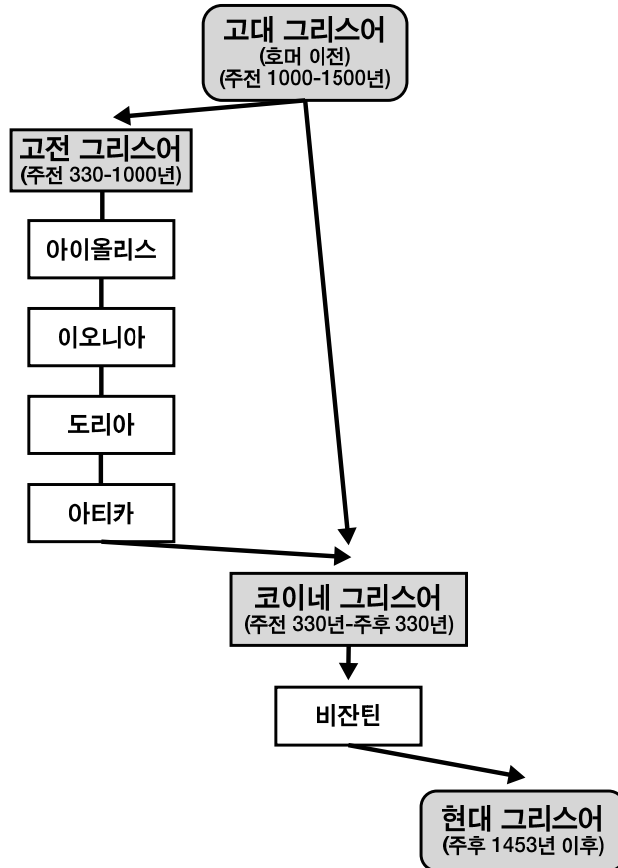
2. 그리스어의 발달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 이후에 그리스어는 지중해 지역의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 라틴어는 행정과 군사적 언어였으며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이고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언어였다. 아람어는 지역 시장에서 쓰거나 쓰는 언어였지만 그리스어는 국제적인 언어였다(행21:37; 22:2).

그리스어는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다음의 도표에서 보듯이 대개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3. 코이네 그리스어

‘코이네’(koine)는 ‘평범한’을 의미한다. 코이네는 알렉산더의 정복부터 비잔틴이 로마제국 지배를 시작하는 기간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 당대의 그리스어였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어는 Centurion, Tribune, legion, Praetorium 등과 같은 라틴어와 “and it came to pass…” 같은 히브리어 표현의 영향을 받았다.

히브리어와는 달리 코이네는 지적인 언어다. “코이네는 마음보다는 생각의 언어이다. 그리스어는 히브리어에는 없는 기술적으로 정밀한 묘사법을 지니고 있다.”⁽⁴⁾

그리스어는 보편적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언어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충만한 때가 이르매…”(갈4:4). 이로써 그리스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고 신약성경의 기록이 가능하였다.

(4) Ibid: pg 130

F. 영어의 발달

영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다. 이것은 중국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외교, 교역, 여행, 과학의 언어로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사분의 일 이상이 영어를 사용한다.

언어로서 영어는 어휘가 풍부하고 다른 언어들보다 표현력과 활용력이 더 많다. 영어도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급을 위한 수단으로 발탁되었다.

영어는 발달된 언어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 브리튼의 초창기 거주민들

브리튼 섬의 초창기 거주민들은 켈트족인데 이들은 고멜로 이어지는 아벳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브리튼족(Bretons)이라 불렀으며 고대 프랑스의 골 사람들과 브르타뉴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켈트족은 바벨탑에서 직접 사탄의 드루이드교를 수용하여 그것을 준수하는 이교도들이었다.

영국은 주전 54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군대의 침공을 받았고 그때부터 영국에는 주후 410년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통치 시대가 도래했다. 켈트족은 매우 이른 시기에 복음화 되었으며 주후 1세기 초반에 순수한 복음이 브리튼에 전달되었다.

2. 앵글로색슨족의 침공

주후 410년 로마 사람들은 본국에서 망해가고 있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영국을 떠났으며 이 일은 브리타니아를 무방비 상태로 남겨 놓았다. 그래서 이 지역은 픽트족(Picts)과 북쪽의 스코트족(Scots) 그리고 남동 해안을 따라서 색슨족(Saxons)의 침공을 받았다. 그 후로 150년 이상 주트족(Jutes, 주트랜드/덴마크), 색슨족, 앵글족의 파도가 연속해서 몰려왔는데 이들은 게르만 민족이었다. 수가 격감한 켈트의 브리튼족은 웨일스 산간 지대에 고립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가 종교개혁 시대까지 융성했다.

조만간에 이들 게르만 침략자들은 서로 융화되어 앵글로색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앵글로족의 치세는 결국 ‘앵글로랜드’ 혹은 ‘영국’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족의 언어이며 따라서 게르만어계 혹은 튜턴어계에 속한다.

3. 언어로서 영어의 출현

영어는 세 단계로 나뉘는 다수의 역사적인 영향 속에서 발달했다.

- a. 고대 영어
 - i. 원시 고대 영어: 주후 300-500년
 - ii. 초기 고대 영어: 주후 500-700년(켈트어와 라틴어의 영향을 받음)
 - iii. 고대 영어: 주후 700-1000년(북유럽어의 영향을 받음)
 - iv. 후기 고대 영어: 주후 1000-1150년(노르망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음)
- b. 중세 영어
 - i. 초기 중세 영어: 주후 1150-1300년
 - ii. 중세 영어: 주후 1300-1475년
- c. 근대 영어
 - i. 초기 근대 영어: 주후 1475-1650년(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차용함)
 - ii. 후기 근대 영어: 주후 1650-1800년(영어가 승승장구함)
 - iii. 현대 영어: 1800-⁽⁵⁾

II. 기록의 발달

A. 기록 언어의 기본 형태

기록은 언어와 더불어 발달했으며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1. 그림 문자 기록

이것은 단어나 메시지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 표지판은 현대의 그림 문자다.

2. 표의문자 기록

이것은 관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 그림은 따뜻함, 빛, 신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중국 문자가 이러한 기록의 실례다.

3. 표음문자 기록

(5)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Woolf, H. B. Editor in Chief. Springfield: Merriam Company, 1974: pg. 30

5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이것은 소리를 그림이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음문자와 더불어 우리는 알파벳을 써서 말하기 시작한다.

a. 단어 표음문자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단어를 표현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천 개의 그림으로 된 알파벳이 필요하다.

b. 음절 표음문자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음절을 표현한다. 여기에는 약 500개의 그림이나 상징으로 된 알파벳이 필요하다.

c. 글자 표음문자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글자를 표현한다. 여기에는 약 30개의 상징으로 된 알파벳이 필요하다.

B. 알파벳 기록의 발달

1. 수메르의 썬기문자(Cunei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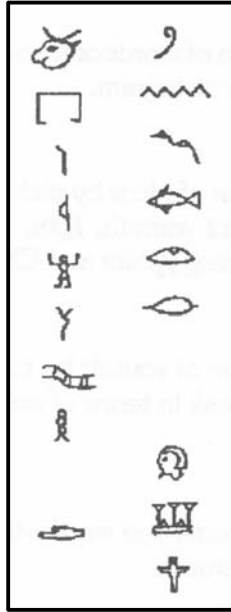
고대 시대에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썬기문자 기록 양식을 560개의 기호로 발전시키고 각각의 기호가 하나의 음절이나 단어나 관념을 표현했다. 이어서 아시리아, 바빌론, 헷(히타이트), 메테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기록 양식을 채택했으며 주전 700년경에는 상징들의 개수가 39개로 감소했다.



〈아시리아의 썬기 문자〉

2. 이집트 문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대 상형문자로부터 음절을 기록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 문자는 주전 800년경 대중적인 (단순화된 속기 형태) 문자로 발전하였다. 이 문자는 지금도 콥트어 형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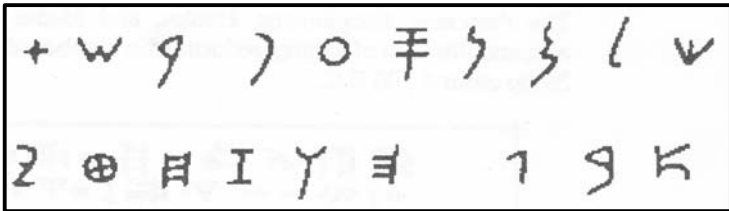


〈이집트의 상형문자〉

3. 페니키아 알파벳

고대 페니키아(오늘날의 레바논)의 해양 무역상들은 근대적 개념의 알파벳을 세상에 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알파벳이 이집트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페니키아의 알파벳은 적어도 주전 1800년을 지나서 발달했으며 이것은 또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페니키아 알파벳은 22자로 구성되어 있다.



〈페니키아의 기록물〉

C. 히브리어 문자의 발달

히브리어 문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뾰족한 형태의 모양이 있는 ‘페니키아’ 스타일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 현대의 ‘정사각형’ 이람어 스타일이다. 페니키아 스타일은 이스라엘에 왕들이 살던 시대의 페니키아,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의 문자와 관련이 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의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여기에는 모음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날에는 ‘모음 부호’가 사용되고 있다.

페니키아 문자를 이용한 고대 히브리어 기록들의 많은 실례가 세상에 드러났다.

1. 게제르 달력(Gezer Calender)

이것은 농사와 계절에 관한 정보가 새겨진 돌이며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시대의 것으로 추산된다(주전 1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됨).



〈게제르 달력〉

2. 실로암 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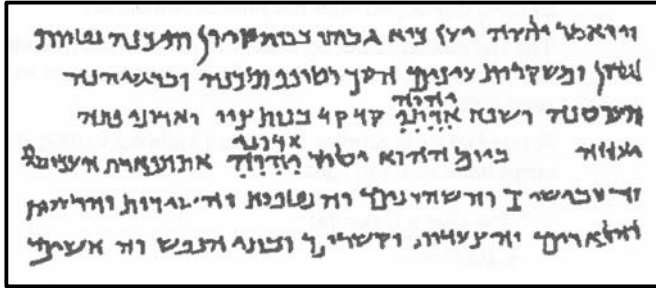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수로의 벽에 히스기야의 일꾼들이 새긴 비문(碑文)이다(주전 7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됨).

3. 라기스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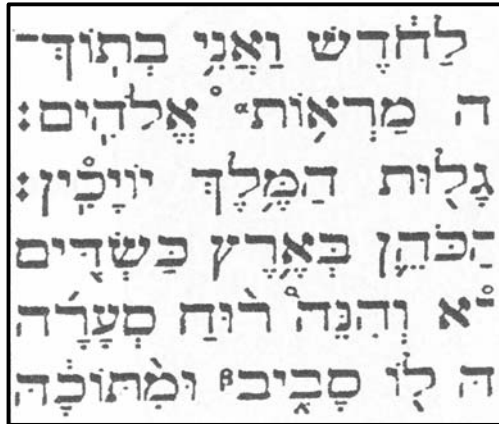
이것은 바빌론이 포위했을 때 라기스 시에 있던 수비대의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서 오스트라카라는 도기(陶器)에서 발견되었다(주전 6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됨).

4. 사해 두루마리

성경기록의 일부는 페니키아 문자로 기록되었고 대부분은 정사각형 문자로 기록되었다(주전 3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됨).



〈사해 두루마리에서 나온 히브리 기록물 샘플〉



〈마소라 본문에서 나온 정사각형 히브리어 기록물〉

D. 그리스어 알파벳의 발달

그리스 사람들은 적어도 주전 1000년에 알파벳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알파벳을 페니키아 사람들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알파벳’이란 말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처음 두 글자 즉 ‘알파’와 ‘베타’에서 만들어졌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 두 글자가 ‘알레프’와 ‘베트’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마도 이것은 페니키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

5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일정한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현대 그리스어의 알파벳 24자는 주전 400년경에 형성되었다.



〈그리스어 영설 대문자 기록물〉

E. 영어 알파벳의 발달

영어 알파벳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라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서체를 에트루리아 사람들(Etruscans)로부터 받았는데 이들은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서 정착한 그리스 이주민들이다.

F. 기록의 시대

고등 비평가들은 알파벳으로 기록한 것이 후대에 이루어졌다는 추측 하에서 성경을 공격한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방법이 모세 당시에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주전 1300년경에 사람들이 펜과 잉크를 사용해서 필기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삿5:14).

이후에 고고학자들은 고등 비평가들의 공격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혀 내었다. 사람이 처음부터 말할 수 있었고 처음부터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1. 수메르의 췌기문자

문자 그대로 수천 개의 구워진 점토판들이 발굴되었는데 이것들의 연대는 주전 3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르 사람들의 ‘홍수 설화’는 주전 2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같이 알파벳 형태가 아니며 귀찮고 쓰기 불편하며 복잡했던 바빌론의 췌기문자는 세상을 정복했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까지 이르러 상업과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가 되었고 3000년 이상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

력을 끼쳤다.”⁽⁶⁾

2. 이집트의 상형문자(Hieroglyphics)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주전 3000년경의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 함무라비 법전(주전 2000년경)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 왕(아브라벨 - 창세기 14장1절?)이 석판에 썬기문자로 기록한 300개 정도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500년 앞서 기록된 법률이다.

다량의 고고학적 증거들은 비평가들의 공격이 잘못임을 밝혀냈다. 아브라함은 책이 존재하던 세상에서 살았다. 예를 들어 1936년 마리(Mari)에서 발견된 22,000개의 점토판은 아브라함 시대와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그의 여정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III.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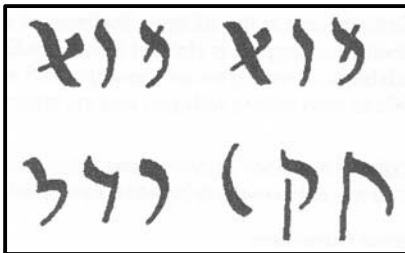
A.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다음 구절들은 예외적으로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

다니엘서 2장 4절-7장 28절

에스라 4장 8절-6장 12절, 7장 12-26절



〈주전 6세기경의 아람어 기록물〉

B.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6) Miller, Op. Cit pg. 154

5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앞서 언급했듯이 신약성경에는 라틴어의 영향과 아람어의 영향이 있다.

IV. 필기도구와 기구

필기하는 데 많은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우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A. 점토판과 철필

췌기문자는 이런 매체 위에 기록되었다. 글자나 그림은 보통 가로 15cm, 세로 6.5cm 크기의 부드러운 점토판에 눌러서 새긴 다음에 불로 구웠다(겔4:1 참조).

B. 돌과 정

기념물, 기둥, 벽, 오벨리스크 등은 종종 이 방법으로 새겼다.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로제타석, 모압 사람들의 돌은 이것에 속하는 예들이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은 정을 언급하고 있다(출24:12; 32:15-16; 신27:2-3; 수 8:31-32 참조).

C. 목재와 끝

에스겔서 37장 15-16절 참조

D. 오스트라카와 펜

오스트라카는 깨진 채 버려진 질그릇 조각으로서 사람들은 여기에 값싸게 무언가를 기록하였다.

E. 파피루스와 펜

파피루스는 고대에 가장 중요한 필기용 재질 중 하나이며 종이의 선조라 할 수 있다(종이라는 말도 파피루스에서 파생했다). 이것은 대략 주전 2100년부터 사용되었다.

파피루스는 파피루스 갈대(사18:2의 bulrush) 줄기의 속으로 만들며 제조 시 재료를 겹겹이 쌓고 누르고 붙여서 박판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파피루스는 값싸고 가벼워서 운반하기 좋지만 매우 약하다. 그래서 기록할 때 쉽게 손상될 수도 있고 습기에 약하며 또 바짝 마르면 쉽게 부서진다. 이것은 이집트 기후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해서 대부분의 고대 파피루스 문서는 이집트에서 발견되고 있다.

파피루스는 주후 1000년경에 종이로 대체될 때까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F. 파치먼트와 잉크

파치먼트는 특별히 준비된 가죽이다. 사람들은 먼저 짐승의 가죽을 무두질한 다음 양면을 굽어서 털과 살점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당겨 늘여서 말리고는 속돌을 사용해서 매끄럽게 문질렀다.

파치먼트는 내구성이 좋다는 이유로 사용되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치먼트는 염소와 양 가죽으로 만든 필기용 재질을 말한다. 한편 벨럼(vellum)은 송아지나 영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잉크는 탄소(그을음)와 고무로 만들었고 잉크통에 보관했다(겔9:2, 3, 11). 펜은 갈대로 만들었으며 이것을 뽀족하게 깎으려면 펜 칼이 필요했다(렘36:23). 펜과 잉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다(렘8:8; 요이12: 요삼 13).

G. 종이

종이는 중국 사람들이 발명했고(주전 200년)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주후 900년 경에 기독교계에 소개되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교회는 종이를 소홀히 여겼으며 주후 1100년 이후가 돼서야 비로소 종이는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V. 성경기록과 사본에 관련된 용어들

본문 비평학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용어들과 더불어 번창해 왔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에 익숙해져야 한다.

A. 사본(manuscript)

‘Manu’ = 손으로, ‘script’ = 기록. 따라서 이것은 간단하게 손으로 쓴 기록이나 손으로 쓴 문서를 말한다.

B. 두루마리(scroll, roll)

이것은 파치먼트(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이어서 둘둘 감아놓은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개 막대기 두 개를 사용해서 두루마리를 읽을 때 감거나 편다. 구약성경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두루마리는 높이가 45-68cm, 길이는 30m이다.

C. 코덱스(codex)

이것은 간단하게 책을 말하며 이것의 복수형은 ‘codices’이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성경기록을 신속하게 책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그것이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D. 성구집(Lectionaries)

이것은 자체가 성경 사본은 아니며 회중에게 읽어 줄 목적으로 성경기록의 교훈들을 정리해서 수집해 놓은 것이다.

1. 시낙사리아(Synaxaria)

이것은 읽어야 할 성경 구절 본문을 미리 정해 놓은 성구집이다.

2. 성인축일표(Menologia)

이것은 종교력에서 특별한 날을 위해 읽어야 할 성경 구절 본문을 미리 정해 놓은 성구집이다.

E. 영설(Uncial)

이것은 대문자를 뜻하며 다른 용어로는 ‘majuscule’이라고 한다.

F. 필기체(Cursive)

이것은 소문자를 뜻하며 다른 용어로는 ‘minuscule’이라고 한다.

G.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이 단어는 ‘고쳐 쓰다’를 의미한다. 팔림프세스트 사본은 본래의 기록이 지워진 사본을 말한다. 과거에 파치먼트는 매우 비쌌다.

H. 레스크립투스(Rescriptus)

이것은 사실 위의 것과 동일하다. 레스크립투스는 ‘다시 쓰다’를 의미한다. ‘에프라임 레스크립투스’ 사본은 지워진 성경기록 위에 시리아 교부 에프라임의 설교가 다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 과학적 방법으로 본래의 기록을 판독하게 된다.

I. 비평 장치에서 사본의 명칭(부록 1 참조)

본문 비평가들은 성경 사본들과 단편들을 명명하고 식별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안해 냈다.

1. 영설 코덱스

대문자, 일부 그리스어 글자, 히브리어 ‘알레프’, 그리고 0으로 시작하는 숫자로 표기함

2. 소문자 사본

숫자로 표기함 (1-1709)

3. 파피루스 두루마리

‘p’자 다음에 위 첨자의 숫자로 표기함

4. 성구집

‘l’자 다음에 숫자로 표기함

J. 본문 비평가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다음 용어들을 제시한다. 이것들은 성경 사본과 관련한 토의에서 자주 사용된다.

1. Gloss -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는 주석
2. Colophon - 장이나 책 끝에 배치한 각주
3. Scholia - 본문과 나란히 배치한 주석
4. Catenae - 주석집
5. Onomastica - 고유 명사의 어원을 설명하는 주석
6. Nuemes - 노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음악적 표기
7. Titloi - 제목
8. Kephalia - 장 구분
9. Commata - 본래의 콤마
10. Cola - ‘짧은 선’을 의미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대개 짧은 운율로 인쇄되었다.)
11. Lacunae - 사본에서 본문이 없어진 공백

VI. 사본의 연대 결정

어떤 사본의 연대를 결정하는 일은 다소 어렵고 부정확하다. 이따금 사본은 특별히 최근 것은 후에 연대를 결정하게 된다. 사본의 연대를 암시하는 많은 단서들이 있다.

A. 사본 원료

1. 파피루스 두루마리 - 1세기
2. 파피루스 코덱스 - 2-4세기
3. 벨럼과 파치먼트 - 4-8세기

6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4. 플렉센 종이 - 8-13세기
5. 리넨 종이 - 13세기 이후

B. 문자 스타일

1. 영설 - 10세기까지
2. 압축된 영설 - 9세기부터
3. 소문자 - 6세기부터

C. 구두법

1. 절(節) 여백 - 주후 300년부터
2. 단어 여백 - 주후 5세기부터
3. 점 - 주후 5세기부터 (점은 구절 끊기를 가리킨다.)
4. 콤마 - 주후 420년의 제롬부터
5. 콜론과 세미콜론 - 주후 7세기부터
6. 악센트와 숨쉬기 - 주후 8세기부터
7. 인용부호 - 주후 10세기부터

D. 본문 구분

소위 '암몬 사람들의 섹션'이라 불리는 것들은 3세기부터 복음서를 부분 부분으로 구분지은 것들이다.

E. 유세비우스 정경

4세기에는 섹션들 자체가 색인이나 정경으로 분류되었다.

섹션들은 그것들의 공통적인 사건들에 따라 나열되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 모두에서 언급된 섹션은 정경 1에 속했다. 각 구절과 더불어 적절한 섹션과 정경은 사본의 여백에 주석으로 기록되었다.

F. 유탄리안(Euthalian) 장(章)

주후 458년 바울 서신들이 공중에게 낭독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주후 590년에는 사도행전과 일반서신들도 나뉘어졌고 사본들에 주석이 붙여졌다.

G. Titloi와 Kephalia

제목과 장 구분은 4세기부터 추가되었다.

H. 행 나누기(Sticometry)

서기관들은 줄에 따라서 보수를 받았다. 대략 5세기부터 많은 사본들의 여백에 줄의 번호가 매겨졌다.

I. 일반적인 모양

장식, 파치먼트와 잉크의 색상, 신앙적인 미술작품 등이 사본의 연대를 아는 단서가 된다.

제 4 장

복습 문제

1.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2. 사람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3. 언제 어디서 이 세상의 언어들 시작되었는가?
4. 세상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5. 히브리어는 어떤 어족(語族)에 속하는가?
6. 그리스어는 어떤 어족에 속하는가?
7. 아랍어는 어떤 어족에 속하는가?
8. 라틴어는 어떤 어족에 속하는가?
9. 영어는 어떤 어족에 속하는가?
10. 성경의 세계에서 아랍어의 범위는?
11.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랍어의 영향을 받았는가?
12. 언어로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묘사되는가?
13. 그리스도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세 가지 언어를 말하시오.
14. 고대 그리스어의 두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15. ‘코이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6. 언어로서 그리스어는 어떻게 묘사되는가?
17.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8. 영어는 어떤 어족과 어떤 어계에 속하는가?
19. 영어 발달의 3단계는 무엇인가?
20. 기록의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21. 우리가 알파벳을 신세진 고대 민족의 그룹은 무엇인가?
22. 히브리어 문자의 두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23.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없어진 것은 무엇인가?
24. 췌기문자 기록은 무엇인가?
25. 구약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두 가지 언어는 무엇인가?

26. 신약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는 무엇인가?
27. 신약성경에서 '라틴어의 영향'의 예를 드시오.
28. 신약성경에서 '아람어의 영향'의 예를 드시오.
29.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어 영향'의 예를 드시오.
30. 파피루스는 무엇인가?
31. 파치먼트는 무엇인가?
32. 벨럼은 무엇인가?
33. 오스트라카는 무엇인가?
34.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35. 코덱스는 무엇인가?
36. 성구집은 무엇인가?
37. 영설 서체는 무엇인가?
38. 소문자는 무엇인가?
39. 팔림프세스트는 무엇인가?
40. 영설 사본은 비평 장치에서 어떻게 명명되는가?
41. 소문자 사본은 어떻게 명명되는가?
42. 파피루스 사본은 어떻게 명명되는가?
43. 성구집은 어떻게 명명되는가?

제 5 장

정경의 확정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문서들도 저술되고 있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문서들에는 이단 사상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들은 때때로 사도의 이름을 빌려 출판되기도 했다(살후2:2 참조). 그러나 다른 저자들은 유대인 애국지사들, 랍비이며 서기관들, 사학자들과 교부(敎父)들과 같이 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기록한 문서들은 역사적으로 확실했고 믿음을 세워주는 데도 기여했다.

이제 질문은 이렇다.

“어느 문서들이 진짜 기록이었는가?”

정경의 확정 과정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I. '정경'과 '정경 자격 획득'의 의미

정경(正經)으로 번역되는 '캐논'(canon)이라는 말은 규칙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kanon'에서 왔으며 이것은 시험, 직선 자, 절대 기준과 같은 측정 도구와 고정된 양, 규정된 범위와 같은 측정된 것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주후 296-373년)는 '캐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성경에 적용해서 사용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있는 각 책이 신성한 성경 목록에 포함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규칙과 기준. 그래서 우리는 성경기록의 캐논들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2. 적용된 규칙과 기준에 들어맞는 책들을 모은 것에 부여한 명칭.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경을 구성하는, 진짜로 확실하고 영감 받은 66권의 책을 가리켜 신성한 캐논이라고 한다.

정경 확정이란 어떤 문서들이 진짜 성경기록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경 확정이란 어떤 책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식하는 것일 뿐 그 책에다 권위를 부여하는 일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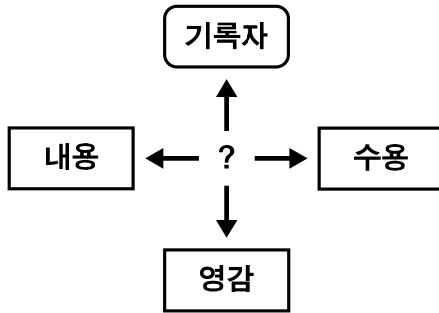
“정경 자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사람은 그것을 알아내었다.”⁽¹⁾

(1) Geisler N. L & Nix W. E. From God To Us. 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81: pg. 66

II. 정경 자격 획득의 기준 또는 시험

정경 확정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²⁾

어떤 책을 정경으로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네 가지 시험(케논)이 적용되었다.



A. 기록자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었는가?

1. 구약성경

기록자는 하나님의 대언자(代言者)였는가?

2. 신약성경

저자는 사도나 대언자였는가?(엡2:20; 롬16:26; 유17) 사도들은 목격자들이었으며(눅1:2; 행1:16) 성령님을 통하여 영감의 약속을 받았다(요14:26).

기록자가 사도 시대에 살았는가?(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외경인 ‘헤르메스의 목자’를 거부했다.)

B. 내용

1.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가?

서술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확실한가?

2. 내용은 생명을 주는가?

내용에는 생명이 들어 있는가? 내용은 믿음을 세워 주는가? 내용은 그것들의

(2) Ewert, D. From Ancient Tablets To Modern Translation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3: pg. 134

영적인 특성 안에 굳게 서 있는가?(요8:32; 딤후3:15-16; 히4:12; 벧전1:23; 2:2 참조)

C. 수용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책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그 책은 받아들여지고 수집되고 낭독되고 존귀하게 여겨졌는가?(이 시험은 주로 신약성경에 포함된 책들에 적용되었다.)

D. 영감과 권위

그 책은 영감의 증거를 지니고 있는가? “주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는가? 책 내용이 진실한가? 책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승인 도장이 있는가? 꾸며낸 이야기나 사실에 대한 오류는 없는가?

개별적인 각각의 시험 자체는 그것들만으로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해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연습 삼아서 이 같은 시험들을 물론경에 적용해 보라.

III. 정경 확정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들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 몇몇 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또 ‘성경을 가장한’ 많은 책들은 모든 사람이 즉시 거부해 버렸다. 이런 책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정경과 관련 있는 몇 개의 용어가 사용된다.

A. 호모로구메나(Homologoumena)

이것은 모두가 수용한 정경의 책을 의미한다.

B. 안티레고메나(Antilegomena)

이것은 정경 중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 논란이 된 책을 의미한다.

C. 외경(外經, Apocrypha)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수용한 위조된 책을 의미한다.

D. 가경(假經 Pseudepigrapha)

이것은 모두가 거부한 위조된 책을 의미한다.

IV. 구약성경 정경

A. 구약성경 정경 확정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책들이 기록되고 받아들여짐에 따라 구약성경 정경은 단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율법(출24:3), 여호수아기(수24:26-27), 사무엘기(삼상10:25), 예레미야서(단9:2)가 즉각적으로 수용된 것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증명된다.

고등 비평가들이 가르치는 이론 즉 정경이 확정되는 데 있어서 독립된 세 개의 시대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파괴적 이론은 율법이 주전 400년경에, 대언서는 주전 200년경에, 성문서는 주전 100년경에 정경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한다. 이 이론은 원저자에 대한 모든 가설 즉 믿지 않는 비평가들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가설들을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책들의 기록 시기를 후대로 돌려놓는다.)

신명기는 요시아 시대에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다(왕하22:8; 23:1-2). 이 경우 신명기는 이미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오랫동안 유실되었고 이때에 발견되었을 뿐이다. 같은 이유에서 에스라는 어떤 책도 정경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느8:1-3).

B. 정경에 속하지 않는 구약성경 시대 문서들

몇 개의 문서들이 구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문서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권위 있는 성경기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민수기 21장 14절 - 주의 전쟁

여호수아기 10장 13절 - 야셀

열왕기상 11장 41절 - 솔로몬의 행적

역대기하 12장 15절 - 스마야의 책

역대기하 13장 22절 - 대언자 잇도의 실록

역대기하 20장 34절 - 예후의 책

역대기하 33장 18절 -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

C. 구약성경 정경의 범위

이것은 '외경 문제' 때문에 매우 논쟁이 되는 주제이지만 성경기록 자체가 구약성경 정경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눅11:51)에서 구약성경 정경의 범위를

확정하셨다. 이 구절은 아벨부터(창4:8) 사가랴(대하24:20-21)까지 구약시대 순교자들의 피를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하로 끝나고 있으므로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신약성경에서 인용하고 언급하는 구약성경도 정경의 한계를 정해 주고 있다. 표준 마소라 구약성경에는 24권의 책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 있는 39권의 책과 동일하다.

1. 토라(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 느비임(대언서 혹은 선지서)

a. 전기 대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12개 소대언서

3. 케투빔(성문서)

a.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

b. 메길롯(Megilloth, 다섯 개 두루마리)

솔로몬의 아가, 룿기,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전도서

c. 역사서

다니엘서,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D. 구약성경에 속한 책들이 정경으로서 갖는 권위에 대한 증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속한 책들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 했음은 다음의 사실들로 입증된다.

1. 존중하는 마음으로 책들을 배치함으로

a. 율법은 언약 궤 옆에 보관했다.

신명기 31장 24-26절; 여호수아기 24장 26절; 사무엘기상 10장 25절

b. 나중에 그들은 율법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관했다.

열왕기하 22장 8절

7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2. 책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 a. 율법은 7년마다 한 번 공개적으로 낭독해야 했다 - 신명기 31장 10-13절
- b.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도록 지시받았다 - 여호수아기 1장 7-8절
- c. 이스라엘(유다)의 왕들은 율법의 복사본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지시를 받았다 - 신명기 17장 14절, 18-20절.
- d. 율법을 낭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부흥이 뒤따랐다 - 역대기하 15장 1-15절, 역대기하 34장 14-15, 29-30절; 35장 1절; 느헤미야기 8-10장.
- e. 율법과 대언서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포로 생활이 뒤따랐다 - 역대기하 36장 12, 16-21절.
- f. 대언서들도 율법과 똑같은 가치가 부여되었고 율법과 똑같은 존귀함이 주어졌다 - 열왕기하 17장 13절
- g. 구약성경의 다른 저자들에게 의한 구약성경 구절들의 인용은 그 책이 성경으로 수용되었음을 증명했다.

3.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책들을 언급함으로

[제3장 IV의 G, H 참조]

E. 안티레고메나(Antilegomena)

바리새인들의 '삼마이 학파'와 나중에 주후 90년에 야브네(혹은 얄니아)에서 개최된 유대인들의 공회는 구약성경 정경에 속한 몇몇 책들이 실제로 정경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안티레고메나 -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논란이 된 책들' - 라고 분류된 다섯 권의 책이 존재하며 이것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솔로몬의 아가

이것은 소위 육감적인 언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복된 이 책은 결혼의 고결함과 순결함을 고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2. 전도서

이것은 회의적인 언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이것은 정경 확정이라기보다는 해석상의 문제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인생을 ‘해 아래에서’ 보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결론은 매우 영적이다(전12:1, 13-14).

3. 에스더

이 책은 ‘하나님’이란 단어도 하나님의 이름도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4. 에스겔

이 책은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정경이 아님을 확증할 아무런 실례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

5. 잠언

잠언은 26장 4절과 5절이 모순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해석상의 문제다!

F. 외경(外經 Apocrypha)

외경을 가리키는 ‘아포크리파’는 ‘숨겨진’ 또는 ‘감춰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주후 450년 이후에 정경에 속하지 않은 책들 중에서 특히 구약성경 시대에 기록된 책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외경과 관련된 논쟁거리는 로마 카톨릭 성경에 포함된 부가적인 책들에 관한 것인데 최근 들어 현대 개신교 역본들도 외경들을 점점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1. 외경의 본질

외경은 신구약성경 중간기에 기록된 15권의 유대 문학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들도 일부 있지만 이 책들은 전부 다 그럴 듯하게 위조되었고 원저자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영감이나 권위를 주장한 적도 없다. 어떤 책은 믿기 어려운 전설과 환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외경들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현존하는 모든 외경들의 사본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2. 외경 목록

외경으로 분류되는 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7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외경 책명	연대	내용
1	솔로몬의 지혜(Wisdom of Solomon)	주전 30년	교훈
2	집회서(Ecclesiasticus)	주전 132년	교훈
3	토비트(Tobit)	주전 200년경	종교 소설
4	에스드라상(I Esdras)	주전 150년경	역사, 전설
5	마카베오상(I Maccabees)	주전 110년경	역사
6	마카베오하(II Maccabees)	주전 100년경	역사, 전설
7	유딧(Judith)	주전 150년경	낭만 소설
8	바룩(Baruch)	주후 100년경	예언
9	예레미야의 편지(Letter of Jeremiah)	주전 200년경	예언
10	에스드라하(II Esdras)	주후 100년경	예언
11	에스터 추가분(Additions to Esther)	주전 130년경	전설
12	아사라의 기도(Prayer of Azariah)*	주전 100년경	전설
13	수산나(Susanna, 다니엘 13장)	주전 100년경	전설
14	벨과 용(Bel & The Dragon, 다니엘 14장)	주전 100년경	전설
15	므낫세의 기도(Prayer of Manassah)	주전 150년경	전설

* ‘아사라의 기도’는 ‘세 명의 히브리 아이들의 노래’라고도 하며 다니엘서 3장 23절 다음으로 이어진다.

3. 외경의 수용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a. 유대인들은 외경을 자신들의 성경의 일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 b. 개신교인들(프로테스탄트)도 외경을 성경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외경을 ‘훌륭하고 유용한 읽을거리’와 ‘삶의 본보기와 예절을 가르치는’ 책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 c.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실상 외경 중에서 12권을 정경으로 수용하고 있다. (위 목록에서 에스드라상하와 므낫세의 기도는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외경을 ‘제2의 정경’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경(假經)’으로 칭할 수 있는 책들을 차례대로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외경을 포함한 문서들

외경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a. 칠십인역(LXX)

에스드라하는 제외되어 있다.

[7장 참조]

b. 알렉산드리아 사본(A)

여기에는 마카베오삼서와 마카베오사서가 들어 있다.

c. 바티칸 사본(B)

여기에서는 마카베오상과 하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가 제외되어 있다.

d. 시내 사본(⌘ 혹은 알레프)

e. 에프라임 레스크립투스 사본(C)

여기에는 솔로몬의 지혜, 집회서가 들어 있다.

f. 체스터 비티(Chester Beatty) 파피루스

여기에는 집회서 일부가 들어 있다.

g. 사해 두루마리

사해 두루마리 속에서 몇몇 외경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흥미롭
게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h. 교부들의 문서

일반적으로 서방(라틴) 교부들이 외경에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레로 이레네우스(Irenaeus, 주후 115-200년)는 지혜서를 인용했다.

반면에 동방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주후 150-217년)는 에스드라하
를 인정했다. 오리겐(주후 185-254년)은 에스드라하, 마카베오, 예레미
야의 편지를 자신이 만든 정경 목록에 끼워 넣었다.

제롬(주후 340-420년)은 몇몇 사람들의 '우호적'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서
유딧, 토비트, 에스터 추가분, 다니엘서 추가분을 라틴 별게이트에 끼워
넣었다. 나머지 외경은 제롬이 죽은 후에 라틴 별게이트에 추가되었다.

가장 영향력 있게 외경을 보호한 사람은 '부패한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
(주후 354-430년)이다. 그는 히포 공회(주후 393년)와 카르타고 공회(주
후 397년)를 움직여서 외경을 정경으로 선언하도록 했다.

평소에도 어거스틴은 외경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다 제압하게 했다.

5. 트렌트 공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46년 4월 8일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외경을 정경으로 확정하였다.

트렌트 공회는 실제로는 1545년과 1563년 사이에 개최된 세 개의 연속적인 공회 중의 하나였으며 신설된 예수회가 이것을 주도했다. 트렌트 공회는 반(反)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불린다. 반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로 인해 그 공회가 있기 28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렌트 공회를 개최한 교황은 교서를 내려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 카톨릭 교리의 정의
- 카톨릭 교회 삶의 개혁
- 이단 근절

종교개혁의 표어 중 하나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하신다!”)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계도 동일한 표어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에 성경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경을 추가하였다.

트렌트 공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남겼다. “...누구든지 앞서 말한 책들 전체를 그 일부분까지 모두 카톨릭 교회에서 낭독되어 왔던 것처럼 신성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비성경적인 카톨릭 교리 가운데 외경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연옥(煉獄) - 마카베오하 12장 39-45절
- b. 자선을 통한 구원 - 집회서 3장 30절

다른 비성경적인 교리들도 외경에서 발견된다. 자살의 정당함(마카베오하 14장 43-46절), 노예제도와 잔혹한 행위(집회서 33장 24-28절), 윤회(솔로몬의 지혜 8장 19-20절). 또한 외경은 거짓말, 암살, 마법적인 주문을 인정하고 있다.

랭스 두에 성경(주후 1582년)은 7권의 책을 성경 목록에 추가했고 에스더기와 다니엘서의 추가분을 덧붙였으며 ‘예레미야의 편지’와 ‘바룩’을 합쳤다. 이렇게 해서 15권의 외경 중에서 12권이 구약성경에 포함되었다.

트렌트 공회는 이 작업을 선택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공회가 에스드라하를 뺐기 때문이다. 에스드라하 7장 105절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반대하고 있다. (천주교는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

6. 외경을 포함한 영어 성경들

다수의 초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외경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중세 암흑시대 동안 외경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는) 성경적인 분석을 위해서 외경이 들어갔다.

이 모든 경우에 외경은 부록에 첨가되거나 혹은 “이것은 정경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첨가되었다.

a. 틴데일 성경(주후 1525년)은 외경을 ‘영감 받지 않은 책’으로 따로 배열하였다.

b. 커버테일 성경(주후 1535년)도 틴데일 성경과 같이 배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외경. 이것들은 고대의 교부들이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은 책들이며 또한 히브리어 정경에 들어 있지도 않던 책들과 논문들이다.”⁽³⁾

c. 매튜 성경(주후 1537년)과 태버너 성경(주후 1539년)은 신구약성경 사이에 외경을 배열했다.

d. 킹제임스 성경(주후 1611년)은 그레이트 성경(주후 1539년), 제네바 성경(주후 1560년), 비숍 성경(주후 1568년)과 같이 전에는 외경을 부록에 배열했다. 그러나 1629년의 킹제임스 성경에서부터 외경은 제거되기 시작해서 1827년에 이르러서는 영구적으로 제외되었다.

7.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증들

외경에 정경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a. 신약성경은 외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이 마카베오하 7장과 12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구절은 열왕기상 17장 22절과 열왕기하 4장 35절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유다서 14절이 가경(假經)인 에녹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유다서는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는 에녹의 말을 인용하

(3)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0: pg. 117

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이 외경 문헌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는데, 성령님께서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 마술사들의 이름도 밝히실 수 있다.

b. 초기 사본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c. 초기 기독교 미술에 외경에 나오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d. 초기 교부들이 외경을 인용했고 그것을 정경의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8. 외경의 정경 자격에 대한 반대 논증

a. 외경은 유대교 정경에 들어 있지 않고 포함된 적도 없다.

- 요세푸스는 외경을 그가 가진 정경 목록에서 분명하게 제외했다.
- 필로(주전 20년 - 주후 50년)는 외경을 언급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다.

b.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중에서 아무도 외경을 인용하거나 암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역사를 약술한 사도행전의 설교에는 외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c. 야브네(얌니아) 공회에 모인 유대인 학자들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d. 사실 대부분의 교부들은 외경을 거부했다.

e. 외경 중에는 영감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주장하는 책이 하나도 없다.

f. 다수의 외경에 역사적, 지리적, 연대기적 오류가 담겨 있다.

g. 다수의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단적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h. 외경의 문학적 스타일은 전설적이고 환상적이다. 어떤 이야기들은 괴상하고 마귀적이다.

i. 외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능과 특색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다.

G. 가경(Pseudepigrapha)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광의의 외경'이라고 알려졌으며 여기 속한 책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것들은 대개 구약성경 인물과 관련 있도록 위조된 문서들이다.

2. 이것들은 주전 200년과 주후 200년 사이에 기록된 책들이다.
3. 그 누구도 이것들을 정경으로 수용한 적이 없다.

이런 문서들은 상당히 많으며 가장 잘 알려진 책들은 다음과 같다.

• 묵시적인 것들

1. 에녹(Enoch)
2. 에녹의 비밀(Secret of Enoch)
3. 바룩의 묵시록(Apocalypse of Baruch)
4. 바룩이서(II Baruch)
5. 바룩삼서(III Baruch)
6. 모세의 승천(Assumption of Moses)
7. 모세의 계시록(Revelation of Moses)
8. 예레미야의 대언(Prophecy of Jeremiah)
9. 스바냐의 묵시록(Apocalypse of Zephaniah)
10. 엘리야의 묵시록(Apocalypse of Elijah)
11. 에스드라의 묵시록(Apocalypse of Esdras)

• 전설적인 것들

12. 신탁의 말씀(Sibylline Oracle)
13. 아담과 이브의 책(Book of Adam and Eve)
14. 희년(禧年)의 책(Book of Jubilees)
15. 아브라함의 언약(Testament of Abraham)
16. 아브라함의 묵시록(Apocalypse of Abraham)
17. 족장들의 언약(Testament of The Patriarchs)
18. 아스낫의 생애(Life of Asenath)
19. 욥의 언약(Testament of Job)
20. 솔로몬의 언약(Testament of Solomon)
21. 노아의 책(Book of Noah)
22. 얀네와 얌브레의 참회(Penitence of Jannes and Jambres)
23. 이사야의 순교(Martyrdom of Isaiah)
24. 아리스테아스의 편지(Letter of Aristeas)

78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시적인 것들
 - 25. 솔로몬의 시편(Psalms of Solomon)
 - 26. 18편의 그리스어 시편
 - 27. 시편의 추가분
 - 28. 시편 151편
 - 29. 세 편의 시리아어 시편
- 교훈적인 것들
 - 30. 모세의 마법책들(Magic Books of Moses)
 - 31. 아히카의 이야기(Story of Ahikar)
 - 32. 마카베오삼서(III Maccabees)
 - 33. 마카베오사서(IV Maccabees)
 - 34. 퍼크 아보스(Pirke Aboth)
- 역사적인 것
 - 35. 사독 사람의 단편(Zadokite Fragment)

V. 신약성경 정경

A. 신약성경 정경의 역사

1. 신약성경 책들의 기록

신약성경의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주후 50년(마태복음일 것임)과 95년(계시록) 사이에 기록되었다. 정경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표식은 기록자가 사도냐는 사실이다. 사도들은 목격자였다(눅1:2; 요일1:3; 뵤후 1:16; 행2:42).

2. 신약성경 책들의 수집

- a. 이미 주후 65년 당시에 성경기록들은 회람되고 있었다(골4:16; 계1:11; 약1:1; 뵤전1:1)
- b. 주후 70년(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정경이 수집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뵤후3:15; 유17)
- c. 로마의 클레멘트(주후 96년)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를 인용하고 언급

했다.

- d. 마태복음을 인용한 바나바 서신(주후 100년)은 마태복음을 성경 기록으로 언급하고 있다.
- e. 디다케(주후 100년), 저스틴 마터(주후 100-165년), 클레멘트후서(주후 130년)는 신약성경 책들에서 많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 f. 폴리갑이 쓴 짧은 서신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목회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많은 구절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는 구약성경처럼 신약성경의 책들도 기록되고 회람되면서 정경으로 확정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3. 공식적인 정경의 필요성

책들을 공식적으로 수집해야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 a. 이단들(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규정된 성경기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b. (친-베드로적이고 반-바울적인) 유대주의 분파에 의해서 일부가 생략된 정경이 형성되었고 시노프의 영지주의자 마르시온(Marcion, 주후 140년)의 캐논이 형성되었다. 이 마르시온은 누가복음의 일부와 열 개의 바울 서신으로 구성된 신약성경을 편집함으로써 유대주의에 맞섰다.
- c. 박해 -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주후 303년에 포고령을 내려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기록들을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성경기록들이었는가?
- d. 훌륭한 것이든(눅1:1) 열등한 것이든(살후2:2; 3:17) 정경에 속하지 않은 문서들이 존재했다.

4. 신약성경 정경의 형성

신약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그리스도인, 교회, 공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약성경은 대부분 즉시로 수집되었고 주후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기독교의 범위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리적 이유로 또 때때로 신학적 이유로 초기의 신약성경 수집물에는 27권의 책 모두가 담기지 않았다.

8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 a. 서방(라틴) 기독교계 (로마): 주후 200년까지 22권의 책이 완전히 수용되었다. 히브리서는 수용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 b. 동방(그리스-이집트) 기독교계 (알렉산드리아): 무엇이든지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학파는 계시록을 가장 심하게 거부했다.
- c. 동방 시리아 기독교계 (안디옥): 구 시리아 역본(최초의 페시타)에는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계시록이 빠져 있다.

안디옥 감독 회의(주후 266년)는 사모사타 출신의 바울의 교리를 교회가 가진 정경과 맞지 않는다고 탄핵했다.

에큐메니칼적인 니케아 공회(주후 325년)에서는 '정경'을 언급했다.

라오디게아 감독 회의(주후 363년)에서는 정경이 아닌 책들을 읽는 것을 금지했다. 이 일은 이때에 신약성경의 정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가리킨다.

분명한 것은 초기에 개최된 이러한 공회 중 어떤 공회에서도 신성한 정경을 구성하는 책들의 목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그 책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27권의 신약성경 책들이 전부 열거된 최초의 목록은 주후 367년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한 부활절 서신에 있다. (이것은 정경이 더 일찍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알려진 것 중 가장 초기의 목록임을 의미한다.)

히포 공회(주후 393년)에서는 27권 정경을 포고했다.

카르타고 감독회의(주후 397년)에서는 신약성경 외에는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읽는 것을 금지했다.

카르타고 공회(주후 419년)에서는 신약성경 정경을 재확인했다.

B. 신약성경 안티레고메나(Antilegomena)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약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 일부는 교회와 지도자들(교부들) 모두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7권의 책은 4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논쟁의 주제가 되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히브리서

이 책은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또 부패한 교회론의 아버지인

키프리안이 조장하여 급성장하고 있던 성직자체계와 희생제사의 개념을 이 책이 반대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2. 야고보서

이 책은 바울의 서신서들과 충돌한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비교.

3. 베드로후서

이것은 베드로전서와의 문체 차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혹은 베드로후서가 당시에 팽창하고 있는 이단을 다루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었다(벤험 2:1-3:4).

4.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 책들은 저자도 모르고 내용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이 두 서신은 아리안주의(요이9)와 성직자체계(요삼9-10)에 대해 경고한다.

5. 유다서

이것은 에녹의 책을 인용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위의 내용을 보기 바란다.] 유다서는 이단교리와 이단들을 대적하는 매우 강력한 책이다! 4세기 초에는 이단들이 많았다.

6. 계시록

이 책은 전천년적인 천년왕국을 가르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계시록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매장시켜 버린다. 그의 책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이단 교리를 일으킨 원동력이다.

C. 신약성경 외경

교부들 중에서 일부는 정경에 속하지 않는 다음의 문서들을 수용했으며 이 문서들을 일부 성경 수집물과 사본 속에 첨가시키기도 했다.

1. 바나바 서신(Epistle of Barnabas)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주후 260-340년), 코텍스 알레프, D

2. 고린도 서신(Epistle to Corinthians)

코텍스 A

3. 클레멘트 서신(Epistle of Clement)

코텍스 A

8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4. 허마의 목자(Shepherd of Hermas)

이레네우스,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코텍스 알레프, D

5. 디다케(The Didache)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6. 베드로의 묵시록(Apocalypse of Peter)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코텍스 D, 무라토리안 단편

7.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Acts of Paul & Thecla)

오리겐, 코텍스 D

8. 라오디게아 서신(Epistle to Laodiceans)

9. 히브리 복음(Gospel of the Hebrews)

10. 폴리카프 서신(Epistle of Polycarp)

11. 이그나티우스 서신(Epistle of Ignatius)

D. 신약성경 가경(假經)

어떤 이들은 가경이 신약성경의 인물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이것들을 정경으로 수용한 적이 없다.

가경의 목록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가짜 복음서

21권의 가짜 복음서가 있으며 여기에는 안드레, 바돌로매, 바나바, 맛디아, 도마, 베드로, 빌립, 가짜 마태,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가짜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기적(요2:11 참조), 마리아 승배, 법률 준수를 통한 구원과 같은 황당한 내용을 가르친다.

2. 가짜 행전

요한, 바울, 베드로, 안드레, 도마, 맛디아, 빌립, 다대오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8개의 가짜 행전이 있다.

여기에는 사도들이 경험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어 있다.

3. 가짜 서신서

4개의 가짜 서신서가 있다.

4. 가짜 묵시록

극단적으로 영지주의 사상을 보이는 베드로의 계시록과 바울, 도마, 스테반, 신학자 요한의 계시록을 포함하여 7개의 가짜 예언 문서가 있다.

E. 신약성경 정경이 갖는 권위의 증거들

우리의 신약성경에 포함된 27권의 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굳게 서 있다.

1. 사도 시대에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록했다.
2. 다른 모든 문서보다도 권위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다.
3. 그 책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4. 그 책들은 보편적으로 수용됨으로 말미암아 정경임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제 5 장

복습 문제

1. 성경에 적용하여 '정경'(canon)을 정의하시오.
2. '정경의 확정'과 '영감'을 구분하시오.
3. 정경 자격 획득의 4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4. '저자' 시험을 설명하시오.
5. '내용' 시험을 설명하시오.
6. '수용' 시험을 설명하시오.
7. '영감' 시험을 설명하시오.
8. '호모로구메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9. '안티레고메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0. '외경'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1. '묵시적'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2. '가경'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3. 고등 비평가들이 제시하는 구약성경 정경의 확정 이론은 무엇인가?
14. 이 이론의 영향은 무엇인가?
15. 구약성경 정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 정경을 어떻게 확정하셨는가?
17. 논란이 되었던 구약성경 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8. 구약성경 외경은 얼마나 되는가?
19. 외경에 대한 유대인, 개신교인, 로마 카톨릭 주의의 입장은 무엇인가?
20. 외경을 담고 있는 사본 두 개를 말하시오.
21. 구약성경 외경이 언제 어디서 '정경'으로 만들어졌는가?
22. 로마는 왜 외경을 정경으로 확정했는가?
23. 외경에서만 가르치는 두 가지 카톨릭 교리를 말하시오.
24. 초기 영어 번역본들은 외경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25. 외경의 정경 자격 획득을 옹호하는 기본적 논증을 제시하시오.

26. 외경의 정경 자격 획득을 반대하는 4가지 논증을 제시하시오.
27. 구약성경 가경 세 가지를 열거하시오.
28. 신약성경에 속한 책의 정경 자격 획득의 주요 시험은 무엇인가?
29. 신약성경 정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30. 공식적인 신약성경 정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31. 신약성경 정경의 범위는 언제 결정되었는가?
32. 신약성경 안티레고메나 일곱 권을 열거하시오.
33. 신약성경 외경 세 권을 열거하시오.
34. 신약성경 가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과제 2

다음 질문에 175-200 단어로 짧게 답하시오.

1. 초기에는 킹제임스 성경도 외경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비평가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2. 디다케란 무엇인가?, 허마의 목자는 무엇인가?, 바나바 서신은 무엇인가?

(연대, 저작, 일반적 내용, 성경 사본의 함유물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연구물을 찾아보기 바란다. 이 자료는 종종 백과사전에 '교부의 저작'으로 열거되어 있다.)

제 6 장

보 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원래의 성경기록을 하나님께서 축자적으로 완전하게 무류하게 영감으로 주셨음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확실히 진실한 주장이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는 최초의 성경기록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다. 최초의 원본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고 믿는 것은 궁지를 벗어나려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며 또 자신들의 목적에 적합하다면 성경도 고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가증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듣거나 읽는다.

-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는 실제로 이와 같습니다.”
- “더 좋은 역본을 보자면...”
- “이 구절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현대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자들의 진영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진영뿐만 아니라 심지어 근본주의 침례 성도들로부터도 강단과 저작물을 통해 줄곧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매우 적합한 질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학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학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하기 위해 학자들을 의지해야 하는가?
2.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알아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언어들에는 왜 그렇게 통달하기 어려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면서 그런 언어 속에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을 어렵게 만드셨는가?
3. 성경에서 어떤 구절의 번역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정말로 아무 것이나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고치거나 비판하거나 의심한다면 어린 크리스천에게는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4. 평균 ‘3년 과정의 신학교’를 마친 침례교 설교자들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88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원문에 기초하여 성경을 고칠 수 있는 학자적인 권리를 소유하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기록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교리를 수용해야만 한다.
이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교리와 더불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없게 된다.

I. 보존 교리

성경기록의 신성한 보존 역시 신성한 영감 교리처럼 정확히 하나의 교리이다. 성경 기록은 두 가지 교리를 다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들은 내적/외적 증거들에 의해 증명된다.

보존 교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 근거한다.

A. 시편 12편 6-7절

이 구절은 다음을 가르친다.

1. 보존의 범위 - “말씀들”
2. 보존의 주체 - “주님” [하나님]
3. 보존의 기간 - “영원히”

B. 시편 33편 11절

여기서 ‘주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다.

C. 시편 78편 1-7절

이 시편은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한다.

D. 시편 100편 5절

E. 시편 105편 8절

만일 한 세대가 40년이라면 이 구절의 천대는 4만년이 된다.

F. 시편 111편 7-8절

G. 시편 117편 2절

H. 시편 119편 89, 111, 152, 160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주는 시편 119편은 성경이 ‘영원히’ 정착되고 세워지며 지속될 것을 가르친다.

I. 시편 146편 6절

이 구절은 성경 보존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J. 잠언 22장 20,21절

보존만이 '성경의 확실성'을 보증한다.

K. 이사야서 40장 8절

L. 이사야서 59장 21절

이 구절은 영감("내가 네 입에 둔 내 말들이")과 보존("이제부터 영원토록")을 다 가르친다.

M.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구절은 보존 교리가 신약성경기록들과 관계가 있음을 가르친다.

N. 마태복음 28장 19,20절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주님의 교회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도록 요구한다.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보존되어야만 한다.

O. 누가복음 16장 17절

P. 누가복음 21장 33절

Q. 요한복음 10장 35절

이 구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언급한다.

R. 요한복음 12장 47-48절

주의 말씀들은 구원의 근거가 된다. 말씀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이루어진다(계20:11-12).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S. 디모데후서 3장 15,16절

대개 '영감'을 언급할 때 인용하는 이 구절은 '보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진리를 알려준다.

1. 디모데는 성경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9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이 구절은 디모데가 '신뢰할 만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2. 그런데 디모데는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시대에 구약의 성경기록들은 450-1500년 이상 되었으며 복사되고, 복사되고, 복사되고, 복사되었다.

3. 디모데가 입수한 복사본은 '성경기록'으로 불렸고 사람들은 그것이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이 구절은 '영감 받은 최초의 원본'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최초의 자필 원본이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보존된 복사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2세기 이후로) 취급하는 것은 다 보존된 복사본이다. '최초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T. 베드로전서 1장 23,25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1. 썩지 아니할 - 불변의 순수성에 대한 약속.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순수한 성경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2. 영원히 살아 있고 - 불변의 유효성에 대한 약속. 히브리서 4장 12절
3. 영원히 거하는
4. 영원히 지속되나니

성경기록의 보존 교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당당하게 기초하고 있으며 그분의 섭리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사46:9-11).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섭리에 따른 보존'이라고 말한다.

II. 보존의 논리학

보존은 논리적인 교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기록들의 단어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며 성경을 주신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기록들이 왜곡되거나 상실되도록 허용하셨을까? 영감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글자 형태로 자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존이라는 기적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지키실 수 없었을까?

참조 - 전도서 3장 14절

III. 보존의 범위

영감 교리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어들에 관심을 가지셨음을 알게 되었다. 즉 성경은 축자적 영감을 가르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23구절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단어들을 보존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책, 장(章), 사상, 개념, 의미의 범위를 넘어선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보존되었다.) 그러나 보존은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확대된다.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존 교리를 파악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인간의 이성과 믿음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A. 이성적 접근

인간의 이성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논쟁하려 한다.

1. 특정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손으로 쓴 진짜 최초의 기록이 *θεοπευστος* - 'theopneustos'라고 하자.
2.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단어 보존'이라는 이유로 반대 논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번역으로 'God-breathed'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given by inspiration of God'이라고 기록한다면 이것은
 - a. 단어를 첨가한 것이다(1 단어가 5 단어로 되었다).
 - b. 단어를 바꾼 것이다('inspire'는 '숨을 들이마시다'를 의미하지만 'theopneustos'는 'expire' 혹은 '숨을 내쉬다'를 의미하다.)

따라서 이성은 '이것이 어떻게 단어 보존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B. 믿음의 적용

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의 답변은 이렇다.

1. 우리는 어떠한 최초의 자필 원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디모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성경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
2.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성령님께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몇 군데 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 8장 3절은 의미의 손실 없이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인용되었다.
 - a. 첫째로, 그 인용은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이루어졌다.

9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b. 둘째로, 디모데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명기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누가 복음 둘 다 입수할 수 있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두 책을 다 성경기록의 책들이라고 말한다.
- c. 셋째로, 하나님의 영께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는데 이는 그분이 성경기록의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약 성경 기록자가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존재하는 두루마리 앞에 앉아서 그것을 복사했다는 것은 가설일 뿐이다(사도행전 20장 35절과 유다서 14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믿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말씀들을 주기 위해 자신의 영을 통해 복사와 번역 과정에 섭리로 역사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복사되고 번역되어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IV. 보존에 대한 다양한 견해

성경이 보존 교리를 가르친다고 수용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양한 견해가 유행하고 있다.

A. 책으로서 성경의 보존

이 견해는 기록된 지 3500년에서 1900년 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존으로 본다. 사람들이 쓴 다른 많은 기록들은 영구히 유실되었고 다른 작품들이 그것들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만 알려져 있다.

이 견해는 옳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 견해는 모든 성경과 번역본과 의역성경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

B. 본문으로서 성경의 보존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진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보존하셨음을 받아들인다.

그러한 크리스천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텍스 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 속에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셨다고 생각한다. 후자는 ‘다수 본문’(Majority Text) 개념에 의해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하나의 번역본일 뿐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기에 이것은 '최초의' 원본 본문보다는 못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뉴킹제임스 성경'을 수용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이 같은 본문들에 기초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최근에 다시 개정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C. 번역본으로서 성경의 보존

이 견해는 보존의 역사를 성경의 번역까지 확대해서 본다.

성경 번역본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역본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선택하는 일은 번역본의 근간이 된 본문, 번역자들의 특성, 그 번역본의 역사에서 드러난 그 역본의 영향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 견해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지자들 가운데는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다.

1. 한편에서는 흠정역 성경을 가장 순수한 성경으로 믿으면서 대수롭지 않고 작은 오류들과 고문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진행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실용적 순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이 스펙트럼의 다른 편에는 하나님께서 흠정역 성경을 섭리로 보존해 주셨으므로 최초에 성경기록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동일한 수준의 완전성이 흠정역 성경에 있으며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절대적 순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V. 보존의 본질

역사는 두 가지 부분에서 성경이 섭리로 보존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1. 성경의 물리적 영속성
2. 성경의 본문상의 순수성

A. 책으로서 성경의 영속성

많은 기회를 통해 사탄은 지구상에서 성경을 제거하려고 시도해 왔다. 사악한 자들에 의한 소름끼치는 법령을 통해 성경을 조롱하는 비평가들은 성경을 금지하고 불태우고 추방하고 몽그러뜨렸다.

- 주후 302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은 포고령을 발포해서 모든 성경을

불태우도록 명령했다.

- ‘마귀의 천년’(주후 500-1500년)인 ‘중세암흑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 사용을 금지했다. 성경을 반대하는 첫 번째 법령은 주후 860년 교황 니콜라스 1세에게서 나왔다. 주후 1198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는 법령을 선포했다.
- 위클리프가 사망한 지 31년이 지난 뒤인 주후 1415년에 그의 유해가 파헤쳐져 재판받고 불태워진 후에 스위프트 강에 뿌려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라틴 벌게이트를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었다. 주후 1536년에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목 졸려 죽은 다음에 화형을 당했다.
- 영국에 ‘괴의 여왕’ 메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주후 1553-1558년) 성경이 크리스천을 화형시킬 때 빨감으로 사용되었다.
- 프랑스의 불신자 볼테르(1778년 사망)는 한때 기독교가 자기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지 않아 죽은 종교가 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는 기독교와 성경을 반대하는 많은 책을 지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사용했던 인쇄기는 제네바 성경 공회에 의해서 성경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다. 볼테르의 작품 92권은 경매에서 단지 몇 달러에 팔렸는데 같은 경매에서 고대 성경 사본 하나는 5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

난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마치 저녁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해머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버린 낡은 해머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들을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래요.”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모루와 같구나.

수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 위를 내리쳐 왔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견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하고 말합니다.⁽¹⁾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자신의 말씀들을 파멸로부터 보존하셨다.

1. 구약성경의 영속성

최근까지 현존하는 구약성경 본문 중에서 고대의 사본은 매우 적었다. 이 중 가장 초기의 것들은 주후 895년경의 것들이다.

구약성경의 보존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롬3:2).

유대 민족의 역사와 예루살렘의 파괴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해 주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 세기에 걸쳐서 구약성경 본문을 전수하는 일에 종사했던 유대인 서기관들이 사용한 방법에서 볼 수 있다.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복사본들은 세밀한 규칙에 따라 또 정확성을 위해 최고로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여 기록되었다. 어떤 복사본이든 결함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있을 때에는 파기되거나 잠동사니를 넣은 벽장에 보관되었다. 이러한 관례가 모든 초기 사본들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남아 있는 사본들의 정확성을 보증한다.”⁽²⁾

의식에 따라서 사본들을 처분하기에 앞서 이것들은 회당에 마련된 보관소 즉 게니자(genizah)라 불리는 특별한 창고나 벽장에 보관되었다.

2. 신약성경의 영속성

구약성경과는 대조적으로 현존하는 신약성경 사본은 무척 많다. 1968년에 알란드(Kurt Aland)의 집계에 의하면 오늘날 존재하는 신약성경 사본은 다음과 같다.

파피루스 사본과 단편들 88개

영설 (대문자) 사본 267개

소문자 (필기체) 사본 2,764개

성구집 사본 2,143

이 외에도 약 10,000개의 라틴어 사본과 9,000개가 넘는 다른 역본들의

(1) John Clifford

(2) Kenyon, Sir F. The Story of the bible. London: John Murray 1944: pp12,13

사본이 있다.

이 본문들을 전부 신뢰할 수도 없으며 또 신약성경 본문의 충실성은 사본의 양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오래 된 그리스어 책이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 책에는 643개의 현존하는 복사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랜 된 것은 주후 13세기경의 것이다.)

신약성경은 지난 1,890년 이상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물리적으로 보존되었다.

a. 만인 제사장인 신자들과 신약성경 교회를 통한 살아 있는 흐름

크리스천 신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린다. 이들 제사장들에게는 2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의 순수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그분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디모데전서 3장 15절)인 자신의 교회에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살아 있는 수단으로 이러한 참된 교회들을 사용하셨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중세암흑시대 동안 국가 교회(천주교회)가 사악한 전체 정치로 통치할 때에도 수십만 명의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충성스러웠다. 물론 그들은 종종 핍박을 받으며 어두운 침체의 역사 속에 살기도 했다.

순수한 그리스어 본문에서 나온 초기의 번역본들은 시리아어(주후 150년)와 라틴어(주후 157년)로 되어 있었다. 순수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면서 이 성경들은 번창했으며 나중에는 왜곡된 성경을 가진 왜곡된 기독교의 침입에 대항하며 충실하게 보호를 받았다.

다음의 인용문을 숙고해 보라.

“구 라틴 역본은 서방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로마의 권위에 굽히려 하지 않던 신자들 - 예를 들자면, 도나티스트, 아일랜드와 브리튼과 대륙의 아이리쉬, 알비겐스(알비파) 등 -이다.”⁽³⁾

“왈덴시안들(Waldenses) - 왈도파 - 은 유럽에서 거룩한 성경기록 번역

(3) Fuller, D. O. Which Bible?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75: pg. 199 - citing Jacobus, Catholic and Protestant Bibles Compared, p200, n. 15.

본을 입수한 최초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종교개혁이 있기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 사본을 소유하고 있었다. 왈덴시안들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진리는 그들에게 증오와 박해라는 특별한 것을 선사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천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고대의 신앙을 유지했다. 진리의 말씀은 가장 놀라운 방법들로 부패되지 않은 채 중세암흑시대 내내 보존되었다.”⁽⁴⁾

“그러므로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들보다 앞서 존재하던 네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던 것이 확실하다. 이탈리아어 디오다티 성경, 프랑스어 올리베땅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 영어 제네바 성경 같은 성경들은 왈덴시안들의 영향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고대 왈덴시스 방언으로 기록된 왈덴시스 성경을 최소한 여섯 권정도 입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⁵⁾

왈덴시안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라틴 벌게이트가 부패한 본문임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거부했다. “19세기 초 테플에 있는 보헤미아의 수도원에 발견된 ‘코텍스 테플렌시스’는 초기 왈덴시안 역본의 복사본으로서 가장 초기에 인쇄된 독일어 성경의 본문(本文)을 대표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⁶⁾ 이 독일어 역본은 본질적으로 루터의 역본과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한 전통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다. 이 성경은 또한 소위 요한의 콤마(Johannine Comma)로 알려진 요한일서 5장 7절을 담고 있다. (뉴만은⁽⁷⁾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번역본을 점차적으로 벌게이트와 로마의 교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시켰다고 언급한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나티스트, 알비파, 왈덴시안들이 침례성도들의 선조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

b. 동방 기독교계를 통한 잡자는 것 같은 흐름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기독교계 분파를 통해서 보존되었다. 심지어 배도와 암흑의 시대에도 그랬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 1세는(주후 312-337년)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는 그 도시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개명했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은 동파서 두 다리로 분열되었고(단2:33) 기독교계에는 두 개의 큰 분파가 생겨

(4) Ibid pg. 215

(5) Ibid pg. 212

(6) Newman, A, H, A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Pennsylvan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10: Volume 1, pg. 580

(7) In his Recent Researches Concerning Medieval Sects

나게 되었다. 서방(라틴) 교회는 로마가 중심이었고 동방(비잔틴)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었다.

비잔틴 시대는 주후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동방 교회는 역사의 대부분을 배도의 어두움 속에 거했지만 수도승들은 수도원 안에서 수천 부의 순수한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을 계속해서 복사해 냈다. 자신들이 복사한 바로 그 성경기록이 유아 세례,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등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보존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산 중 하나이다.

- 언어의 유산 - 서방이 라틴어화 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그리스어가 계속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리스어 성경기록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었다.
- 사도적 유산 - 그리스와 소아시아는 처음에 기독교에서 강력한 중심지였다. 대부분의 '원본들'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 선교의 유산 - 안디옥은 최초의 선교 중심지였다(사도행전 11장, 13장 참조). 동방은 기독교의 발상지였다.
- 신조의 유산 - 니케아 공회(주후 325년)부터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주후 869년)까지 모든 에큐메니칼 공회는 동방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개최되었다. 큰 교리적 논쟁들이 이 공회들에서 다루어졌다.

언어와 영향력이라는 전통은 결과적으로 신약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전수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과 전통과 관련이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비잔틴 본문

전통 본문

수용 본문

안디옥 본문

시리아 본문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약 90%는 이 계열에 속한다.

B. 성경 본문의 순수성

사탄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는 시도와 함께 본문 부패라는 더욱 교묘한 또 다른 방책을 사용했다.

사탄은 학문을 가장하여 매우 흡사하게 위조된 가짜 성경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말씀들을 순수한 형태로 보존해 오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주목할 만하다.

1.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본문을 보존하심

구약성경의 신뢰성은 서기관들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고 구약성경의 전수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서 일어나게 할 만큼 대단한 일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문서들을 최상의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으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산더미 같은 고리보다 율법의 글자와 음절과 점과 획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모든 글자를 개별적으로 헤아렸으며 그것들이 몇 번 나타나는지 기록해 두었다. 공인된 회당 사본의 필사 과정에서는 사소한 문자에도 엄격한 규칙들이 적용되었다.”⁽⁸⁾

다음 내용들은 본문 필사 작업에 관한 탈무드 규칙의 일부이다.

- a. 파치먼트(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
- b. 파치먼트는 유대인에 의해서만 준비되어야 한다.
- c. 파치먼트는 정결한 짐승에서 취한 끈으로 묶어야 한다.
- d. 문서의 각 칼럼에는 48줄에서 60줄만 있어야 한다. 두루마리의 칼럼의 숫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같아야 한다. 각 칼럼은 정확하게 30자 폭으로 되어야 한다.
- e. 각 칼럼의 가장 처음에는 줄을 그어야 하고 줄 없이 세 단어를 쓰게 되면 전체 복사본이 가치 없으므로 파기해야 한다.
- f. 모세의 다섯 번째 책은 정확하게 줄을 그어 마무리해야 한다.
- g. 잉크는 검정색만 사용하며 잉크 제조법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 h. 서기관들은 편한 서기관 복장을 갖추어야만 한다.
- i. 단어나 글자를 외워서 쓸 수 없다. 서기관은 자기 앞에 믿을 만한 복사본

(8) Ibid pg. 112

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서 발음한 뒤에 기록해야 한다.

- j. ‘여호와’란 단어를 기록할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펜을 씻어야 한다.
- k. 서기관은 온 몸을 씻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쓸 수 있었다.
- l. 펜의 사용, 글자 모양, 글자와 단어와 단락 사이의 여백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 m. 두루마리는 30일 이내에 점검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전체 두루마리를 버려야 한다.
- n. 틀린 것이 한 군데 있으면 그 장(章)을 폐기한다.
- o. 한 페이지에 틀린 것이 세 군데 있으면 그 사본을 폐기한다.
- p. 모든 단어와 글자의 수를 헤아려야 한다. 한 글자라도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겹쳐 버리면 사본 전체를 폐기시켜야 한다.
- q. 각 자음 사이는 털끝만한 간격이어야 하고 각 단락 사이는 자음 아홉 개 너비여야 하며 각 책 사이에는 세 줄 간격이 있어야 한다.

“사본 하나가 탈무드에 규정된 대로 정밀하게 복사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입증된 다음에는 믿을 만한 것으로 수용되었고 다른 복사본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전부 똑같이 정확하다면 오래된 사본이라고 더 나은 것이 없고 오히려 오래된 것이 실제로는 득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래된 사본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모되거나 손상되기 쉬웠기 때문이다.”⁽⁹⁾

2.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본문을 보존하심

신약성경 본문을 전수하기 위해서 고안된 규칙은 아무 것도 없었으나 사람들이 이 크게 신경을 쓴 것은 매우 분명하다.

- a. 기독교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이 매우 컸다.

논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들의 기록들을 구약성경보다 덜 존중히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

- b. 사본 복사 작업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피커링(Wilbur Pickering)은 다음과 같은 메츠거(Bruce Metzger)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레네우스는 자신의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주석을 덧붙였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9) Kenyon, F. C. *Our Bible and the Ancient Manuscript*. New York,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1: pg. 43

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으로 이 책을 복사하는 사람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베껴 쓴 것들을 너희가 복사하는 이 사본과 비교하고 주의 깊게 수정하라. 또한 이 권고를 베껴 써서 그 복사본에 삽입하라.”⁽¹⁰⁾

피커링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묻는다. “이레네우스가 자신의 작품을 정확하게 전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과격한 경고를 미리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복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이 있었겠는가?”⁽¹¹⁾

또한 그는 계시록 13장 18절의 정확한 숫자가 666인지 616인지에 대해서 이레네우스(주후 115-200년)가 가졌던 큰 관심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이레네우스는 가장 크게 인정받는 고대의 복사본들이 모두 666이라고 단언했고 ‘요한을 대면해서 본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의 증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글자 하나라도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성경기록에서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가볍지 않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xxx.1)”⁽¹²⁾

c. 초창기에는 본문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첫 번째 라틴 번역본들이 벌게이트가 주후 380년에 출현한 이후로 9백 년 동안 버터 왔다고 들었다.”⁽¹³⁾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수회는 벌게이트의 영어 번역본인 랭스-두에 역본을 만들어 냈다. 예수회는 그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알덴시안들이라 불리는 종파의 이단적인 가짜 번역본들을 그것들에 의해 속임 당한 사람들의 손에서 빨리 떨어내고자’ 벌게이트가 이탈리아 어로는 1300년에, 프랑스어로는 1400년에 번역되었다.”⁽¹⁴⁾

이러한 충돌은 본문상의 차이와 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보여 준다.

(10) Pickering, W. N.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1977: pg. 102

(11) Ibid

(12) Ibid

(13) Fuller, Op. Cit pg. 201

(14) Ibid: pg. 209

VI. 구약성경의 보존

차트 1은 자필원본에서부터 킹제임스 성경까지 구약성경이 전수된 순서를 보여 준다.

A.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거

1. 마소라 본문

마소라들(Masorettes)은 순수한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 전수를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이 일에 종사한 유대인 학자들이었다. ‘마소라’라는 명칭은 ‘전통’을 의미하는 ‘masorah’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마소라 서기관들은 주후 500-1000년 사이에 활동했다. 이들의 주 활동 무대는 디베리아였다.

이들은 탈무드에 규정된 엄격한 규칙을 따랐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일부 추가했다. 이들은 각 책의 절, 단어, 글자의 숫자를 헤아렸다. 이들은 절마다 알파벳의 각 철자가 몇 번 나오는지도 헤아렸고, 알파벳 철자가 모두 담긴 구절은 전부 열거했다. 이들은 또한 책마다 정중앙 단어와 정중앙 철자를 확인해서 판정했다.

마소라들은 히브리어 문자에 모음 부호를 끼워 넣는 작업도 행했으며 이로써 문자로 기록된 히브리어를 표준화했다.

남거나 잘못된 사본을 파기한 마소라들의 관습으로 인해서 현존하는 사본은 극소수이다. 중요한 히브리서 사본은 다음과 같다.

a. 카이로 코덱스

코덱스 카이렌시스 (C), 주후 895년, 이것은 전기와 후기 대언서를 담고 있다.

b. 레닌그라드 코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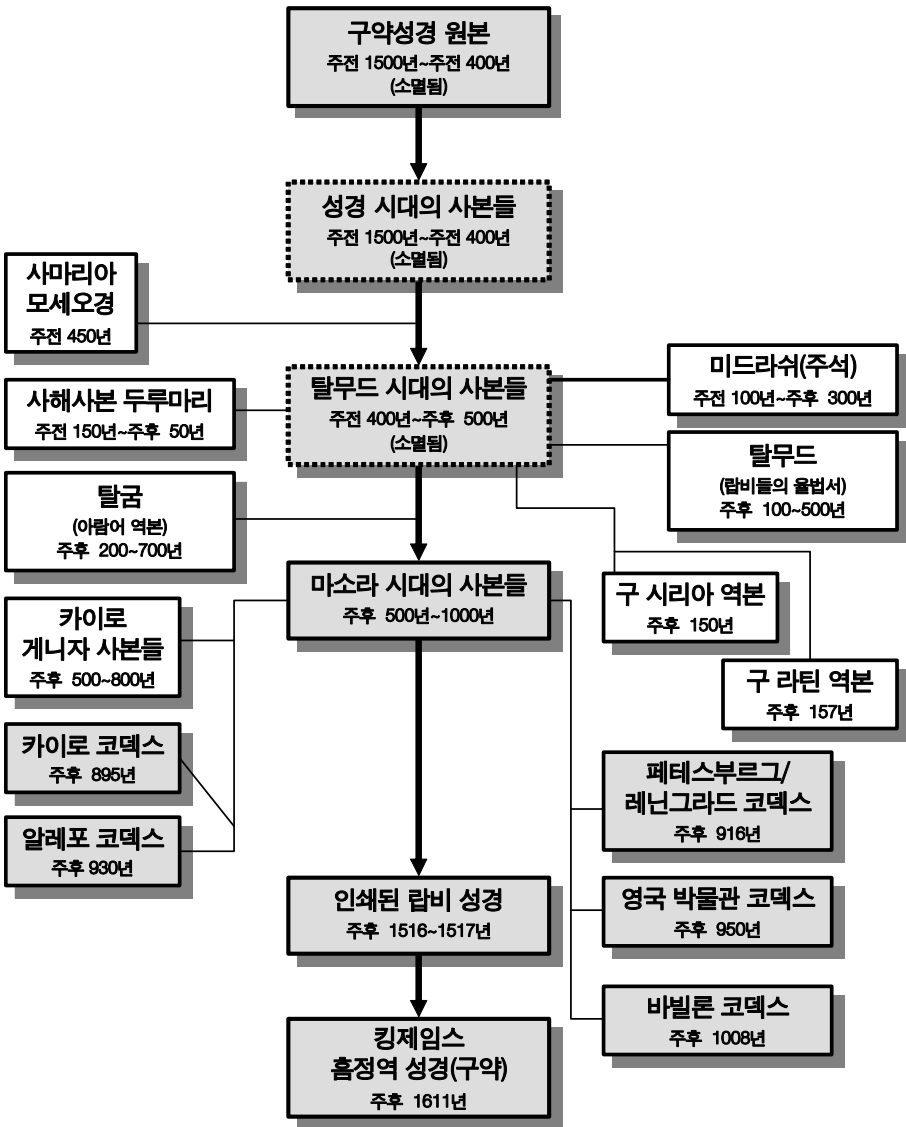
(MXB3). 주후 916년, 이것은 후기 대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개의 소대언서 - 를 담고 있다.

c. 코덱스 바빌로니쿠스(페트로폴리타누스)

이것은 페테스부르크 코덱스와 코덱스 바빌로니쿠스로(B19a)도 알려졌다. 이것은 주후 1008년경의 것으로 완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초기의 구약성경 사본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 히브리어 본문과는 여러 군데가 다르다.

d. 알레포(Aleppo) 코덱스

이것은 주후 930년경의 것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유일한 사본



〈차트 1: 구약성경의 전수과정〉

10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이지만 현재는 불완전하다.

e. 영국 박물관 코텍스

Oriental 4445, 이것은 주후 950년경의 것이며 창세기 39장 20절부터 신명기 1장 33절까지를 담고 있다.

f. 로이힐린(Reuchlin) 코텍스

이것은 주후 1105년경의 것으로 레닌그라드 코텍스에 근거한 대언서들의 개정판을 담고 있다. 이것에는 Ad.21161라는 번호가 붙여졌다.

2. 나쉬(Nash) 파피루스

a. 시기: 주후 150년

b. 발견 장소: 1902년 이집트에서 발견됨

c. 내용: 십계명과 쉼마(신명기 6장 4-9절). 흥미롭게도 이것은 6계명과 7계명을 바꿔놓았다. 코텍스 B도 그렇다.

d. 문자: 고(古) 히브리어

3. 카이로 게니자 단편[V. A. 1 참조]

이것은 19세기 초에 구 카이로에 있던 잊혀진 게니자에서 발견된 주후 6세기의 단편이다.

4. 사해 두루마리

이것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이다. 이것은 여리고에서 약 7.5 마일 떨어진 쿨란에 있는 사해 근처의 여러 동굴에서 발견되어서 이렇게 명명되었다.

a. 발견

이것은 1947년 3월에 잃어버린 염소를 찾고 있던 아랍 소년이 동굴로 들어갔다가 토기 항아리 속에 담긴 가죽 두루마리를 찾아냄으로 발견된 것이다. 발굴은 1956년까지 이어졌다.

b. 특성

사해 두루마리는 에세네파 공동체가 소장한 장서의 일부이었다. 에세네파는 주전 140년경 설립된 이단적인 유대교 종파의 하나다.

모든 두루마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약 600개의 성경 사본이 이 발견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

c.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

- 이사야 A - 완전한 본문
- 이사야 B - 불완전한 본문
- 하박국 - 처음 두 장
- 사무엘기 - 단편만, 주전 300년
- 레위기 - 불완전
- 탈굼 - 창세기 5장부터 15장까지
- 탈굼 - 욥기

d. 연대

도서관의 장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서들의 연대는 다양하다.

탄소 14 연대측정, 고문서학, 정서법(正書法), 근처 무랍바앗 (Murabba'at)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통해 이 문서들의 연대는 대개 주전 100년과 주후 200년 사이로 밝혀졌다.

e. 가치

대부분의 사해 사본은 마소라 본문의 정확성을 입증한다. 이사야 A 사본은 마소라 본문과 95% 일치하며 나머지 5%는 복사상의 오류가 명백하다.

이사야 B는 마소라 본문과 더욱 가깝다.

사해 두루마리의 다른 사본들은 전통 본문이 아니다(에세네파는 정통 유대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5. 탈굼(Targums)

탈굼(‘해석’)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하거나 의역한 것으로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제한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 a. 처음에 이것들은 구전 번역이었다(느8:8)
- b. 이것들은 주후 2세기부터 기록되었다.
- c. 이것들은 주후 5세기에 유대인들의 공식 번역이 되었다.
- d. 주후 10세기 이후에 팔레스타인에서 아람어가 아랍어로 대체되었고 탈굼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 e. 모세오경 탈굼
 - 옹켈로스(Onkelos) 탈굼 - 주후 3세기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이것은 아퀼라의 작품으로 보인다. [헉사 플라 참조]

- 예루살렘 탈굼 - (사이비 요나단 탈굼), 주후 7세기 중엽
- 탈굼 단편

f. 대언서 탈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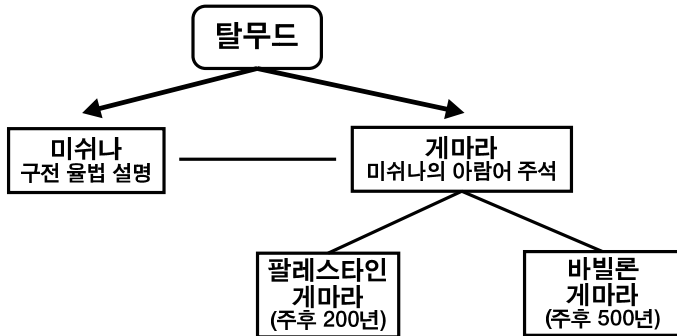
요나단 벤 웃시엘의 탈굼 - 주후 4세기

g. 하기오그라파(성문서들) 탈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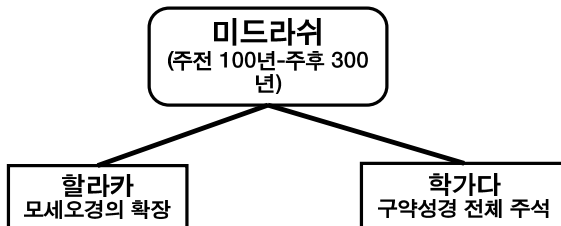
다양한 부분을 담고 있는 후대의 많은 탈굼이 현존하고 있다.

6. 탈무드와 미드라쉬

‘탈무드’(교훈)는 모세오경에 근거한 유대교 기록들(민법과 정경법)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주전 300년부터 800년 이상에 걸쳐서 수집된 랍비들의 견해와 판단으로 구성된다.



‘미드라쉬’(연구)는 구약성경의 교리 해설을 수집해 놓은 것으로 현재의 성경 주석서에 해당한다. 이것은 주전 100년부터 400년 이상 기록되었다.



구약성경 본문을 증언하는 사본으로서 탈무드와 미드라쉬의 가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것들은 '배경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B.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비-유대인의 증거

여기에 속하는 주요 증거는 사마리아 오경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유민들과 주전 721년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이입된 이교도들의 잡혼을 통해서 생겨났다(왕하17:5-6, 24-34). 그 뒤 주전 536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가혹한 원수가 되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다(스4:1-16; 느4-6). 느헤미야가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했다고 유대인 대제사장의 손자를 축출했을 때(느1:23-31)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러한 불쾌한 관계는 신약시대까지 지속되었다(요4:9).

사마리아의 종교는 주전 432년 엘리아십의 손자가 추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종교는 유대인 신앙을 왜곡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의 것에 대응하는 성전(그리심 산 - 요4:20), 대응하는 제사장직, 대응하는 명절, 대응하는 의식을 주장한다. 오늘날에도 사마리아 종파의 소규모 유민들이 나블루스(세겜)의 웨스트뱅크시에 살고 있다.

1. 기록 시기 - 주전 5세기 후반
2. 내용 - 창세기부터 신명기
3. 문자 - 고(古)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형태)
4. 본문 - 히브리어에서 6천 번 고쳤고 고의로 바꾼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5. 현존하는 사본 - 사마리아 오경이 몇몇 그리스 교부들에게는 알려졌지만 오늘날 실제로 남아 있는 옛날 사본은 없다.
 - a. 영국 버밍햄의 라일랜드 도서관에 주후 1212년도 복사본이 보관되어 있다.
 - b. 뉴욕 공공 도서관에 주후 1232년도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1616년 다마스쿠스에서 이 복사본이 발견된 이후로 사마리아 오경을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보다 우수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 c. 나블루스의 사마리아 공동체는 아론의 고손자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두루마리 하나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후 1000년 전에 기록된 것 같지 않다.

C.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크리스천의 증거

1. 초기 그리스어 번역본

이 내용은 7장에서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이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초기 크리스천들은 자기들 언어로 된 번역본을 원했고 몇 가지가 독립적으로 번역되었다.

초기 (부패한) 번역본으로 알려진 것들은 아퀼라 역본(Aquila, 주후 128년), 테오도티온 역본(Theodotion, 주후 180년), 시마쿠스 역본(Symmachus, 주후 200년) 등이다. 이 역본은 각각 오리겐의 헥사플라(Hexapla) 속으로 들어갔다.

2. 구 라틴 성경

이 성경은 크리스천들의 고대 구약성경 역본으로 주후 150년경에 번역되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역의 크리스천들이 만든 독립적인 다양한 번역본들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4세기에 어거스틴은 라틴어 번역본에 막대한 종류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제롬은 사본들만큼의 많은 라틴어 본문이 있다고 했다.”⁽¹⁵⁾

- a. 단편적인 사본들과 인용문들만 있다.
- b. 시편, 룻기, 에스더만 책 전체가 있다.
- c. 고대 사본은 어디에도 외경을 담고 있지 않다. 외경은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에서 추가되었다.

3. 구 시리아 성경

이 성경은 주후 150년에 만들어진 시리아어 별게이트 번역본으로 북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교회들이 사용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었고 구 라틴 성경처럼 공식적인 번역본은 아니었다.

이 역본은 페시타로 알려졌는데 페시타는 나중에 헥사플라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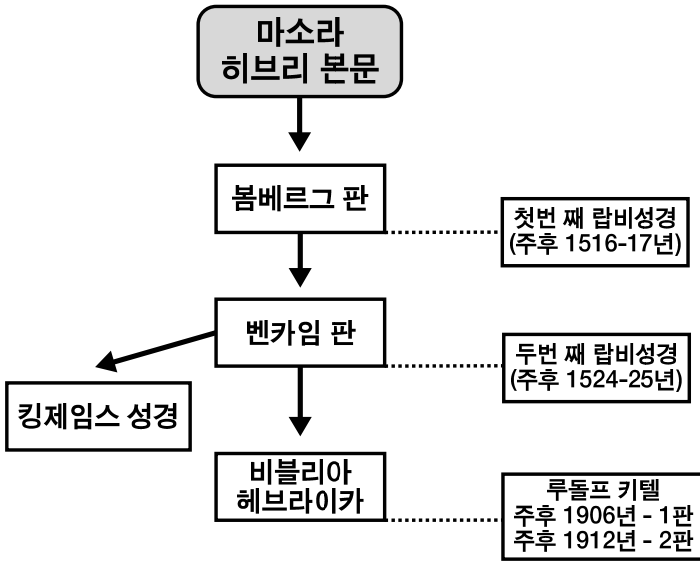
D. 표준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일부가 주후 1477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었고 구약성경 전체는 주후 1488년에 인쇄되었다.

첫 번째 큰 랍비 성경(구약성경)은 주후 1516/17년에 다니엘 봄베르그(Daniel

(15) Hills, E. F. *Believing Bible Study*. Des Moines, Iowa: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1977: pg. 15

Bomberg)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E. 현재의 '표준' 히브리어 본문

1937년 키텔(Kittel)은 역사적인 본문에서 벗어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다른 판'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레닌그라드 사본의 이문(異文)을 사용한 벤 아셰르(Ben Asher) 본문을 따랐다. 이 판에 담긴 본문 변화와 부패한 각주 때문에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올바른 (연도) 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NIV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진술이 담겨 있다. "구약성경 표준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가장 최근 판으로 출간된 마소라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었다." 실상이 이러하므로 NIV는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히브리어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사실 NIV 서문에는 구약성경 본문을 위한 14개의 다른 출처와 판정법이 열거되어 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트트가르텐시아'(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알려진 새로운 히브리어 본문이 1967/77년에 출간되었다. 이것 역시 벤 아셰르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사해 두루마리와 함께 다른 사본 증거들에서 이문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본문은 뉴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었다.

VII. 신약성경의 보존

차트 2는 자필원본에서부터 킹제임스 성경까지의 순수한 신약성경 본문이 전수된 과정을 보여 준다.

A. 구 라틴 성경

라틴어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지만 주후 3세기까지도 서방에서는 '문학 언어'로 그리스어가 계속 사용되었다.

구 라틴 구약성경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경은 광범위한 기초에 근거해서 번역된 비공식 성경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신앙의 초창기에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 약간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에 그리스어 코텍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는 담대히 번역을 시도했다."⁽¹⁶⁾

풀러는 계속해서 언급한다. "구 라틴 성경의 증거는 대단히 다양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리스어 코텍스에서 나온 몇 가지 고대 번역본들이 구 라틴 성경에 의해 대표된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전부 다는 아니라도 다수의 구 라틴 성경의 증거는 전통 본문에 호의적이다."⁽¹⁷⁾

로마 카톨릭 라틴 벌게이트라는 '공식 라틴어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국 전체에 라틴어 성경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구 라틴 성경은 이탈리아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사용되었다.

1. 구 라틴 성경 사본

구 라틴 성경 본문은 주후 4세기부터 12세기에 걸친 32개의 불완전한 사본들에 의해 나타난다. 이것들을 수집하면 베드로후서를 제외하고 신약성경 전체를 모을 수 있다.

"현존하는 라틴 교부들의 기록들로부터 실제로 구 라틴 신약성경 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¹⁸⁾

본문 비평가들은 구 라틴 성경을 두 가지 계열로 열거한다.

a. 아프리카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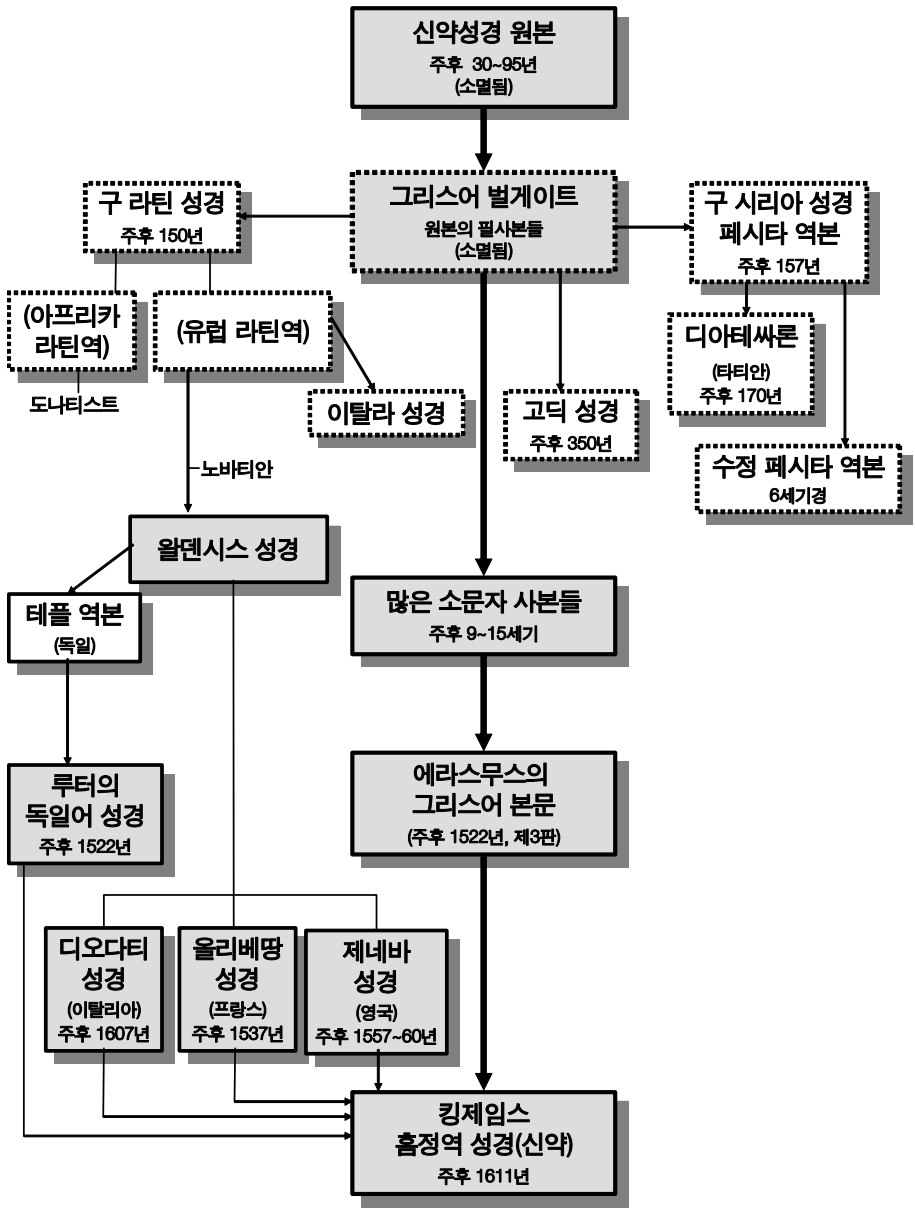
이것은 도나티스트들이 거하던 북아프리카의 라틴어 성경을 말한다. 여기에 속한 주요한 사본들은 다음과 같다.

- 코텍스 팔라티누스 (e) - 5세기 - 복음서

(16) Fuller, Op. Cit. pg. 188

(17) Ibid

(18)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0: pg. 237



〈차트 3: 신약성경의 전수과정〉

- 코텍스 보비엔시스 (k) - 4세기
- 플러리 팔림프세스트 (h)
- 스페쿨룸 (m) - 라틴어 구절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었다.

b. 유럽 계열

이것은 더욱 세련된 유럽의 라틴어 성경이다.

- 코텍스 베르셀렌시스 (a) - 4세기. 이것은 라틴 별게이트를 만드는 데도 사용했을 것이다.
- 코텍스 콜베르티누스 (b) - 12세기. 라틴 별게이트가 구 라틴 성경 전체를 대체하지 못했음이 이 성경으로 입증되었다.
- 코텍스 코르비엔시스
- 코텍스 기가스 (gig) - 이것은 '마귀의 성경'으로 불렸다. 이것의 본문 전부가 구 라틴 성경은 아니다.

2. 가치

부패되기 이전의 구 라틴 성경 본문은 비잔틴 계열이다.

B. 구 시리아 성경

구 시리아 성경의 연대는 주후 157년이다.

1. 구 시리아 성경 사본

구 시리아 신약성경 본문을 증언하는 사본은 현재 두 가지가 있다.

- a. 큐레톤 시리아 성경(Curetonian Syriac) - 5세기 - 복음서
이것은 비평 장치에서 'sy^c'로 나타낸다.
- b. 시내 시리아 성경(Sinaitic Syriac) - 4세기 - 복음서
이것은 'sy^s'로 명명된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이다.

이 두 사본들은 대체로 전통 본문을 지지한다.

또 다른 사본 묶음은 'sy^{pah}'로 표시되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성경 (Palestinian Syriac)이다. 이것들은 주로 주후 5세기 이후의 복음서 성구집이다.

2. 타티안의 디아테싸론(Diatessaron)

시리아 '교부' 타티안(Tatian, 주후 110-176년)은 주후 170년에 사복음서의 일치하는 부분을 섞어서 편집했으며 이것은 디아테싸론('관통 사복음서'

혹은 ‘네 개를 한 개에’ 모은 사복음서 대조)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매우 인기가 있었고 주후 5세기 중엽까지 널리 퍼졌다.

이것은 오늘날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번역과 에프라임의 다아테싸론 주석의 아르메니아어 번역 안에 남아 있다.

다아테싸론은 복음서들을 어떤 점에서 훼손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통 본문과 일치한다.

3. 페시타(Peshitta)

1904년에 버킷(Burkitt)이 페시타는 5세기에 라블라 주교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페시타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성경을 가리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a. 구 페시타

이것은 2세기의 구 시리아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한 쉽고 일상적인 성경이었다.

b. 개정 페시타

어느 단계에서 구 시리아어 성경은 부패되었다. 종종 페시타라고 언급되는 성경은 공식적인 (혹은 개정) 역본이었다. 이 성경은 원래 신약성경의 안티레고메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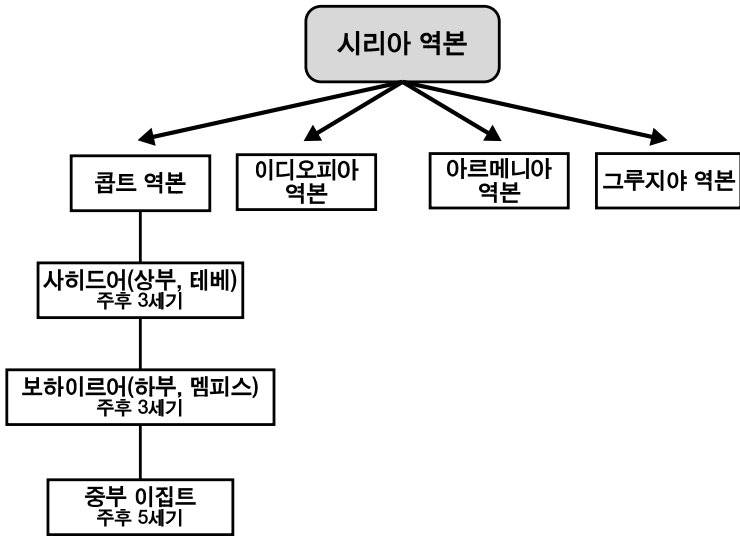
현재 350개의 페시타 고대 사본들이 남아 있다. 이것들은 “sy^h”로 명명되었는데 이것은 필로크세누스-하클레안 시리아 역본(Philoxenian Harklean Syriac)을 가리킨다. 이 성경은 주후 508년에 편집되었고 주후 7세기에 개정되었다. 이것은 구 시리아어 성경을 고쳤고 안티레고메나의 일부를 첨가했다. 현재 약 50개의 완전한 사본이 남아 있다.

4. 시리아어에서 번역된 다른 역본들

[아래 도표 참조]

- a. 이 계열들은 순수한 시리아어 본문에서 유래했지만 대부분은 부패되었다.
- b. 아르메니아어 역본은 타티안의 다아테싸론의 영향을 받았다. 주후 5세기 아르메니아(메스롭) 선교사가 이 역본을 제작할 목적으로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발명했다. 이 역본은 ‘역본의 여왕’으로 알려졌다.
- c. 라틴 별게이트 이후의 아르메니아 역본 중 현존하는 사본들은 가장 수가 많다.

- d. 사히드어(Sahidic) 사본들은 전통 본문과 더 많이 일치한다. 이 역본의 주요한 사본은 5개가 있다.
- e. 보하이르어(Bohairic) 역본의 사본은 현재 88개가 존재하며 이것은 콥트 교회의 공식 성경의 기초이다.
- f. 이디오피아 역본은 현재 외경과 가경을 포함하고 있다.



C. 고딕(Gothic) 역본

이것은 고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울필라스(Ulfilas, '작은 이리')라는 선교사가 주후 350년경에 만들었다. 울필라스는 먼저 알파벳을 발명했고 그 후 그리스어 (수용 본문)에서 직역하여 번역본을 만들었다.

D. 슬라브어 역본

이 성경은 주후 9세기에 시릴(Cyril)과 메쏘디우스(Methodius)가 그리스어 본문에서 번역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자주 개정(교정)되었다.

제 6 장

복습 문제

1. 최초의 성경기록들(자필원본들)의 영감만을 믿는 것이 잘못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인가?
2. 최초의 성경기록들(자필원본들)의 영감을 믿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3. 시편 12편 6,7절을 인용하십시오.
4. 보존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 세 개를 쓰시오.
5. 디모데후서 3장 15,16절에서 최초 성경기록들(자필원본들)의 복사본과 그 복사본의 번역도 최초의 성경기록과 동일하게 영감 받았다고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6. '축자적 보존'을 입증하십시오.
7. 보존 교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8. 신약성경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9. 보존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견해를 설명하십시오.
10.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두 분야는 어디인가?
11. 현존하는 구약성경 고대 사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12. '카이로 게니자 단편'이라고 명명된 이유는 무엇인가?
13.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약성경의 고대 사본들이 남아 있는가?
14. 신약성경 본문이 보존된 두 개의 흐름은 무엇인가?
15. 고대 침례 성도 그룹 중 구약성경 번역본을 보존한 일에 쓰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6. 하나님께서 비잔틴의 흐름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17. 얼마나 많은 그리스어 사본이 비잔틴 계열에 속하는가?
18. '하나님'과 '여호와'를 필사하는 일과 관련하여 유대인 서기관들에게 탈무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19. 필사한 구약성경 사본이 무가치하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십시오.
20. 마소라들은 누구인가?

21. 마소라들이 히브리어 문자에 공헌한 것은 무엇인가?
22. 중요한 마소라 사본 세 개의 이름을 말하시오.
23.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은 몇 세기인가?
24. 사해 두루마리에서 어떤 책들이 들어 있는가?
25. 탈군은 무엇인가?
26. 탈무드는 무엇인가?
27. 사마리아 오경과 히브리어 본문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8. 주후 150년경 구약성경을 번역한 세 개의 언어는 무엇인가?
29. 이것들은 '공식' 번역본이었는가?
30. 구 라틴어 성경에는 외경이 있었는가?
31. 구 라틴어 신약성경 사본을 나누는 두 개의 '계열'은 무엇인가?
32. 구 라틴어 신약성경의 본문 계열은 무엇인가?
33. 구 시리아어 신약성경의 본문 계열은 무엇인가?
34. 타티안의 디아테싸론은 무엇인가?
35. '페시타'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36. '벌게이트'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37. '비잔틴'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38. 주후 350년 율필라스가 번역한 성경은 무엇인가?

제 7 장

부 패

이단들의 손에서 성경 본문의 부패가 시작될 때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아멘’은 기록되지도 않았다(고후2:17). 기독교의 초기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기록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 시작했다(벧후3:16).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 본문의 순수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과 그 결과 그러한 부패로부터 생겨난 왜곡 본문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I. 본문 부패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부패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사탄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이다. 따라서 성경 본문 부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다는 것이며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 - 1절 -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킴 - 2절 - “우리가 먹어도 되나” 대(對)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함 - 3절 -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함 - 3절 -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대(對)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함 - 4절 -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함 - 5절 - “너희가 신들이 같이 되어”

골로새서 2장 8절은 크리스천들에게 두 가지 오류를 경고하고 있다.

전통 -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한다.

철학 -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한다.

역사는 성경 본문 부패의 대부분이 크리스천 역사의 처음 2세기 안에서 발생했음을

보여 준다.

“신약성경의 최악의 부패는 성경이 만들어진 후 백 년도 넘지 않아서 발생했다.”⁽¹⁾

이러한 부패는 두 종류로 이루어졌다.

A. 성경기록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것

거짓 교리와 이단 종파의 발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 공개적으로 성경기록을 왜곡했다.

“에피파니우스는 자신의 논문(論文)에서 80개나 되는 이단 무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 각 종파는 성경기록을 오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진행시키려고 궁리했다.”⁽²⁾

“2세기 말에 글을 쓴 정통과 교부 가이우스는 네 개의 이단을 거명했는데 이들은 본문을 바꾸었고 또 자기들의 노력에 의한 복사본을 번식시킨 제자들도 두었다. 가이우스가 다음과 같이 그들을 비난한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복사본을 만들 때 사용한 원래의 본문들을 만들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³⁾

이런 종류 부패의 실례는 이단 마르시온(Marcion, 주후 120-170년)의 캐논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르시온은 도세티스트(Docetists)로 알려진 영지주의 종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이들은 실제적인 육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면서도 무엇보다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실제성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뼈의) 실제성을 부인했다. 마르시온의 반유대적인 도세티스트 성경은 구약성경 전체를 생략했고 축소한 누가복음과 (목회 서신을 제외한) 열 개의 바울 서신으로 구성되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루는 부분을 생략한 것은 그가 도세티스트의 신앙을 가졌음을 드러낸다. 주후 550년 코텍스 베자에(D)는 누가복음 24장 3, 6, 12, 36, 40, 51-52절을 생략했는데 이것은 마르시온에 의한 가장 초기의 부패에 의해 이 코텍스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B. 성경 본문에 대한 편집상의 수정

지금까지 가장 큰 부패는 필사자보다는 편집자로서 일한 서기관들의 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 Fuller, D. O. Which Bible?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75: pg. 2

(2) Ibid. pg. 2

(3) Pickering, W. N.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1977: pg. 109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본문을 고치는 책임을 맡았다. 사악한 본문 변경의 대부분은 교리적 선호도를 기초하여 이들이 작업한 본문에서 이루어졌다.

한 가지 실례가 NASB의 요한복음 1장 18절이다. 이 구절은 바티칸 사본 (Vaticanus, B)에서 발견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리안 계열의 본문 이문 (異文)을 담고 있다.

교리적 이유에서 성경 본문을 부패시킨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리겐 (Origen, 주후 185-254년)이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IV 참조].

II. 본문 부패의 배경

본문 부패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후 3-4세기의 기독교계 역사를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A. 주후 3세기 - 변화

주후 2세기에 일어난 끔찍한 박해는 3세기에는 더욱 자주 일어났고 용인의 시대에서는 태도와 교리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1. 교회 직분의 변화

초기에 성직자를 평신도보다 높이던 것에서 더욱 발전하여 성직자 계급을 구분하게 되었다.

2. 교회 체제의 변화

교회 체제에서 성직자 계급 시스템도 네 가지 주요한 요인의 영향 하에서 발전하였다.

- a. 로마의 정치 모형
- b. 구약성경 (유대인) 모형
- c. 카톨릭 (보편적) 교회 개념

이 개념은 '부패한 교회론의 아버지'인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안 (Cyprian, 주후 200-258년)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 d. 기독교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들의 지배력 강화

3. 교회 질서의 변화

교회에서 출회 당했으나 회개의 표시를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류 즉

‘참회자’로 불리는 크리스천 부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경미한 죄와 치명적인 죄를 구분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참회자들에 대한 징계는 성직자가 정했다.

4. 교회 예배의 변화

3세기에 금욕주의가 증가하게 되었다. 독신주의, 금식, ‘십자가 성호’ 사용.

5. 교회 규례의 변화

성사중심주의(sacramentalism)가 몰려 들어왔다. 이 시대에 처음으로 병상에서의 침례(세례)가 언급되었다.

주후 251년 영구적인 분열이 기독교계의 내부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노바티안 분열’(Novatian Schism)로 알려졌으며 이때에 노바티안 교회들(침례 성도들)이 ‘국가 교회’로부터 분리하였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교회에서의 징계 문제로 다투었고 ‘국가 교회’의 침례(세례)를 더 이상 효력 있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B. 주후 4세기 - 부패

1. 디오클레티안 칙령

주후 303년과 311년 사이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다섯 개의 칙령이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재위 기간, 주후 284-305년)과 그와 공동 통치자인 클로루스, 막시미안, 갈레리우스에 의해서 포고되었고 이로 인해 잔인하고 야만적인 로마의 박해가 이루어졌다. 이때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역사상 첫 번째로 기독교가 진압되었다.

2. 콘스탄틴의 개종

로마의 콘스탄틴 1세는 주후 313-337년 동안 로마 황제로서 통치했다. 콘스탄틴은 주후 311년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결정적인 전투에 직면했을 때 하늘에서 불타는 십자가와 함께 ‘In hoc signo vinces’(이 상징으로 이기라)라는 글자를 보았다. 이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인 콘스탄틴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고 크리스천의 ‘신’에게 그 공로를 돌렸다. 이 사건은 기독교를 향한 그의 태도를 바꾸었고 그 결과 그는 기독교 공인 칙령을 선포하였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은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모든 크리스천에게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국가 종교로 채택했다.

카톨릭 기독교계는 그를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만 그가 진짜 구원받

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콘스탄틴은 임종 시 침례 받을 때까지도 자신의 이교도적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3. 콘스탄틴 하에서 기독교의 변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장려했으며 십자가를 신비한 것으로 생각했다.

콘스탄틴의 개종으로 어치구니없는 변화가 두 가지 발생했다.

a.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었다.

로마는 언제나 종교 중심 사회였다. 로마에는 공식 정부와 공식 종교가 있었다. 종교는 정부를 떠받쳤고 정부는 종교를 떠받쳤다. 콘스탄틴 하에서 실제로 벌어진 모든 일은 공식 종교 안에서의 변화 즉 이교주의에서 기독교로의 변화였다.

기독교의 손에는 이제 검이 쥐어졌다. 기독교 사제는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니고 정치인이었다. 목사는 세금과 병역 의무를 면제 받았다.

교회는 불신자로 채워졌다. 노예들은 '침례'만 받으면 자유가 주어졌다. 주후 325년 콘스탄틴은 모든 신하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도록 권고했다.

b. 기독교가 이교주의와 융합되었다.

이렇게 황제가 지원한 결과로 불신자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이교적 신앙과 관습을 가지고 '교회'에 합세했다. 반면에 '교회'는 그러한 이교적 관습들을 기독교화 함으로써 그들의 편의를 봐 주었다.

4. 기독교계를 통합하려는 콘스탄틴의 노력

이 시기에 기독교계는 많은 논점으로 인해 갈라졌다. 콘스탄틴은 크리스천을 통합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a. 니케아(Nicea) 공회

이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예큐메니칼 공회였다. 이것은 기독교계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 의장)인 콘스탄틴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요한 논점은 아리안주의였는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Arius, 주후 250-336년)의 이름을 딴 이단 교리였다. 그는 예수는 가장 위대하게 창조된 '신'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거나 본질이 같지 않다고 가르쳤다.

b. 공식적인 공통 성경

콘스탄틴은 ‘에큐메니칼 성경’의 출간을 원했다. 그것은 그의 제국 내에서 모든 크리스천이 수용할 수 있으며 제국 기독교라는 자신의 개념을 진행시킬 수 있는 성경이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c. 비국교도들 탄압

콘스탄틴의 편에는 그 당시 대세를 차지한 (카톨릭) 교파에만 미쳤다. 주후 320년 그는 도나티스트(침례교도)를 반대하는 칙령을 선포했다.

C. 기독교계의 큰 중심지

크리스천 역사의 초기에 몇몇 도시는 정치적, 지리적, 역사적, 종교적 사정으로 인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교회 체제에서 성직자 계급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 도시의 감독들은 ‘메트로폴리탄’, ‘대주교’, ‘총대주교’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초기 중심지에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가 포함된다. 또한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콘스탄티노플도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중심지는 성경 본문의 전수와 신학 발전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주후 3-4세기에 세 지역이 매우 두드러졌다.

1. 로마 - 유럽

로마 교회는 그 위치와 영향력 덕분에 교회 권력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로마는 그 시점에서 그리스교 교리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로마는 나중에 라틴 (서방)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고 죄와 구원이라는 좀 더 실제적인 신학적 문제에 관여하였다.

로마 교회는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자필원본 그리고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의 자필원본을 다섯 개까지 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로마 학파가 성경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은 전통적이며 해석적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시작된 부패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본문을 확장 -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 - 시키는 경향이 있다.

2. 안디옥/콘스탄티노플 - 아시아

신학에 있어서 안디옥 학파는 문법적/역사적 (문자적) 접근 방법을 성경 해석에 적용했다.

다수의 자필원본이 이 지역의 교회들과 더불어 존재했다. 피커링⁽⁴⁾은 소아시아가 열두 권의 책을 보유했고(열여덟 권일 가능성도 있음), 그리스가 여섯

권을 보유하고 팔레스타인이 두 권(세 권일 가능성도 있음)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콘스탄틴 1세가 로마 제국의 권좌를 비잔티움으로 옮긴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3. 알렉산드리아 - 이집트

신구약성경 자필원본 중에서 이 지역에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III. 본문 부패의 중요한 중심지

성경 본문 부패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던 곳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였다.

A.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창립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 거주자가 많은 도시였고 또한 그리스 (플라톤) 철학의 중심지였다. 주전 3세기부터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시인과 작가의 본문을 복원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Philo, 주전 20년-주후 42년)는 플라톤(Plato, 주전 427-347년)의 가르침과 구약성경을 융합시켰다.

크리스천들이 필로의 방법론을 신약성경에 적용하면서 영지주의(Gnosticism)라는 이단이 생겨났다. 알렉산드리아는 영지주의의 중심지였다. 바실리데스(Basilides, 주후 125년)와 발렌티누스(Valentinus, 주후 120-160년)는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자였다.

교리문답 학교는 판테누스(Pantaenus, 주후 180년)가 설교자와 선교사를 훈련 시키려는 목적으로 알렉산드리아에 세웠다. 이 학교를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인 클레멘트(Clement, 주후 190년)가 인수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창설자로 인정받고 있다.

B.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들’

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Clement, 주후 150-217년)

그는 ‘알렉산드리아 크리스천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철학이 기독교의 시너라고 믿었다. “그는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은 크리스천 가르침

12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을 남겨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교도 철학의 계율로 그것을 옷 입혀서 전달해 주기를 원했다.”⁽⁵⁾

2. 오리겐 (주후 185-254년)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IV 참조]

C.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학교는 성경기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우화적이었다. 달리 말해 이 학교의 방법은 깊이 감춰져 있는 깊이 있고 신비한 의미를 본문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D.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력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모든 기독교계에 영향을 미쳤다.

1. 동방에서 -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주후 260-339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2. 서방에서 - 히포의 어거스틴(주후 354-430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IV. 본문 부패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성경 본문 부패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대개 오리겐(Origen)으로 잘 알려진 오리게네스(Adamantius Origenes, 주후 185-254년)였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오리겐을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학자’, 고대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묘사하고 있다.

A. 오리겐의 생애

1.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복한 크리스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2. 그는 젊은 시절에 크게 성공한 교사가 되었다.
3. 그의 삶은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주후 193-211년)에 의해서 촉발된 박해 때에 주후 202년에 극적으로 변했다.
 - a. 오리겐의 아버지는 그의 충동에 의해 순교 당했다.
 - b. 그의 가족은 곤궁에 빠졌다.
- c.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주후 203년 18세인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5) Fuller, Op. Cit. pg. 191

4. 그는 읽기, 쓰기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일에서 천재였다. 그는 영지주의자 암브로스(Ambrosius)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
5. 그는 신플라톤주의의 창설자인 이교도 사카스(Ammonius Saccas, 주후 170-243년) 문하에서 공부했다.
6. 그는 극단적 금욕주의자의 삶을 살았다. 그는 맨발로 다녔고 맨 바닥에서 잤으며 스스로 거세했다.
7. 그는 박해에 직면하는 개인적인 용기와 극단적인 인내심으로 칭찬을 받았다.
8. 그는 주후 213년에 로마를 방문했다.
9.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도록 강요받고는 주후 215-219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에 거주했다.
10. 그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서 주후 231년까지 머물렀다. 알렉산드리아의 지도력 내부의 다툼과 이어서 일어난 파문으로 인해 그는 주후 231년 영구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1. 주후 232년 그는 가이사랴로 이주하여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학교에 필적할 만한 다른 학교를 설립했다.
12. 그는 죽을 때까지 가이사랴에 살았는데 그의 죽음은 데시우스 트라얀 황제에 의해서 촉발된 주후 249-251년경의 데시우스의 박해 때 받은 모진 고충과 고문의 결과였다.

B. 오리겐의 신앙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리겐을 위대한 교부 중 한 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의 숭배자들조차도 그가 조금도 정통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 그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영지주의자와 싸우기도 했지만 영지주의의 신앙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2. 그는 플라톤 철학에 몰두했다.
3. 그는 자주 신비적인 방법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했으며 구약성경을 신약성경과 더불어 풍유적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철학에 따라 오리겐의 생각에 문법적인 해석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의미를 제공하게 되면 그는 그때마다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났다.”⁽⁶⁾ 그는 말했다. “성경기록은 그것이 기록된 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쓸모가 없다.”⁽⁷⁾

(6) Ibid, pg. 140 Quoting Marsh

4. 그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부인했다.
5. 그는 혼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믿었다.
6. 그는 혼의 윤회(輪廻) 즉 사람의 혼은 죽은 후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더 높거나 더 낮은 삶의 모습으로 건너간다고 믿었다.
7. 그는 보편적 구원 즉 사악한 사람도 처벌 받은(연옥?) 후에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구원 받게 된다고 믿었다.
8. 그는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다.
9. 그는 별과 행성에도 혼이 있다고 믿었다.
10. 그는 마귀들도 구원받는다고 믿었다.
11. 그는 최초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언급한 사람 중의 한 명이며 감독이 중대한 죄의 용서에 관여한다고 말했다.
12. 그는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암시했다.
13.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후천년주의 견해를 붙잡았다. 대부분의 초기 교부들은 전천년주의자였다.

C. 오리겐의 작품

오리겐의 저작들은 그를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약 육천 권의 책을 썼으며 현재 남아 있는 초기 교부들의 신약성경 인용구 전체의 50% 가까이가 그의 것이다.

니케아 공회 이전의 중요한 교부 일곱 명의 신약성경 인용구 목록에서 오리겐은 거의 18,000개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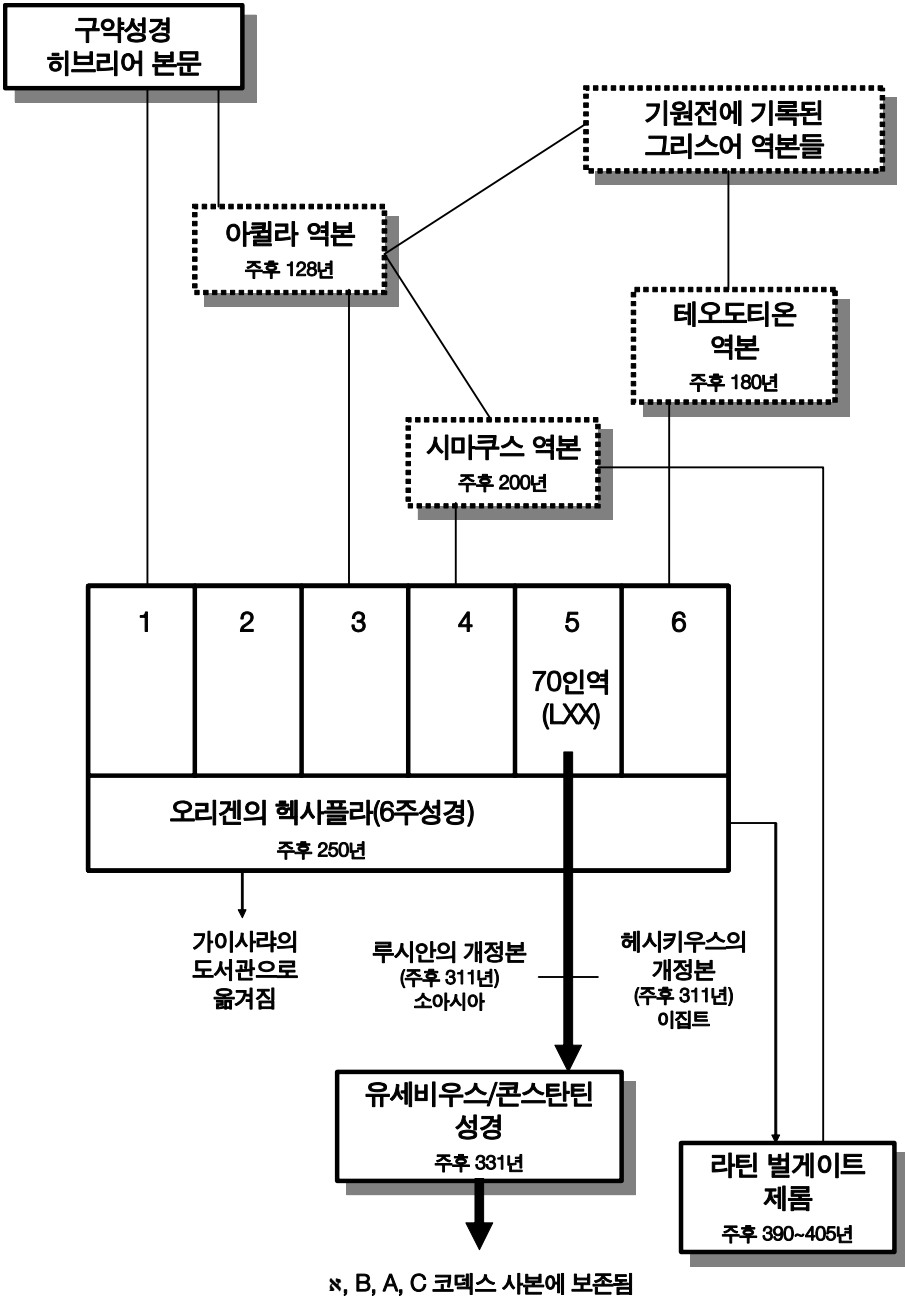
1. 주요한 저작

- a. 오리겐은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을 썼다.
- b. 그의 「제1원리에 관하여」(*De Principis*)는 방대한 조직 신학이었다.
- c. 그의 「켈수스에 반대하여」(*Against Celsus*)은 변증법과 논증법이었다.
- d. 그의 최정상 작품은 「헥사플라」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어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구약성경 본문에 끼친 그의 영향 - 헥사플라(Hexapla)

헥사플라는 여섯 칼럼(난)으로 된 폴리글롯 구약성경이었다. 이것은 병행하

(7) Ibid, pg. 192 Quoting McCintock and Strong.



〈차트 3: 오리겐의 헥사플라〉

는 여섯 칼럼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칼럼은 구약성경 역본을 하나씩 담고 있다. 그는 시가서 일부와 (퀸타, 섹스타, 셉티마로 알려진) 다른 역본 3개를 함께 묶어서 이런 분야에서 때때로 자신의 작품을 일곱 개 칼럼의 헵타플라(Heptapla), 여덟 개 칼럼의 옥타플라(Octapla) 등으로 만들었다.

- a. 이것은 50권의 대(大)폴리오 책들로서 약 6,500페이지에 달했다.
- b. 이것은 주후 250년경에 완성되었다.
- c. 오리겐은 일곱 명의 속기사와 일곱 명의 필사 담당자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일했다.
- d. 칼럼 1: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후대의 마소라 본문과 실제로 동일하다.
- e. 칼럼 2: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음역(音譯)한 것이다. 음역이란 원천 원어에서 단어의 소리를 다른 언어의 글자들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영어 음역을 예로 들자면 'shalom'(히브리어)과 'baptize'(그리스어)가 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각각 'peace'와 'dip'이 된다.
- f. 칼럼 3: 이것은 아퀼라(주후 95-137년)의 그리스어 역본이다. 그는 기독교로 회심했다가 그 후에 점성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회 당한 뒤에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이다. 이것은 매우 문자적인 그리스어 번역이다.
- g. 칼럼 4: 이것은 에비온파 '크리스천'인 시마쿠스(주후 160-211년)의 그리스어 역본이다. 참고로 에비온파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과 같은 유대적인 내용만을 수용하고 바울 서신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구원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다. 시마쿠스의 역본은 원래 아퀼라 번역을 개정한 것이다.
- h. 칼럼 5: 이것은 오리겐 자신의 작품이며 일반적으로 칠십인역(LXX)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겐의 히브리어 지식이 불완전했다는 점과 이 칼럼이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을 오리겐이 정렬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리겐은 이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비평적 상징을 사용했다.

- i. 자신이 다섯 번째 칼럼에 포함시킨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구절들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기 위한 오벨루스(누누기 표시)와 메토벨루스(화살표 표시)
- ii. 그리스어 역본에는 없고 히브리어에는 있는 구절들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별표와 메토벨루스

이 칼럼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VI 참조]

- i. 칼럼 6: 이것은 에비온파에 속한 테오도티온(주후 160-211년)이란 사람이 기록한 또 다른 그리스어 번역이다.
 - j. 헉사플라는 가이사라의 도서관에 보관되었으며 주후 638년 이슬람교도들의 침공 시에 소실(파괴)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
 - k. 이것의 일부만이 복사되었고 이것보다 작은 테트라플라(Tetrapla) -다섯 칼럼 책 - 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 l. 이 책의 다섯 번째 칼럼은 오늘날 바티칸(B), 시내(알레프), 알렉산드리아(A), 에프라임 레스크립투스 코텍스 사본(C)에서 볼 수 있다.
 - m. 주후 5세기의 팔림프세스트는 다섯 칼럼에 11개의 시편을 담고 있다.
 - n. 주후 617년 다섯 번째 칼럼의 시리아어 번역이 (비평적 표시를 포함해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이것의 8세기 복사본이 존재하고 있다.
3. 신약성경 본문에 끼친 그의 영향

오리겐은 본문 비평가들이 ‘추측 교정’(conjectural emendation)이라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약성경 본문을 자주 고쳤다. 추측 교정은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문은 고쳐라!’는 것을 뜻한다.

오리겐은 플라톤 철학의 관점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별나게 파괴적이었다.

“버건(Burgon)은 오리겐의 신약성경 본문 비평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실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 오리겐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답변하시는) 마태복음 19장 17-21절의 주석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종합적인 명령을 지켰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명령이 사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으며 또 예수님께서도 그의 말이 진실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 청년이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체 율법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이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청년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셨다. 그러므로 오리겐은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

라.’는 명령을 말씀하실 수 없었고 그것은 마태복음 최초의 본문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품위 없는 어떤 서기관이 이 구문을 첨가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유명한 이 교부는 자기가 받은 본문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추측 교정이라는 뻔뻔스러운 부류로 거리낌 없이 빠져들었다.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비평적 작업에 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에서 그는 자신이 신약성경을 다루는 이러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오리겐보다도 더 자신들의 사색을 억제하지 못하는 다른 크리스천 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⁸⁾

오리겐의 저작물에 비잔틴 이문(異文)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비잔틴 그리스어 본문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버건에 의하면 오리겐은 이사야에서 인용했다는 근거로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사야’를 끼워 넣었다. 그러나 2절은 말라기를 인용하고 3절이 이사야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다.

오리겐은 가정(假經)인 허마의 목자와 클레멘트 서신을 영감 받은 것으로 수용했다.

V. 본문 부패의 결과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대한 초기 부패로부터 눈에 띄는 두 권의 성경이 나왔다. 이 성경들은 성경 번역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틴 성경

콘스탄틴 1세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Eusebius, 주후 260-339년)에게 최고급 벨럼에 50권의 ‘공식’ 성경을 준비하는 작업을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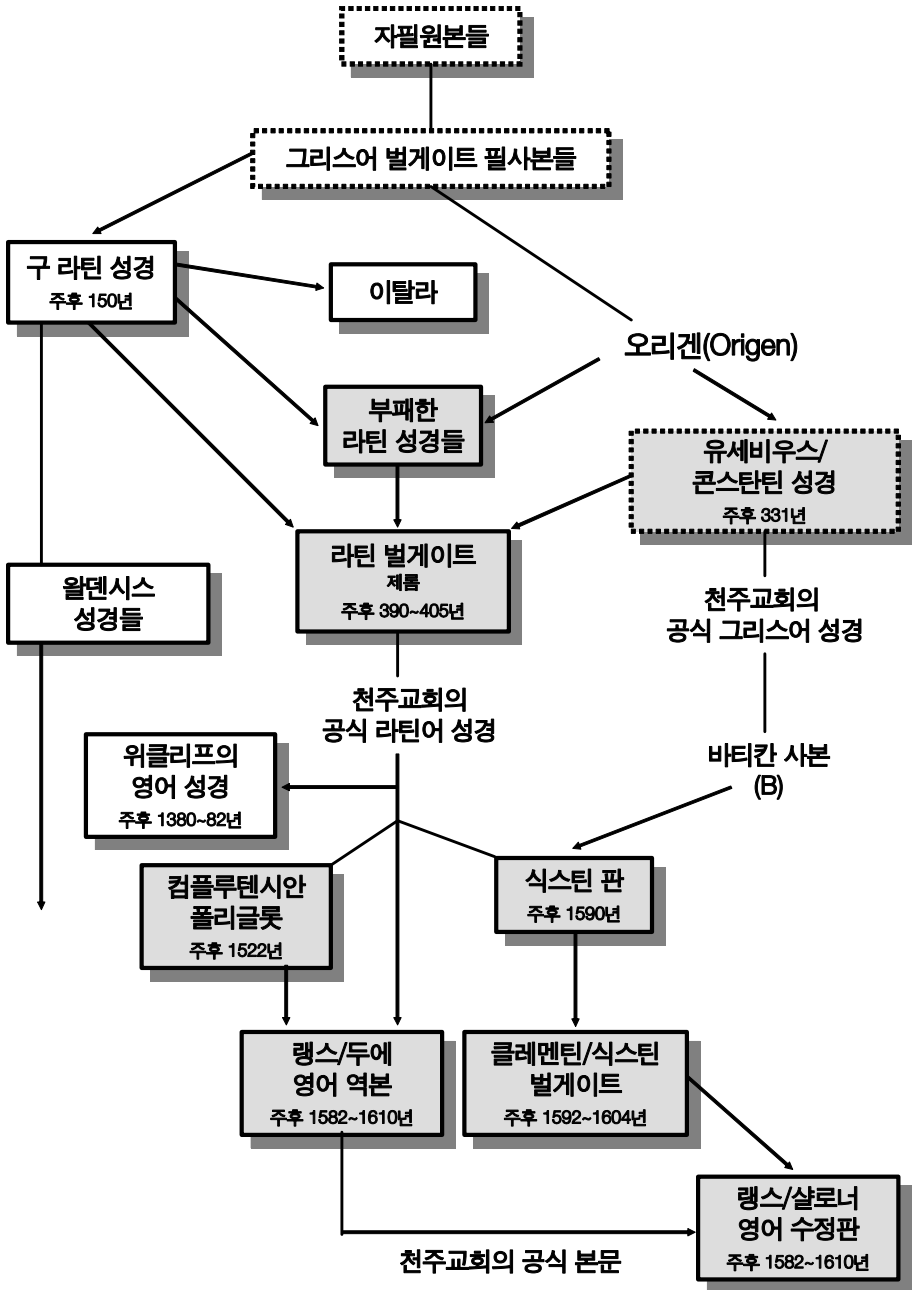
이 성경은 로마의 새로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들에서 사용되기 위해 제작되었고 그 당시 존재하던 모순된 역본들을 혼합함으로써 기독교계의 주류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1. 저자

a. 유세비우스 - 팔레스타인 가이사라의 감독

b. 그는 가이사라에서 태어났고 안디옥과 가이사라 학교 즉 오리겐이 세웠

(8) Ibid: pp. 95,96



〈차트 4: 라틴 별게이트에서 나온 성경들〉

고 당시에는 팜필루스가 운영하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팜필루스는 이집트의 파피루스로 된 오리겐의 작품들을 파치먼트로 복사해서 오리겐의 장서를 복원하고 보존했다.

- c.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에서부터 콘스탄틴 시대에 걸친 교회사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종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 d. 그는 니케아 공회에서 의장을 맡았다.
- e. 그는 ‘절반은 아리안’이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이라는 견해를 지지했다.
- f. 그는 오리겐 숭배자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오리겐의 저작물을 800개 정도 수집했다.

2. 저작물

- a. 콘스탄틴은 유세비우스에게 성경 50권을 제작하도록 황제의 권위와 재정을 부여했다.
- b. 유세비우스는 팜필루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그 반대일수도 있다).
- c. 이 성경들은 최고급 벨럼에 코덱스 형태로 영설체(대문자)를 사용해서 필사되었다. 영설체는 개인적으로 쓰던 필기체와 달리 공식 문어체였다.
- d. 이것은 주후 331년에 완성되었다.
- e. 티센도르프와 호르트 같은 사람들은 바티칸(B) 사본도 이 50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f. 버건은 시내(알레프) 사본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이 50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에서 복사되었다고 믿는다.

B. 라틴 벌게이트(Latin Vulgate)

1. 저자

- a. 히에로니무스(Sophronius Eusebius Hieronymus) - 보통 그는 성 제롬(St. Jerome)으로 알려졌다(주후 340-420년).
- b. 제롬은 라틴 교부 중에서 가장 학식 있고 웅변력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며 금욕주의와 허무주의로 주목받았다.
- c. 그는 이탈리아의 달마티아 주 스트리돈에서 태어났다.
- d. 그는 주후 352-360년에 로마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 e. 그는 골(Gaul)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 f. 그는 주후 374-379년 사이에 안디옥 근처에 있던 유대인 개종자 밑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 g. 그는 주후 379년 안디옥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
- h. 그는 주후 382년 로마에서 교황 다마스스의 비서이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 i. 그는 교황 다마스스의 명령에 따라서 주후 383년에 개정과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 j. 그는 교황 다마스스가 죽자 주후 385-386년에 성지와 이집트를 여행했고 결국 베들레헴에 정착했다.
- k. 그는 주후 389년에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설립했다.
- l. 그는 자신의 최고 작품인 라틴어 성경이 전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다.

2. 번역

- a. 이것은 교황 다마스스(Damasus, 주후 366-384년)가 요청하여 제롬이 번역한 것이다.
- b. 번역 이유는 라틴어 본문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틴 성경은 그리스어 본문을 '표준화'했다.
- c. 당시에 사용되던 라틴어 역본은 많이 있었다. 그것들 대부분은 구 라틴어 성경의 왜곡본들로 칠십인역과 부패한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았다.

[6장 VI. C. 2 (인용)과 6장, VII. A 참조]

시리아어 페시타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 라틴어 성경'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 i. 하나는 주후 150년경에 순수한 그리스어 본문에 나온 초기 라틴어 번역본들을 뜻한다.
- ii. 다른 하나는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이전에 있던 모든 라틴어 번역본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부패된 것들도 포함되었고 특히 외경이 첨가되었다.
- d. 이것의 번역은 고르지 않다. 제롬이 개정자로서 작업을 시작해서 번역자로 끝을 냈기 때문이다.
- e. 이것은 벨럼에 기록되었다.

- f. 제롬은 가이사랴에 있는 대형 도서관을 방문해서 헥사플라와 오리겐의 다른 작품을 참고했다.
- g. 복음서는 라틴어 번역들과 ‘오리겐화’된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하여 주후 383년에 개정되었다.
- h.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주후 384년에 주로 구 라틴어 성경과 다르게 개정되었다.
- i. 그 자신의 세 개의 예배용 시편서 중 첫 번째 것인 로마 시편서(Psalter)는 주후 384년에 구 라틴어 성경과 칠십인역에서 만들어졌다.
- j. 골 시편서는 주후 387년에 칠십인역에서 번역되었다.
- k. 구약성경은 주후 390-405년 사이에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었다. 여기에는 그의 히브리 시편서도 포함되었다.
- l. 제롬은 자신의 번역에 외경을 포함시키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그가 외경을 정경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는 유딧, 토비트, 벨과 용, 에스더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시켰다.
- m. 외경의 나머지 책들은 제롬이 죽은 뒤에 제롬의 라틴어 번역본에 들어가게 되었다.
- n. 그의 번역은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특별히 그 이유는 그가 ‘영감 받은’ 칠십인역 - 로마 카톨릭 주의를 칠십인역을 영감 받은 역본으로 봄 - 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었다.
- o. ‘부패한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주후 354-430년)은 처음에는 제롬의 구약성경을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칭찬과 함께 전부 다 수용했다.
- p. 제롬의 작품은 좀 더 순수한 구 라틴어 성경에 의해 도전을 받았고 주후 8세기 후반에 가서야 그것을 이기에 되었다.
- q. ‘벌게이트’(Vulgate)라는 단어는 ‘평범한’을 의미한다.
- r. 제롬의 라틴어 번역은 13세기가 되어서야 ‘벌게이트’로 불렸다.
- s. 이것은 주후 1546년 트렌트 공회에서 ‘라틴 벌게이트’라고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 t. 라틴 벌게이트는 주후 1455년에 최초로 인쇄된 성경이다.

3. 역사

- a. 라틴 벌게이트는 중세 암흑시대의 성경이었다.

- b. 이것은 중세에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다.
- i. 주후 801년 엘퀸이 이것을 개정해서 샤르마뉴에게 제출했다.
 - ii. 주후 1522년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Complutensian Polyglot)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와 몇몇 다른 고대 사본을 옆에 배열한 개정판 벌게이트였다.
 - iii. 스테파누스는 주후 1528년 3개의 벌게이트 사본에 근거해서 비평 라틴어 본문을 출간했고 그 뒤에 주후 1538-40년에는 17개 사본에 근거하여 방대한 작업을 이루었다.
 - iv. 트렌트 공회 이후에 주후 1590년에 라틴 벌게이트, 히브리어, 그리스어에 근거한 개정판이 교황 식스투스 5세(Sixtus V, 주후 1585-90년)에 의해서 출간되었으나 이 성경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교황으로서 마지막 2년 동안 라틴어 성경 전체를 다시 고쳐 썼다. 그는 즉흥적으로 구와 문장을 첨가하고 절 전체를 제거하고 시편의 제목을 바꿨고 자기 나름대로 장과 절 시스템을 발명해냈다. 교황의 교서에서 그는 ‘충만한 사도의 권능’으로 이 새로운 성경 ‘번역’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소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성직자들은 교황이 만든 놀라운 수공품 즉 트렌트 공회에서 승인한 라틴어 성경과 이것을 근거로 한 모든 교과서를 즉각적으로 쓸모없게 만든 이 성경을 보고는 크게 혐오감을 느꼈다. 그런데 다행히 식스투스는 몇 달 있다 죽었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이 꾸며졌다.”⁽⁹⁾
 - v. 교황 클레멘트 8세가 1592년에 출간한 또 다른 개정판은 수용되었다.
- c. 클레멘트의 벌게이트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공식적인 라틴어 성경이 되었다. 주후 1604년 이후 이 성경은 ‘식스틴 클레멘트 벌게이트’(Sixtine Clement Vulgate)로 알려졌다.
- d. 위클리프 영어 성경은 주후 1380-82년 사이에 라틴 벌게이트에서 번역되었다.
- e. 랭스 두에 영어 역본 역시 주후 1582-1610년에 라틴 벌게이트에서 번역되었다.

(9) Hunt, D. A Woman Rides The Beast. Eugene, Oregon: Harvest House Publishers, 1994: pg. 510

4. 현존하는 사본

현재 8,000개 이상의 라틴 별게이트 사본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많은 사본들의 가격은 비쌌다. 어떤 것은 자주색 벨럼에다 금이나 은 잉크로 기록했다.

이것들 중에서 유명한 사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코텍스 아미아티누스	주후 716년	플로렌스
코텍스 카벤시스	주후 9세기	
코텍스 더블리네시스	주후 8세기	더블린
코텍스 폴덴시스	주후 545년	
코텍스 메디오라넨시스	주후 6세기	밀라노
코텍스 할레이아누스	주후 6세기	대영박물관
코텍스 상갈렌시스	주후 480년	

VI. 칠십인역(Septuagint) 문제

오늘날 흥미로운 논제의 하나는 소위 ‘칠십인역’(LXX)이라 불리는 역본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그런 역본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것이다.

A. 칠십인역은 무엇인가?

교과서의 표준 답변은 이렇다.

‘칠십인역(LXX)은 주전 250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공식적인) 표준 역본이다. 이것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용된 성경이었다.’

칠십인역은 구약성경 39권의 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10권의 외경 전체와 5권의 외경 일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70명의 유대인들이 번역했다는 전통에 근거하여 70을 의미하는 라틴어 ‘septuaginta’를 따라 칠십인역(Septuagint)이라 불린다.

1. 전설적인 칠십인역 이야기

칠십인역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The Letter Of Aristeas)로 알려진 문서에서 나온다. 이 문서는 가경에 속한 기록으로 주전

2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전 100년 이전에 기록된 것 같지는 않다.

이 장황한 ‘편지’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인 필라테푸스 왕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에 어떠한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대표단 - 아리스테아스도 여기 일원이었음 - 을 파견하여 토라의 복사본을 요청했다. 대제사장은 율법의 복사본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냈는데 이때에 12지파에서 각각 6명이 동행했다. 그리고 이 72명의 유대인들이 72일 동안 율법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이후에 존재한 몇몇 교부들에 의해 운색되었다. 그들은 72명의 번역자들이 72개의 번역본을 만들었고 72일의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똑같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들은 번역자들의 작업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생각했다.

2. 일반적으로 수용된 칠십인역에 대한 사실들

위의 이야기가 순전히 전설임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표준적인 견해는 칠십인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수용하고 있다.

- a. 그리스도 이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히브리어 구약성경 번역본이 있었다.
- b. 처음에는 모세오경만 번역되었지만 후대의 번역자들이 구약성경 전체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칠십인역이 독창성 없는 문자적 번역부터 자유로운 의역 번역에 이르기까지 스타일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번역은 주전 280년경에 시작되었고 주전 180년경에 끝났다.
- c. 팔레스타인 출신 유대인들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들이 번역했다. (번역자들은 불완전한 히브리어 지식을 보여 주고 있다.)
- d. 칠십인역은 팔레스타인의 회당들과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e.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칠십인역을 사용하고 인용했다.
- f. 칠십인역을 크리스천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칠십인역을 포기하고 히브리어 본문으로 되돌아갔으며 심지어 크리스천들의 구약성경과 자신들의 구약성경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칠십인역을 수정했다.
- g. 칠십인역은 꽤 많은 실수와 부정확한 것들을 담고 있지만 마소라 본문의 정확성은 입증한다(?).
- h. 칠십인역 안에는 사해 두루마리와는 일치하지만 마소라 본문과는 일치

하지 않는 많은 이문(異文)들이 있다.

B. 칠십인역의 의미

위의 주장들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 어쨌다고!’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 이전에 표준 그리스어 구약성경이 있었다고 문제될 것이 있는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외경이 칠십인역의 일부이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자주 칠십인역을 사용하고 인용했다면 그들이 외경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 된다.

(보수주의자들은 공식적인 구약성경 정경은 알렉산드리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결정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2.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자주 칠십인역을 인용했으므로 이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단어가 차이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3. 유대인들이 (칠십인역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을 괴롭히려고 자기들의 히브리어 본문을 수정했으므로 마소라 본문은 ‘최초의 히브리어’로부터 교정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성경은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4. 마소라 본문의 가장 초기 사본의 연대는 주후 895년인데 비해 칠십인역의 가장 초기 팔사본의 연대는 주후 350년이므로 칠십인역 안에는 ‘최초의 히브리어’ 본문에 더 가까운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십인역과 사해 두루마리] 둘 다가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아마도 그것들이 최초의 본문을 나타낼 것이다.”⁽¹⁰⁾

본문 비평가들은 칠십인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을 공격하려고 칠십인역을 사용하고 있다.

C. 칠십인역에 관한 사실

1. ‘칠십인역 파피리’(Septuagint Papyri)는 그리스어로 된 구약성경 일부를 담고 있는 약 30개의 파피루스 단편을 수집한 것이다. 이것들은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주후 150년에서 75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여기서 예외는 라일란드(Ryland) 파피루스 #458로서 그것의 연대는 주전 1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기에는 그리스어 신명기의 다섯 장이 담겨 있다.
2. 현존하는 칠십인역의 가장 초기 사본은 바티칸(Vaticanus, B), 시내(Sinaiticus, 알레프), 알렉산드리아(Alexandrinus, A), 에프라임 레스트립

(10) Geisler N. L & Nix W. E. From God To Us. 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74: pg 202

투스(Ephaemi Rescriptus, C) 코텍스 사본 등이다. 이것들은 주후 350-500년 에 만들어졌다.

3. 오리겐의 헉사플라에서 다섯 번째 칼럼이 칠십인역이다. (혹은 대다수가 말하듯이 그 다섯 번째 칼럼은 오리겐의 칠십인역 개정본이다)
4. 칠십인역은 그리스 정통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구약성경 역본이다.

D. 칠십인역을 옹호하는 논증

그리스도 이전에 공식적인 구약성경 그리스어 번역본이 존재했음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러한 성경의 존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 학자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2.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조차도 서문에서 칠십인역을 언급했다.
3. 칠십인역은 사본 증거로도 입증된다 - 라일란드 파피루스(주전 150년)와 크리스천 교회의 위대한 코텍스들 참조.
4. 칠십인역은 사해 두루마리의 본문 중 일부로도 입증된다.
5. 칠십인역은 고대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 a. “시라크의 아들 예수(Jesus, son of Sirach, 주전 132년)는 ‘히브리어로 발설되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율법과 대언서와 다른 책들의 그리스어 역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¹¹⁾
 - b.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 주전 20년-주후 50년)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언급하며 그리스어 구약성경에서 인용한다. 그는 주후 40년경에 그렇게 했다. 그는 유대인 영지주의 철학자이다.
 - c. 요세푸스(Josephus, 주후 37-100년)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언급하며 그리스어 번역 구약성경을 사용한다. 그는 유대인 역사가이다.
 - d. 유세비우스(Eusebius, 주후 260-339년)는 그리스도 이전의 아리스토틔루스의 저작을 인용한다. 아리스토틔루스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토라에 대해서 언급했다. 유세비우스는 크리스천 역사가이다.
6. 예레미야 시대부터 많은 유대인이 이집트에 살았고,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 이후에 유대인 거주민이 많이 사는 알렉산드리아가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가 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11)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0: pg. 222

따라서 바빌로니아의 유대인들을 위한 아람어 번역본 탈군과 마찬가지로 더 친숙한 언어로 구약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7.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전설이기는 하지만 이 문서의 존재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권위 있는 번역본이 있었음을 강하게 보여 준다.

E. 칠십인역을 반대하는 논증

1.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보존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롬3:1-2). 만약 칠십인역이 영감 받은 구약성경이라면 에월트가 언급했듯이, “칠십인역의 보존의 공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천 교회에 돌려져야만 한다.”⁽¹²⁾
2.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4장 26-28절에서 구약성경의 이집트어 번역은 어느 것이든 다 배제하셨다.
3.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 사람들만 성경기록을 복사했다(신17:18; 31:25-26; 33:10; 대상16:4; 스7:1-6; 말2:7).

서기관들은 주전 457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더불어 생기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유대인 식민지는 그보다 약 131년 먼저 생겨났다. 서기관들의 전통이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이어졌다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밖에도 사도행전 6장 1절, 21장 37절, 22장 2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은 히브리인들(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Graecians) 즉 그리스화 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경쟁의식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4. 그리스천 시대 이전에 권위 있는 그리스어 구약성경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사본 증거는 없다.
 - a. 라일란드 파피루스 단편(# 458)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것은 신명기 다섯 장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 b. 다른 칠십인역 사본은 모두 그리스도 이후의 것이며 오리겐의 헥사플라와 관계가 있다.
5.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칠십인역이 담고 있는 외경을 절대로 인용하지 않았다.
6.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건전한 교리와 반대로 가르치는 외경에 속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을 절대로 인용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7.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단어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 Ewert, D. From Ancient Tablets To Modern Translation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3: pg. 107

구약성경 칠십인역이 필요하지는 않다.

[6장 III. B. 2. 참조]

8. 자신들의 신성한 성경기록과 자신들의 언어와 이방인을 향해서 갖는 태도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언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번역본을 공식적이고 권위 있게 인가받은 성경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
기독교 시대에 유대인들은 칠십인역을 사탄의 작품이라고 불렀다.
9. 탈군은 최고 주후 2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인 번역본이 되었다. 이 사실은 번역본을 수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
10. 아퀼라(주후 128년), 테오도티온(주후 180년), 시마쿠스(주후 200년)의 그리스어 구약성경 역본은 수용할 만한 구약성경 번역본을 만들어 내려고 일찍이 시도된 것들이다.
 - a. 기독교 시대 이전에 칠십인역이 이미 권위를 인정받은 역본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왜 이런 번역 성경들이 필요했겠는가?
 - b. “에비온과 크리스천인 시마쿠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 그리스어 구약성경 역본을 준비했다.”⁽¹³⁾
칠십인역이 크리스천들에게 그토록 인기 있었다면 왜 이 성경이 필요했겠는가? 칠십인역이 크리스천들의 성경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칠십인역을 실제로 거부했다면 왜 크리스천들 또한 이것을 거부했겠는가?
 - c. 밀러(Miller)에 의하면⁽¹⁴⁾ 외경은 아퀼라와 시마쿠스의 역본에 들어 있지 않았다. 외경이 권위 있는 칠십인역에는 들어 있다면 그 역본들에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11.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꾸며 낸 이야기로 알려졌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말을 수용해야만 하는가?
12. 필로와 요세푸스가 칠십인역을 언급했을지도 모른다.
 - a. 그러나 그들은 둘 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글을 썼다.
 - b.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필로는 공식 유대교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기에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시대에 외경이 정경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존하는 칠십인역 사본들의 연대는 주후 4세기까지

(13) Ibid. pg. 108

(14) Op. Cit. pg. 113

거슬러 올라가지만 어느 책이 초창기 칠십인역 속에 있었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¹⁵⁾

13. 시라크의 아들 예수의 기록들은 칠십인역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다. 그가 말한 바는 시라크의 외경 책(집회서) 머리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것에 흥미를 가지고 주의 깊게 읽어 주기를 바라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의 번역이 잘못되었으면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원래 히브리어로 표현된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놓으면 그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수가 많다. 이것은 비단 이 책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율법서와 대언서와 그 외의 다른 저서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것들을 번역서와 원서로 읽을 때에는 큰 차이가 있다.”⁽¹⁶⁾

14. 제롬은 주후 390-405년 사이에 라틴어 ‘별게이트’ 구약성경을 만들어 냈고, 그 이후에 그는 숭양받는 칠십인역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것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격렬히 쇄도하는 항의와 비판에 부닥쳤다.

그는 처음에 외경도 거부했지만 결국은 몇몇 사람의 ‘우호적인 압력’을 받고 나서 외경을 자신의 번역본에 덧붙였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칠십인역이 ‘영감 받고 권위가 있었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별게이트’란 용어는 주후 13세기에 제롬의 번역본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트렌트 공회(주후 1546년)에서 라틴 별게이트라는 이름을 받았다. 제롬 시대에 ‘불가타’(vulgata)란 용어는 부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롬은 이 말을 오리겐이 개정한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당시에 존재하던 (부패한) 라틴어 역본들에 적용했다.⁽¹⁷⁾

15.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칠십인역을 ‘사실’로 수용했다라도 성경 서문에서 칠십인역에 관해서 그들이 말한 바는 다음과 같다.

“그 번역이 그리 건전하거나 그리 완전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며 여러 곳에서 교정이 필요했던 것도 확실하다…그 칠십 명은 해석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대언자가 아니었지만 많은 일들을 잘 해냈다…그들도 여전히 사람으로서 실족했고 넘어졌다…정말로 때때로 그들은 원문에다 더하고 때때로 원문에서 제거하려고 했다.”⁽¹⁸⁾

(15) Geisler & Nix, Op. Cit, pg. 96 - Emphasis ours.

(16) 공동번역 성서, 집회서, 102페이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17) Miller, Op. Cit, pg. 239 참조

(18) 부록 2 참조

F. 결론

앞서 말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된 공식 그리스어 번역본 구약성경은 절대로 없었다.
2. 그리스도 시대를 전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성경 번역본은 몇 종류 있었다.

“아마도 단일한 칠십인역 본문이 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 번역본, 개정판, 수정판, 확장판이 전체 시리즈로 차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칠십인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어 역본’이든지 케년(Sir Frederick Kenyon)이 사용한 용어처럼 ‘그리스어 성경’으로 불려야 한다.”⁽¹⁹⁾

“구약성경의 책들을 번역한 몇몇 그리스어 역본이 회람되었던 것 같다.”⁽²⁰⁾

3. 이 그리스어 번역본들은 수용되기 위해 서로 크게 경쟁해야 했다.

“외경에 속하는 이 편지 즉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전형적인 한 편의 선전물로서, 칼(Kahle) 박사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토라를 번역한 특정한 그리스어 역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 왕,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체사장, 칠십(이) 명 자신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사회 전체가 이 번역을 오래되고, 공식적이며, 충분하게 권위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칼 박사가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이미 수용되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아무도 이런 선전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²¹⁾

4. 오늘날 ‘칠십인역’으로 알려진 것은 출처가 후대이며 오리겐(주후 185-254년)의 작품 중 특별히 헥사플라(주후 240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폴리글롯 구약성경은 구약성경 본문을 표준화하기 위한 대조이자 시도였다. 다섯 번째 칼럼이 바로 그의 작품인데 그것은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주후 228-337년)를 위해서 50권의 성경을 만든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주후 260-339년)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 a.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초기의 칠십인역 사본은 코텍스 B와 알레프 인데 이 둘은 주후 331년에 만들어진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틴 성경과 적절하게

(19) Grant, F. C. *Translating The Bible*. Edinburgh, Scotland: thomas Nelson, 1961: pg. 27

(20) Ewert. *Op. Cit.* pg. 105

(21) *Ibid.* pp. 21,22

연결되어 왔다.

- b. 칠십인역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

“칠십인역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의 특이한 단어들과 어구(語句)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많은 양의 이집트 단어들도 포함하고 있다.”⁽²²⁾

오리겐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신의 헥사플라를 만들었다.

- c. 칠십인역을 만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의 히브리어 지식은 불완전했다.

“칠십인역은 불완전한 히브리어 지식을 보여 준다.”⁽²³⁾

“구약성경에 대한 오리겐의 수고는 불완전한 히브리어 지식으로 인해서 좌절되었다.”⁽²⁴⁾

- d.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어 구약성경 본문을 바꿨다는 증거가 있다.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 the Jew*, 주후 135년)에서 저스틴은 시편 96편 10절에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본다. 트리포는 히브리어에 이 구절이 없다는 근거로 반대한다. 그때 저스틴이 반박하며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지웠다고 했다. 트리포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트리포가 옳았다. 그 구절은 유대인들이 삭제한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이 첨가한 것이다.”⁽²⁵⁾

(22) Miller, Op. Cit. pg. 222

(23) Ibid

(24) Fuller, Op. Cit. pg. 140

(25) Ewert, Op. Cit. pg. 107 - Emphasis ours.

제 7 장

복습 문제

1.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인용하십시오.
2.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된 첫 번째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3. 골로새서 2장 8절을 인용하십시오.
4.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5.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6. 하나님의 말씀의 부패의 대부분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7. 이 부패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났는가?
8. 주후 3세기 기독교계 내에서 발생한 세 가지 변화를 말하십시오.
9. 로마 황제 콘스탄틴 1세의 '개종' 이후에 벌어진 중요한 변화 두 가지는 무엇인가?
10. 콘스탄틴이 기독교계를 통합시키려고 시도한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11. 주후 4세기에 크리스천의 사고와 영향력에 있어서 중요했던 장소 세 곳을 말하십시오.
12. 최초의 신약성경기록들 다수가 존재하던 지역은 어디인가?
13.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14. 크리스천 역사의 초창기 동안에 누가 본문 부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가?
15. 오리겐의 학자적 능력을 설명하십시오.
16. 오리겐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17. 오리겐의 신앙을 세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18. 오리겐의 최정상의 작품은 무엇인가?
19. 헤사플라는 무엇인가?
20. 헤사플라의 칼럼들을 기술하십시오.
21.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헤사플라 중 어느 부분인가?
22. 그것은 어디에 보존되어 있는가?
23. '추측 교정'이란 무엇인가?
24. 콘스탄틴을 위해서 성경 50권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25. 이 성경들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26. 이 성경들의 본문 기초는 무엇이었는가?
27. 이 50권의 성경을 반영하는 두 개의 사본은 무엇인가?
28. 라틴 별게이트는 누가 만들었는가?
29. 다수의 라틴 별게이트는 어느 도시에서 기록되었는가?
30. 라틴 별게이트 신약성경 본문의 기초는 무엇인가?
31. 어떻게 해서 외경이 라틴 별게이트에 포함되었는가?
32. ‘별게이트’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33. 중세암흑시대에는 어떤 성경이 우위를 차지했는가?
34. 최초로 인쇄된 성경은 무엇인가?
35. 오늘날 로마 카톨릭 표준 라틴어 본문은 무엇인가?
36. 칠십인역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37. 칠십인역의 주요한 의미 두 가지는 무엇인가?
38. 칠십인역을 증언하는 가장 초기의 사본은 무엇인가?
39. 칠십인역을 반대하는 성경적 논증을 말하시오.
40.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칠십인역의 존재를 수용했다는 비난에 대해 답변하시오.
41. 그리스도 이전에 히브리어 구약성경 일부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본이 존재했던 것 같은가?
42. 칠십인역의 진짜 저자는 십중팔구 누구인가?
43. ‘부패한 성경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44. ‘부패한 교회론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45. ‘부패한 교회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46. ‘부패한 신학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연구 과제 3

다음 주제 중 두 문항에 대해서 (500-1000 단어로) 짧게 논술하시오.

1.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무엇인가? 그것의 역사, 본문의 특성, 가치, 영향에 대해서도 논하시오.
2. 위클리프와 틴데일의 배경과 그들의 작품 그리고 영어 성경과 관련해서 이 영국 사람이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3. 에라스무스의 배경과 그의 작품 그리고 신약성경 본문 전수와 관련해서 에라스무스의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4. 가장 오래된 사본들로 여겨지는 코텍스 바티칸이나 코텍스 시내의 배경과 영향력 그리고 다른 고대 영설 사본에 대해 논하시오.

제 8 장

해 방 1

이번 강의는 우리를 중세암흑시대라는 약 1000년의 기간 즉 성경이 파묻히고 금서로 여겨졌던 크리스천 역사의 ‘암흑기’ 이후로 안내한다. 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개혁과 부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영감과 정경 확정, 성경 부패는 모두 4세기 초와 관련이 있다. ‘마귀의 천년’이라는 긴 어둠 동안에도 신성한 성경기록은 살아 있는 흐름과 잠자는 흐름의 두 가지 흐름을 통해 보존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수천 개 고대 사본을 드러나게 했던 반항과 개혁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I.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기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은 많은 사건의 절정이었다.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일곱 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A. 교황 권위의 하락

1. 교황의 권위는 교황 주후 1198-1216년의 이노센트 3세 때 절정을 이루었다.
2. 그 뒤 총 16명의 교황이 78년의 기간에 걸쳐서 교황 이노센트 3세의 뒤를 따랐다. 이 시기는 교황과 독일과 프랑스의 왕들 사이에 진행된 싸움들로 인해 주의를 끌었다.
3. 보니파스 8세(주후 1294-1303년)는 성직자 세금 문제를 두고 프랑스의 필립 5세와 다투다가 결국 패하고 말았다. 보니파스는 굴욕 속에서 죽었고 속세 왕국에 대한 교황권도 무너지게 되었다.
4. 교황의 ‘바빌론 유수’는 주후 1309-1378년에 일어났는데 이 시기의 교황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었으며 아비뇽에서 다스렸다.
5. 이후 39년 동안에는 교황제도 ‘대분열’(Great Schism)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시기에는 로마에 교황이 있었고 또 아비뇽에도 있어서 총 두 명의 교황이 있었다.
6. 교황이 두 명이라는 당혹스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피사 공회(Council of Pisa, 주후 1409년)가 열렸으나 그 결과 오히려 교황이 세 명이 되고

말았다.

7. 카톨릭 교회는 주후 1447년 바젤(Basel) 공회에서 마침내 복수 교황 문제를 해결하였다.

교황이 두 명 이상인 상황과 프랑스 교황들의 부유함 그리고 이탈리아 교황들의 성직 매매는 교황직의 명성과 신용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

또한 그 결과로 생긴 권력 투쟁은 유럽의 정치적 분열을 가져왔으며 한때 교황이 누렸던 통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B. 스콜라 철학의 쇠퇴

스콜라 철학(Scholasticism)은 중세 신학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철학은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아리스토텔레스(주전 384-322년)와 어거스틴(주후 354-430년) 같은 사람들의 초창기 기록물의 수집과 편집 그리고 조직화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발전되어 온 로마 카톨릭 교리를 조직적인 진술로 형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스콜라 철학은 유명론(唯名論)의 철학으로 인해 서서히 금이 가게 되었는데 이 유명론은 영국 프란체스코 수도사 오컴(William of Occam, 주후 1235-1349년)의 가르침을 구체화 한 것이다. 오컴은 “오직 눈에 보이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라.”라고 말했으며 또 교회의 교리는 때때로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C. 불만족 확대

중세에는 불만족의 목소리가 거셌다. ‘국가 교회’는 알비파와 왈덴시안 같은 많은 침례 성도들을 치기 위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삶, 소박한 삶,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고통의 인내를 통해 역사에서 깊이 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읽으려는 열망을 불붙였다.

이러한 ‘지하 교회’와 더불어 카톨릭 교회 내의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 브레시아의 아놀드 - 이탈리아(주후 1145년 사망)

그는 열두 사도의 순수함과 신앙심으로 돌아갈 것을 설교했다. 그는 성찬식에서 성사중심주의와 유아세례에 반대했다. 그는 또한 교황의 지배권을 부정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었다. 우리는 왜 그의 추종자들이 카타리들(Catharist)의 운동에 참여했으며 나중에 아놀드파(Arnoldist)라 불렀

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로마에서 교황 아드리안 4세(주후 1100-1159년)의 명령에 의해 처형되었다.

2. 위클리프 - 영국(주후 1302-1384년)

그는 '종교개혁의 섯별'로 불린다. 그는 교회로부터 격렬한 탄압을 받았지만 영국 귀족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0장 참조]

3. 후스 - 보헤미아(주후 1371-1415년)

후스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이어갔으며 많은 군중을 끌어내는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난했다. 그는 성직자의 악행, 교회의 부패, 면죄부 판매, 연옥, 성인 숭배, 예배 시 라틴어 사용을 공격했고 교황을 '가릇 유다의 계승자'라고 불렀다.

그의 인기로 인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의 입을 막도록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는 안전한 통행권을 약속받고서 주후 1414년 콘스탄스(Constance) 공회에 참석했으나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화형에 처해졌다.

후스의 영향은 그의 죽음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교황은 후스파(Hussites)를 겨냥한 다섯 번의 숙청 운동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4. 사보나롤라 - 이탈리아(주후 1452-1498년)

이 도미니카 수도사의 설교를 통해 플로렌스 도시 전체가 회개했다. 나중에 그는 순교자가 되었다.

D. 르네상스(Renaissance)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다시-태어남'을 의미하며 이것은 유럽에서 '학문의 부흥'을 말한다.

르네상스를 초래한 세 가지 주요한 인자는 다음과 같다.

1. 십자군 전쟁

이 전쟁은 도미니카 수도사들의 설교를 통해 또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면죄와 즉시 천당행이라는 약속을 통해 결성된 군대로 성지에서 이슬람의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교황들이 일으킨 애초부터 잘못된 전쟁이었다.

십자군 전쟁의 한 가지 소득이라면 세계 여행과 문화 교류의 시작을 들

15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수 있다.

2.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 주후 1453년

투르크 족이 이 거대한 도시를 함락시켰을 때 성경 사본을 포함하여 많은 고대 문서와 사본들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갔다.

이러한 사본들을 가져온 동방의 많은 학자들은 서방의 대학에서 교사가 되었다.

3. 세계 탐험의 시작

a. 콜럼버스 - 주후 1492년

b. 마젤란 - 주후 1521년

어둡고 좁은 세계에서만 살던 인류는 갑자기 새로운 지평선과 대면하게 되었다. 르네상스는 위대한 지적인 운동이었고 여행은 전 세계에 이러한 학문을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은 오래된 문서와 책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이 결과 대량의 사전, 문법책, 성구집, 주석, 성경 역본들이 나왔다. 교부들의 문서는 오늘날 교회의 신조들과 대조될 수 있게 되었다. 성경기록은 이제 원어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르네상스가 크리스천들의 운동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개혁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고귀한 삶이란 자기 억제의 삶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는데 르네상스는 인간의 사고에 흥미롭고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E. 문학의 부활

많은 기록물들이 회람되기 시작했으며 이것들은 때때로 카톨릭 성직자들의 부절제한 삶을 비난했다. 초서(Chaucer)와 단테(Dante)와 같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교황의 횡포와 악행을 비난하였다.

F. 인쇄기 발명

이동식 인쇄기 발명은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라는 가족 이름으로 잘 알려진 구스플레쉬(Hans Gooseflesh, 주후 1398-1468년)의 공로이다.

주후 1452년에 그는 첫 번째 성경을 인쇄해서 출간했는데 그것은 라틴 벌게이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나무 블록 46,000개를 준비했으며 송아지 170마리를 도살하여 30부 분량의 벨럼을 만들었고 또 종이에 120부를 인쇄했다.

성경 본문 전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다.

G. 영향력 있는 사람과 운동의 출현

1. 타울러(John Tauler)

타울러(주후 1300-1361년)는 독일 신비주의자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을 설교했으며 '종교의식을 통한 구원'을 반대하였다. 스트라스부르그 주변에는 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2. 메디치(Cosimo de Medici)

메디치(주후 1389-1464년)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디치 가문을 세운 사람으로 그는 많은 르네상스 학자와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3.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그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공화주의자였다(주후 1469-1527년).

4. 콜렛(John Colet)

콜렛(주후 1467-1519년)은 교양 있는 영국의 인문주의자며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 주임 사제였다. 그는 에라스무스로 하여금 성경기록을 연구하도록 인도했다.

5.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에라스무스(주후 1466-1536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II.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 주후 1466-1536년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이며 '인문주의의 대가'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

A. 에라스무스의 생애

1. 주후 1466년 네덜란드(홀란드) 로테르담 출생. 그의 네덜란드식 이름은 거트(Gert)였다.
2. 데벤테르와 슈테인에서 그 당시 최고 교육을 받음.
3. 주후 1492년 로마 카톨릭 성직자로 임명됨.
4. 주후 1495년 파리에서 공부함.
5. 주후 1499년 영국 여행을 하고 두 명의 르네상스 학자 콜렛과 모어의 영향을

15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받음.

6.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돌아옴.
7. 주후 1505년 다시 영국을 방문함.
8. 주후 1506-1509년.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연구함.
9. 주후 1509-1514년. 르네상스 사상의 중심지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함. 이곳에서 그는 ‘새 학문’을 활성화시켰는데 그의 학생 중 한 명이 틴테일이었다.
10. 주후 1515년 스위스 바젤로 왔으며 1516년 그곳에서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판함.
11. 주후 1516-1521년. 네덜란드 루벵 대학교에서 강의함.
12. 주후 1521-1529년. 바젤.
13. 주후 1529-1535년.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14. 주후 1535년 바젤로 돌아옴. 1536년 ‘프로테스탄트 친구들’ 가운데서 죽기 전까지 머무름.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 전야의 위대한 지성인이었다. 그는 여행, 도서관 방문, 독서, 수집, 검색, 글쓰기와 출판으로 그의 장년기를 보냈다.

그는 영국 왕(헨리 7세)과 프랑스 왕(프란시스 1세)과 네덜란드 왕(찰스 왕)으로부터 왕실 법정의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 그는 독일 황제로부터 라이프치히와 잉골슈타트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 받았다. 교황은 그를 이탈리아로 데려오기 위해 추기경 모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문명의 기록 속에 담긴 지식의 풍부함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겠다는 일생의 과업에 자신을 바쳤다.

B. 에라스무스의 작품

1. 르네상스 기록물

에라스무스는 최고의 다작(多作) 작가였다. 그는 한번에 10시간씩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영박물관 도서 목록에서 10개 칼럼은 에라스무스가 번역하고 편집하고 주석을 단 작품들과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인쇄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목록에는 암브로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바실, 크리스소스톰, 키케로, 제롬과 같은 고전 문학과 교부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다.”⁽¹⁾

(1) Hills, E. F.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Des Moines, Iowa: The Christian Research

그의 많은 저서들은 국가(카톨릭) 교회의 무지, 미신, 비성경적인 믿음과 실행을 폭로했다.

2. 그리스어 신약성경

에라스무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주후 1516년에 출판된 그리스어 신약성경이었다. 이것은 후에 '텍스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라고 불리는 그리스어 성경 본문의 기초와 실제 내용이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다섯 판 출간하였다.

a. 제1판: 주후 1516년

- i. 이것은 그리스어 본문과 에라스무스 자신의 라틴어 번역본을 포함한 디아글롯(diaglot)이었다.
- ii. 1판 서문에는 교황 레오 10세를 위한 헌정사, 독자들에게 주는 권고문, 에라스무스의 방법에 대한 논의와 변호가 있었다.
- iii. 세 번째 칼럼에는 에라스무스의 주해가 포함되었다.
- iv. 루벵 대학교의 돕(Martin Dorp)은 에라스무스에게 이 책을 출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라틴 별개이트의 심각한 오류를 폭로함으로써 교회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 v. 처음으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Complutensian Polyglot)이다. 이것은 스페인 학자 스투니카의 작품으로 추기경 시메네스(Ximenes)가 주후 1514년에 인쇄했으나 주후 1522년까지 출간되지 못했다.
- vi. 바젤에서 프로벤(Froben)이라는 인쇄업자는 시메네스의 작품보다 앞설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준비하기 위해 에라스무스를 고용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주후 1515년 3월 15일에 고용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1516년 3월 1일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인쇄 기술상의 많은 오류가 있었다.
- vii.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과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들과 사라센 사람들도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농부들이 쟁기질을 할 때 성경 구절의 일부를 노래하기를 원하며, 직조공들이 베틀의 복을 움직이면서 성경 구절을 흥얼거려하기를 원하며, 여행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읊으며

여행의 지루함을 잊기를 원한다.”⁽²⁾

b. 제2판: 주후 1519년

2판은 본래 첫 번째 판의 개정판이었다.

마르틴 루터는 이 2판을 독일어 신약성경 번역을 위한 기초로 삼았다.

c. 제3판: 주후 1522년

3판은 소위 ‘요한의 콤파’라 불리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II. D. 참조]

d. 제4판: 주후 1527년

4판은 세 개의 칼럼에 각각 그리스어 본문, 라틴 별게이트,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번역판을 담고 있다.

e. 제5판: 주후 1535년

5판에서는 라틴 별게이트 본문이 생략되었다.

C. 에라스무스와 그의 본문에 대한 비판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그리스어 본문은 국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큰 불평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본문과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번역본은 라틴 별게이트가 왜곡되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도 헛뜯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라스무스와 그의 작품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일반적인 비난과 공격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이다.

맞다. 그는 인문주의자이다! 그러나 16세기의 인문주의자는 20세기의 인문주의자와 같지는 않다.

인문주의자는 인간 문명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한다.

오늘날 인문주의는 인간 중심이다. 인문주의는 무신론이며 진화론이다. 이것은 인간을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로 본다. 인문주의의 목표는 교육, 과학, 기술, 상호간 이해, 국제적인 협력 등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르네상

(2) Ewert, D. From Ancient Tablets To Modern Transl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pg. 187

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는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억압과 압박 때문에 자신들의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문예 부흥을 통해 이전 문명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애썼다. 따라서 이러한 인문주의자들은 몽매한 미신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 고전 문학, 문화, 교육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초창기 인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았지만 또 동시에 문명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꼭 장려하지도 않았다(시33:12; 잠 14:34). 그들은 성경 본문을 다른 '고전'의 본문과 동일하게 다루려 했다.

2. 에라스무스는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다.

맞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다! 그렇지만 침례교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도록 강요받기 전까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다. 에라스무스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의 삼촌은 에라스무스를 카톨릭 수도원으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를 '훌륭한 카톨릭 신자'로 부를 수는 없다.

- a.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로마 카톨릭 주의의 믿음과 실행을 강하게 공격했다.
- b. 그는 추기경을 포함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제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 c. 그는 네덜란드 분리주의 그룹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 d. 그는 다수의 건전한 성경적 믿음을 수용했다.
- e.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성원 내부로부터 변화하기를 원했다.

3. 에라스무스는 교황에게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헌납했다.

맞다. 그는 그렇게 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성경이 읽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황의 승인을 얻는 것이었다.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카톨릭 배경 때문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마 에라스무스는 위클리프의 성경처럼 '승인받지 못한' 성경이 출판될 때의 영향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10장 참고]

확실히 좀 더 계몽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헌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수용하지는 않는다.

4.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은 '급조된 것'이었다.

맞다. 그렇다!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그렇다. 인쇄업자 프로벤은 컴플루텐시안 본문보다 이것을 먼저 인쇄하려고 꽤 노력한 것 같다. 따라서 1판에는 인쇄 기술상의 많은 오류가 담겨 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순전한 지적 역량은 프로벤으로 하여금 이 거대한 과업을 짧은 시간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에라스무스가 1515년 이전에 했던 작업에 대해서도 참작해야만 한다. 그는 프로벤이 그 일을 제안하기 오래전부터 성경 사본을 수집하고 대조하고 번역하는 일에 종사해왔다.

5. 에라스무스는 후대에 나온 그리스어 사본 몇 개를 사용했을 뿐이다.

맞다. 그는 그렇게 했다! 사실 그는 그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단지 두 개의 사본만 사용했고 다른 두 개를 가지고 비교했으며, 계시록을 위해서 다섯 번째 사본을 사용했다. 이것은 모든 주후 11세기부터 15세기의 사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소문자 사본을 사용했다.

- | | | |
|-----------------|-----------|--------------|
| 1 | 11세기 | 복음서-사도행전-서신서 |
| 2 | 15세기 | 복음서 |
| 2 ^{AP} | 12세기/14세기 | 사도행전-서신서 |
| 4 ^{AP} | 15세기 | 사도행전-서신서 |
| 1 ^r | 12세기 | 계시록 |

소문자 2와 2^{AP}는 에라스무스 본문의 기초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 a. 에라스무스는 다른 많은 사본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여행과 초창기 연구를 통해 그는 막대한 양의 사본 증거에 관해 꽤 정통하게 되었다.
- b. 에라스무스는 바티칸 본문 - 이것은 주후 1481년 바티칸 도서관에 등재되었다 - 에 관한 지식이 있었으며 분명히 이것을 접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려진 사본 전부를 바티칸 본문과 일치하는 것과 비잔틴 본문과 일치하는 것의 두 그룹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월킨슨은 이 문제에 대해 몇 명의 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저자로부터 만약 에라스무스가 원했다면 이 사본 즉 바티칸 사본에서 베낀 것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셀, Bissel).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로마에 있는 봄바시우스(Paulus Bombasius) 교수와 서신 왕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본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그 교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이문(異文)을 보냈다. (트레켈레스). 1533년 에라스무스와 서신 왕래를 한 사람은 그 학자에게 그 사본 [코텍스 바티칸] 중에서 선별한 많은 내용들을 보냈는데 이것은 그 본문이 그리스어 공인 본문보다 뛰어난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케년)⁽³⁾

(서신 왕래를 한 그 사람은 카톨릭 교도인 세풀베다(Sepulveda)였는데 그는 바티칸 사본에서 365개의 내용을 에라스무스에게 보냈다.) 에라스무스가 위에 있는 첫 번째 사본의 본문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바티칸 사본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바티칸 사본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 주는 증거이다.

- c. 에라스무스는 교부의 기록들을 개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이문(異文)을 모두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마가복음 16장의 짧은 결말’을 알고 있었으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 d. 에라스무스는 사본 2와 2^{ap}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그가 입수할 수 있던 사본들의 전부였기 때문이 아니다. (사본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을 통해) 그는 이것들이 비잔틴 본문을 대표하는 것임을 알았다.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사본은 대체로 미세하고 대수롭지 않은 항목에서만 대부분의 필기체 사본과 다르다...이 본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동일하다.”⁽⁴⁾

6. 에라스무스는 계시록의 마지막 여섯 구절의 본문을 ‘보충했다’.

맞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가 로이힐린이라는 친구로부터 후대(12세기)의 계시록 사본(1^s)을 빌렸으며 마지막 여섯 구절을 포함한 마지막 한 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라틴 별게이트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함으로써 이러한 구절을 보충했다.

“그러나 호스키어(Hoskier)는 에라스무스가 아마도 코텍스 141을 따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을 의심한다.”⁽⁵⁾

(3) Fuller, D. O. Which Bible?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 1975: pg. 253, chapter by Wilkinson

(4) Ibid. pg. 227: Wilkinson quoting two of the Revisers of 1870-1881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마친다는 것은 에라스무스가 제롬의 별게이트를 통해 고대 구 라틴어 신약성경까지 이르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몇몇 다른 증거물이 있기 때문이다: 보하이르어(Bohairic) 역본, 암브로스(Ambrose, 주후 397년 사망), 프리마시우스(Primasius)와 하이모(Haymo)의 주석(각각 6세기와 9세기) 등.

7. 에라스무스는 별게이트 내용을 자신의 그리스어 본문에 끼워 넣었다.

그렇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가 열등하거나 부패한 본문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문 삽입도 사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힐스(Edward F. Hills)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에 삽입된 라틴 별게이트의 주요 내용 목록을 열거했다.⁽⁶⁾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이것은 또 알레프, B, C, D, 1에서도 발견된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이것은 또 1, sy, 구 라틴어, 유세비우스에서도 발견된다.

요한복음 3장 25절. 이것은 또 p⁶⁶, 알레프, 1, 구 라틴어에서도 발견된다.

사도행전 8장 37절. 이것은 또 E, 4^{ap}, 구 라틴어, 이레네우스, 키프리아안에서도 발견된다.

사도행전 9장 5-6절. 이것은 또 E, 431, 구 라틴어, 페시타에서도 발견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것은 또 알레프, B에서도 발견된다.

로마서 16장 25-27절. 이것은 또 알레프, B, C, D에서도 발견된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삽입 구절'은 소위 '요한의 콤마'라 불리는 구절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할 것이다.

왜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사본들에 별게이트 내용들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별게이트 내용을 자신의 본문에 끼워 넣고자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리스어 사본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게이트에서 볼 수 있는 요한의 콤마를 끼워 넣기를 거부했는가?

(5) Hill, *Op. Cit.* pg. 202

(6) *Ibid.* pp. 200-201

그 대답은 에라스무스가 다량의 사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카톨릭 선호 경향' 때문에 별게이트 내용을 끼워 넣지 않았고 매우 건전한 이유 때문에 끼워 넣었다.

D. 요한의 콤마(Johannine Comma)

요한의 콤마는 요한일서 5장 7-8절에 포함되어 있는 논란이 되는 구절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괄호와 대문자로 표시해서 이 두 절을 아래에 기록하였다.

그리스어:

“ὅτι τρεῖς εἰσὶν οἱ μαρτυροῦντες (ἐν τῷ οὐρανῷ, ὁ πατήρ, ὁ λόγος, καὶ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 καὶ οὗτοι οἱ τρεῖς ἐν εἰσίν. καὶ τρεῖς εἰσὶν οἱ μαρτυροῦντες ἐν τῇ γῆ,) τὸ πνεῦμα, καὶ τὸ ὕδωρ, καὶ τὸ αἷμα, καὶ οἱ τρεῖς εἰς τὸ ἐν εἰσίν.”

그리스어 음역:

“Hoti treis eisin hoi marturountes (EN TO OURANO, HO PATER, HO LOGOS, KAI TO HAGION PNEUMA; KAI HOUTOI HOI TREIS HEN EISEN. KAI TREIS EISEN HOI MARTUROUNTES EN TE GE,) to pneuma, kai to hudor, kai to haima; kai hoi treis eis to hen eisen.”

문자적 번역 :

“Because three there are who bear witness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ONE ARE. AND THREE THERE ARE WHO BEAR WITNESS O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to the one are.”

킹제임스 성경: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1. 요한의 콤마의 역사

- a. 이것은 라틴 벌게이트에서 발견되었다.
- b. 그리스어 사본에서 이 구절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초판에서는 이것이 에라스무스에 의해 생략되었다.
- c. 에라스무스가 이 구절을 생략하자 그 시대 카톨릭 학자들 사이에 강력한 항의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장은 에라스무스가 이 구절에 대한 그리스어 사본 증거를 보게 된다면 이 내용을 본문에 끼워 넣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메이나르드(Michael Maynard)⁽⁷⁾의 조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결코 그러한 도전을 유포시키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자기가 접근할 수 있었으나 무시했던 사본을 만들라고 에드워드 리에게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꼼꼼한 학식을 방어했다.)
- d. 15세기 사본(61) 하나가 에라스무스에게 건네졌다. 그때 그는 논란이 되는 그 구절을 자신의 세 번째(주후 1522년) 판에 끼워 넣었다.
- e. 그 구절은 그 후로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은 물론 킹제임스 성경 안에 남게 되었다.
- f. 그 구절은 대부분의 고대 사본이나 대다수의 그리스어 사본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비평 그리스어 본문이 출간된 이후로 격렬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 g.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유니테리언파는 이 내용이 삼위일체라는 ‘이단’ 교리를 조장하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h. 현대 역본은 그 구절의 권위를 파괴하여 각주에 놓든지 아니면 더 기만적으로 해서 그 구절을 생략하든지 혹은 6절을 나눠서 7절로 만든다. 이 결과 평범한 독자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 i.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구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난외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은 7절에 실제 아무런 권위가 없으며 이것은 삽입된 것이라는 데 대개 동의하고 있다.”⁽⁸⁾

(7) Maynard, M. A History of the Debate over I John 5:7,8. Tempe, Arizona: Comma Publications.

(8) pg. 1325

2. 요한의 콤마의 외적 증거

- a. 이것은 라틴 별게이트에서 발견되었고 대단히 많은 라틴어 사본에 들어 있다.
- b. 사본 61, 몽포트(Montfort) 사본에서 발견된다.
- c. 코텍스 라비아누스(Ravianus, 88과 629)에서 발견된다.
- d. 스페쿨럼(m)에서 발견된다.
- e. r(구 라틴어 성경, 주후 5세기)에서 발견된다.
- f. 터툴리안(주후 160-230년)이 언급했다.
- g. 키프리안(주후 200-258년)이 언급했다.
- h. 프리실리안(주후 385년 사망)이 인용했다.
- i. 카시오도루스(주후 480-570년)가 인용했다.
- j. 주후 5세기 몇몇 아프리카의 라틴 저자들이 아리안과 반달족에 대항하며 삼위일체를 교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했다.
- k. 고대 왈덴시안 성경인 테플 성경(코텍스 테플렌시스, Codex Teplensis)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이 본문이 비잔틴 흐름이 아니라 라틴어 흐름을 통해서 보존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억할 점: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를 따르는) 본문은 이 구절을 옹호하지 않지만 서방의 라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니케아 공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3. 요한의 콤마의 내적 증거

이 구절이 생략된 이유로는 네 가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 a. 이 구절은 맨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지만 삼위일체파가 자기들 교리를 옹호하려고 고의로 추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그리스어 사본에서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다. (여호와와의 증인)
- b. 이 구절은 맨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지만 8절의 삼위일체적인 해석을 명료하게 하려는 선의의 서기관에 의해 추가되었다. 그는 8절에서 영 = 아버지, 물 = 성령님, 피 = 아들로 보았다.
- c. 이 구절은 자기들 교리를 옹호하려는 유니테리언파에 의해 고의로 생략되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쟁이 동방에서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에 이것은 동방에 주로 존재하던 그리스어 사본 증거물의 부족을 설명한다.

d. 이 구절은 유사문미(類似文尾) - '비슷하게 종결되는 구절들 때문에 발생하는 시각적 실수' - 라고 하는 서기관의 오류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생략되었다.

요한일서의 내적 증거는 논란이 되는 이 구절의 권위를 옹호한다.

요한은 거의 주후 1세기 말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2:26절; 4:1-3 참조).

케린투스(Cerinthus)는 유명한 영지주의자로서 사도 요한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최고 상태의 에이온(aeon) 로고스(Logos)가 침례 받을 때 그에게 결합했다가 죽을 때 그를 떠났다고 가르쳤다. 도세티스트들(Docetists)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체를 부인했다.

[7장. I. A. 참조]

이 구절이 본문에 보존되면 우리는 7절에서 하나님의 증언과 8절에서 사람의 증언을 동시에 갖게 된다(9절 참조). 동시에 7절은 케린투스파를 반박하는데 이는 이 구절이 개별적인 세 분의 인격체가 하나의 실체로 일치함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한편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도세티스트들을 반박하고 있다(참조 - 요일1:1; 4:2; 5:6; 요19:34-35).

4. 요한의 콤마의 문법적 증거

아마도 이 구절의 권위를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이 구절이 빠졌을 때 그리스어 문법에 난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첫째로, 관사 'hoi'는 남성(男性)이지만, 명사 'pneuma', 'hudor', 'haima'는 모두 중성(中性)이다. 이것은 그리스어 구문론상의 오류이다. 즉 중성 주어에는 남성 선행사가 올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대답은 영, 물, 피란 단어들이 의인화되었으므로 남성 관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 있는 대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인격체가 6절의 'Spirit'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pneuma'는 중성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 있을 때만 문법적으로 말이 된다. 왜냐하면 남성 수사(treis), 관사(hoi), 분사(marturountes)가 남성 명사 'pater'(Father)와 'logos'(Word)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문론법도 만족된다. "단어군 가운데서 남성들이 그것과 연관된 중성의 성을 지배한다."

이것과 더불어 만일 논란이 되는 단어들이 생략되면, 단어들의 흐름은 6절에

서 8절로 의미 없이 반복되고 그 결과 이 구절은 불완전하게 보인다.

더 나아가서, 논란이 되는 단어들이 생략되면, 8절에 있는 문자적인 진술(“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은 ‘누가 혹은 무엇이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남아 있는 단어들이 없다면 선행사가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콤마를 삼위일체 믿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끼워 넣었다면 왜 삼위일체의 표준 공식인 ‘아버지, 아들, 성령’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아들’ 대신에 ‘말씀’(Word)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가?

5. 요한의 콤마의 수용

앞서 언급한 이유들은 보존의 교리와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끈다. 요한의 콤마는 진짜이고 크리스천 역사의 초기 동안 내내 존재한 영지주의와 아리안 이단의 맹렬한 공격에 대항하여 섭리로 보존되었다.

E. 에라스무스 그리스어 본문의 영향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었던 에라스무스의 소원은 오래지 않아서 성취되었다. 차트 5는 비잔틴 사본들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과정을 보여 준다.

그가 그리스어 본문을 출간한 이후 머지않아서 많은 번역본이 이 본문으로부터 번역되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루터 (독일어) 성경	- 주후 1522년
틴테일 (영어) 성경	- 주후 1525년
취리히 (스위스어) 성경	- 주후 1529년
르페브르 (프랑스어) 성경	- 주후 1534년
올리베땅 (프랑스어) 성경	- 주후 1535년
라우렌티우스 (스웨덴어) 성경	- 주후 1541년
크리스천 III (덴마크어) 성경	- 주후 1550년
베에스트켄 (네델란드어) 성경	- 주후 1558년
레이나 (스페인어) 성경	- 주후 1569년
체코어 성경	- 주후 1602년
디오다티 (이탈리아어) 성경	- 주후 1607년

III. 텍스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

에라스무스의 위대한 작품은 이어서 출간된 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갔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은 결국 '텍스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말은 '수용된 본문'(Received Text)을 뜻한다.

스테파누스 3판(주후 1550년)을 사용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것을 '수용 본문'이라고 불렀다.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실제 용어는 주후 1633년 출간된 엘제비어 형제의 2판이 나온 뒤에야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요약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A. 스테파누스 판

에스티엔느(Robert Estienne, 주후 1503-1559년)는 파리의 왕립 인쇄업자였다. 그의 라틴어 이름은 스테파누스(Stephanus)이고 영어 이름은 스티븐스(Robert Stephens)이다.

그는 15개 이상의 비잔틴 사본과 함께 에라스무스와 킴플루텐시안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그의 세 번째 판(주후 1550년)은 여백에 다양한 이본을 포함한 21.6 x 33.0 cm 크기의 작은 책이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코텍스 베자에(D)를 참조했다.

그의 네 번째 판의 본문은 절로 구분이 되었다.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방해 때문에 스테파누스는 주후 1550년 제네바를 향해 떠났고 거기서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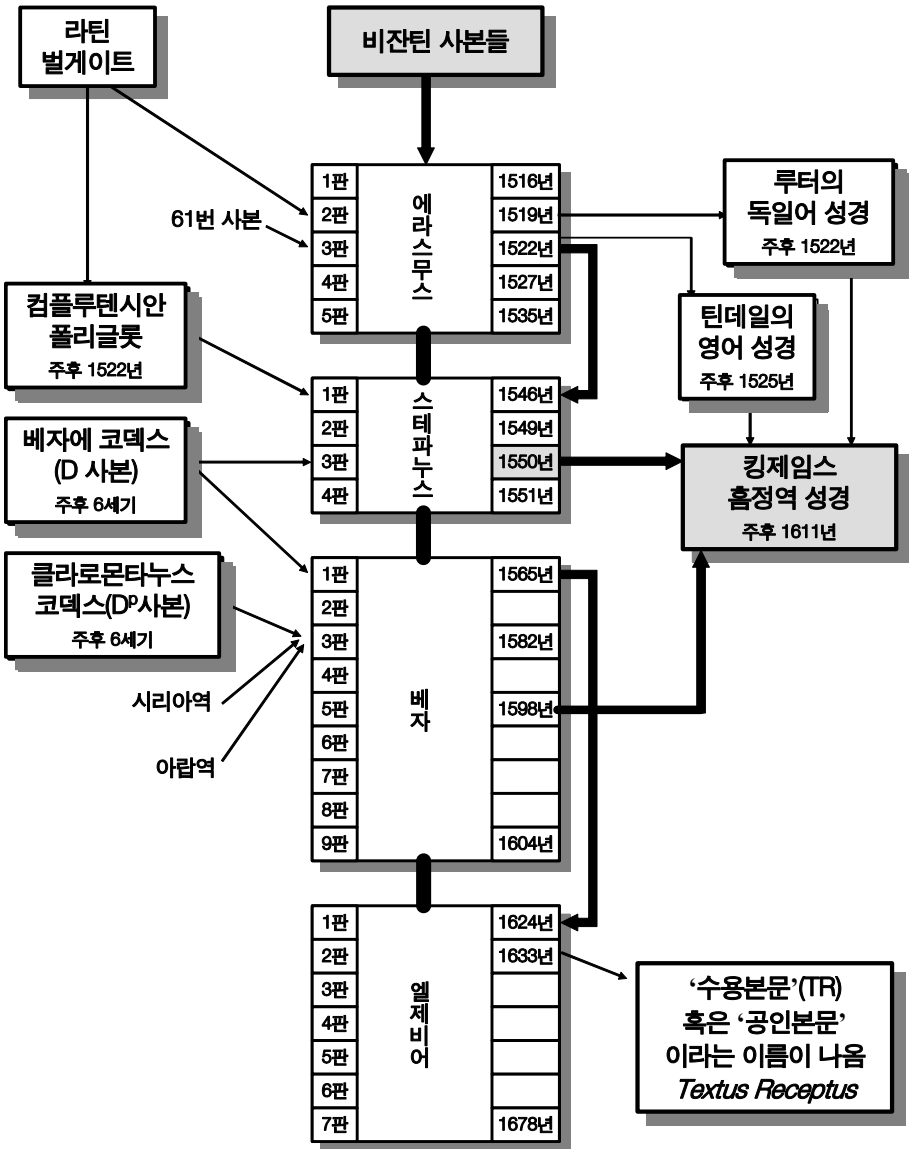
B. 베자 판

베자(Theodore Beza)는 제네바에 있던 칼빈의 동료 개혁자였다. 그는 그리스어 본문 10개의 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은 모두 매우 충실하게 스테파누스와 에라스무스의 뒤를 따랐다. 더 자세한 사본 증거로서 그는 시리아어 성경, 아랍어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 이외에도 코텍스 D(베자에)와 D^p(클라로몬타누스)를 사용했다.

C. 엘제비어 형제 판

보나벤투와 매튜 엘제비어(Bonaventure and Matthew Elzevir)는 라이덴에 있던 네델란드 인쇄업자였다.

이들은 그리스어 본문 일곱 개 판을 인쇄했고, 'textum ab omnibus receptum'(당신은 모두가 수용한 본문을 가지고 있다)이란 말은 이들의 그리스어 성경



〈차트 5: 비잔틴 사본들과 킹제임스 성경〉

168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두 번째 판에 들어 있다. 여기서 테스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라는 말이 나왔다.

제 8 장

복습 문제

1.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이끈 일곱 가지 주요 요소를 열거하시오.
2. 주후 1300-1500년부터 교황의 권위가 하락하게 된 두 가지 요소를 말하시오.
3. 친종교개혁적 카톨릭 반대자 세 명의 이름을 제시하시오.
4. 르네상스는 무엇이었는가?
5.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6. 이동식 인쇄기의 발명은 누구의 공로인가?
7. 최초로 인쇄된 성경은 무엇인가?
8. 르네상스 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9. 에라스무스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10. 에라스무스의 장년기의 삶을 설명하시오.
11. 에라스무스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무엇인가?
12.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몇 판이나 출간했는가?
1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4. 인문학자란 무엇인가?
15. 16세기와 20세기 인문주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6. 에라스무스는 어떤 유형의 로마 카톨릭 신자였는가?
17. 왜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본문 초판을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납했는가?
18.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본문을 인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가?
19. 에라스무스가 바젤에서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 에라스무스가 만든 것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어 본문인가?
21.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본문을 실제로 편집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가?
22. 이미 알려진 다른 사본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지식을 설명하시오.
23. 라틴 별게이트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설명하시오.
24. 라틴 별게이트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용도를 설명하시오.

25. 요한의 콤마는 무엇인가?
26. 에라스무스는 요한의 콤마를 언제 자신의 그리스어 본문에 포함시켰는가?
27. 그가 '콤마'를 포함시킨 근거는 무엇인가?
28. 왜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와 현대 역본은 '콤마'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는가?
29. '콤마'를 입증하는 그리스어 사본은 있는가? 있다면, 한 가지를 예를 제시하십시오.
30. '콤마'를 입증하는 대부분의 사본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31. 요한일서 내용은 '콤마'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떤 점에서 주장하는가?
32. '콤마'가 생략되면 요한일서 5장 7-8절의 그리스어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3. 스테파누스는 누구인가?
34. 스테파누스 그리스어 본문의 기초는 무엇인가?
35. 스테파누스의 3판과 4판에 관해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36. 베자는 누구인가?
37. 어떻게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용어가 생겼는지 설명하십시오.
38.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39.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사용된 수용 본문은 어떤 판인가?

제 9 장

해 방 II

‘텍스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로 알려진,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본문이 출간된 이후 300년 동안 많은 신약성경 사본이 나타났다. 알란드는 1968년에 총 3,112개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의 목록을 만들었다. [6장 참조].

이런 사본들 중 압도적 다수가 텍스투스 리셉투스와 일치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성구집, 역본, 많은 교부의 기록들이다.

이 강의는 소수파로 분류되는 사본들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은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출간된 이후에 나타났고 신약성경 본문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

I. 사본 수집과 편집 시기

이 시기는 1627년 영국의 왕에게 코텍스 알렉산드리아(Alexandrinus, A)를 증정할 때부터 1831년 라흐만(Karl Lachmann)이 최초의 비평 본문을 출간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코텍스 알렉산드리아로 알려진, 잘 보존 되어 거의 완전한 상태의 고대 성경 사본이 영국에 도착하자 학자들 사이에 다소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그 결과 유럽의 주요 도서관에 있는 고대 사본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촉발되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대부분 소문자 사본들) 사본들이 밝혀졌고 이름이 부여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대조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조사와 비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수용 본문(Received Text)은 도전받지 않은 채 계속 출간되었으나 곧 다른 사본의 이문(異文)들이 여기에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A. 폴리글롯(Polyglot) 성경

성경 사본들의 발견은 몇 개의 ‘폴리글롯’(다국어 대역) 성경 출간으로 이어졌다. 순전히 크기만으로도 이 성경들은 참으로 엄청난 작품들이다.

초기의 폴리글롯 성경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컴플루텐시안(Complutensian) 폴리글롯 - 주후 1522년

17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a. 시메네스 추기경이 편집하고 스페인의 아갈라에서 출간되었다.
 - b. 여섯 개 칼럼으로 구성되었다.
 - c.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라틴어 (별게이트),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 d. 신약성경은 라틴어 (별게이트)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2. 앤트워프 폴리글롯 - 주후 1569-72년
- a. 여덟 개 칼럼으로 구성되었다.
 - b. 위에서 언급된 목록에다 시리아어 역본을 추가했다.
3. 파리 폴리글롯 - 주후 1629-45년
- a. 열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었다.
 - b. 앞에서 언급한 목록에다 아랍어 역본, 아랍어 역본의 라틴어 번역본, 사마리아 오경을 추가했다.
4. 런던 폴리글롯 - 주후 1657년
- 이것은 다양한 역본들뿐만 아니라 코텍스 A의 본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영향력 있는 폴리글롯 성경이라 할 수 있다.
- a. 이것은 체스터의 감독 월튼(Brian Walton, 주후 1600-1661년)이 편집했다.
 - b. 여섯 권에다 1669년에 카스텔 박사가 준비한 두 권의 7개국어 대조 성경이 추가 되었다.
 - i. I-IV권: 구약성경과 외경
 - ii. V권: 신약성경
 - iii. VI권: 비평적 주석
 - c. 주석에 있는 A, D, D^p의 본문과 함께 스테파누스가 사용했던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13개의 다른 사본의 본문을 담고 있다.
 - d. 총 9개의 언어를 사용했다.

B. 수용 본문의 비평판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비평 장치'(critical apparatus)를 포함한 수용 본문의 여러 판을 만들었다.

(‘비평 장치’란 특별히 암호화된 각주에 의해 다양한 이문(異文)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스 리셉투스의 비평관들이 비평 그리스어 본문의 선도자가 되었다.

1. 주교 펠의 판 - 주후 1675년

펠(John Fell, 주후 1625-1686년)은 그리스도의 교회 주임 사제였고 나중에는 옥스퍼드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엘제비어의 본문에 100개 이상의 사본에서 뽑은 다양한 이문(異文)들을 포함한 판(版)을 발행했는데 여기에는 콥트어와 고트어 역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2. 밀의 판 - 주후 1707년

밀(John Mill, 주후 1645-1707년)은 스테파누스의 1550년 본문으로 판을 발행하기 위해서 30년을 작업했다. 그 본문은 (A, B, D, D^p를 포함하는) 78개의 추가적 사본들, 페시타(sy^h), 구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교부들의 인용문에서 뽑은 30,000개의 다양한 이문들을 포함했다.

3. 벤틀리의 수집물

케임브리지의 벤틀리(Richard Bentley, 주후 1662-1742년)는 A, D, D^p, 코텍스 라우디아누스(Ea)와 같은 고대 사본들을 사용하여 그리스어 본문을 주후 4세기 상태로 복원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사본들을 많이 수집하려 했으나 그 일을 완수하지는 못했다.

4. 벵겔의 본문 - 주후 1734년

독일인 주석가 벵겔(J. A. Bengel, 주후 1687-1752년)은 ‘근대 본문 비평의 아버지’로 불린다. 왜냐하면 최초로 그가 본문들을 아프리카(알렉산드리아)와 아시아(비잔틴) 그룹으로 분류했고 또 최초로 사본의 숫자보다는 중요도를 따져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난의 본문이 있는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출간했다.

5. 웨트스타인의 작품

웨트스타인(J. J. Wettstein, 주후 1693-1754년)은 벵겔의 작품을 비판하면서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라틴 벌게이트에 의해서 부패되었고 가장 우수한 사본들은 에라스무스가 사용했던 더 후대의 사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후 1715-52년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순수하다고 여기는 비평적 이문들을 각주에 실은 채 엘제비어 본문을 출간했다.

그는 최초로 대문자를 사용해서 영설 사본들을 명명했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소문자 사본들을 명명했다.

6. 세믈러의 작품

세믈러(J. S. Semler, 주후 1725-1791년)는 1764년에 벵겔과 웨트스타인의 작품을 합쳤고 나중에는 세 가지로 나누는 ‘계열 분류법’(family classification)을 창안해서 사본들을 알렉산드리아, 비잔틴, 서방(라틴) 사본으로 분류했다.

7. 그리스바흐의 그리스어 본문

그리스바흐(J. J. Griesbach, 주후 1745-1812년)는 세믈러의 작품을 한층 더 세밀하게 만들었고 최초로 텍스트스 리셉투스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다. 더욱이 그는 사본을 세 개의 계열로 분류하면서 각 계열마다 중요성을 덧붙였다.

그리스바흐는 주후 1774-77년, 1796-1801년, 1805년에 세 개의 비평적 수용 본문 판을 만들었다.

8.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작품들

a. 러시아 학자 마타이(C. F. Matthai, 주후 1744-1811년)는 모스크바에서 자신이 발견한 70개의 사본을 대조했다. 그는 후대의 사본이 그 숫자 때문에 참된 본문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b. 오스트리아의 예수회 출신 알터(F. K. Alter, 주후 1749-1804년)는 비엔나에 있는 제국 도서관에서 22개의 사본을 발견해서 대조해 보았다.

c. 덴마크 학자 버치(Andrew Birch, 주후 1758-1829년)는 191개의 사본을 사용해서 스테파누스 본문(주후 1550년 3판)의 비평 판을 출간했다.

d. 독일의 본 출신의 로마 카톨릭 학자 솔츠(J. M. A. Scholz)는 이미 알려진 사본을 편집하고 분류하는 일을 매우 많이 했다. “그는 유럽의 도서관들에 있는 소문자 사본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의 본문이 대체적으로 비슷함을 확신했다. 그는 이것을 사본들의 신뢰성의 증거로 여겼다. 그는 고대의 사본들은 틀렸으며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바흐로부터 많은 본문을 채택했다.”⁽¹⁾

솔츠는 1830년에 현존하는 신약성경 사본들의 일람표를 출간했다. 그의

(1)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0: pg. 297, 298

카탈로그에는 46개의 영설 사본, 995개의 소문자 사본, 239개의 성구집이 포함되었다.

이 목록표의 출간과 함께 우리는 수집의 시대에서 비평의 시대로 옮겨간다. [13장 참조]

C. 티센도르프의 작품

1840년 티센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 주후 1815-1874년)라는 이름의 젊은 독일인이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신학 분야 학위를 받고서 졸업했다. 그 후 그는 성경 사본 탐색 여행과 자신이 발견한 것을 출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가 남긴 유산은 막대한 양의 사본과 그리스어 본문 형태로 출간된 자료였다. 그의 성취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내 사본(알레프)의 발견이다.

1. 티센도르프의 고문서학적 작업

- a. 그는 18개의 영설 사본을 발견했는데 이 중 13개는 단편이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내 사본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그것을 편집해서 출간했다. [아래 참조]
- b. 그는 6개의 소문자 사본을 발견했다.
- c. 그는 25개의 단편 영설 사본을 처음으로 편집했다.
- d. 그는 B, C, D^p, E^a를 포함하여 11개의 영설 사본을 재편집했다.
- e. 그는 추가로 4개의 영설 사본을 베껴 썼다.
- f. 더 나아가서 그는 20개의 사본을 대조하였다.
- g. 그는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 8개판을 출간하였다. [아래 참조]
- h. 그는 구 라틴어 성경과 벌게이트를 사용해서 라틴어 본문 4개 판을 출간하였다.
- i. 그는 보통 칠십인역으로 알려진 그리스어 구약성경 4개 판을 출간했다. [7장 참조]
- j. 그는 몇 권의 외경과 가정 본문도 출간했다.
- k. 그는 교부들의 인용문과 다른 역본들과 사본에서 뽑은 본문을 수집했다. 티센도르프의 작업은 그의 시대에 알려졌던 모든 중요한 영설 사본에서 드러났는데 여기서 A와 D는 제외된다.

2.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본문

앞서 언급했듯이 티센도르프는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 8개 판을 출간했다. 이것들의 각 본문은 그의 후대의 발견이나 작품을 통합한 것이다.

- a. 제1판 - 주후 1841년
- b. 제2판 - 1842년
- c. 제3판 - 1842년
- d. 제4판 - 1849년

이것은 티센도르프의 첫 번째 비평 본문으로 69페이지의 서문과 방대한 비평 장치가 들어 있다.

- e. 제5판 - 1850년

여기에는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이 포함되었다.

- f. 제6판 - 1854년

이것은 4판의 개정판으로 라틴어와 독일어 본문으로 출간되었다.

- g. 제7판 - 1856-9년

티센도르프의 소문자 사본 연구에 이어서 나온 이 판은 텍스트스 리셉투스과 더욱 일치했다. 그러나 이것은 3판과 비교해서 아직도 거의 1,300군데나 본문이 달랐다.

- h. 제8판 - 1869-72년

이것은 단연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판이다. 티센도르프는 시내 사본을 입수했으며 8판의 본문은 시내 사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7판과 8판 사이에는 거의 3,400군데 차이가 있다.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 Graece*) 8판은 그 안에 가득 담긴 비평 장치와 더불어 빠르게 본문 학자들을 위한 표준판이 되었고 파괴적 본문 비평 시대를 위한 길을 닦았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8판은 본문 비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3. 티센도르프의 방법론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본문 판들은 그의 가장 최신 발견에 따라서 상당히 바뀌었다. 그의 방법론에 관하여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a. 그는 라흐만(Karl Lachmann)의 자연주의 방법론을 뒤따랐다. 라흐만은 성경 본문을 그리스의 다른 고전 문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했다.
- b. 그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반드시 가장 우수하다는 벵겔, 세물러, 그리스

바흐의 이론을 수용했다.

- c. 그는 시내 사본(알레프)에 매료되었다. 비평적인 학자들조차도 그의 8권이 많은 부분 이 사본에 근거한다고 인정했다.

4. 시내 사본의 발견

티센도르프가 시내 사본을 발견한 이야기는 하나의 공상적인 모험 이야기 같다.

- a. 작센의 어거스터스 왕의 후원 하에 티센도르프는 고대 사본을 탐색하기 위해 동방의 수도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 b. 1844년 5월 그는 시내 산 기슭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을 방문했다.
- c. 그는 바구니에 오래된 벨럼 사본들이 담긴 것을 알아챘다. 수도승들은 그에게 이 쓰레기들은 빵을 굽기 위해서 오븐에 불을 지필 때 쓴다고 말했고 이미 바구니 두 개는 다 태웠다.
- d. 바구니 안을 살펴본 티센도르프는 129장의 그리스어 구약성경을 발견했다.
- e. 그가 흥분하자 수도사들은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역대기상,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일부분을 담고 있는) 43장을 갖도록 허락했다. 티센도르프는 수도사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불을 지피는 데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 f. 티센도르프는 자기가 발견할 것을 라이프치히로 가지고 와서 1846년 ‘Codex Frederico-Augustanus’ 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그는 자기가 발견한 정확한 위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 g. 그는 1853년 수도원으로 되돌아갔으나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수도승들은 여전히 수상쩍어 했다.
- h. 1856년 티센도르프는 (정교회의 후원자이며 보호자인)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더 2세에게 접근하여 탐색을 계속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 i. 1856년 1월 그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체류 마지막 날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자기가 12년 전에 발견한 것의 복사본을 보여 주었다. 그 수도사는 크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붉은 천에 싸인 사본 하나를 보여 주었다.
- j. 그것이 사람들이 구하는 사본임을 알아본 티센도르프는 그 날 밤에 자기 방에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허락 받았다. 그는 밤을 새워서 바나바 서신을 베껴 썼다.

- k. 그 사본을 구입하거나 얻어서 카이로까지 가려는 그의 요구는 거절당했고 그는 빈손으로 성 캐더린 수도원을 떠났다.
- l. 카이로에서 그는 성 캐더린 수도원의 작은 분관으로 가서 최고 대수도원장으로부터 그 문서를 카이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냈다. 베두인 족 족 낙타 타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것을 운송했다.
- m. 대수도원장은 티센도르프에게 한 번에 일부분씩 그 사본을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2명의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는 2달 내에 그것을 베껴 쓸 수 있었다.
- n. 시내의 새로운 대주교 선임에 대한 논란이 있자 티센도르프는 수도사들에게 러시아 짜르에게 이 사본을 선물하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 o. 많은 협상 후에 양측이 합의하고, 1862년 티센도르프는 그 코덱스를 성 페테르부르크로 가지고 갔다. 라이프치히에서 그는 4권으로 된 300부의 복사본을 인쇄하는 과정을 감독했다. 1869년에 9천 루블의 선물과 은 성물함 그리고 짜르가 수여하는 몇 개의 훈장으로 그 거래는 완료되었다.
- p. 이 사본은 볼세비키 혁명 이후까지도 러시아에 남아 있다가 결국 공산정권에 의해서 1933년 10만 파운드에 대영 박물관에 팔렸고 지금도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

II. 주요한 신약성경 영설 사본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본문을 편집할 때 소문자 사본을 사용했다. 그는 영설 사본인 코텍스 바티칸(Vaticanus, B)을 알고 있었고 그것의 본문 일부를 입수했지만 그것이 그 당시 알려진 사본들의 다수와 다르기 때문에 거부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가 베자(Theodore Beza, 주후 1519-1605년)는 주후 1582년 자신의 그리스어 본문 3판을 위해서 수집한 사본 증거 가운데서 영설 사본인 코텍스 베자에(D)와 코텍스 클라로몬타누스(D^p)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38군데나 스테파누스의 4판(주후 1551년)에서 벗어났다!)

코텍스 알렉산드리아(A)는 1627년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영국 왕에게 기증했다. 이미 그 전에 그것의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대문자 사본의 실제적 영향력은 코텍스 시내(알레프)의 발견과 티센도르프의 그리

스어 본문 8판의 출간 이후에 발췌되었다.

본문 비평가들은 가장 중요한 영설 사본들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 A. 코텍스 바티칸 - B (03) 주후 340년
- B. 코텍스 시내 - 알레프 (01) 주후 340년
- C. 코텍스 알렉산드리아 - A (02) 주후 520년
- D. 코텍스 에프라임 레스크립투스- C (04) 주후 450년
- E. 코텍스 와싱토니언수스 - W 주후 450년
- F. 코텍스 베자에 - D (05) 주후 550년
- G. 코텍스 클라로몬타누스 - D^P 주후 550년

이 사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이것들의 연대는 모두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하고 국가가 기독교를 장려하던 시대에까지 올라간다.
2. 이것들은 모두 벨렘 파치먼트에 기록되었는데 벨렘은 매우 비싸서 일반 크리스천들은 손에 넣지도 못했다.
3. 이것들은 모두 평범한 필기체보다는 문어체로 기록되었다. 즉 이것들은 학자풍으로 형식적이며 아티카(Attic) 스타일이다.
4. 상당히 완전한 코텍스인 B, 알레프, A에는 모두 외경과 가경이 들어 있다.

[영설 사본은 부록 1-B에서 자세히 다룬다.]

III. 주요한 신약성경 소문자 사본

현존하는 소문자 사본들은 주후 4세기부터 5세기의 것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들은 필기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소문자 사본’(minuscule)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필기체 사본은 본문 비평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것들이 영설 사본들에 비해 후대의 것이기 때문이며 또 동시에 많은 소문자 사본이 비잔틴 형식의 본문이기 때문이다.

본문 비평가들은 많은 소문자 사본을 계열별로 구분하고 있다. 잘 알려진 분류군은 다음과 같다 .

A. 페라르 그룹(Ferrar Group)

1868년 더블린 대학교의 페라르 박사는 네 개의 복음서 사본 - 13, 69, 124,

18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346 - 의 공통 조상을 제시했다.

나중에 해리슨 박사는 1893년 연구에서 이것들과 다른 소문자들이 구 시리아어 본문과 타티안의 디아테싸론과 관련 있음을 보여 주었다.

페라르 그룹은 '페밀리 13'(f13)으로도 알려졌으며 현재 다음의 소문자 사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13, 69, 124, 230, 346, 543, 713, 788, 826, 828, 983, 1689, 1709.

이 계열 사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논란이 된 구절인 요한복음 7장 53절 - 8장 11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38절 다음에 배치했다.

B. 레이크 계열(Lake Family)

레이크 교수는 1902년 또 다른 소문자 계열을 확인했다. 이것들은 소문자 1을 따라서 '페밀리 1'(f¹)로 불리며 [8장의 에라스무스 참조] 다음의 사본들을 포함하고 있다: 1, 118, 131, 209.

이 계열의 사본들은 시내 사본(알레프)과 바티칸 사본(B)을 따르는 본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 비잔틴 본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C. 소문자의 여왕

사본 33은 이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는 그것이 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성경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티칸 사본의 본문과 가깝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소문자 사본들은 부록 1-C에서 자세히 다룬다.]

IV. 주요한 신약성경 파피루스 사본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 평범한 크리스천 대중이 사용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은 비싸지 않은 파피루스 코덱스였다.

그러나 파피루스는 필기도구 중 가장 약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쉽게 손상되었고 내부 성분들의 영향으로 인해 빨리 망가졌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파피루스 단편은 성경 본문에 대한 사본 증거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에 불과하여 신약성경 본문의 사본 증거 중에서 겨우 1.5%를 차지하고 있다.

신약성경 본문의 파피루스 사본은 단편으로 이루어지며 이집트가 출처이고 일반적으로 비잔틴 본문이 아니다.

파피루스 단편들은 수집된 소장품별로 분류된다. 주요한 수집된 소장품은 다음과

같다.

A. 옥시린코스 파피리(Oxyrhynchus Papyri)

1. 1896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렌펠과 헌트 박사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120마일 남쪽에 있는 옥시린코스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많은 양의 파피루스를 발굴해 내었다.
2. 1897년 그들은 가경(假經)인 '예수의 발언' 일부를 담고 있는 파피루스 한 장을 발견하고 출간했다.
3. 1900년 신성한 약어 미라 잔해 속에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신약성경 일부를 담은 파피루스 단편이 몇 개 들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주후 250년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B. 라일란드 단편(Rylands Fragment)

1. 영국 맨체스터의 라일란드 도서관은 1901년 이집트 파피루스 수집품을 받았다.
2. 1934년에는 이 수집품 가운데서 요한복음 단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후 150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3. 이 단편은 종이 한 장의 일부인데 이것은 초기에 두루마리보다 코덱스를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

C. 체스터 비티 수집품(Chester Beatty Collection)

1. 1931년 상당한 양의 성경 파피루스 사본이 이집트의 콕트 교 묘지에 있는 항아리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을 체스터 비티가 구입했다.
2. 코덱스 형태의 이 파피루스 수집품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일부뿐만 아니라 예녹의 책과 일부 크리스천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의 연대는 주후 2세기에서 5세기로 추정된다.
3. 이것들은 1933년과 1937년 사이에 출간되었다.

D. 보드머 수집물(Bodmer Collection)

1. 이것은 1956년에서 1962년 사이에 발견되었다.
2. 이것은 제네바의 사업가인 보드머의 이름을 따라 이렇게 불리고 있다.
[파피루스 단편들은 부록 1-A에서 자세히 다룬다.]

제 9 강

복습 문제

1. 1627년부터 1831년에 이르는 시기는 무엇이라고 알려졌는가?
2. 이 시기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이 시기 동안 텍스트스 리셉투스에서 고쳐진 본문들이 제시된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4. ‘폴리그롯’ 성경은 무엇인가?
5. 가장 영향력 있던 폴리그롯 성경은 무엇인가?
6. ‘비평 장치’란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 ‘근대 본문 비평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8. 벵켈이 주장한 비평의 두 가지 방법론은 무엇인가?
9. 텍스트스 리셉투스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최초의 학자는 누구인가?
10. 고문서학(paleography)은 무엇인가?
11. 문헌학(philology)은 무엇인가?
12. 가장 주목할 만한 티센도르프의 성취는 무엇이었는가?
13.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8판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14. 본문 비평에 미친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본문 8판의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15. 알레프(시내) 사본은 어디서 발견되었는가?
16. 결국 티센도르프는 알레프 사본을 어떻게 유럽으로 가져왔는가?
17. 본문 비평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설 사본은 무엇인가?
18. 이 중요한 영설 사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말하십시오.
19. 본문 비평가들은 소문자 사본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20. 현존하는 파피루스 사본이 그토록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21. 성경 파피루스는 전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가?

제 10 장

번역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행19:20)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영어 성경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 우리는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이동하여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게 된 영어 성경의 역사에 특별히 유의할 것이다.

I. 번역에 관해 먼저 고려할 사항

‘번역’은 ‘어떤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번역은 훌륭한 솜씨와 최소한 두 개의 언어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저자이신 분으로부터의 섭리적인 인도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번역에도 몇 가지 방법론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로 들어서 이 방법론을 아래서 설명하고자 한다.

A. 음역(音譯)

이것은 실제로 소리를 번역하는 것이다.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본문(주후 1550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방법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Hootous gar agapaien ho theos ton kosmon hoste ton hwion
autou ton monogenai edowken, hina pas ho pisteown eis auton
may apolaytai alla echay zoayn aiownion.

음역에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음역된 영어 단어들 - ‘Baptize’ - ‘baptizo’; ‘angel’ - ‘anglos’ - 이 조금 들어가기는 해도 이런 형태의 번역은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다.

B. 문자적 번역

이것은 실제로 단어들을 본래 순서에 따라서 번역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꼼꼼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So for loved the God the world that the Son His only begotten
He gave, that every who believes on Him not may perish but
may have life eternal.

문자적 번역은 정확하다고 여겨지지만 읽기가 어렵고 무슨 말이지도 모를 경우가 많다.

더 정확하거나 더 문자적인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C. 동적 번역(Dynamic Translation)

이것은 단어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의미를 번역하는 것이다.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y) 방법의 성경 번역은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기록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영어 성경’(TEV, Good News For Modern Man)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동적 일치와 TEV의 문제는 14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D. 형식적 번역(Formal Translation)

여기서 ‘형식적’이란 용어는 ‘형식주의적’(formalistic)이나 ‘융통성 없는’(rigid)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번역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 의미, 스타일, 강조점 등이 정확하게 번역될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적당한 형태로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따르면 번역이 정확하면서도 읽기에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번역된 권위 있는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귀중한 말씀을 갖게 된다.

E. 의역(意譯, Paraphrase, Free translation)

이것은 단어보다는 개념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앞의 C에서 검토한 ‘동적 번역’과 비슷하다. ‘Paraphrase’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의역은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이다.

가장 인기 있는 의역 성경은 ‘리빙 바이블’(LB)이다. 의역은 1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F. 주석(Commentary)

주석은 성경기록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설명 수단으로서 보충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성경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1. 어떤 그리스어는 영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단어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2. 어떤 그리스어 단어들은 그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어떤가에 따라 다른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해야 할 때도 있다.
3. 그리스어 구문에서 가끔 ‘이중 부정’을 사용하는데 이런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어에서는 그 의미가 뒤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 14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지 아니하시니’가 된다.
4. 어떤 그리스어 동사는 영어 문법에서는 다른 시제를 갖는데 특히 ‘부정과거’(aorist) 시제가 그렇다. (부정과거 시제는 완료, 계속, 반복을 가리키지 않는 행동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다.) 또한 동사의 법(法)에도 차이가 있다.
5. 그리스어 명사는 영어와는 다른 성(性)을 사용한다. 8장에서 보았듯이 ‘Spirit’(pneuma)은 그리스어에서는 중성이지만 영어에서는 남성이다.
6. 시적 형식들은 특히 히브리어에서 영어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히브리어 운문은 대구법을 사용하는 반면 영어 운문은 운율적이다.

영어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며 소리는 물 흐르는 듯하다. 따라서 영어는 번역의 매개 언어로서 매우 뛰어나다.

II. 고대 영어 번역

복습 : '영어의 발달' [4. 1. F]

일찍이 주후 1세기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아시아로부터 골(Gaul) 지방을 지나서 선교사들과 함께 영국에 도달했다. 고대 켈트 브리튼 사람들의 기독교는 사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성경은 구 라틴어 성경이었다.

주후 410-550년부터 고대 브리튼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앵글로 색슨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주후 597년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수도사 어거스틴(Augustine 혹은 Austin)을 영국에 파견하여 그곳의 거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했다. 어거스틴은 영국에 로마 카톨릭교와 라틴 별게이트를 소개했다.

영어는 '앵글랜드'에 정착한 튜턴 침략자들로부터 발달했기에 백성들은 라틴 별게이트를 읽을 수 없었다. 따라서 앵글로 색슨어나 '고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 캐드먼(Caedmon)의 시 - 주후 670년

1. 캐드먼은 요크셔 휘트니에 있는 수도원에서 소치는 사람이었다.
2. 그는 꿈에서 성경기록을 근거로 노래를 부르라는 천사의 명령을 들었다.
3.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성령의 임재,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신이 읽는 대로 라틴어에서 켈트 색슨어 시편으로 표현했다.
4. 그는 하프르 반주를 하면서 자신의 시편을 노래했는데 이 노래들은 꽤 인기를 끌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암송했다.

B. 알드헤임(Aldheim)의 성시(聖詩) - 주후 700년

1. 알드헤임(주후 640-709년)은 도르셋(남 영국) 지방의 웨르본의 주교였다.
2. 그는 시편을 고대 영어로 번역했다.
3. 이것은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다.

C. 에그베르트(Egbert)가 번역한 복음서 - 주후 750년

1. 에그베르트는 노섬브리아(북 영국) 지방의 린디스판의 주교였고 알드헤임과 동시대 사람이다.
2. 그는 공관 복음을 고대 영어로 번역했다.
3. 이 번역의 복사본 하나가 현재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D. 비드(Bede)가 번역한 복음서

1. 비드(주후 674-735년)는 가장 위대한 영국 학자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 '영국 역사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영국 교회사」(*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and*)였다.
3. 그는 요한복음을 번역했으며 (구전에 의하면) 숨을 거두는 순간 번역을 끝냈다고 한다.

E. 알프레드 대왕(King alfred The Great)의 번역

1. 알프레드(주후 849-901년)는 주후 870부터 901년까지 영국의 왕이었다.
2. 그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으며 책들을 좋아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다.
3. 그는 십계명과 시편 그리고 복음서의 일부를 번역했다.

F. 린디스판(Lindisfarne) 복음서 - 주후 950년

1. 이것은 사제 알드레드(Aldred)가 번역한 작품이다.
2. 복음서를 앵글로 색슨어로 의역한 것이 구 라틴어 역본의 복사본에 행과 행 사이에 기록되었다.
3. 구 라틴어 역본은 린디스판의 감독인 애드프리스(주후 698-721년)에 의해서 일찍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것은 린디스판 복음서라고 불렀다.

G. 러쉬워드(Rushworth) 복음서 - 주후 1000년

1. 이것은 린디스판 복음서와 비슷한 주석이다.
2. 이것은 아일랜드 사람 맥레골에 의해 만들어졌다.

H. 웨섹스(Wessex) 복음서 - 주후 1000년

1. 이것은 고대 영어 복음서 번역본이다.
2.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어 복음서이다.

I. 앨프릭(Aelfric)의 번역본

1. 앨프릭은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다(주후 996-1000년). 그는 작위를 받은 '문법가'였다.
2. 그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에스더, 욥기, 열왕기 일부를 고대 영어로 번역했다. 왕 에설레드 2세는 그가 영국인에게 투지를 가르치도록 전쟁을 다루는 책들을 번역하기를 바랐다.

III. 부분적인 중세 영어 번역본

중세 영어는 주후 1066년에 노르만 사람들이 영국을 침공한 이후에 고대 영어를 대체했다.

노르만 통치가 확립되면서 라틴어는 영국 기독교의 공식 언어로 다시 등장하였고 새로운 영어 번역본이 나타나기까지 200년간 쓰였다.

A. 오름(Orm)의 예배용 복음서 - 주후 1215년

1. 오름은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사였다.
2. 그는 교회 기도문을 사용하여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운문으로 의역을 했다.
3. 이것은 노르만어 구문에 자리 잡고 있는 앵글로 색슨어 단어들을 사용했다.
4. 그의 작품은 오르물럼(Ormulum)이라고 알려졌으며 사본 하나가 지금도 남아 있다.

B. 쇼햄(Shoreham)의 성시 - 주후 1320년

1. 쇼햄은 켄트의 교구 사제였다.
2. 그는 시편을 남부 영어 산문으로 번역했다.

C. 롤레(Rolle)의 성시 - 주후 1340년

1. 롤레(주후 1349년 사망)는 ‘햄폴의 은둔자’로 알려져 있었다.
2. 그는 시편을 라틴 벌게이트에서 북부 영어 산문으로 번역하였다.
3. ‘쇼햄-롤레 시편’은 널리 유포되며 영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고 위클리프 성경을 위한 길을 닦았다.

D. 트레비사(Trevisa)의 성경

1. 이것은 콘월의 트레비사(주후 1397년 사망)가 만든 것이다.
2. 그는 버클리리 주교 대리였다.
3. 그는 성경 전체를 라틴어에서 번역했다. 이것 외에는 그의 작품에 대해서 더 알려진 바가 없다.

IV. 위클리프의 영어 역본

최초의 완전한 영어 성경은 위클리프(John Wycliffe)에 의해 만들어졌다.

A. 위클리프의 삶과 시대

1. 그는 주후 1320년 영국의 요크셔에서 출생했다.
2. 그는 주후 1340년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녔고 1350년에 졸업했다.
3. 그는 주후 1367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4. 그는 주후 1374년 러터워스의 교구 목사가 되었고 주후 1367년까지 근처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5. 그는 영국(의회)과 교황 사이의 '권력 투쟁' 기간 동안에 살았다. 영국인들은 '100년 전쟁'(주후 1337-1453년) 동안 교황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프랑스 사람들을 지원한 것으로 인해 심히 분개하고 있었다.
6. 주후 1366년 교황 우르반 5세는 영국에 체납 세금을 요구했다. 의회는 지불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왕도 교황에게 일 페니도 지불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위클리프는 교황을 반대하는 백성들의 후원자로 등장했다.
7. 위클리프는 '교황의 바빌론 유수'와 '대분열' 시대를 살았다. [8장 참조]. 그는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혼란을 파악했다.
8. 주후 1377년 위클리프는 교황에게 로마 교회의 19가지 이단성에 대한 진술문을 보냈다. 교황은 위클리프를 반대하는 5개의 교황 교서를 발표함으로 맞섰다. 그는 백성들의 목소리와 랭커스터 공작 존(John of Gaunt)에 의해서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9. 11년 동안 그는 교황을 반대하는 정치적이며 교회적인 싸움에 참여했다. 주후 1378년 그는 교리적 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비난한 교리는 다음과 같다.
 - a. 행위에 의한 구원
 - b. 면죄부

“이것은 자신들의 가짜 권력을 확장하고 세속적 상품을 얻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이 만든 교묘한 상품이다.”⁽¹⁾
 - c.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1)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0: pg. 327

19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d. 비밀 참회(고백 성사)
 - e. 목회자와 집사들보다 높은 교회의 모든 직분들
 - f. 화체설(Transubstiation)
10. 그는 화체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후 1382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쫓겨났다.
11. 백성들과 영국 귀족들로부터의 인기로 인해 그는 개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12. 주후 1384년 12월 28일 그는 러터워스에 있는 자신의 교구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사흘 뒤에 사망했다.

B.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본

위클리프는 로마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복사본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뻔뻔스럽게 평신도가 이 거룩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크리스천들을 슬프게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적그리스도인가?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명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구원 받기 위해 그 거룩한 교훈을 공부해야 한다. 구원 받게 될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바로 그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²⁾

- 1. 신약성경은 주후 1380년에 번역되었다.
- 2. 구약성경은 주후 1382년에 번역되었다.
- 3. 신구약성경 모두 라틴 벌게이트에서 중세 영어로 번역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위클리프가 순수한 형태의 초기 (구) 라틴어 사본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 4. 다른 학자들이 그의 작업을 도왔다. 헤레포드(Nicolas Hereford)가 구약성경 절반 이상을 번역했음이 분명하다.
- 5. 번역 원본의 다양한 스타일은 주후 1388년에 퍼비(John Purvey)가 만든 번역본 즉 덜 문자적이고, 더 많은 관용 어법을 사용한 영어 번역본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 6. 복사본은 손으로 만들었다. 값이 비싸기는 했지만 - 숙달된 서기관이 10개월

(2) Watkinson, W. L. The Life of John Wickclif. Litchfield, Michigan: Maranatha Bible Society: pp. 164,5

을 일해야 성경 한 권이 완성되었다 - 이 성경은 널리 유포되었다.

7. 이 성경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위클리프 성경을 한 시간 동안 빌리는 특권을 받기 위해 건조 한 집을 지불했다. 벨워드라는 사람은 한 권에 '4 마르크와 40 페니'를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보좌 신부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한 일 년 급여이다.⁽³⁾
8. 위클리프 성경은 외경과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을 포함했다.
9. 퍼비와 헤레포드는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10. 위클리프의 친구 몇 명은 목에 성경을 묶은 채 화형 당했다.
11. 주후 1408년에 옥스퍼드 노회는 위클리프 성경 낭독을 금지했다.
12. 후스를 저주한 [8장 참조] 콘스탄스 공회(주후 1415년)는 위클리프도 저주했다. 1428년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 후에 그의 뼈는 파헤쳐져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태워져서 스위프트 강에 뿌려졌다.
13. 아직도 약 30개의 위클리프 번역 원본 사본과 약 140개의 퍼비 개정판 사본이 남아 있다.

C. 위클리프의 영향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샛별'로 불리고 있다.

1. 그는 옥스퍼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 중 한명이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2. 그는 로마에 저항하며 반항적인 정신을 가진 지도자였다.
3. 그는 카톨릭 성직자들의 사악한 부절제를 꾸짖었다.
4. 그는 영국을 두루 여행하면서 영어 성경을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순회 설교자 단체를 설립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롤라즈'(Lollards, 수다쟁이들)로 불렸다. 그들은 영국을 뒤덮었고 주후 1395년을 지나서는 정치 세력이 되었다.
5.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많은 전도지와 소책자를 썼다.
6. 대학교에서 그의 위치로 인해 그의 가르침은 유럽의 대학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는 후스와 사보나롤라(Jerome Savonarola)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3) McClure, A. The Translators Revived. Litchfield, Michigan: Maranatha Bible Society, 1858 (Updated by R. E. Rhoades): pp. 15

7. 그의 역본은 많은 곳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예는 모범 기도문에 대한 중세 영어 번역에서 볼 수 있다.
- “Our Fadir that art in heuenes, halewid be thi name; Thi Kyngdoom come to, Be thi wille done in heuen as in erthe; Gyve to us this dai oure breed ouer other substance; And forgive to us oure dettis as we forgyven to oure detouris; And leede us not in to temptacioun, but delyvere us fro yvel.”⁽⁴⁾

V. 틴데일의 영어 역본

틴데일은 최초로 인쇄된 영어 성경 -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음) - 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은 근대 영어로 된 최초의 성경이다.

A. 위클리프로부터 틴데일까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나오는 중간인 145년 동안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

1. 이동식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다(주후 1452년).
2.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출간했다(주후 1516년).
3.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주후 1517년).

B. 틴데일의 삶과 시대

1. 그는 주후 1494년 영국 글로우체스터셔에서 태어났고 롤라즈의 영향 하에 성장했다.
2. 그는 주후 1504년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갔고 콜렛(John Colet)의 영향을 받았다.
3. 그는 주후 1515년 석사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를 졸업했다.
4. 그는 주후 1516년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에 들어갔다.
5. 그는 주후 1522년 월쉬 경(Sir John Walsh)의 집에 가정교사로 취직했다. 유력한 이 집에서 틴데일은 카톨릭 성직자들과 만났고 토론했으며 ('우리에게는 교황님의 법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 더 낫소.'라는 카톨릭 사제의 말에 응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표명했다. "나는

(4) Miller, Op. Cit. pg. 330

교황과 그의 모든 법을 무시하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남겨 두신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쟁기를 끄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기록을 더 많이 알도록 하겠소.”

6. 그는 주후 1523년 런던에 가서 런던 대주교에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의 출간을 위한 허가권과 후원을 요청했지만 맥 빠지는 대답을 들었다.
7. 그는 주후 1523년 부유한 런던 상인 몬무스(Humphrey Monmouth)의 집에 기거했고 방문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럽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8. 그는 주후 1524년 영국을 영구히 떠나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해서 비텐부르크까지 여행했다. 거기서 그는 멜랑히톤과 루터를 만났다. 여기서 그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 3판에서 영어로 신약성경의 성경 상당 부분을 번역했다.
9. 그는 주후 1525년 함부르크로 돌아가서 켈른으로 갔다. 여기서 그는 신약성경 복사본을 3,000부 인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국이 그의 작업을 알았기에 이 일은 급작스럽게 중단되었다.
10. 그는 주후 1525년 보름스로 옮겨갔고 거기서 영어 신약성경 6,000부를 인쇄했다.
11. 그는 주후 1527년 로체스터의 주교인 추기경 울시의 위협을 받은 후에 마르부르크로 도망갔다.
12. 그는 주후 1530년 안전한 도시 엔트워프에 정착했다.
13. 그는 주후 1531년에 망명자로서 독일을 두루 여행하며 영국 당국의 앞잡이에게 벗어났다.
14. 그는 주후 1532년 엔트워프로 돌아왔다.
15. 그는 주후 1535년 친한 상인처럼 접근한 로마 카톨릭 앞잡이 필립스에게 간악한 배신을 당했다. 틸데일은 납치되어 플랜더스의 빌보르드 성에 감금되었다.
16. 그는 주후 1536년 10월 6일 말뚝에 묶인 채 교살 당하고 나서 불로 태워졌다. 틸데일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C. 윌리엄 틸데일의 번역 작업

1. 틸데일은 일곱 개 언어에 능숙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영어.

2. 명목상으로 그는 로마 카톨릭 교도였으나 우리는 그를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평할 수 있다. 그는 그 당시 멸시받고 있던 재침례교도들로부터도 다소 영향을 받았다.
3. 틴데일은 영국에서 인쇄된 성경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영국을 떠났다. 영국에서 위클리프 성경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었고 루터 주의는 중오를 받았다.
4. 주후 1524년 그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주후 1519년)을 사용하며 에라스무스 그리스어 본문 3판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5. 주후 1525년 그의 신약성경의 첫 번째 판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쾰른에서 4절판 크기로 3,000부를 인쇄하려던 것은 중단되었다. 종교개혁의 적(敵)인 코치래우스가 인쇄공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서 당국에 고발하였기 때문이다.
6. 주후 1525년 보름스에서 인쇄 작업이 재개되어 완료되었고 이때에 4절판 3,000부와 8절판 3,000부가 만들어졌다. 그의 신약성경은 루터교의 책 배치 순서를 따라서 끝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을 따로 배치했다. 그의 신약성경은 또한 논쟁적이며 쟁점이 되는 많은 주석들을 담고 있었다.
7. 주후 1526년 상품 상자 안에 넣은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영국으로 밀수되기 시작했다.
8. 주후 1528년까지 12,000부가 더 인쇄되었다.
9. 영국 주교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성경을 압수하려고 애썼으나 큰 물결을 막는 데 실패했다.
10. 주후 1530년 주교 톤스탈과 추기경 울시는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에서 성경을 불태웠다.
11. 주후 1530년 틴데일의 친구인 상인 패킹턴은 주교 톤스탈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틴데일의 신약성경 복사본을 모두 구입하라고 비밀리에 부탁을 받았고 틴데일의 축복 속에서 그는 그 일을 수행했다. 영국 주교가 낸 돈을 가지고 틴데일은 증보된 2판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
12. 주후 1530년에 그는 모세오경을 번역했다.
13. 주후 1531년에 그는 요나서를 번역했다.
14. 주후 1534년에 그는 모세오경을 개정했다.
15. 주후 1534년에 그는 신약성경 개정판을 완성했는데 이 2판은 틴데일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16. 주후 1535년에 심도 있는 개정판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인쇄되기 전에 틴데일은 체포되었다.
17. 주후 1536년에 그는 여호수아기부터 역대기하까지 구약성경을 감옥에서 번역했다.
18. 주후 1536년에 아홉 번 이상의 인쇄 작업이 있었고 이 성경들은 영국으로 들어갔다. 틴데일이 죽을 때에 그의 신약성경 5만권이 보급되었다.
 “가장 이상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은 영국 성직자들의 알선과 영국 왕의 묵인으로 틴데일이 빌보르드에서 불태워지던 바로 그 순간에 2절판 크기의 그의 번역본이 런던에서 인쇄되었다는 것이다. 그 역본의 표지에는 틴데일의 이름이 실렸고 왕의 전용 인쇄업자 토마스 버틀러가 이것을 인쇄했다.”⁽⁵⁾

D. 윌리엄 틴데일의 영향

우리는 용기 있는 이 학자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영국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으로 인해 그 자신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견뎌 냈다.

1. 개인적 실망
 - a. 주후 1523년 영어 번역본을 내려던 그의 계획은 주교 톤스탈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 b. 주후 1525년 켈른에서 신약성경 번역본의 첫 번째 인쇄가 좌절되었다.
 - c. 그를 반대하는 통렬하고 개인적인 공격들이 많았고 특히 모어 경(Sir Thomas More, 주후 1478-1535년)의 반대가 심했다.
 - d. 다른 사람들이 틴데일의 이름으로 그의 번역본을 독단적으로 수정했는데 특히 오래된 그의 비서 조이(George Joye)가 이 일을 한 것이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2. 곤란함과 고통
 - a.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 b. 그는 자주 서둘러 도주했으며 항상 스파이와 적들의 앞잡이들의 위협을 의식하고 있었다.
 - c. 그는 16달 동안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고통 받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약성경 번역 일을 계속했다.

(5) McClure, A. *The Translators Revived*. Litchfield, Michigan: Maranatha Bible Society, 1858 (Updated by R. E. Rhoades): pp. 32

틴데일의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킹제임스 성경은 틴데일 영어 성경 본문의 80%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차트 6은 틴데일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VI. 커버데일 성경(Coverdale B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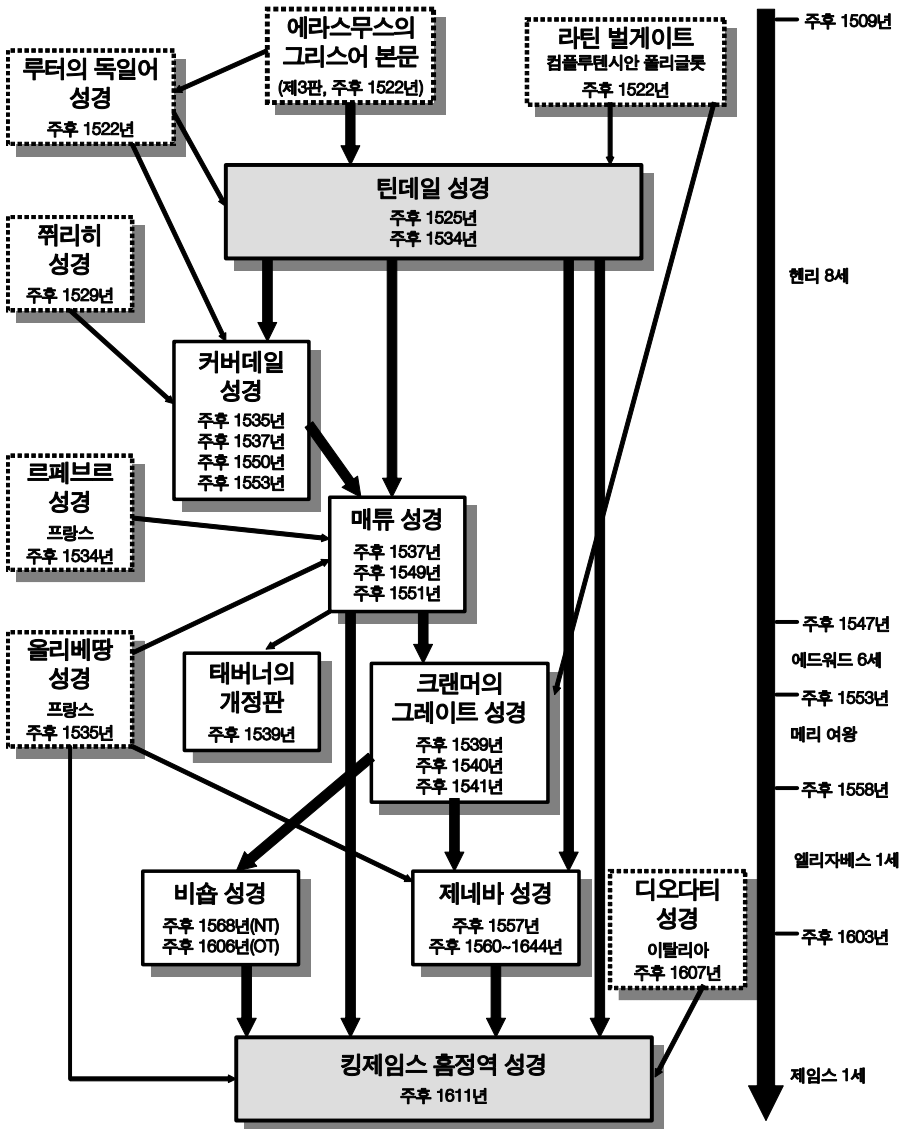
커버데일은 최초로 전체가 다 담긴 인쇄된 영어 성경을 만들었다.

A. 커버데일의 삶 - 주후 1488-1569년

1. 케임브리지 졸업
2. 아우구스티누스회 탁발 수도사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회심함.
3. 주후 1528년 유럽으로 도피한 뒤 함부르크에서 틴데일과 함께 일함.
4. 주후 1535년 영어로 된 그의 성경 첫 번째 판을 출간함.
5. 주후 1538년 볼린(Anne Boleyn)의 보호 하에 영국으로 돌아옴.
6. 주후 1548년 왕 에드워드 6세의 궁정 목사로 임명됨.
7. 주후 1551년 엑세터의 주교로 임명됨.
8. 주후 1553년 투옥 후 '피의 여왕' 메리의 통치 기간 동안 추방당함.
9. 주후 1558년 제네바에 거주함.
10. 주후 1559년 영국으로 돌아옴.
11. 주후 1569년 런던에서 사망함.

B. 커버데일 번역본 - 커버데일 성경

1. 주후 1530년에는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헨리 8세는 영어 성경을 인정하는 일에서 더 많은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2. 주후 1534년 크랜머, 크롬웰, 라티머 같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허락해야 한다고 왕을 압박했다.
3. 주후 1535년 커버데일 성경이 영국에 나타났다. 커버데일은 현명하게도 이 성경을 왕에게 증정했다.
4. 커버데일은 번역자가 아니고 편집인이었다.
 - a. 그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독일어와 라틴어 역본들과 비교하면서 틴데일의 작품을 개정한 것이다.
 - b. 그의 모세오경은 틴데일의 번역을 사용했다.



<차트 6: 영어 성경의 계보>

- c. 그는 뛰어난 문학적 스타일과 운율을 통해서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
- 5. 외경은 정경에 속한 책들과 분리해서 구약성경 부록에 두었다.
- 6. 이것은 장(章) 요약을 도입한 최초의 성경이다.
- 7. 이것은 광범위하게 수용되지 않았다. 볼린의 사망(주후 1536년)으로 이 성경은 왕실의 보호를 상실했다.
- 8. 영국 사우스위크에서 인쇄된 1537년 판은 헨리 8세로부터 왕실이 주는 인가를 받았다.
- 9. 이것은 시편 91편 5절에서 벌레라고 번역된 단어로 인해 '벌레 성경'(Bug Bible)으로 불린다. "Thou shalt not nede to be afrayed for any bugges by night."

VII. 매튜 성경(Matthew's Bible)

이 성경은 틴데일 역본의 완결판이다.

A. 번역자

- 1. 로저스(John Rogers, 주후 1500-1555년)
- 2. 틴데일의 친구이자 조수. 그는 틴데일이 죽기 직전에 그로부터 친필 원고를 받았다.
- 3. '토마스 매튜'는 그의 번역본이 잘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필명이다.
- 4. 그는 메리 여왕 통치 하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B. 편집

- 1. 주후 1537년 초판이 출간되었다.
- 2. 구약성경 - 틴데일(모세오경과 그가 감옥에서 번역한 여호수아기부터 역대기하까지)과 커버데일 성경을 결합함.
- 3. 신약성경 - 출간되지 않은 틴데일의 3판.
- 4. 이 번역은 또 두 개의 프랑스어 번역과도 비교되었다: 르페브르(Le Fevre's, 주후 1534년)와 올리베탕(Olivetan, 주후 1535년) 성경.
- 5. 구약성경 부록에 외경을 포함했다.
- 6. 2,000개 이상의 난외주를 담고 있었다.
- 7.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의 난외주를 따라서 '아내 때리는 성경'이라 불렸다. "If she be not obedient and helpful unto him, he endeavoureth to

beat the fear of God into her head, that thereby she may be compelled to learn her duty and to do it.”

8. 첫 번째 판은 헨리 8세로부터 왕실이 주는 인가를 기대하며 출간되었고 이어서 주후 1537년 인가가 부여되었다. 왕실의 인가서는 그 성경의 인쇄, 판매, 낭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을 뜻한다.
9. 이 성경은 종종 틴데일 성경의 첫 번째 개정판으로 불린다.

C. 태버너의 개정판(Taverner's Revision)

주후 1539년 그리스어에 능통한 옥스퍼드 졸업생 태버너는 매튜 성경의 신약성경을 개정했다.

이 성경은 뛰어난 학식을 나타냈지만 그레이트 성경의 출판으로 빛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완전하게 영국에서 인쇄된 최초의 성경이었다.

태버너(주후 1505-75년)는 평신도였다.

VIII.그레이트 성경(Great Bible)

영국은 대변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이었는데 그 당시 주요한 세 개 정파가 지배권을 가지려고 했다: 교황주의자, 국교회, 청교도(장로교).

왕실 인가를 받은 두 개의 성경(커버데일, 매튜 성경)은 둘 다 논쟁적이고 선동적인 주석을 담고 있었다.

주후 1538년 크롬웰과 대주교 크랜머는 헨리 8세를 설득하여 해석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번역을 허가하도록 했다.

A. 번역자

커버데일이 이 작업을 수행했다.

B. 번역

1. 구약성경 - 매튜 성경, 라틴 벌게이트와 비교함.
2. 신약성경 - 매튜 성경, 라틴 벌게이트와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번역과 비교함.
3. 틴데일이 죽으면서 기도한 지 3년이 지난 주후 1539년에 출간됨. 이 일은 틴데일의 사역이다!
4. 인쇄는 파리에서 시작했지만 유럽 종교재판소가 개입한 이후에 런던에서

끝마쳐졌다.

5. 이것은 크기가 커서(42.0 x 28.0cm) ‘그레이트 성경’이라고 불렸다.
6. 이것은 정교하게 장식된 표지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7. 이것은 현재의 순서대로 책들이 배열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8. 이것은 공식적인 사용을 위해서 허가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독서 대에다 이것을 사슬로 묶어 두었다.
9. 이 성경은 종종 틴데일 성경의 두 번째 개정판으로 불린다.

C. 크랜머 성경

그레이트 성경의 두 번째 판은 ‘크랜머 성경’으로도 알려졌다. 대주교 크랜머가 서문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IX. 제네바 성경

이것은 전체를 원어에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카톨릭 여왕 메리의 통치 동안에 많은 수의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이 유럽으로 도피하거나 추방되었고 스위스의 제네바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중심지가 되었다.

거기서 일단의 무리가 새로운 영어 번역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무리 속에는 커버데일(Miles Coverdale), 베자(Theodore Beza), 닉스(John Knox)가 포함되었다. 이 성경은 제네바 성경으로 알려졌다.

A. 번역

1. 이 작업은 주로 칼빈의 처남인 위팅엄(William Whittingham)이 수행했다.
2. 신약성경은 틴데일의 개정판으로 주후 1557년 출간되었다.
3.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는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되었다.
4. 구약성경과 개정판 신약성경은 주후 1560년에 출간되었다.
5. 이것은 절 구분을 사용한 첫 번째 영어 성경이다.
6. 이것은 번역자들이 보충한 단어를 이탤릭체로 사용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7. 이것은 외경을 제거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8. 이 성경은 종종 틴데일 성경의 세 번째 개정판으로 불린다.

B. 인기

1. 이것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스타일 즉 고딕체가 아닌 로마체를 사용해서

- 헨디 사이즈로 출간된 매우 훌륭한 번역이다.
2. 이것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헌정되었다.
 3. 여기에는 칼빈주의와 반(反)로마 카톨릭 주석이 노골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반(反)카톨릭 성향이 강한 성경이다.
 4. 이것은 백성들의 성경이 되었으며 특히 청교도들과 다른 비(非)국교도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다.
 5. 주후 1579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었다.
 6.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인용한 성경이다.
 7. 메이플라워를 타고 필그림 조상들(Pilgrim Fathers)이 미국으로 가져온 성경이다.
 8.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반바지라는 단어에 따라 ‘반바지 성경’(Breeches Bible)으로 불린다. “They sewed figge tree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breeches.”
 9. 1643년 크롬웰 부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군인 포켓 성경’이 영국에서 출간되었다. 이 성경은 제네바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 성경은 5만부가 미국에서 (5판에 걸쳐서) 다시 인쇄되었고 남북전쟁 동안에 북군 병사들에게 보급되었다.
 10. 제네바 성경의 마지막 판은 주후 1644년 출간되었다. 이 성경의 84년 역사동안 140판 이상이 만들어졌다.

X. 비숍 성경(Bishop's Bible)

제네바 성경의 인기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자신들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음을 보았다.

주후 1563년 캔터베리의 대주교 파커는 그레이트 성경의 개정을 착수했다.

주교 5명을 포함한 15명은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서 주교 파커의 지시 하에 독립적인 몇 개의 모임에서 번역을 했다.

A. 번역

1. 주후 1568년 출간됨
2. 그레이트 성경의 개정판. 제네바 성경이 청교도 취향인데 반하여 비숍 성경은 국교회 취향이었다.

20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3. 주후 1571년 영국 교회 대주교회의에서 ‘공식 영어 성경’이 되었다.
4. 이것은 조잡한 번역으로 번역자 그룹들 사이의 조화가 부족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5. 이것은 ‘당밀 성경’(Treacle Bible)으로 불린다.
6. 이것은 종종 틴테일 성경의 네 번째 개정판으로 언급된다.

B. 수용

1. 이것은 다수의 비숍(감독)이 이 성경을 내는 데 참여했기에 비숍(감독) 성경으로 불린다.
2. 이것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는 데 실패했다.

XI. 랭스 두에 성경(Rheims-Douay Bible)

최초의 로마 카톨릭 영어 성경.

A. 번역자

1. 주후 1568년 옥스퍼드의 알렌이 이끄는 ‘망명한 영국 제수이트들’에 의해서 (프랑스)의 두에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제수이트들은 ‘로마 교회의 특공대’였다.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대학과 교육 기관에 침투해서 로마를 위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2. 10년 후에 그 대학은 (프랑스)의 랭스로 옮겨져서 15년 동안 거기 있었고 나중에 다시 두에로 돌아갔다.
3. 성경을 믿는 일이 여전히 백성들에게 금지되고 있는 동안에, 영국 카톨릭 교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가져야만 영국에서 종교개혁과 맞설 수 있음을 알았다.
4. 랭스 두에 역본은 영국 카톨릭 학자들의 작품이다.
5. 이 작업은 주로 마틴(Gregory Martin)이 수행했다.

B. 번역

1. 이것은 라틴 벌게이트에 근거하여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2. 로마 카톨릭 신앙에 치우쳐 있으며 많은 주석과 해석을 담고 있다.
3. 이것은 라틴어 어법을 많이 담은 조잡한 영어 번역본이다.
4. 신약성경은 주후 1582년 랭스에서 출간되었다.

5. 전체 성경은 주후 1609년 두에에서 출간되었다.
6. 킹제임스 성경에 가깝게 보이려고 많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7. 주요한 개정 작업은 주후 1749-52년에 주교 샬로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식스틴-클레멘틴 별게이트를 사용했고 더 영어를 잘 다듬은 역본을 만들었다.
이것은 '랭스-샬로너 역본'으로 불린다.

제 10 장

복습 문제

1. 번역과 음역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번역과 문자적 번역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 성경기록이 고대 영어로 번역된 두 가지 예를 제시하시오.
4. 완전하게 번역된 첫 번째 영어 성경은 무엇인가?
5. 위클리프는 어떤 종류의 영어로 번역했는가?
6. 위클리프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영어 번역본을 만들었는가?
7. 위클리프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설명하시오.
8. 초기 위클리프 성경과 후기 위클리프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9. 위클리프 성경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0. 위클리프 성경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1. 롤라즈는 무엇인가?
12. 주후 1428년 위클리프의 유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3. 누가 최초로 인쇄된 영어 성경을 만들었는가?
14. 위클리프와 틴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15. 틴데일의 삶에 영향을 끼친 세 가지는 무엇인가?
16. 틴데일은 쟁기질하는 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바랐는가?
17. 틴데일은 왜 영국을 떠났는가?
18. 틴데일은 주로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신약성경을 번역했는가?
19. 틴데일은 어떻게 적들에게 체포되었는가?
20. 틴데일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21. 틴데일 성경의 신학적 특색은 무엇이었는가?
22. 틴데일은 구약성경을 어디까지 번역했는가?
23. 틴데일 신약성경의 몇 판이 그의 결정적인 작품인가?
24. 틴데일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5. 최초로 전체가 다 인쇄된 영어 성경은 무엇인가?

26. 커버데일 성경의 특성은 무엇인가?
27. 커버데일 성경과 틴데일은 무슨 관계인가?
28. 틴데일 성경이 완성된 것은 어떤 성경인가?
29. 토마스 매튜는 누구인가?
30. 그레이트 성경은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가?
31. 크롬웰과 크랜머가 그레이트 성경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32. 제네바 성경은 어느 장소에서 번역되었는가?
33. 제네바 성경의 신학적 특색은 무엇인가?
34. 제네바 성경은 이탤릭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35. 제네바 성경의 수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36. 비숍 성경이 나오게 된 추진력은 무엇인가?
37. 비숍 성경의 수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38. 최초의 영국 로마 카톨릭 성경에 붙여진 이름은 무엇인가?
39. 이 영국 로마 카톨릭 성경은 어떤 본문에서 번역되었는가?
40. 랭스 두에 역본의 신학적 특색은 무엇인가?

제 11 장

절 정

영어 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은 의심할 나위 없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 성경은 틴테일의 작품에 의해 수태가 되어 86년 동안 영국 종교개혁의 태속에 담겨 있었으며 위대한 영어 단어들로 완성되었고 다음 세대들에서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서 위상이 입증되었다.

이번 강의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이다.

I.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역사적 환경

틴테일 성경과 이어서 나온 그의 번역의 개정판들은 영국에서 군주들과 성직자들로 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갈망은) 승리했다.

두 명의 통치자가 영국의 왕좌에 앉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어로 된 위대한 성경 번역의 길을 예비했다.

A.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주후 1558-1603년)

헨리 8세 때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은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세 정파가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경쟁했다: 교황주의자, 국교회, 청교도.

엘리자베스 1세 통치 기간에 카톨릭 정파의 힘은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무너졌다.

1.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처형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 주후 1547-87년)는 엘리자베스의 사촌이었는데 엘리자베스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 왕좌의 후계자가 되었다.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개혁가 닉스 하에서 스코틀랜드는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었다. 주후 1567년 메리는 물러나게 되었고 그녀의 어린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다.

메리는 영국으로 도망쳐서 엘리자베스에게서 군사적 원조를 얻으려 했지만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19년 동안 엘리자베스와 영국 왕좌를 대적할 음모를 꾸몄다.

메리는 주후 1587년 처형되어 영국을 향한 카톨릭 주의의 강력한 위협이 제거되었다.

2. 스페인 무적함대의 패배

메리는 스페인의 필립 2세에게 영국을 주기로 유언했으며 그는 영국을 무찌르고 카톨릭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애썼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큰 세력이었고 주후 1588년 필립은 중무장한 136척의 갤리온 선과 다른 전투선들로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스페인 무적함대를 파견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레이크 경이 이끄는) 영국은 30척과 약간의 예인선으로 구성된 기동성 있는 함대로 스페인 함대를 물리쳤다. 무적함대의 잔류병은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으로 괴멸되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바다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고 이로써 영국이 카톨릭 국가가 될지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될지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B. 킹제임스 1세의 통치 (주후 1603-25년)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아들이었다. 그는 주후 1567년 미성년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로 선포되었고 스코틀랜드 귀족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왕으로서 양육되었다. 실질적인 그의 통치는 주후 1583년부터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한 후에 그는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되었고 그 때문에 두 왕국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제임스는 어릴 때 몇 가지 언어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공부했다. 그는 시편을 번역했고 계시록을 쉽게 풀어서 썼다.

제임스 왕은 국교회와 청교도라는 두 개의 종교 정파와 대면했다. 각 정파는 영국 개혁의 흐름을 주도하기를 구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양육 받았지만 제임스는 잠언 16장 10절과 같은 성경기록에 근거해 '하나님께 속한 왕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교회의 개념을 더 선호했다. (No bishop -No king!)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공화제적인 주석을 달고 있는 제네바 성경을 경멸했다. 예를 들어, 그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9절의 주석은 파라오에게 불순종한 히브리 산파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종교 정파 사이의 충돌은 섭리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을 가져오게 하였다.

II.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제안

제임스 1세의 즉위 이후 일어난 사건들은 결국 새로운 영어 성경 번역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A. 천 명의 청원(Millenary Petition) - 주후 1603년

1. 이것이 '천 명의 청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것에 약 천 명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새 왕이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왔을 때 그에게 제시되었다.
3. 이 청원은 제임스 왕에게 교회 의식과 정부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허락할 것을 요청했다.
 - a. '십자가 표시' 제거
 - b. 복잡한 제사장 의복 제거
 - c. 결혼반지 제거
 - d. 더 엄격한 교회 징계의 강화
 - e. 성경적으로 훈련받은 사역자 예비
 - f. 성경적 교회 형태 예비(청교도 식의)
 - g. 영어 기도서에 담겨 있는, 부패한 번역본으로부터의 부패한 인용문 교정
(이런 관습 중 많은 것을 엘리자베스 1세는 묵과해 왔다. 여왕은 카톨릭 주의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억지로 '영국 교회' 신자로 만들면서 그들을 달래려고 애썼다.)

B. 햄턴 궁전 회의(Hampton Court Conference)

1. 이것은 '교회 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 그가 보기에 - 바로잡기 위해서 제임스 왕이 소집했다.
2. 주후 1604년 1월 14-18일, 회의가 (런던의) 햄턴 궁전에서 개최되었다.
3.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a. 왕이 선정한 네 명의 청교도 목회자
 - b. 아홉 명의 주교
 - c. 아홉 명의 성직자
 - d. 네 명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
(이 회의는 청교도들에게 불리했다.)

21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4. 레이놀즈 박사(Dr. John Reynolds, 주후 1549-1607년)는 포위당한 청교도들을 대표하는 주요한 대변인이었다.

C. 햄턴 궁전 회의의 섭리적 성과

청교도들은 ‘위엄 있는 무례함과 고위 성직자다운 거만함’에 의해 패배하였다. 그렇지만 레이놀즈 박사의 한 가지 제안은 왕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 제안은 이랬다. “될 수 있는 대로 최초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일치하도록 성경 전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성경은 난외주가 없이 인쇄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신성한 예배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¹⁾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이끌어낸 섭리적 제안이었다.

왕은 정치적으로 매우 기뻐했다. 그는 ‘통합된’ 번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그레이트 성경 - 너무 부담스러웠다.
- 제네바 성경 - 너무 논란이 되었다.
- 비숍 성경 - 너무 부정확했다.

D. 왕의 포고령

1. 1604년 7월 22일 제임스 왕은 새로운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54명을 선정했다고 선언했다.
2.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요 자격 조건은 그들이 ‘성경기록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데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들 각각은 성경학자로 입증된 사람이었다.
3. 번역 작업은 공식적으로 주후 1607년에 시작되었다.

E. 번역을 방해하려는 예수회의 시도

주후 1605년 의회 개회식 때 의사당을 폭발함으로 왕을 암살하려는 예수회의 음모가 들통 났다. 반역자 포크스(Guy Fawkes)를 포함해서 여덟 명이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다.

(1) McClure, A. The Translators Revived. Worthington: Maranatha Publication (reprint): pp. 130

III.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번역

A. 번역 원칙

켄터베리 대주교인 반크로프트(Richard Bancroft)는 진행 규칙 15개를 작성했다.

1. 기초 본문은 비숍 성경의 본문으로 하며 원어의 진리와 같도록 약간만 수정해야 한다.
2. 성경 책의 저자들 이름을 포함하여 대명사는 가능한 대로 보통의 철자를 유지한다.
3. ('church'와 같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오래된 단어들은 유지한다.
4.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대부분의 교부들의 책에서 발견되는 뜻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문맥에 적합해야 하며 믿음을 유추하는 데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식주의, 과장된 문학적 스타일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다.)

5. 장(章) 구분은 비숍 성경을 따라서 한다.
6. 난외주를 추가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에서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설명할 때는 예외로 한다.
7. 상호 참조구절(관주)은 성경기록에서 다른 곳의 관련 있는 구절들만 가리켜야 한다.
8. 번역본과 교정본은 먼저 개인이 검토한 후에 정밀검토, 비평, 최종 승인을 위해서 전체 모임에 제출되어야 한다.
9. 책의 각 부분이 완성되면 다른 모임에다 그것을 제출한다. “폐하께서는 이 점에서 매우 주의 깊은 분이시기에 그것들을 진지하고 사려깊이 숙고해야 한다.”
10. 한 모임에서 책 하나를 다 살펴본 뒤에 어떤 부분에 의심이 들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번역한 모임에다 알려야 한다. 그들의 이의가 거절당하면 그 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11. 특별하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번역자들은 나라 안에서 학식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2. 각 주교는 바로 가까이 있는 성직자 가운데서 이 번역 작업에 관련된 ‘언어에 능숙한’ 사람들의 판단을 구한다.

21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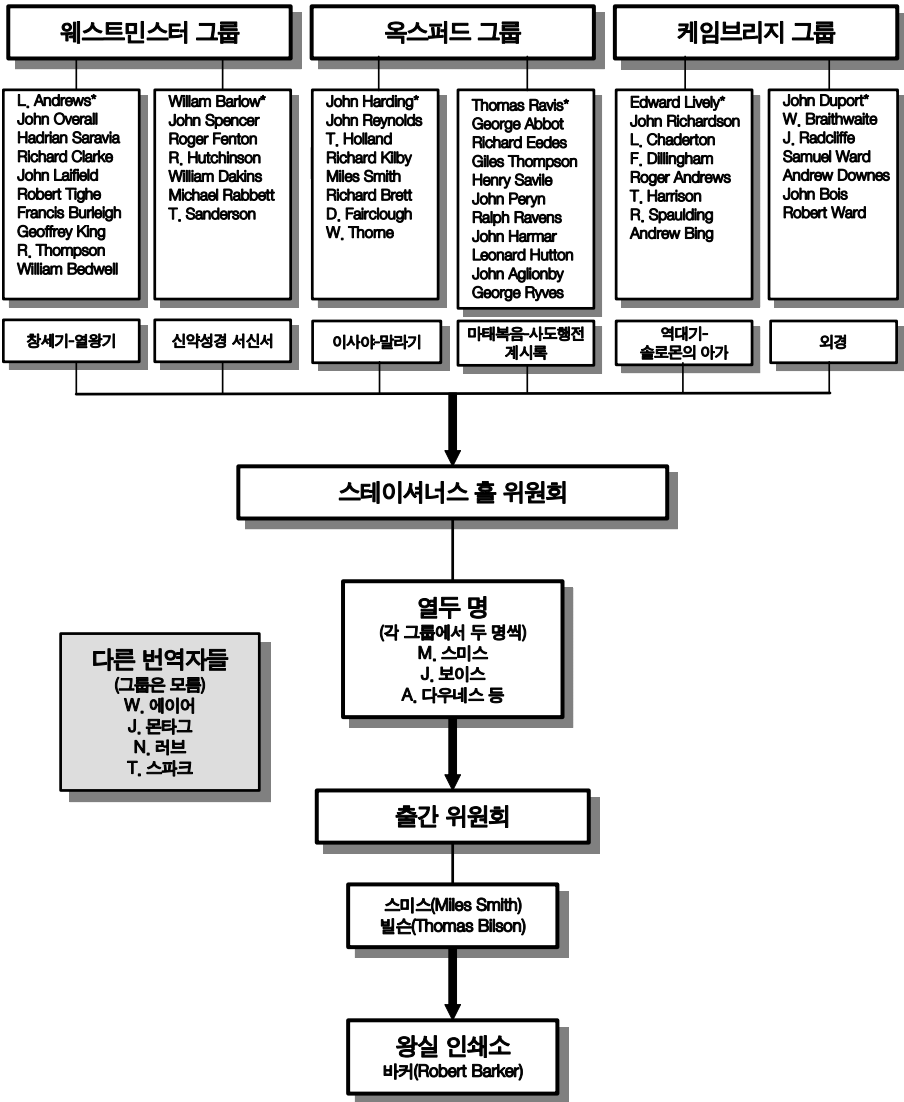
13. 각 모임의 인도자는 웨스트민스터와 체스터의 주임 사제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흠정 담당 교수가 맡는다.
14. 다음 번역본들은 비숍 성경보다 본문에 더 잘 일치한다고 생각될 때 사용된다: 틴데일, 커버데일, 매튜, 그레이트, 제네바 성경.
15. 대학교나 번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륜 있고 근엄한 신학자들 중 서너 명이 이 작업의 감독관이 된다.

B. 번역 방법

차트 7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방법을 보여 준다.

1. 54명이 이 번역을 위해서 선정되었는데 47명만 명확하게 알려졌다. 어떤 사람은 사망했고 어떤 사람은 번역이 끝나기 전에 사임했다.
2. 번역자들은 6개의 모임으로 나뉘었다: 웨스트민스터에 2 그룹, 옥스퍼드에 2 그룹, 케임브리지에 2 그룹. (주의: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이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3. 한 모임의 각 구성원이 먼저 각자의 번역 안을 만들었다.
4. 각 모임의 구성원들은 모여서 서로의 작업을 비교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원고를 비교했다.
5. 각 그룹에서 책 하나가 완성되면 그 원고를 나머지 5개 그룹에다 보냈고 각 그룹은 독립적으로 평가했다.
6. 성경 전체가 번역되자 그 원고는 각 그룹에서 2명씩 선발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 앞으로 보내졌다. 주후 1609년 이 위원회는 런던에 있는 스테이셔너스 홀(Stationer's Hall)에서 9개월 동안 매일 만났다. 이들은 어렵거나 논란이 되는 구절들을 살피는 '전문 위원회'로서 활동했다.
7. 최종적으로 전체 작품을 함께 모아 정리하였고 왕실 인쇄소로 보내기 전에 2명의 출판 위원들이 이것을 다듬었다.

이런 방법으로 각 구절의 번역은 최소 14차례 독립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되었다. 전체 작업은 주후 1610년에 사망한 런던 주교 반크로프트(Richard Bancroft)가 감독했다.



〈차트 7: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방법〉

IV.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번역자들

많은 부분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교인이나 학자들이었다. 전 페이지의 차트에는 여러 위원회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아래는 이 사람들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다.

A. 앤드루스(Lancelot Andrews)

앤드루스 박사는 번역자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졌다.

1. 생애

- a. 주후 1565-1626년
- b.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동방 언어와 신학을 전공했다.
- c. 그는 어릴 때 공부하는 데 완전히 폭 빠졌다. 그래서 그를 억지로 놀도록 해야만 했다.
- d. 그는 부모와 함께 한 달간의 부활절 방학 동안에 매년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
- e.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2. 업적

- a. 케임브리지 펨브룩 홀의 특별 연구원
- b. 옥스퍼드 지저스 칼리지 명예 연구원
- c. 알톤의 교구 신부
- d. 성 자일즈의 대리 신부
- e. 성 바울 교회의 참사관
- f. 24세에 펨브룩 홀의 교수가 됨
- g. 31세에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궁정 목회자가 됨
- h. 웨스트민스터의 참사관
- i. 웨스트민스터 학장
- j. 첫 번째 번역자 모임의 의장
- k. 치체스터 주교
- l. 제임스 1세의 의료복지 담당관
- m. 엘라이의 주교

- n. 제임스 1세의 추밀 고문관
- o. 윈체스터 주교
- p. 킹스 채플 주임 사제

3. 성격

- a.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깊은 신앙심으로 유명하다.
- b. 매우 용기 있는 사람 - (종종 경솔하게 행동하던) 제임스 왕이 그에게 크게 감명 받아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는 자제했다고 한다.
- c. 매우 기도를 많이 한 사람 - 앤드루스는 기도와 예배에 하루에 5시간을 사용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예배 소책자를 그리스어로 썼다.)
- d. 매우 기품 있는 사람
- e. 매우 인자하며 친절한 사람
- f. 탁월한 청렴함과 능력으로 유명하다.

4. 번역자로서의 자격

- a. 그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갈대아어, 시리아어, 아랍어에 대단히 능통했다.
- b. 그는 15개의 유럽 언어에 능통했다. “용감하고 나이 먹은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모든 언어 특히 동방의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 사람이 언어들에 혼잡케 된 바벨에 있었다면 그는 세계어의 통역사로 봉사했을 것이다!’”(2)
- c. 그는 한 단어라도 설득력 있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걸출한 설교자였다. 그는 ‘설교자들의 스타’로 불렸다.
- d. 그는 강력한 반(反)카톨릭 성향의 소유자였다.
- e. 열렬한 고(高)교회 교인. 그는 청교도들을 반대했고 ‘하나님께 속한 왕의 권리’를 방어했다.

B. 레이놀즈(John Reynolds)

레이놀즈는 영국 교회 안에서 청교도 쪽을 대표하는 선도적인 대변인이었다. 이 레이놀즈는 바로 햄턴 궁정 회의에서 번역을 제안한 사람이다.

1. 생애

(2) Ibid, pg. 87

21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a. 주후 1549-1607년
- b. 13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함
- c. 대략 주후 1573년에 카톨릭으로부터 회심하여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임.
- d. 새로운 번역이 진행 중일 때 사망했다. 그가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설명과 조언을 들으려고 자기들이 일한 것들을 가져왔다.

2. 업적

- a. 옥스퍼드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 - 17세
- b. 옥스퍼드에서 그리스어 강의 - 23세
- c. 퀸스 칼리지 교수
- d. 링컨의 학장
- e.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 학장 - 주후 1598년

3. 성격

- a. 그는 진지함과 성숙함으로 유명하다.
- b. 그는 거룩한 삶으로 유명하다.
- c. 그는 청렴함으로 유명하다.

4. 번역자로서의 자격

- a. 그는 거의 초자연적인 기억력을 소유했고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불렸다.
- b. 그는 언어에 많은 재능이 있었다.
- c. 비범한 작가
- d. 교황주의자들에 성공적으로 맞서는 논쟁가

C. 웨스트민스터 그룹 1의 번역자들

이 그룹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예루살렘 회의실에서 모였다. 이 그룹은 앤드루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1. 오버롤(John Overall, 주후 1559-1619년)

그는 케임브리지의 신학 담당 교수였고 ‘교부들’과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에 정통했다. 그는 라틴어도 매우 잘했으나 영어로 설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2. 사라비아(Hadrian Saravia, 주후 1530-1612년)

그는 스페인 혈통으로 벨기에에서 태어났다. 그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일했고 나중에 영국으로 갔다. 그는 매우 독실한 국교회 신자였으며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였다.

3. 클라크(Richard Clarke, 1634년 사망)

케임브리지 그리스도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

4. 레이필드(John Laifield, 1617년 사망)

그는 건축학의 재능으로 유명했으며 출애굽기(성막) 번역을 맡았다.

5. 타이(Robert Tighe, 1620년 사망)

그는 언어학적 능력으로 유명했다.

6. 벌리(Francis Burleigh)

그는 킹제임스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이었다.

7. 킹(Geoffrey King)

그는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히브리어 담당 교수였다.

8. 톰슨(Richard Thompson)

그는 영국인 부모 밑에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탁월한 문학적 재능으로 유명했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9. 베드웰(William Bedwell, 1632년 사망)

그는 탁월한 아랍어 학자로서 히브리어, 시리아어, 갈대아어를 포함한 7개 언어 사전을 지었으며 재능 있는 수학자였다. 1612년 그는 아랍어로 요한 서신을 라틴어 역본과 함께 출간했다. 그의 페르시아어 사전은 미완성 작품이었다.

D. 웨스트민스터 그룹 2의 번역자들

1. 발로우(William Barlow, 1613년 사망)

그는 햄턴 궁정 회의에서 고(高)교회파의 지도자였고 로체스터의 주교였다.

2. 스펜서(John Spencer, 주후 1558-1614년)

그는 옥스퍼드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의 학장으로 연설을 잘했다. 그는 19살부터 그리스어를 강의했다.

3. 펜튼(Roger Fenton, 1616년 사망)
그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
4. 허친슨(Ralph Hutchinson)
그는 옥스퍼드의 성 요한 칼리지 학장이었다.
5. 데이킨스(William Dakins, 주후 1606년 사망)
그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그리스어와 신학 강사였다.
6. 라벳(Michael Rabbett)
7. 샌더슨(Thomas Sanderson)

E. 케임브리지 그룹 1의 번역자들

1. 라이브리(Edward Lively, 주후 1605년 사망)
그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히브리어 담당 교수였다. 그는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동방 언어 학자였으며 5권의 소선지서에 대한 라틴어 주석을 저술했다.
2. 리차드슨(John Richardson, 1625년 사망)
그는 케임브리지 임마누엘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이었으며 언어적 재능 특히 라틴어가 매우 뛰어났다.
3. 쉐더튼(Lawrence Chaderton, 주후 1537-1640년)
그는 탁월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학자였으며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도 잘했다. 그는 청교도로 햄턴 궁정 회의에 참석한 4명 중 하나였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로서 한 번은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회중들은 그에게 계속하기를 요청했다.
4. 딜링햄(Francis Dillingham)
그는 강력한 반(反)카톨릭 논쟁가였고 언어적 재능이 뛰어났다. 그는 가끔 그리스어로 논쟁을 해서 '위대한 그리스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5. 앤드루스(Roger Andrews)
그는 렌슬릿 앤드루스의 형제로서 케임브리지 지저스 칼리지의 교수였다.
6. 해리슨(Thomas Harrison)
그는 청교도로서 능숙한 히브리어 학자였다.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관용구를 전공했다.

7. 스파울딩(Robert Spaulding)

그는 위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한 라이브리의 후임자였다.

8. Bing(Andrew Bing)

그는 케임브리지의 히브리어 교수였다.

F. 케임브리지 그룹 2의 번역자들

1. 듀포트(John Duport, 1617년 사망)

그는 케임브리지 지저스 칼리지 교수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다. 그는 뛰어난 그리스어 학자였다.

2. 브레인쓰웨이트(William Brainthwaite)

그는 케임브리지의 콘빌과 가이오 칼리지 교수였다.

3. 레드클리프(Jeremiah Radcliffe, 1612년 사망)

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신학 교수였다.

4. 워드(Samuel Ward, 1643년 사망)

그는 강력한 청교도였지만 확고한 왕정주의자였다. 그는 온유하며 학자다운 사람으로 동방 풍습에 대해서 정통했다.

5. 다우네스(Andrew Downes, 1625년 사망)

그는 케임브리지 성 요한 칼리지의 그리스어 담당 교수로서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학식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6. 보이스(John Bois, 주후 1550-1643년)

그는 5살 때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었고 6살 때 히브리어를 썼다. 그는 14살 때 케임브리지에 들어갔고 거기서 지도 교수와 그리스어로 서신 교환을 했다. 그는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 그는 천연두로 고생을 했는데 이때에도 몸을 담요로 싸고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했다. 그는 금식, 기도, 구제를 많이 했으며 체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어를 강의했다. 그의 도서관은 이제까지 수집된 가장 광범위한 그리스 문학 수집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산 날수만큼의 기록물 페이지를 남겼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3만 페이지 이상!)

22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라이브리가 사망한 후에 보이스는 첫 번째 케임브리지 그룹을 거들었고 스테이셔너스 홀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7. 워드(Robert Ward)

그는 치체스터의 목사였다.

G. 옥스퍼드 그룹 1의 번역자들

레이놀즈 박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이 모임을 이뤄졌다.

1. 하딩(John Harding)

그는 옥스퍼드의 히브리어 담당 교수로서 번역 모임의 의장이었다.

2. 홀랜드(Thomas Holland, 주후 1539-1612년)

그는 전체 번역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카톨릭 주의를 반대한 사람으로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단히 박식해서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강력한 청교도며 위대한 설교자였다.

3. 킬비(Richard Kilby, 1620년 사망)

그는 옥스퍼드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자였다.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새로운 번역(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왜 잘못 번역되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드는 것을 듣고 그는 나중에 그 설교자에게 왜 그 번역이 정말로 정확한지 열세 가지 다른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는 그 열여섯 가지 이유가 전부 번역자들에 의해서 고려되었다고 말했다.

4. 스미스(Miles Smith, 1624년 사망)

그는 번역에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이다. 그는 옥스퍼드 구약성경 그룹에 속했고 또 스테이셔너스 홀에서 12명의 교정 위원회 소속이었으며 빌슨 주교와 함께 인쇄에 앞서 마지막 편집 작업을 했다.

그는 히브리어, 갈대아어, 시리아어, 아랍어는 물론 랍비 주석의 전문가였다. 그는 약 300명의 '교부들'의 저작물을 읽고 주석을 달았다.

그는 확고한 칼빈주의자였지만 진짜 청교도는 아니었다.

스미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자들의 서문을 썼다. 참고로 킹제임스 1세에게 바치는 헌사는 주교 반크로프트가 썼다.

5. 브렛(Richard Brett, 주후 1567-1637년)

그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갈대아어, 아랍어, 이디오피아어, 라틴어에 능통한 학자였다.

6. 페어클러그(Daniel Fairclough, 주후 1578-1645년)

그는 젊은 청교도 학자이자 비범한 작가였다.

7. 토미(William Thome, 주후 1568년 출생)

그는 킹스 칼리지 교내 목사였다.

H. 옥스퍼드 그룹 2의 번역자들

1. 라비스(Thomas Ravis, 주후 1609년 사망)

그는 글로체스터의 주교로서 햄턴 궁정 회의에 참석한 국교회파 사람들 중 한 명이였다.

2. 애봇(George Abbot, 주후 1562-1633년)

그는 1611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청교도였다. 그는 강력한 카톨릭 반대자였다.

3. 이디즈(Richard Eades, 주후 1555-1604년)

그는 궁정 목사이자 위대한 설교자였다. 그는 이른 죽음으로 인해 번역에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다.

4. 톰슨(Giles Thompson, 주후 1553-1612년)

그는 꼼꼼한 학자이며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

5. 새빌(Henry Savile, 주후 1549-1621년)

그는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그리스어와 수학 담당 교수였다. 그는 수학, 천문학, '교부'(크리소스톰) 전문가였으며 다량의 라틴어와 그리스어 작품을 출간했다.

6. 페린(John Peryn, 1615년 사망)

그는 와트린의 교구 목사였으며 옥스퍼드 킹스 칼리지의 그리스어 교수였다.

7. 레이븐스(Ralph Ravens, 1616년 사망)

그는 옥스퍼드 성 요한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이었다.

8. 하마르(John Harmar, 1613년 사망)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학자로 유명했으며 교부와 스콜라 신학의 권위자였다. 그는 킹스 칼리지의 그리스어 교수였고 영어 문체의 대가였다.

22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9. 후턴(Leonard Hutton, 주후 1557-1632년)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학자로서 여러 그룹을 거들었다.

10. 애글리온비(John Aglionby, 주후 1566-1609년)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왕의 궁정 목회자였다.

11. 리브스(George Reeves, 주후 1569년 출생)

I.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일반적 특성

‘독자에게 드리는 서문’에서 마일즈 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그들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위대하고 자신을 칭송하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다.”

(강력한 청교도이거나 국교회 회원이던) 번역자들 사이에 교회 정치와 교리 부문에서 견해 차이가 컸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기록은 영감 받고, 무류하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번역의 목표는 과별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성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6번 규칙 참조).

이 사람들이 보여 준 학식의 깊이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동족 언어에도 능숙했다. 웨이트는 (현대 학자들과 비교하며) 이러한 사실의 가치를 지적한다. “많은 현대 ‘번역자’들은 어떤 단어 하나를 만나면 보통 각주에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분명치 않다고 말하고는 다른 식으로 번역한다. 그 단어의 의미가 아마도 이 현대 학자들에게는 불확실했을 것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동족 언어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단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그 단어가 소위 ‘하팍스레고메논’인 경우도 있다[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번 사용되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아람어, 콥트어와 다양한 동족 언어를 모두 알았기에 이러한 언어들로 가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에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동족 언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앤드루스처럼 15개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그냥 두 손을 들고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고만 말한다.”⁽³⁾

(3) Waite D. A.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 Collingswood, New Jersey: The Bible For Today Press, 1992: pp. 69,70

V. 킹제임스 성경 - 본문의 기초

킹제임스 성경은 단지 비숍 성경을 형식적으로 개정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어에서부터 번역되었지만” 틴데일의 언어적 기초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번역자들은 수많은 역본과 작품들 그리고 최고의 학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기초에 대한 분석은 차트 1, 2, 5, 6에서 언급하고 있다.

A. 구약성경 본문

1.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다. 그것들은 주후 1488, 1491, 1494, 1517년에 인쇄된 것들이다.

2. 그들은 이전 번역들을 부지런히 비교했다.

- a. 틴데일의 구약성경 번역본
- b. 매튜 성경
- c. 제네바 성경
- d. 비숍 성경
- e.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
- f. 앤트워프 폴리글롯
- g. 탈군
- h. 페시타

B. 신약성경 본문

1. 그리스어 수용 본문

스테파누스 3판 - 주후 1550년

2. 이전 번역들을 부지런히 비교했다.

- a. 틴데일의 신약성경
- b. 매튜 성경
- c. 제네바 성경
- d. 비숍 성경
- e. 올리베땅 성경(프랑스어)

22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 f. 디오다티 성경(이탈리아어)
- g. 루터 성경(독일어)
- h. 왈덴시안 성경(고대 이탈리아어)
- i. 페시타(시리아어)
- j. 랭스-두에 신약성경
- k. 스페인어 번역들
- l. 트레멜리우스의 라틴어 역본
- m. 베자의 라틴어 역본

VI.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언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종교개혁이 복잡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존재한 많은 영어 역본들을 정제한 작품이다.

A. 이전 영어 번역본들의 사용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사람들의 편안히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대중적인 영어 성경들의 표현과 스타일을 유지했다. 그 기준은 그러한 단어들과 스타일들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느냐였다.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틴데일 성경의 언어를 80-90% 정도 유지하고 있다. 또 그 안의 4%는 위클리프 번역에서 나왔고, 3%는 랭스-두에 신약성경을 포함해서 당시 존재하던 다른 번역본들에서 나왔다.

B.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우수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번역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영어 산문이 가장 장중하며 가장 위엄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우리 산문 문학의 제일 좋은 예를 보여 준다.”⁽⁴⁾

맥아피(MaAffe)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고 수준의 영어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의 평이함과 순수함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를 보여 준다. “첫째, 킹제임스 성경은 백성들 즉 중간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을 위한 성경이었다. 그것은 학자들의 작품이지만 주로 학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4) Kenyou, F. G. Our Bible And Ancient Manuscript, New York,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8: pg. 307

오히려 평범한 백성들이 평범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번역자들은 지속적으로 과거의 작품을 주시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사용했던 위클리프의 어휘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 성경은 이미 자연스럽게 된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언어를 고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셋째, 영어가 아직 가변적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영어가 고착된 형태가 아니었기에 단어가 한정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았다. 사실 순수한 문학적 관점에서도 성경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보다 영어로 표현된 것이 더 낫다. 네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문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번역자들이 원어 특히 히브리어에 충실했다는 점이다.”⁽⁵⁾

C. 이탤릭체의 사용

번역자들은 이탤릭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 단어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지만 영어의 가독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보충했음을 가리킨다.

이탤릭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1. 영감에 대한 번역자들의 견해

그들은 감히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하려 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축자 영감을 믿었으며 그래서 축자(형식) 일치 방법을 사용해서 원어의 각 단어를 번역했다. 그러나 고대 언어와 영어 사이의 차이 때문에 추가적인 단어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2. 번역자들의 정직성

이탤릭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독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다. 어떤 비밀이나 속임수도 없었다! (NIV에서 시편 23편 1절을 비교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 이탤릭체는 없다!)

3. 번역자들의 능력

좋은 번역 기법은 세부적인 것에도 꼼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탤릭체 문제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략한 현대의 다른 성경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엘기하 21장 19절을 확인하면 이탤릭체가 만들 수 있는 차이를 보게 된다.

(5) McAfee, C. B. *The Greatest English Classic*. New York,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12: pg. 100-102

킹제임스 성경(KJB):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the staff of whose spear *was* like a weaver's beam.”

신미국표준성경(NASB): “There was war with the Philistines again at Gob, and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the shaft of whose spear was like a weaver's beam.”

신국제역본(NIV):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Elhanan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who had a spear with a shaft like a weaver's rod.”

킹제임스 성경의 이탤릭체 단어 “*the brother of*”는 실제로 누가 골리앗을 죽였는지에 대해 큰 차이를 보여 준다. (역대기상 20장 5절은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과 NASB의 모순과 NIV의 속임수를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로마서 3장 10-12절에서 시편 14편 3절을 인용할 때, 시편의 이탤릭체 (“*there is*”)가 이탤릭체가 아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것으로 이런 이탤릭체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리켜 주신다! 또 다른 예를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할 때 보게 된다. 시편의 이탤릭체 단어들 (“*he is*”)이 신약성경 구절에서는 이탤릭체가 아니다.

D. 구두점의 사용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은 구두점 특히 콤마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공중 앞에서 낭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구두점 사용으로 낭독이 쉬워진다.

킹제임스 성경은 개인적 성경 연구를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계획되어서 초판에는 9천 개 이상의 상호 관련 구절(관주)을 담고 있다.

E. 인칭 대명사의 사용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가장 흔한 비평 중 하나는 고어 ‘thee’와 ‘thou’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웨이트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놀랄 만큼 조화롭게 대명사가 사용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대명사 *thee, thy, thyself, thou, thine, ye, you, your, yourselves* 는 정확하게 번역되었다. ‘T’자로 시작하는 대명사는 전부 단수고, ‘Y’자로 시작하는 대명사는 전부 복수이다. 이처럼 영어 독자는 다른 현대 역본들과 달리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는 2인칭 대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즉시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⁶⁾

(6) Waite, *Op. Cit.* pp. 255,6

연구 과제 4

- A. 킹제임스 성경의 앞에 있는 (혹은 이 교재 부록 2에 있는) ‘헌사’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완전한 문장을 사용해서 답하십시오.)
1. 헌사는 누구에게 제출한 것인가?
 2. ‘서구 세계의 별’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3. ‘죄의 사람’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4.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후에 ‘우리 시온의 안녕을 바라지 않는’ 적들은 무엇을 바랐는가?
 5. 제임스 왕에 대한 기독교적 영향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논증되도록 번역자들이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 B. 부록 2에 있는 ‘독자들에게 드리는 서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인용문과 완전한 문장을 사용해서 답하십시오)
1. 이 서문에는 백성들에게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번역자들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가?
 2. 번역자들은 성경기록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가?
 3. 번역자들은 적합한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4. 서문 마지막 문단의 요점은 무엇인가?
 5. 번역자들이 몸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되거나 헛된 것으로 여기며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성경기록에 속하는 정당하고 충만한 것으로 여긴 여섯 가지는 무엇인가?
 6. 번역자들은 칠십인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7. 번역자들이 (“좋은 크리스천 독자”에게 쓰면서) 자신들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8. 번역자들이 (“친절한 독자”에게 쓰면서) 단어와 구문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9. “냉철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 아무 때라도 무시당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말했는가?
 10. 번역자들이 ‘baptism’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 11 장

복습 문제

1. 영국에서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한 세 개의 종교 정파는 무엇이었는가?
2.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치 동안에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킨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3. 청교도에 대해서 제임스 1세 왕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4. '천 명의 청원'은 무엇인가?
5. 천 명의 청원에서 요구한 3가지를 말하시오.
6. 햄턴 궁정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7. 청교도를 대표한 주요 대변인은 누구였는가?
8. 영어 성경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햄턴 궁정 회의의 한 가지 성과는 무엇인가?
9. 얼마나 많은 '번역 원칙'이 작성되었는가?
10.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1. 킹제임스 성경의 각 구절은 최소 몇 번씩 번역자들에 의해서 검토되었는가?
12.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가?
13. 약 몇 명의 번역자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작업을 수행했는가?
14. 잘 알려진 3명의 번역자 이름을 말하시오.
15. 스테이셔너스 홀 위원회는 무엇인가?
16.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성격과 재능을 설명하시오.
17. 킹제임스 성경 구약성경의 주된 기초 본문을 이야기하시오.
18. 킹제임스 성경 신약성경의 주된 기초 본문을 이야기하시오.
19. 킹제임스 성경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이전의 영어 번역본은 무엇인가?
20. 킹제임스 성경에는 왜 이탤릭체 단어가 있는가?

제 12 장

출 판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되기까지는 많은 판(版)을 거쳤다. 이 성경을 향한 가장 음흉한 공격중 하나는 이러한 사실에서 나온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판이요?’하고 거반은 빈정거리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 질문에는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은 수년에 걸쳐 개정되어왔기에 21세기의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지 않다는 암시가 들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다르다. 어떤 출판사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1611년 성경의 복사판을 편리하게 인쇄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거나 알잡아보고자 함일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는 두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다.

1.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는 것이 하나다. (당신은 어떤 판을 의미하는가?)
2.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1611 복사본을 만든 출판사는 뉴킹제임스 성경도 출간했으며 그들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다섯 번째 개정판이라며 판촉 활동을 했다.

진실이 알려지고 이해되기까지는 이러한 공격들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입증될 수도 있다.

I. 킹제임스 성경의 판(版)들

A. 판 수

1. 1611-1614 (3년) - 17판
2. 1611-1644 (33년) - 182판
3. 1611-1800 (189년) - 1,000판

이 숫자들을 평균내면 매년 5판 정도가 된다.

B. 초판

1. 시기:

주후 1611년

2. 크기:

a. 42 x 26.7cm

b. 1500페이지, 7.5cm 두께

3. 인쇄업자: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가장 뛰어난 신 국왕 폐하의 인쇄업자’ 바커(Robert Barker)

바커는 판권의 대가로 3,500 파운드를 지불했다. 이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권리는 1709년까지 그의 회사에 있었다. 그 인쇄업자는 1611, 1612, 1613, 1616, 1617, 1629, 1630년 판 전부를 출판했다.

출간 위원회가 인쇄업자에게 준 원고나 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런던 대화재 때(1666년) 전소(全燒)된 것 같다.

4. 출판:

초판 인쇄 작업은 느리고 힘든 일이었다. 식자(植字)는 전부 손으로 이루어졌고 식자공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완성된 원고도 없었다.

2000부를 주문받아서 두 번의 인쇄 작업이 필요했다. 이 두 번의 1611년도 인쇄본 사이에는 400군데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룯기 3장 15절에 있다.

a. 첫 번째 인쇄판에는 “그가 도시로 들어가니라”(He went into the city)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레이트 He 성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b. 두 번째 인쇄판에는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She went into the city)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레이트 She 성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실 두 판이 다 맞는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도시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판에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예수님’(Jesus) 대신에 ‘유다’(Judas)라고 되어 있었다.

5. 특징:

초판에는 가족들의 계통도, 지도, 표제 요약, 질 총수, 상호 참조 구절,

간단한 난외주, 단락 표시가 들어 있었다.

6. 가격:

초판은 25실링에 팔렸다.

C. 킹제임스 성경의 유명한 다른 판들

이러한 판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활자 오류 때문에 유명하다.

1. 1611 - '그레이트 He 성경'
2. 1611- '그레이트 She 성경'
3. 1613 - 1611판과 300군데 차이가 있었다.
4. 1631 - '사악한 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이 "너는 간음하라."로 되어 있다.
5. 1638 - '죄를 잊어버린 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용서하다'(forgiven) 대신에 '잊다'(forgotten)로 되어 있다.
6. 1641 - '바다가 더 있는 성경', 계시록 21장 1절이 "바다가 더 있더라."로 되어 있다.
7. 1653 - '불의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라."로 되어 있다.
8. 1701 - 성경이 마침내 시편 119편 161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통치자들 (princes) 대신 인쇄업자들(printers)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로 되어 있다.
9. 1701 - 대주교 어서의 연대표가 추가됨.
10. 1711- '유익 성경', 이사야서 57장 12절이 "그것들이 내게 유익을 끼치리라."로 되어 있다.
11. 1716 - '죄 지으라는 성경'(Sin On Bible), 요한복음 5장 14절이 "sin no more" 대신에 "sin on more"로 되어 있다.
12. 1717 - '식초 성경', 장(章) 제목이 '포도원(vineyard) 비유'가 아니라 '식초(vinegar)의 비유'로 되어 있다.
13. 1746 - '혀 찌르는 성경', 마가복음 7장 35절이 "그의 혀를 묶는 줄(string)" 대신에 "그의 혀를 찌르는 아픔(sting)"으로 되어 있다.
14. 1792 - '부인하는 자 빌립 성경',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으로 되어 있다.

23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15. 1795 - '살인자 성경', 마가복음 7장 27절 "먼저 자녀들을 죽이게(killed) 할지니" [배부르게(filled)]로 되어 있다.
16. 1801 - '살인자 성경 II', 유다서 16절이 "투덜거리는 자들(murmurers)" 대신에 "살인자들(murderers)"로 되어 있다.
17. 1802 - '석방 성경', 디모데전서 5장 21절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charge)" 대신에 "내가 너를 석방시키노니(discharge)"로 되어 있다.
18. 1804 - 열왕기상 8장 19절이 "네 허리에서(loins)" 대신에 "네 사자에서(lions)"로 되어 있다.
19. 1805 -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콤마 대신에 "to remain"이 첨가 되었다.
20. 1806 - '서 있는 물고기 성경', 에스겔 47장 10절이 "어부들(fishers)이 서리니" 대신에 "물고기들(fishes)이 서리니"로 되어 있다.
21. 1807 - '이삭 성경', 마태복음 13장 43절이 "들을 귀 있는 자(ears to hear)" 대신에 "이삭 펼 귀 있는 자(ears to ear)"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9절이 "화평케 하는 자들(peace makers)" 대신에 "자리를 만드는 자들"(place makers)로 되어 있다.
22. 1810 - '아내 미워하는 자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이 "자기 생명(life)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대신에 "자기 아내(wife)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으로 되어 있다.
23. 1823 - '낙타 성경', 창세기 24장 61절이 "자기 소녀들(damsels)" 대신에 "자기 낙타들(camels)"로 되어 있다.
24. 1829 - 이사야 66장 9절이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not cease)" 대신에 "낳도록 막는 것을 금하겠느냐(not cause)"로 되어 있다.

D. 킹제임스 성경의 주요한 개정

킹제임스 성경은 네 번의 주요한 개정을 거쳤지만 그것들은 본문의 개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본문 개정을 위한 어떤 선례가 되지 않는다.

1. 중요한 활자 오류 교정

- a. 1629년 케임브리지 판을 내려고 워드(Samuel Ward)와 보이스(John Bois)는 가장 초창기 판들에 있는, 초기 인쇄 과정과 활자상의 많은 오류를 제거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본문, 이탤릭체, 난외 관련 구절에 대한 체계적인 개정 작업을 했다.
- b. 1638년 케임브리지 판에는 더 많은 교정이 이루어졌다.

2. 철자의 표준화

현재의 철자와 구두점은 (파리스 박사(Dr. Thomas Paris)가 만든) 1762년 케임브리지 판과 (블레이니 박사가 만든) 1769년 옥스퍼드 판에서 만들어졌다. [아래 참조]

나중 판들은 무게, 크기, 화폐 용어도 현대화 했다.

II.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킹제임스 성경 초판(1611)과 오늘날 잘 만들어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22,000군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관한 진실을 이해하기까지는 이 사실이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진실은 미국 성경 공회의 19세기 위원회의 말 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본문의 완전함을 망치거나 성경의 교리나 규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¹⁾

웨이트는 킹제임스 성경 원본을 현대 킹제임스 성경 본문과 비교하면서 귀로 느끼는 변화를 헤아렸다. 즉, 그는 철자와 정자법(正字法)의 변화는 제외시켰다. 그는 (791,328개의 단어 중에서) 421개의 차이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136개만이 ‘of’나 ‘and’의 추가라든지 ‘amongst’를 ‘among’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었다.⁽²⁾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판들에는 오류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서 이것들은 점차적으로 제거되었고 동시에 다른 변화들도 이루어졌다.

인쇄된 성경들에 가해진 변화와 교정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A. 활자 오류 교정

앞의 예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오류는 매우 많았는데 이것은 주로 사람 눈의 실수 때문이었다. 좀 더 예를 들어 보면 이렇다.

1. ‘Seek good’- 시69:32(1611년)를 ‘Seek God’(1617년)으로
2. ‘Chief rulers’(1611년)를 ‘chief ruler’(1629년)로
3. ‘woman that traveleth’- 사13:8을 ‘travaileth’로

(1) McClure, A. W. The Translators Revived. Worthington: Maranatha Publication (reprint): pp. 223, 224

(2) Waite D. A.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 Collingswood, New Jersey: The Bible For Today Press, 1992: pp. 4, 243,4

23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4. 'Sons nor daughter'- 겔14:18를 'daughters'로
5. 'shall burnt them'- 레4:35를 'burn'으로
6. 'fast of the beast'- 레7:25를 'fat'으로
7. 1611판과 1613판 사이의 몇 가지 변화는 이렇다.

1611	→	1613
hoopes	출38:10	hookes
plaine	레13:56	plague
not eat	레17:14	shall eat
his his	마16:25	his
Judas	마26:36	Jesus

분명한 인간적 오류에서 나온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가끔 오늘날 출판된 성경에서도 인쇄업자의 오류를 찾아낼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은 식자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B. 정자법(正字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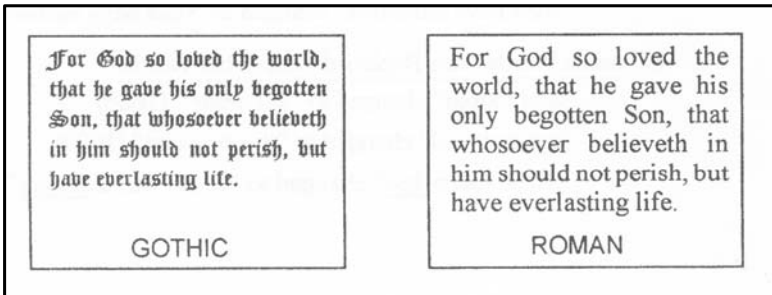
서체와 스타일은 '고딕체'에서 '로마체'로 바뀌었고 몇몇 글자에도 변화가 생겼다.

f는 s로 변했다: 따라서 alfo는 also가 되었다.

v는 u로 변했다: 따라서 vs는 us가 되었다.

u는 v로 변했다: 따라서 loue는 love가 되었다.

i는 j로 변했다: 따라서 Iesvs는 Jesus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본 1611판의 복사본을 읽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C. 철자 변경

킹제임스 성경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표준 영어 사전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되었다.

또한 옛날 스타일의 영어 철자에서는 어떤 단어의 끝에다 ‘e’자를 붙였고(feare), 이중 자음도 사용했다(ranne).

철자가 현대 형태로 표준화된 것은 1762년과 1769년 판에서였다.

D. 구두점 변경

구두점도 표준화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콜론[:]을 많이 사용하는 영국 판과 세미콜론[;]을 선호하는 미국 판 사이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E. 약어 변경

초창기 판들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가 사용되었다.

- ‘and’ 대신 ‘&’
- 자음 대신 ‘위에 선을 그은 모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bar{c} ofessing - confessing
 \bar{m} oe - more, \bar{w} he - when
- ‘the’ 대신 ‘y’

F. 단어 변경

실제로 사용된 많은 단어들에 대한 생략과 추가가 여러 번의 개정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그 단어들은 주로 인칭 대명사, 관사, 접속사, 전치사이다. 이것들은 본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단어가 정련된 것을 나타낸다.

1. 많은 단어가 단순히 형태만 바뀌었다.

‘hidden’은 ‘hid’로 바뀌었다.

‘returned’는 ‘turned’로 바뀌었다.

‘shalt have remained’는 ‘shall have remained’로 바뀌었다.

2. 일부 단어들은 다른 단어로 교체되었다.

‘and Parbar’는 ‘at Parbar’(1638년)로 바뀌었다.

‘the crowned’는 ‘thy crowned’(1629년)로 바뀌었다.

‘which was a Jew’는 ‘which was a Jewess’(1629년)로 바뀌었다.

3. 일부 단어들에 추가되었다.

‘this thing’은 ‘this thing also’(1638년)로 바뀌었다.

‘requite good’은 ‘requite me good’(1629년)으로 바뀌었다.

‘for this cause’는 ‘and for this cause’(1638년)로 바뀌었다.

‘the cormorant’는 ‘but the cormorant’(1629년)로 바뀌었다.

‘a fiery furnace’는 ‘a burning fiery furnace’(1638년)로 바뀌었다.

‘thy right doeth’는 ‘thy right hand doeth’(1613년)로 바뀌었다.

4. 이탤릭체 단어가 이탤릭체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탤릭체가 아닌 단어가 이탤릭체로 변경되었다.

G. 단어 순서의 변경

단어 순서가 바뀐 예를 시편 132편 12절에서 볼 수 있다. 초창기 판에는 ‘also shall’인데 지금은 ‘shall also’이다. 또 다른 예는 열왕기하 23장 21절에도 있다. 1629년 개정에서 ‘in this book of the covenant’가 ‘in the book of this covenant’로 바뀌었다.

H. 예전 판과 현대 판의 다른 차이

다음과 같은 것에서 변화가 있었다.

- 장(章) 제목
- 난외주석
- 괄호
- 장 요약

III. 킹제임스 성경의 수용

A. 브루턴 박사(Dr. Hugh Broughton)의 공격

청교도인 브루턴 박사는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요 성경 학자였는데 번역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즉석에서 이 번역을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의 동의(同意)를 통해 불쌍한 교회들에 그런 번역을 강요하는 것보다 차라리 야생말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 낫다.”

그는 덧붙였다. “해변의 조개와 숲속의 나뭇잎과 양귀비의 씨앗을 헤아리는 것이 이 성경의 오류를 전부 헤아리는 것보다 낫다. 이 성경은 우리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더럽혔다.”⁽³⁾

B. 제네바 성경과의 경쟁

킹제임스 성경은 빠르게 비숍 성경을 대체했지만 대중적으로 수용된 제네바 성경과는 약 50년 동안 경쟁을 했다.

청교도들은 ‘교회’, ‘감독’, ‘임명’과 같은 단어들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국교회 조직을 뒷받침한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제네바 성경의 마지막 판이 1644년에 인쇄됨과 동시에 킹제임스 성경이 우월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C. 다른 반대들

1. 로마 카톨릭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이 카톨릭 주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했다. 랭스 두에 성경의 난외주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깊은 지옥 속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2. 알미니안 신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칼빈주의를 뒷받침한다고 믿었다.

D. 최종적인 수용

초창기의 공격들과 (번역자들을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번역으로 설교하는 것을 꺼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빠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역본이 되었으며 이후 375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순전히 우수성에 의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한 영어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다.”⁽⁴⁾

IV.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권위 있는’(Authorized)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덕분에 킹제임스 성경에 적용되었다. “이 성경의 용도를 정하는 어떠한 칙령이 왕이나 의회나 성직자 회의에서 공포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다.”⁽⁵⁾

(3) Ewert, D. From Ancient Tablets to Modern Transl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pg. 203

(4) Bruce F.F. The Books And The Parchments, Old Tappan: Revell 1950: pg. 222

(5) Ewert, Op. Cit. pg. 200

24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자체의 본질적 우수성과 경쟁 성경을 압도하는 뛰어난 데 있다. 이것은 어진 회의 영향력, 왕실의 선호, 교회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만족감에 의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⁶⁾

킹제임스 1세는 그 번역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번역을 수행할 사람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그는 왕실의 어떤 ‘권한 승인’도 발표하지 않았다. 번역자들은 장소와 밥값은 받았지만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 참고로 스테이셔너스 홀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작업의 대가로 인쇄업자로부터 주당 30실링씩을 받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신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섭리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 - 어떤 사람은 경건하고 어떤 사람은 그다지 경건하지 않다 - 과 사람의 일들 - 어떤 일은 복을 받았고 어떤 일은 그다지 복을 받지 못했다 - 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의미한다.

섭리에 대한 성경적 예는 예레미야서 27장 6-8절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이교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시며 자신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바빌론이란 국가를 일으켜 세우셨다.

V.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

킹제임스 성경의 출현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인류 역사의 여정을 바꾸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세상에 대한 그 성경의 영향은 대충 말하더라도 정말 놀랄 만한 일이다.

A. 영어에 미친 영향

킹제임스 성경이 ‘문학 작품’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최고의 우수성은 영문학의 기준을 세웠다.

“순전히 문학적 업적으로서도 이 영어 성경은 영어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언어 그대로를 보여 준다. 동시에 이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됨으로 그것이 출현한 순간부터 우리 언어의 기준이 되었다.”⁽⁷⁾

비교적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다. 일반 학교와 대학에서도 문학적 진가를 인정하면서 성경의 일부분을 읽을 것을 학생들에게 종종 요구했다.

(이러한 높은 기준이 대부분의 현대 영어 교육과 함께 확실히 쇠퇴하고 있다.)

(6) Muir, W. Our Grand old Bible. New York, New York: Fleming Revell, 1911: pg. 141

(7) McAfee, C. B. The Greatest English Classic. New York,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2: pg. 91,2 [Quoting John R. Greene]

B. 국가들의 진로에 끼친 영향

1. 국가들이 이 책 위에서 세워졌다.

대영제국은 그 기초를 킹제임스 성경에 두었기 때문에 세계적 패권을 잡으며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 20세기 영국의 쇠퇴는 이 책을 무시한 탓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시33:10-12).

미국의 번영과 힘도 미국의 사회, 정치, 도덕, 신앙적 삶에 미친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력 덕분으로 돌릴 수 있다.

2. 영어는 국제적 언어이다.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영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도 많은 경우 영어가 제2의 언어이다. 영어는 교역의 언어이다.

[4. I. F. 참조]

C.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끼친 영향

1. 이것은 위대한 부흥의 성경이다.
2. 이것은 위대한 선교사들의 성경이다.
3. 이것은 위대한 교회들의 성경이다.
4. 이것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성경이다.
5. 이것은 대다수의 위대한 신자들의 성경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책으로 구원을 받았다. 수백만의 신자들이 이 책과 그 일부분을 암송하고 있다.

1995년 5월 현재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인기리에 팔리는 성경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토마스 벨슨 출판사에 따른 것이다. NIV 판매가 AV 판매를 능가했다고 잠시 동안 크게 선전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형 성경 배급사 한 곳(스프링 애보 배급사, Spring Abor Distributors)만의 경우였다. 영어로 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침례교회들에 의해 계속해서 인쇄되고 있다.

제 12 장

복습 문제

1.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판(版)’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가?
2. 킹제임스 성경은 대략 얼마나 많은 판을 가지고 있는가?
3.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은 언제 출간되었는가?
4. 초판 인쇄 작업은 몇 번 있었는가?
5. 서로 다른 초판 인쇄본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가?
6. 킹제임스 성경에서 4번에 걸친 주요한 개정 작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7. 현대의 킹제임스 성경과 초판 사이에는 대략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8.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다섯 종류의 변화를 말하십시오.
9. 브루턴은 누구인가?
10. 킹제임스 성경이 초기에 수용되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영어 성경은 무엇인가?
11.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 있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12. 킹제임스 성경이 인류 역사의 여정에 영향을 끼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제 13 장

차 별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 본문 특히 신약성경 본문과 관련 있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을 검토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17세기부터 학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였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의 승리와 더불어 현존하는 수많은 성경 역본과 번역본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 본문 비평학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비평학의 모든 제안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진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을 우선 비교해야 한다.

I. 과학적 성경 비평의 정의

‘비평’(criticism)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krino - 판단하다’에서 유래되었다. 비평이란 말 자체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건설적인 성경 연구가 약간의 인간적 판단(판별)을 포함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요12:48; 벰전1:20).

본문 비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것은 주의 깊고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원본 사본, 역본, 인용문에서 정확한 단어를 확실하게 하며 내적인 증거들로 판단하여 구성, 연대, 저자, 역사적 가치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과학이다.”⁽¹⁾

A. 현대 과학적 성경 비평의 기초

이 ‘과학’의 특성을 보여 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딤후6:20).

1. 자연주의

자연주의는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한다. 따라서 자연주의는 인간이 쓴 다른 책과 성경을 똑같이 취급한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기들이 신성하게 영감 받고 절대 확실하며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순수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연구한다.

(1) Miller,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ew York: The Word Bearer Press, 1966 : pg. 13

24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2.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논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사실로서 수용한다.

따라서 경험주의에서는 믿음이 고려 사항이 아니다.

B. 두 종류의 과학적 성경 비평

1. 고등 비평(Higher Criticism)

이것은 다른 말로 역사 비평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즉 성경의 이야기, 기록자 등을 다룬다.

2. 저등 비평(Lower Criticism)

이것은 다른 말로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확정하는 데 관여한다.

이번 강의의 주요 관심 사항은 저등(본문) 비평 분야이다.

II. 과학적 성경 비평의 역사적 배경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공식적으로 주후 1517년 마르틴 루터와 함께 시작했다. 그리고 카톨릭 주의를 반(反)종교개혁은 주후 1546년 트레نت 공회와 함께 조직되었다. 1648년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국가를 나누는 경계선은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으로 확정되었지만 종교개혁은 지속되었고 새로운 유럽이 출현했다.

A. 계몽주의

다음 200년간은 '계몽주의'(Enlightenment)로 알려진 새로운 운동이 기독교계를 휩쓸었다.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은 이성을 계시보다 높이고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철학적 운동이다.

영국의 로크(John Locke, 1632-1704년), 흄(David Hume, 1711-1776년), 프랑스의 볼테르(Voltaire, 1694-1778년), 디도로(Diderot, 1713-1884년), 콩도르세(Condorcet, 1743-1794년), 콩디아크(Condillac, 1715-1780년), 독일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년), 라이마누스(H. Reimarus, 1694-1768년), 미국의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년),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과 같은 사람들은 국가 종교 내부와 외부에서 이신론(理神論), 회의주의, 불신앙을 이끈 몇몇 대가들이었다.

B. 과학적 성경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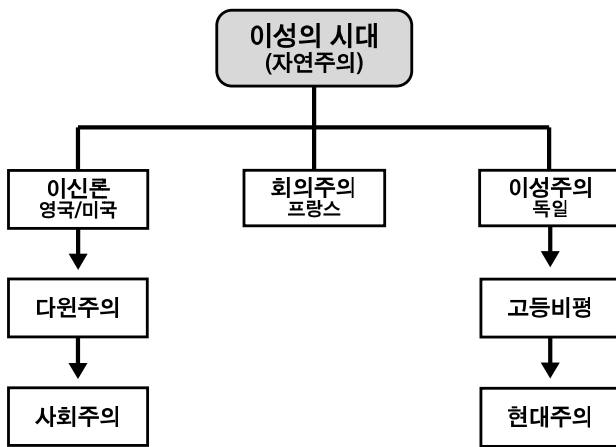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계몽주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절정에 다다랐다. 이때에 절대 왕정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혈 사태로 전복되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계몽주의의 영향은 ‘고등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의 출현에서 볼 수 있었다.

라이마누스(1694-1768년), ‘고등 비평의 아버지’ 아이히호른(J. G. Eichhorn, 1752-1826년), 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 1768-1834년), 드베테(W. DeWette, 1780-1849년), 독일 이성주의 신학 ‘튀빙겐 학파’의 창시자 바우어(F. C. Baur, 1792-1860년), 스트라우스(D. F. Strauss, 1808-1874년), ‘리츨 신학과’의 창시자 리츨(A. Ritschl, 1822-1889년), 벨하우젠(J. Wellhausen, 1844-1918년), 하르낙(A. Harnack, 1851-1930년)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종교 역사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친숙한 이름들이다.

이 운동은 자연히 성경 비평 ‘과학’의 발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격을 이끌었다.

이런 사람들과 독일 신학과와 영향은 결국 영국과 미국의 주류 프로테스탄트 교단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C. 본문 비평의 발전

저등 비평 ‘과학’은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후에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그 이후에 발전했다. 계몽주의의 영향 하에 이러한 발견은 곧 성경을 직접 대항하는 무기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형태의 비평이 생겨났는지를 고찰해 보면 주시할 만한 역사적인 시대가 세 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46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1. 수집과 대조의 시대

이 시대는 1627년부터 1831년 라흐만(Karl Lachmann)의 그리스어 본문 출간까지를 포함한다. 많은 사본들이 나타남에 따라 그것들에 대한 수집과 대조가 수반되었다.

[9장 참조]

2. 비평의 시대

이 시대는 라흐만부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이 나온 1881년까지를 포함한다.

a. 라흐만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

라흐만(주후 1793-1851년)은 텍스트 리셉투스를 거부하고 비(非) 비잔틴 사본을 근거로 최초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냈다. 그는 몇 개의 사본만을 사용했다. 라흐만은 4세기 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생각 속에서 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 ‘추측 교정’이라 불리는 과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 추측(conjecture) = 부족한 증거에 근거한 견해(경험적 추측)
- 교정(emendation) = 고치거나 바꾸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학자적인’ 그리스어 본문은 짐작의 산물이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우수하다’는 이론을 주장한 라흐만은 주로 코텍스 알렉산드리아(A)를 사용했고, 오리겐과 베자에(D), 바실리엔시스(E), 세이델리아누스(G), 세이델리아누스 II(H), 구엘퍼비타누스(P) 같은 코텍스들로 보충했다.

b. 티센도르프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

그의 신약성경 8판(주후 1869-72년)은 코텍스 시내(알레프)를 사용했다. 1866년 그는 코텍스 바티칸을 참조해서 표면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절들을 비교했다.

[9장 참조]

c. 트레젤레스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

트레젤레스(Samuel P. Tregelles, 주후 1813-75년)는 가난한 영국 플리머스 형제단 학자였으며 1852-72년 사이에 라흐만과 티센도르프와는 관계없이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출간했다. 1845년 그는 로마를 방문했고 거기서 신비의 바티칸 사본(B)을 42시간 동안 볼 수

있었으나 두 명의 고위 성직자 때문에 조금도 빼껴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서츠 소매와 손톱에다 그 본문 일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고 또 많은 부분을 외웠다고 주장했다.

트레겔레스는 ‘비평 비평’(comparative criticism)으로 알려진 과정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본문이 나타내는 시대에 따라서 사본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장 오래 된 사본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경구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레겔레스의 가장 큰 공헌은 영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을 텍스트스 리셉투스로부터 끄집어 낸 것이다. (Souter, Text and Canon, p. 107) 라흐만은 대륙에서 그 일을 했다.”⁽²⁾

d. 알포드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

알포드(Henry Alford, 주후 1810-71년)의 그리스어 본문 6판은 티센도르프와 트레겔레스의 작품을 근거로 1868에 출간되었다. 알포드의 주석은 “수용 본문에 대한 무가치하고 현학적인 숭배를 무너뜨렸다.”⁽³⁾

e.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

모든 비평 그리스어 본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본문은 아래에서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3. 강화의 시대

이 시대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본문을 출간한 때부터 현재에까지 이른다.

이 시대에 많은 비평 그리스어 본문이 출간되었다. 이 본문의 편집자들은 대개는 ‘절충적 방법’(eclectic method)을 따랐는데 이것은 그들의 비평 본문이 다양한 이문(異文)들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보다는 덜 완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품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본문을 개선하고 개정한 것 이상의 다른 가치는 없다.

가장 유명한 두 개의 본문이 이 시대에 있었다.

a. 네슬레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

처음에 네슬레(Eberhard Nestle)에 의해서 1908년 출간된 이 본문은 수많은 개정판으로 재판되었다. 1983년에 26판은 네슬레-알란드

(2) Robertson, A. T. Introduction To Textual Criticism. Garden City, New York: New York, 1928: pg. 33

(3) Geisler N. L & Nix W. E. From God To Us. 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81: pg. 170

본문이 되었다.

b. 연합성서공회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

이 본문은 1966년 알란드(Kurt Aland), 블랙(Matthew Black), 마르티니(Carlo Martini), 메츠거(Bruce Metzger)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1983년에 3판이 나왔다. 이 본문은 성경을 세계 여러 언어와 지역 사투리로 번역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다. 이것은 웨스트코트-호르트와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따르고 있다. [차트 8 참조]

III. 고등 비평 고찰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이 분야에서의 성경 비평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파괴적 고등 비평에 관해서선 간단히 조사할 것이다.

A. 성경 설명내용에 대한 공격

1. 구약성경

아이히호른(Eichhorn)은 구약성경 개론(주후 1780-83년)을 출간했는데 여기서 그는 성경의 책들 중 많은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구약성경 이야기의 상당수는 유대인 운문이며 상징적 표현이고 수사적 표현 또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담과 이브의 역사성을 거부했다.

2. 신약성경

a. 파울루스(Paulus, 주후 1761-1851년) - 그는 신약성경의 기적들은 단지 기록자들이 착각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b. 드베테(DeWette, 주후 1780-1849년) - 기적들은 착각이 아니고 민속 무용담이며 허구라고 가르쳤다. 스트라우스도 이 이론을 장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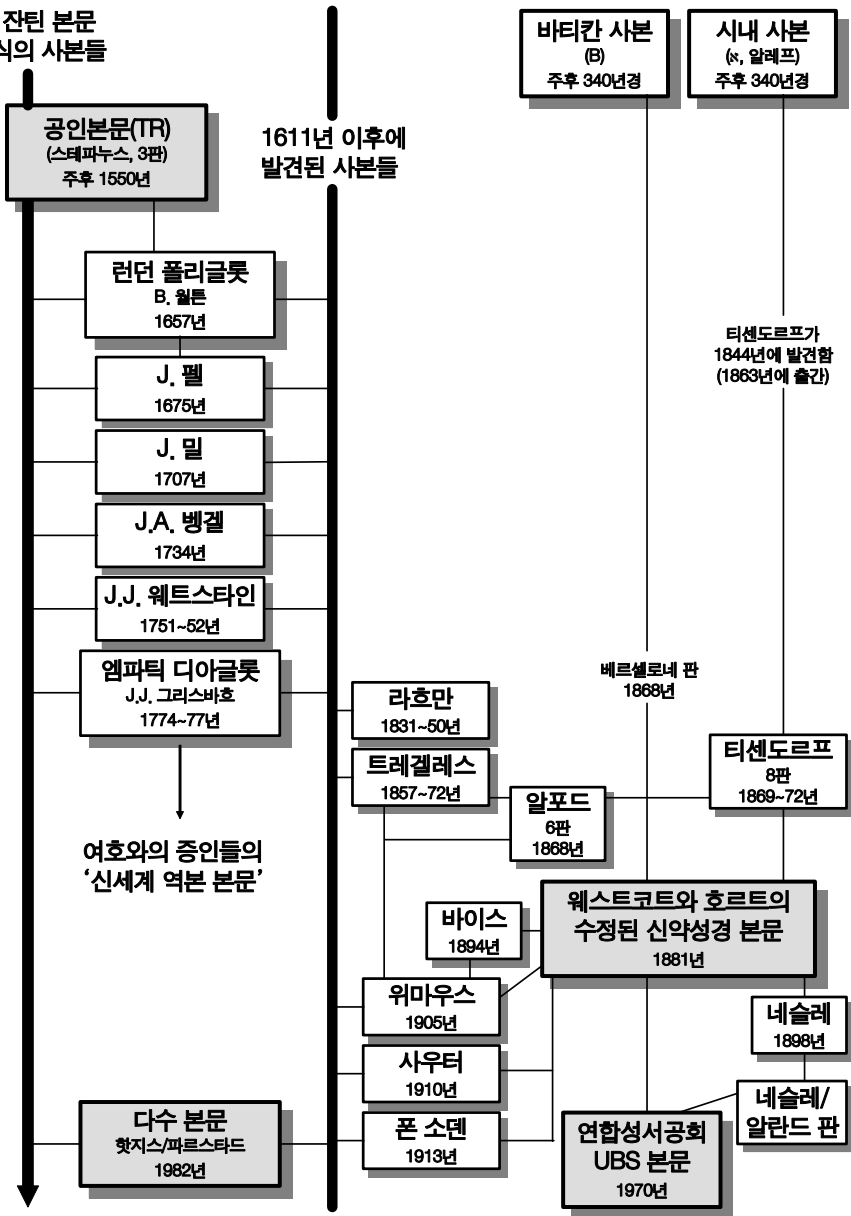
B. 성경 저작에 대한 공격

성경 안의 책들의 인간 기록자를 의심하게 하여 성경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1. 모세오경 문서 이론

오경(Pentateuch)의 모세 '저작'에 대한 최초의 공격은 카톨릭 사제 시몬(Richard Simon, 주후 1638-1712년)에게서 나왔다. 그 후 프랑스 카톨릭 의사/철학자 아스트룩(Jean Astruc, 1684-1766)은 이것을 이론화하여 모세 오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쓰인 것(엘로힘, 여호와 등)은

비잔틴 본문
형식의 사본들



〈차트 8: 비평 그리스어 본문들〉

25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분명히 모세가 두 가지의 다른 출처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이 출처들이나 구전 전통들을 J(Jehovistic), E(Elohistic)로 분류했다. 아이히호른, 드베테와 다른 사람들이 D(Deuteronomic), P(Priestly) 기록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출처 분석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로써 사실상 모세오경은 모세부터 에스라까지 폭 넓은 기간에 기록된 것이 되고 말았다. 이 이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과 정반대이다(마19:7-8; 눅16:29, 31; 24:27; 요7:19).

2. 이사야 문서 이론

이것은 이사야서 기록자가 두 명 혹은 세 명이였다고 (스타일에 대해 상상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것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반대이다(마13:14-15).

3. 그라프-벨하우젠(Graf-Wellhausen) 이론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주후 1844-1918년)과 그라프(Karl H. Graf, 주후 1815-69년) 교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며 구약성경 유대인의 종교는 부족의 범신론에서 진화했으며 구약성경은 후대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창세기가 실제로는 예레미야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했다.

4. 후대에 기록된 다니엘

본문에 페르시아어와 그리스어 단어 일부가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비평가들은 다니엘서의 기록을 후대(주전 200년)로 돌렸다. 따라서 다니엘 11장의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되고 말았다.

5. 튀빙겐 학파와 신약성경 서신들

바우어(F. C. Baur)는 바울의 헬레니즘과 베드로의 유대주의가 대립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6. 공관 복음(Synoptic Theory) 이론

처음 세 복음서를 '공관(共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 복음서가 다루는 소재가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고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a. 세 복음서 모두에 대한 공통 출처가 있었다.
- b. 마가복음과 Q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출처였다.
- c.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기록되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볼 수 있다.

IV. 저등(본문) 비평 고찰

A. 본문 비평의 목적

주어진 본문을 위한 사본 증거들을 모두 고찰하면 독자들은 단어, 철자, 어순에서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이문(異文)들을 보게 된다.

본문 비평가들에게 정해진 목표는 참된 성경 본문을 재구성하거나 가능한 대로 원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평가들은 반드시 보존 교리에 대해 약한 견해를 가져야만 한다.)

여기서 본문 비평가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가설은 여러 이문들이 우연이든 고의든 필사자의 오류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블랙은 말한다. “신약성경 본문 비평의 중요성은 그 목적 즉 이용할 수 있는 증거로부터 최초의 신약성경 본문을 복구하는 것이라는 목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⁴⁾ 본문을 복구하는 것은 본문을 잃어버렸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B. 본문 비평의 기준

본문 비평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규칙이 정해졌다. 이 규칙(기준, canon)들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의 출간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것들은 사실상 ‘경험에서 나온 추측을 위한 규칙들’이다.

21개의 규칙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본문 비평가는 훈련받은 학자여야 한다.

(학문을 강조하는 것은 이 ‘과학’의 특징 중 하나다. 비평학은 실제로 그리스 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학자들을 의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신분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2. 사본에 관한 모든 내외적 종류의 증거는 사본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따라서 고려해야만 한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본질적 가치’는 비평가의 판단[편견]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진다. 아래 참조.)

(4) Black, D. A.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4: pg. 12

25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3. 본문의 출처는 분류되어야 하고 이문들에 대한 권위는 개수보다 중요도가 되어야 한다.
(비잔틴 사본들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 규칙은 방대한 숫자의 비잔틴 사본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아래 참조)
4. 순수한 본문의 복원은 본문 변형의 역사와 계보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아래서 보겠지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의 문제는 계보에 대한 치우친 견해에 있다.)
5. 오래된 사본의 본문은 일반적으로 후대의 본문보다 더 좋다. 아마도 그것이 원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문 비평의 '과학'에 적용되는 이른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우수하다'는 이론이다.)
6. 대개 짧은 본문이 긴 본문 보다 더 좋다. 삽입과 추가가 생략보다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긴 본문은 '합성'(conflations)이라고 주장하면서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공격할 때 사용되었다.)
7. 더 어렵고 모호한 본문이 구문이 단순하고 쉬운 본문보다 더 좋다.
(이것은 서기관들은 어려운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생겼다.)
8. 다른 본문이나 이문의 출처를 더 잘 설명하는 본문이 더 좋다.
(이것은 '필사상의 가능성'(transcriptional probability)에 대한 규칙이다. 아래 참조)
9. 저자[기록자]의 문체에 더 잘 어울리는 본문이 더 좋다.
(이것은 '본질적 가능성'(intrinsic probability)에 대한 규칙이다. 아래 참조)
10. 교리적 논쟁의 특징을 담은 본문은 아무런 의심이 첨부되지 않은 본문을 위해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역사적 논쟁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 규칙은 이러한 교리들을 지지하고 있는 '논쟁이 되는' 본문들을 피하는 것을 허용한다.)
11. 가장 오래된 모든 종류의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중세의 모든 복사본과

인쇄된 판을 물리치며 참된 본문을 결정한다.

12. 주요한 영설 사본들인 시내, 바티칸, 에프라임, 알렉산드리아 사본 - 특히 처음의 두 가지 사본 - 이 고대 역본들과 니케아 공회 이전 인용문들에 의해 뒷받침을 받을 때 후대의 모든 권위보다 더 중요하며 아마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최초의 본문을 제공한다.⁽⁵⁾

“비평의 모든 기준은 단지 평균값이고 가능성에 근거한 확률처럼 작용한다. (Warfield, op. cit., p 107)”⁽⁶⁾

C. 본문 비평의 추측들

본문 비평 ‘과학’을 주의 깊게 조사하면 눈에 띄게 두 가지 가정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정 1 - ‘상처 입은 본문’ 가설

고대의 많은 사본들은 우연에 의한 실수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눈, 귀(사본을 구술로 필사하는 경우), 기억력(서기관이 각 단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이나 졸음과 같은 보통 사람의 약점을 통한 실수일 수 있다.

a. 비평가들의 전문용어

본문 비평가들은 그러한 실수들을 다음과 같은 ‘과학적’ 용어로 명명하고 있다.

- i. Haplography: 글자의 누락
- ii. Dittography: 글자의 반복
- iii. Metathesis: 두 글자의 역전(逆轉)
- iv. Homeoteleuton: ‘위치를 잃어버린’ 결과로 단어들 이 누락되는 것
- v. Kakiagraphy: 철자가 잘못된 단어들
- vi. Itacisms: 그리스어의 모음과 이중 모음의 소리가 비슷한데서 나온 실수들

b. 비평가들의 태도

본문 비평가들은 우리에게 순수한 성경 본문이 없다고 믿는다. 또 그들은 모든 본문이 오점을 지니고 있어서 순수한 본문이 어떠한지를 결정하

(5) Cited by: Miller, op. cit. pg. 290

(6) Robertson, op. cit. pp. 160,161

는 것이 자신들의 과업이라고 믿는다. 밴브루겐(Van Bruggen)은 비평가들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주께서는 계시된 교리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본문을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신실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어느 본문이 정확한 원문인지를 항상 아무 의심 없이 말할 수 없다. 본문 보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방법을 보여주면서 또 서기관들의 부주의함과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의 영향으로 초래된 혼란을 통해서 말씀이 받은 영구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⁷⁾ “하지만 20세기의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근대 본문 비평에서 한 가지 놀랍고 영속적인 확실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진짜 신약성경 본문이 최소한 대부분의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확신이다.”⁽⁸⁾

c. 비평가들의 방법

비평가들은 진짜 본문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i. 필사상의 가능성(Transcriptional Probability)

이것은 이렇게 묻는다. ‘다양한 이문들 중에서 어느 것이 다른 것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것은 필경사들이 본문의 필사 과정에서 했을 것 같은 일들에 근거한 추측이다. 본문 비평가들은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본문, 더 짧은 본문, 용어 면에서 더 안 어울리는 본문, 덜 세련된 본문을 더 좋아하는데 이는 서기관들이 항상 본문을 단순화 하고 첨가하고 개선하려 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ii. 본질적인 가능성(Intrinsic Probability)

이 기준은 이렇게 묻는다. ‘최초의 기록자가 쓰거나 의미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기록자의 스타일과 배경 그리고 기록자의 알려진 다른 기록물들의 내용과 그것들이 그 구절의 문맥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근거한 추측이다.

(7) Van Bruggen, J. *The Future Of The Bible*,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Publishers, 1972: pp. 120,121

(8) Van Bruggen, J. *The Ancient Text of The New Testament*, Winnipeg, Manitoba: Premier Printing, 1976: pg. 11

“오늘날 대부분의 본문 비평학계에서는 비평가들의 판단이 본문 비평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⁹⁾

d. 서기관이 만든 오류들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고찰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i. 이러한 실수는 쉽게 간파된다.

조잡하게 복사된 사본은 쉽게 발견된다. 철자 실수, 문법적 오류, 펜 흘림은 부주의한 일처럼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ii. 서기관들의 규칙들이 구약성경 본문을 보호했다. [6장 참조]

서기관은 자신이 복사한 것에 오류가 있음을 감지했다더라도 난외주를 통해서만 변경을 할 수 있었다.

iii. 용례가 신약성경 본문을 보호했다.

성경 신자들은 주의 깊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만든 오류들은 후대 사본에 섞이지 않았다. 잘못된 사본들은 거부되었다.

iv. 성경의 난제를 극복하려는 수단으로 ‘서기관의 오류’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것은 오늘날의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관례다. 성경 기사에서 분명한 불일치나 난제를 만나면 학자들은 서기관들을 탓한다.

한 가지 실례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다. 이 구절에서 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여기의 ‘낙타’(kameelos)는 원래 ‘밭줄’(kamelos)인데 어떤 서기관이 이것을 망쳐놓았다고 말한다.

2. 가정 2 - ‘본문 계열’ 가설

사본들이 대조되면서 본문 비평가들은 사본을 계열과 그룹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 벵겔(J. A. Bengel, 주후 1687-1752년) - ‘근대 본문 비평의 아버지’인 그는 최초로 이러한 방법으로 본문들을 분류했다. 그는 아프리카(알렉산드리아)와 아시아(비잔틴)계열을 제안했다. 그는 또 사본은 숫자보다는 중요도를 따져야 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 세믈러(J. S. Semler, 주후 1725-1791년)는 여기에다 서방 계열을

(9) Fuller, D. O. Which Bible?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 1975: pg. 160

추가하여 세 계열로 분류하는 것을 도입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본문 계열 개념에 대한 이들의 이론을 크게 의존했다.)

- 스트리터(B. H. Streeter)는 1924년 가이사라 계열(복음서만 해당)로 알려진 네 번째 본문 계열을 제안했다.

“레이크는 마가복음에서 코리데티(Koridethi) 복음서는 이 더 작은 그룹(페라[Ferrar]와 소수의 소문자 사본 28, 565, 700)으로 둘러싸인 채 하나의 계열을 형성함을 보여 준다. 스트리터는 마가복음에 관한 레이크의 결론이 다른 복음서에도 효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비잔틴 표준으로 교정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다른 본문 계열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특이한 본문을 제공한다.”⁽¹⁰⁾

스트리터의 가설은 가이사라 계열이 주후 231년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이사라로 이주한 결과로 생겼다는 것이다. 이 계열은 비잔틴 본문과 상이한 형태의 본문을 담고 있다.

a. 본문 계열의 목록

오늘날 본문 비평가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이문(異文)들에 근거하며 사본 증거에서 주요한 네 개의 계열을 인정한다. 그들은 이 계열들이 초창기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 지역과 연결된다고 말한다.

i.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관련된 본문이며 ‘학자들의 개정’과 본문 생략이 이것의 특징이다.

이 본문 유형은 코텍스 알레프, B, C와 함께 극소수의 영설과 필기체 사본, 콕트어 역본,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에 의해 대표된다.

ii. 가이사라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본문 형태로 알렉산드리아와 서방 본문 사이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계열은 코텍스 θ , N, O, Σ , Ψ 와 함께 f^1 , f^{13} 에 의해 대표된다.

(오늘날 많은 비평가들은 가이사라 계열이라는 개념에서 물러서고 있다.)

iii. 서방(西方)

(10) Miller, op. cit. pg. 305 (underscoring ours)

이것은 로마와 북아프리카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본문 형태이다. 이것의 특징은 본문 첨가이다.

이 본문 형태는 코텍스 D에 의해 대표된다.

iv. 비잔틴

이것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과 관련된 본문 형태이다. 본문 비평가들은 이것이 후기에 나온 '혼합된 본문'이라고 끊임없이 헐뜯어 왔다.

이것은 막대한 양의 현존하는 사본들의 대다수에 의해 대표되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은 거의 없다.

b. 본문 계열 이론의 영향

i. 그들은 계열의 중요도를 따짐으로써 즉 특정 계열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계열의 사본들을 시시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쳐놓을 수 있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기들의 계통학적 방법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소수의 사본을 지지하면서 방대한 숫자의 비잔틴 사본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ii. 그들은 가이사라 계열을 창안해 냄으로써 비잔틴 본문을 지닌 많은 숫자의 사본을 재분류했고 비잔틴 본문의 수적 권위를 축소시켰다.

c. 본문 계열 개념에 대한 반박

이들이 본문 계열에서 보여 준 특징들은 결코 균일하지 않다.

생략을 특징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에도 첨가가 있다.

첨가를 특징으로 하는 서방 계열에도 생략이 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본 즉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자기들끼리도 복음서에서만 3,000번 이상 불일치한다.

에프(Epp)에 따르면 코텍스 와싱토니엔수스(W)는 마가복음 5-16장에서 B와 34% 일치하고, D와는 36% 일치하며, 텍스투스 리셉투스와는 38% 일치한다고 한다.

피커링(Pickering)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알레프, B, p⁴⁵, p⁶⁶, p⁷⁵를 요한복음의 동일한 구절에서 비교하며 이 중 3개의 파피루스가 다 알레프나 B 중 하나와만 일치한다고 말한다. 결론은 이렇다. 이 파피루스들은 알레프와 평균적으로 18% 일치하고, B와는 평균적으로 39% 일치하며 텍스투스 리셉투스와는

평균적으로 43% 일치한다.⁽¹¹⁾

피커링의 결론은 이렇다. “가장 초기의 사본들은 ‘순수한 흐름’이나 ‘본문 형태’로 한데 뭉쳐지기보다는 차라리 변화의 넓은 스펙트럼 위에 지지분하게 점이 찍힌 것처럼 분포되어 있다. 비록 사본들과 사본들 그리고 사본들 가운데에 다양하게 친밀한 정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본문 비평을 실행할 때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¹²⁾

“우리는 본문 전수의 흐름을 지배해 온 전통 본문(버건, Burgon)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색다른 길을 가고 있는 약간의 개별적 증거들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소용돌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흐름이다.”⁽¹³⁾

“어떤 본문이 전수 과정에서 잘못을 통해 부패된 것에 점점 노출될 때 항상 본문 부패의 다양한 형태들 사이의 확산이 나타나고 퇴보 형태의 다양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역사는 한 군데로 수렴하는 특성을 지닌 전통 속에서 우리를 맞이한다.”⁽¹⁴⁾

사실 사본 증거는 순수한 것과 부패한 것 두 종류밖에 없다. 본문의 부패는 삭제와 첨가 중에서 한 가지 형태를 갖게 되며 서방 부패나 이집트 부패 등으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 소위 본문 계열로 사본들이 엄격하게 구획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V.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이론은 1881년에 「원래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의 제2권으로 처음 출간되었다. 이 책의 출간과 영국개역성경(RV)의 출간은 동시에 일어났으며 본문 비평학 분야에 혁명적인 충격을 가했다.

이 이론은 이전에 있던 모든 비평적 연구의 완성이었다. 이 이론은 기독교의 걸모양을 바꿔놓았고 사실 그 근거의 상당 부분은 허구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본문 학자들에게 마법과 같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11) Pickering, W. N.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Inc., 1977 pp. 55,56

(12) *ibid.* pg.57

(13) *ibid.* pg. 110

(14) Van Bruggen, (Ancient Text) Op. Cit. pg. 20

진화론이 자연과학으로 알려져 있듯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도 본문 비평의 '과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다.

A.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 저자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대단히 존경받던 두 명의 영국 국교회 신자이며 케임브리지 학자들이었다.

1.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

웨스트코트(주후 1825-1901년)는 듀럼의 영국 국교회 주교(감독)였고 카톨릭 주의를 지지하는 옥스퍼드 운동에 분명히 공감하였다.

2. 호르트(Fenton John Antony Hort)

호르트(주후 1828-1892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다. 본문 비평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들 작품(II 권)에 서문을 쓴 사람이 바로 호르트라고 알려져 있다.

3. 그들의 신앙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다 카톨릭 주의에 우호적이며 반(反)복음주의적인 사람들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그들이 기록한 개인적인 글에서 뽑은 것들이다.

- a. 웨스트코트 - “나는 성모 숭배가 우리가 잊고 지내는 어떤 것들에 대해 증언하는지 보기 원한다.”
- b. 호르트 - “나는 더 새롭게 된 성모숭배의 생명력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마리아 숭배와 예수 숭배는 원인과 결과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 해 동안 확신해 왔다.”
- c. 웨스트코트 - “자 이제,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 준다고 믿는다면 눈을 뜨고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d. 호르트 - “가장 내 마음을 끈 책은 다윈의 것이다. 그것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책과 내가 동시대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지금 나는 그 이론에 반박할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다.”
- e. 웨스트코트 - “나는 기적을 설명하는 책을 읽어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나는 기적을 설명할

때 증거가 꽤 부족함을 발견한다.”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 f. 호르트 - “복음주의자들의 긍정적인 교리가 내게는 허위라기보다는 왜곡으로 보인다. 권위의 문제 특히 성경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아직 더 많은 심각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가 해서 나는 두렵다.”
- g. 웨스트코트 - “성경기록의 영감에 관한 싸움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 싸움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나는 진지하게 구하고 있다.”
- h. 호르트 - “웨스트코트와 나는 유령과 모든 초자연적 현현과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협회를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속임수와 단지 주관적인 환상들과 이것들을 구분해야만 한다고 믿을 태세가 되어 있다.”⁽¹⁵⁾

이 두 사람은 세례에 의한 중생,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직자 체제 같은 것들을 옹호했다. 그들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 성경기록의 무오류, 문자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재림, 인격적 마귀의 존재를 거부했다.

B.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 목적

호르트는 수용 본문을 반대하는 편견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1851년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그토록 작은 그리스어 성경을 읽으면서 형편없는 텍스트스 리셉투스에 질질 끌려 다녔기에 지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본문들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몰랐다. 오로지 후대의 사본만을 의존하는 저 졸렬한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생각해 보라. 이러한 초기 사본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¹⁶⁾

분명히, 호르트는 강박 관념으로 인해 시리아 [비잔틴] 본문을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이론이 바로 그 일을 수행했다.

C.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 주장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가설의 중심은 ‘계통 이론’(Genealogical theory)인데 이 이론에서는 비잔틴 본문이 초창기 본문에서 파생되어 주후 350년경에 만들어진 ‘공식 교정본’이라고 생각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비잔틴 본문을 ‘시리아 본문’(Syrian Text)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잔틴 본문을 ‘시리아 교정본’(Syrian Recension)이라고 불렀다. 호르

(15) Above statement cited by: Coy, G, H, The Inside Story Of The Anglo American Revised New Testament, Dallas, Oregon: Private publication, 1973: pp. 79-85: Taken from: The Life And Letters Of Bishop Westcott, and The Life Letters Of Dr. Hort.

(16) Cited by: Pickering, op. cit. pg. 31

트는 나중에 이것이 안디옥의 루시안(Lucianus, 주후 312년 사망)의 작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따라서 그것을 ‘루시안 교정본’(Lucian Recension)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모든 비평 기준을 사용하여, 이 두 학자는 본문 형태(계열)의 기원에 대한 교묘한 이론을 만들어 내서 모든 중대한 고려 사항에서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바티칸(B)과 시내(알레프) 사본으로 대표되는 순수한 ‘중립 본문’(Neutral Text)을 찾아냈고 특히 바티칸 사본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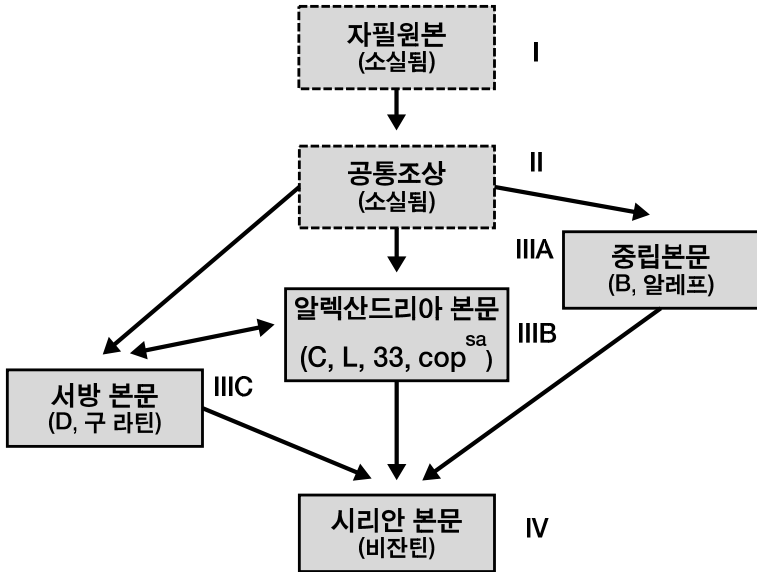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중립 본문의 공통 원형을 학문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코텍스 에프라임 레스크립투스(Ephraemi Rescriptus), 레기우스(Regius, L), 필기체 33 사본에 의해 대표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은 현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중립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도 찾지 못하며 이것들 모두를 함께 ‘알렉산드리아’나 ‘이집트’ 본문이라는 표제로 분류하고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코텍스 베자에(D)에 의해 대표되는 ‘서방 본문’이 공통 원형을 부패시킨 개정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몇 군데 생략된 곳을 제외하고는 이 계열에다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립 본문이 끼워 넣은 어구를 담고 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하여 그 생략된 곳을 ‘끼워 넣은 어구가 없는 서방 본문’(Western non-interpolations)으로 불렀다.)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은 현재 서방 본문에서 다 많은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본문보다 원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 본문’이 후대에 나왔다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는 이러한 계통 이론을 설명한다. 이 도표가 보여 주는 것은 시리아 본문이 기껏해야 네 번째 세대(IV)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한 주장을 제시했다.

1. 텍스트스 리셉투스에서 이문 합성의 증거.

서기관들은 늘 본문을 늘이는 경향이 있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호르트는 짧은 알렉산드리아와 서방 본문들을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스 리셉투스의 여덟 개의 본문 예들을 제시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a. 마가복음 6장 33절

세 가지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and came before them” - 알렉산드리아.

“and came together there” - 서방

“and came before them and came together to Him” - 시리아

b. 누가복음 24장 53절

본문과 함께 비평 장치에도 주목하라.

“blessing God” - 알레프, B, C, L, p⁷⁵, sy^s - 알렉산드리아.

“praising God” - D, Italic - 서방

“praising and blessing God” - A, W, θ , f¹, f¹³ - 시리아

- c. 마가복음 8장 26절
- d. 마가복음 9장 38절
- e. 마가복음 9장 49절
- f. 누가복음 9장 10절
- g. 누가복음 11장 54절
- h. 누가복음 12장 18절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비잔틴 본문은 두 개의 이문(異文)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문들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텍스트스 리셉투스 본문은 후대의 것이며 따라서 열등하다.

호르트는 서문에 이러한 예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시리아 본문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증언 부족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비잔틴 본문을 입증한 최초의 교부는 크리소스톰(Chrysostom, 주후 347-407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오리겐(주후 185-254년)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증언하고 초기의 많은 라틴 교부들은 서방 본문을 증언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비잔틴 본문은 주후 4세기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본문이고 따라서 열등하다.

3. 내적 증거가 비잔틴 본문이 열등함을 드러낸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무시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대개 경쟁하는 본문들보다 더 길고 더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짧고 더 어려운 본문이 오히려 좋다고 진술한 본문 비평의 기준들을 사용해서 이런 주장을 입증했다.

D.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 저작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신들의 비평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만들기 위해서 28년 동안 작업했다. 그들 중 아무도 사본들을 가지고 작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작업했다.

비밀 협상을 통해 그들의 비평 본문이 출판되기 전에 복사본이 만들어졌고 영국개역성경(RV)을 만든 개정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영국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36,191군데나 다르다.

E.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 영향력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로 인하여 본문 비평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용 본문(Received text)과 킹제임스 성경에 반대하는 본질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로 인하여 1881년 이후로 권위 있는 모든 그리스어 본문은 그들의 본문이거나 그들의 본문을 변형한 것이 되고 말았다. 개정위원들이 사용한 그리스어 본문과 텍스트스 리셉투스 사이에는 5,788 군데의 차이가 있다. 그 중 25%가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를 바꾸었다. (대략 말해도 추정치가 그렇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로 인하여 1881년 이후로 텍스트스 리셉투스에서만 번역된 영어 번역본은 하나도 없다.

VI.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반박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이론은 폭넓게 인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전을 받았고 그들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몇 가지 학문적인 연구가 있었다.

A.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

1. 버건(Dean Burgon)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에 대한 강력한 공격은 버건(John William Burgon, 1813-88)의 「개정판의 개정」(*The Revision Revised*, 1883년)과 다른 저작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버건은 훌륭한 옥스퍼드 학자였고 오리엘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 성 메리 교회(옥스퍼드)의 교구 목사, 그레섬 신학부의 교수, 치체스터의 학장, 고교회파 영국 국교도였다.

그의 입장은 자주 조롱당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섭리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여 그것이 버려지지 않게 했다.

2. 밀러(Prebendary Edward Miller)

밀러는 개인적으로 버건의 친구였다. 1896년에 그는 완성되지 않은 버건의 작품인 「거룩한 복음서들의 전통 본문과 전통 본문의 부패 원인」(*The Traditional Text of the Holy Gospels and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Traditional text*)을 편집해서 출간했다.

3. 스크리브너(Dr. Frederick H. A. Scrivener)

스크리브너(1813-91년) 자신은 본문 비평가로서 (소문자 사본의 목록을 확장하고) 몇 개의 사본을 편집하고 대조했으며, 「알기 쉬운 신약성경 비평 입문」(*Plain Introduction To Th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그는 1881년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의 위원이었으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이론과 본문이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대적하는 소수파를 인도했다. 킹제임스 성경을 위한 스크리브너의 엄호는 버건의 강렬함에 비해 다소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견고했다.

B.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에 대한 현재의 도전

1. 트리니테리언 성경 공회(Trinitarian Bible Society)

트리니테리언 성경 공회(삼위일체 성경 공회)는 영국과 외지 성경 공회 내부의 유니테리언 - 삼위일체를 부정함 - 회원 자격에 반대하여 1831년에 결성되었다. 트리니테리언 성경 공회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수용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방어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2. 달라스 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

이 학교와 연계된 학자들은 최근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을 반박하며 ‘다수 본문’(Majority Text) 모형을 통해서 수용 본문을 옹호하고 있다.

a. 피커링(Wilber N. Pickering)

그의 책 「신약성경 본문의 본질」(*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1977년)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계통 이론을 논박하며, “대개는 최초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복사본들이 가장 많은 숫자의 파생본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명한 이치를 통계학적 확률을 통하여 논증한다.

b. 핫지스와 파스타드

핫지스(Zane C. Hodges, 신약성경 문학과 주해 교수)와 파스타드(Arthur L. Farstad)는 1982년에 「다수 본문에 따른 그리스어 신약성경」(*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을 출간했다. 이러한 ‘핫지스-파스타드 본문’ 혹은 ‘다수 본문’(Majority Text)은 다수의 비잔틴 계열 사본에 근거하고 있지만 텍스트스 리셉투스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텍스트스 리셉투스의 비평 판’으로 불릴 수 있다.)

3. 다른 반대자들

a. 뱀브루겐(Jakob Van Bruggen)

뱀브루겐은 자신의 책 「성경의 미래」(*The Future of The Bible*)에서 다수 본문의 개념을 옹호했다.

b. 스투르즈(Harry A. Sturz)

스투르즈는 자신의 책 「비잔틴 본문 형태와 신약성경 본문 비평」(*The Byzantine Text-Type An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에서 비잔틴 본문에 대한 초기 증거들과 비잔틴 본문의 독립성을 명시함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을 반박했다. 비록 스투르즈가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본문 연구에 있어서 비잔틴 본문을 최소한 '동등한 협력자'의 위치까지는 올려놓았다.

C.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에 도전하는 주요한 질문들

여기서는 기정사실에 비추어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의 핵심 요소 중 몇 가지를 고찰한다.

1.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합성 본문(Conflated Text)인가?

- a. 호르트는 합성된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여덟 개의 예를 언급했고 다른 예들도 있다고 '생각했다.' 로버트슨은 이것이야말로 '시리아 본문이 최근의 것이거나 '후대의 것'임을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외쳤다.⁽¹⁷⁾

그런데 왜 예가 8개만 있는가?

허튼(E. A. Hutton, *An Atlas Of Textual Criticism*, 1911년)은 용케 821개의 예를 제시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신약성경 본문에서 약 1% 밖에 되지 않으며 그가 제시한 많은 예들은 의심스럽다.

- b. 알렉산드리아와 서방 본문 형태도 합성을 보여 준다. 피커링에 따르면 '호르트 스타일의 합성'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코텍스 B, 알레프와 서방 계열의 D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서 알레프와 p⁶⁶은 B와 비잔틴 본문의 합성이다.⁽¹⁸⁾

- c. 파피루스들은 일반적으로 본문이 부패하기는 했어도 비잔틴 본문이 초기에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메츠거(1962년)는 파피루스 45, 46, 66이 모든 다른 본문 양식에 비해 전통(비잔틴) 본문과 일치하는 23개의 예를 열거한다. 그리고 적어도

(17) Robertson, op. cit. pg. 188

(18) 참조 : Pickering, op. cit. pg. 60

12개 이상의 그러한 일치가 파피루스 75에서 나타난다.”⁽¹⁹⁾

스투르츠는 파피루스에서 비잔틴 본문에만 있는 예를 150개 열거하고,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없는 비잔틴-서방 본문의 예를 170개 열거한다.⁽²⁰⁾

- d. 이러한 사실들은 ‘왜 그것들이 비잔틴 본문의 합성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왜 그것들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짧게 만든 ‘알렉산드리아와 서방 본문의 축소’일 수는 없는가?
2. 텍스트스 리셉투스 초기 교부들의 증거물들에 의해서 옹호 받지 못하는가?
- a. 초기 교부들의 저작물에 대한 신뢰도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i. 교부들의 저작물은 종종 전수 과정에서 후대의 본문 형태에 맞춰서 고쳐졌다.
- ii. 대부분의 니케아 공회 이전 교부들은 라틴 계(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이거나 알렉산드리아 계(클레멘트, 오리겐)였다. 호르트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시리아 교부는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성경에서 인용했을까?)
- iii. 교부들이 언제나 성경기록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 b. 고교회 신자로서 버건은 교부들의 저작물에 많이 의존했고 개인적으로는 교부들이 인용한 86,489개의 성경기록 인용구를 대조했다. 밀러는 이것들을 공들여서 연구했고 주후 400년 이전에 그리스와 라틴 교부들에 의해 이루어진 복음서 인용구들을 검토하고는 이것들이 3대 2의 비율로 다른 본문들을 누르고 비잔틴 본문을 입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작업을 주후 200년까지로 제한하면 그 비율은 2대 1로 수용 본문에 유리하게 된다. 이 작업을 중요한 30개의 인용문으로 축소하면 그 비율은 3대 1로 증가한다.
- 사실은 이렇다. 비(非) 비잔틴 본문보다 비잔틴 본문에 대한 초기의 증거가 더 많다는 것이다.⁽²¹⁾
- c. 다음은 전통 본문만의 독특한 몇 가지 예이다. 즉, 이러한 것들은 텍스트스 리셉투스와 초기 교부 저작물들에는 있지만 알렉산드리아나 서방 본문에는 없는 것들이다.

(19) Hills, E. F.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Des Moines, Iowa: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1984: pg. 171

(20) Sturz, H. A. *The Byzantine Text-Type And New Testament Criticism*.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Publisher, 1984: pp 145-174

(21) 참조: *Ibid.*, pp. 69,70

- i. 마태복음 9장 13절 - “회개하게 하려고”
저스틴 마터, 이레네우스, 오리겐과 다른 교부들
- ii. 마태복음 27장 34절 - “식초”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켈수스, 오리겐과 다른 교부들
- iii. 마가복음 1장 2절 - “대언자들”
이레네우스, 오리겐, 포피리, 유세비우스와 다른 교부들
RSV와 NIV와 비평 본문을 따르는 다른 번역본들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바”로 되어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2-3절이 구약성경을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두 군데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비평 본문과 거기서 나온 번역본들이 틀린 것이 드러난다.
- iv. 누가복음 2장 14절 - “선하신 뜻”
이레네우스, 오리겐, 디아테싸론과 다른 교부들
- v. 누가복음 24장 42절 - “벌집”
저스틴 마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디아테싸론과 다른 교부들

3. 텍스트 리셉투스는 열등한 본문 형태인가?

비평의 기준을 사용하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비잔틴 본문이란 (다른 구절과 일치하는 본문을 만드는) 조화 작업과 편집에 의한 단순화 작업의 결과라고 묘사했다.

- a. 필사상의 가능성 등과 같은 비평의 기준들은 주관적인 시험 방법이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반대로 코덱스 B는 복음서에서만 단어와 구절을 1,491번 생략했다.
- b. 피커링이 언급했던 콜웰의 연구는 서기관들의 습관이 결코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²²⁾ 사실상 ‘내적 증거’의 기준이 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 c. 알렉산드리아와 서방 본문이 실제로는 더 많은 조화 작업의 증거를 보여 준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알레프, B, C, L, θ 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22) Pickering, op. cit. pp. 81-83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도’를 첨가했다. 그들은 비잔틴 본문에 조화 작업이 많다고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반대이다.⁽²³⁾

콜웰은 p⁴⁵, p⁶⁶, p⁷⁵를 연구했고 특이한 본문을 만들어 내는 104군데의 조화 작업을 발견하고 인접한 문맥에 조화를 이룬 83개를 찾아냈다.⁽²⁴⁾

4. 텍스트스 리셉투스는 교정보인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비잔틴 본문이 교회의 공식 포고에 의한 결과물이며 또한 오래된 본문들을 교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a. 그러한 포고가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 b. 그러한 공식 본문이 크리스천에게 강요되거나 공식적 지위를 누렸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전혀 없다.
- c.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비잔틴 본문 형태를 최초로 증언한 시리아 교부라고 말한 크리스소스톰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항상 비잔틴 본문만을 고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교회의 포고령을 무시했는가?

5. 중요도만으로 사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과학적인가?

- a.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본문 형태에 결함이 있다면 이 방법은 지속될 수 없다.
- b. 앞서 특별히 언급했듯이 통계학적 확률은 사본 증거가 다수인 본문 형태를 지지한다.
- c. 버진은 사본 증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진리에 관한 노트」(*Notes Of Truth*)라는 글에서 일곱 가지 테스트를 제시했다.

i. 고대성 - 실제 사본의 시대

이것이 결정적인 테스트는 아니다. 왜냐하면 14세기 사본이 순수한 본문의 정확한 복사본이거나 3세기의 모범 사본의 복사본일 수도 있다. 반면에 6세기 사본이 순수한 본문의 조악한 복사본이거나 부패한 본문의 정확한 복사본이거나 3세기의 모범 사본의 복사본의 복사본일 수도 있다.

ii. 동의 - 다른 증거들의 숫자

정상적인 것은 몇몇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수의 증거가

(23) Cited by Hill, op. cit, pg. 176

(24) Cited by Pickering, op. cit, pg. 86

있는 단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적은 수의 사본들이 자기들의 증거도 제대로 통일하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

iii. 다양성 - 증거의 보편성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지지하는 사본들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며 다양한 사본, 성구집, 역본, 교부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이 사실은 그 사본들이 성경 본문을 독립적으로 증언하며 루시안의 원형(Lucian archetype)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iv. 지위 - 증거의 무게(신뢰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본들은 빈약한 증거들이다. 알렉산드리아 본문 형태의 특성이 그렇다.

v. 연속성 - 계속되는 증거의 진통

비잔틴 본문 형태는 시간적으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그러한 사본들의 대다수가 9세기에서 15세기에 속한다 해도 그것들은 초기의 본문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

vi. 문맥 - 전체 구절의 증거

버건은 이것을 미심쩍은 본문을 둘러싼 본문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했다. 그러한 본문이 명백한 오류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코텍스 D 단 하나에 기초하여 누가복음 마지막 세 장에서 여덟 군데에 걸쳐 단어들을 생략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D가 그 마지막 세 장에서 329개의 순수한 단어를 생략했고 173개를 첨가했으며 146개를 대체했고 243개의 자리를 이동했다고 판단했다.⁽²⁵⁾

vii. 합리성 - 본문의 내적인 신뢰성

어떤 본문이 문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나 지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명백한 실수를 담고 있다면 그 본문은 거부되어야 한다.

6.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우수한 사본인가?

이 말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믿음이다. 서적들이나 심지어 스티디 성경의 난외주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음”이란 말을 보는 경우가 있다.

(25) Cited by : Pickering, *ibid.*, pg. 136

- a. 실제로 전통적이고 널리 퍼진 본문이라면 현존하는 비잔틴 본문의 고대 사본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사용함으로써 오래된 복사본들은 글자 그대로 닳아 없어졌다.
- b. 비잔틴 본문 형태의 고대 사본이 지금까지 존재하려면 건조한 기후 속에 새로운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다면 그것은 1,7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저장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책이다!
- c.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조잡하고 부패한 사본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형을 유지한 채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코텍스 B가 사실은 콘스탄틴의 요청으로 유세비우스가 만든 50권의 공식 성경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이때에는 성경을 믿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급성장하고 있던 거룩한 카톨릭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교회는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그들은 왜 '공식' 성경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 d. 주전 200년 이전의 성경기록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사실은 무엇이든 오랜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 남아 있는 초창기의 파피루스와 코텍스가 이러한 부패본의 일부가 아니라고 누가 과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 e. 어떤 증거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알려진 성과로 판단한다. 누가 거짓말쟁이를 믿겠는가? 보드머 파피루스 p⁶⁶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한 오류를 900개나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900번 이상 거짓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400개의 이타시즘(itacism - 철자가 다른 데도 모두 '이'로 발음하는 현상), 200개의 무의미한 본문,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257개의 본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렉산드리아 본문 형태를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코텍스들도 사정은 이것보다 낫지 않다.

벤브루젠은 사본들의 시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본문의 역사에 관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것 중의 하나는 사본의 시대와 그 사본에 나타나는 본문의 시대를 구별하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가 짧은 사본이 더 오래된 형태의 본문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진실하고 흥미로운 주장이다. 당신은 이 주장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또 현대 신약성경 본문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본들의 시대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당신은 '더 오래된 사본'과 '많지만 역사가 짧은 사본'을 반복해서

비교하고 있다. 비잔틴 본문 형태를 반대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논거는 이런 본문 형태가 역사가 짧은 사본들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논거는 사실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본들에 있는 본문 형태가 후대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²⁶⁾

그는 계속해서 실례를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라. 중세 시대에는 주로 대성당을 건축했지만 현대에는 작고 단조로운 교회가 많이 건축되고 있다. 우리가 도시와 마을을 둘러보면 이런 의견이 전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알만한 잘못이다. 중세 시대의 많은 작은 교회들은 사라졌고 통상적으로 대성당들만은 재건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 건축의 역사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커다란 역사적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²⁷⁾

7. 알레프와 B는 믿을 수 있는 사본인가?

이 두 개의 사본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탁월한 중립 본문(Neutral Text)으로 간주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본문 비평가들은 이제 이 두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계열로 분류한다.)

a. 통일성의 부족

이 두 개의 영설 사본은 사복음서에서 무려 3,035번 일치하지 않는다.

b. 코텍스 바티칸 - B

- i. 이것은 두 명의 서기관과 두 명의 교정자의 작품으로 보인다 - 10세기 나 11세기에 작업된 두 번째 것은 원본 위에 덧씌운 것이다.
- ii. 서기관이 만든 수많은 실수가 담겨 있고 많이 생략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이것은 복음서에서만 1,491개 단어와 구절을 생략했다.
- iii. 이것은 텍스트스 리셉투스와 7,578개 단어의 차이를 보인다. B는 2,877개 단어를 생략했고 536개를 첨가했고 935개를 대체했고 2,098개의 자리를 이동했고 1,132개를 수정했다.
- iv. 구약성경 외경과 바나바 서신을 담고 있다.

c. 코텍스 시내 - 알레프

- i. 이것은 최소 10명의 다른 교정자들의 작품으로 보인다. 7세기 사람은 교정을 많이 했고 마지막 사람은 12세기 사람이다.
- ii. 수용 본문과 거의 9,000단어가 다르지만 가끔 텍스트스 리셉투스와

(26) Van Bruggen, (Ancient Text) Op. Cit, pg. 22

(27) ibid, pg. 25

일치하기도 한다.

iii. 허마의 목자, 바나바 서신, 디다케의 일부분이 담겨 있다.

VII. 수용 본문과 비평 그리스어 본문 사이의 주요한 차이

본문 학자들은 신약성경 본문에 대해서 현존하는 모든 사본 증거들이 90% 일치하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교리적 변화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즉 실제로 그들은 이런 차이가 큰 문제가 아님을 보이려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서의 어떤 차이는 그것이 교리를 변경시키든지 변경시키지 않든지 중요한 관심사다(신명기 4장 2절, 잠언 30장 5-6절, 계시록 22장 18-19절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어 텍스트스 리셉투스과 1881년 영국 성경 개정 위원들이 사용한 비평 그리스어 본문(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 사이에는 무려 5,788군데나 차이가 있다. 이것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제시하려 한다.

A.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딸’(firstborn) 생략

더 짧은 본문을 수용하며 비평 본문들은 ‘딸’ - *πρωτοτοκον* - 을 생략했다. 여기서 ‘딸’이란 단어는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며 - 마가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2장 12절 - 따라서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동정녀)였다는 것을 반박한다.

이 본문에 대한 사본 증거는 C(알렉산드리아), D(서방), sy^p , sy^h (가이사랴)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대다수 사본 속에 풍부하다.

B. 마태복음 6장 13절 모범 기도문에서 송영

“왕국이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로 시작하는 부분이 비평 본문들에서는 생략되었다.

이러한 종결은 10절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의 왕국이 사람이나 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임을 보여 준다.

이 부분을 알레프, B, D, S, 5개의 필기체와 많은 다른 사본들은 생략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본 증거는 영설 E, F, G, K, L, M, S, U, M, Δ , Π 와 대부분의 고대 역본에서 볼 수 있다.

C.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대답

주님의 질문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를 비평 본문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에 대해서 묻느냐?”로 바꿔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알레프, B, D, L, sy^{sin}, sy^{cu}에서 볼 수 있는 본문을 근거하고 있다.

‘선’은 철학적 용어로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무엇이 최고의 선이지를 토론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했다. 부자 청년(정통 유대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서 - 신명기 6장 5절 -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리겐 같은 철학자는 그러한 질문을 한다!

D.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심판 날’(The day of judgment) 생략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되는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이 비평 본문들에서는 생략되었다.

이 같은 생략은 영설 사본 6개와 필기체 사본 3개의 증거로 이루어졌다. 나머지 필기체와 영설 11개는 이 본문을 지지한다.

E. 마가복음의 마지막 열 두 구절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실제적으로 모든 현대 번역본에서 생략되거나 괄호로 묶이거나 따로 분류된다. 또 그것을 옹호하지 않는 주석이 달려 있는 경우도 많다. 비평 그리스어 본문에서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은 알레프나 B나 k와 다른 역본들에서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이 구절의 사본 증거는 코텍스 C, D, L, W, θ , 대부분의 소문자 사본, 대부분의 구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역본, 라틴 별게이트에서 볼 수 있다.
2. 이 구절이 가짜라면 마가복음의 끝부분은 미결로 끝난다. 그리스어에는 문법적으로 미결이며 영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F.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의 선포

‘선하신 뜻’을 의미하는 *ευδοκια*가 비평 본문들에서 *ευδοκίας*로 대체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알레프(최초의 서기관), A, B(최초의 서기관), D, 구 라틴어, 라틴 별게이트, 고트어 역본, 어거스틴과 다른 라틴 교부들.

글자 하나가 추가됨으로 주격에서 소유격으로 격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본문을 만들게 된다. ‘땅에서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러한 변화는 구원 교리와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천사의 약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텍스투스 리셉투스에 대한 사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코텍스 알레프(7세기 교정

자), B(6세기 교정자), E, G, H, K, L, M, P, S, U, V, Γ , Δ , Λ , Ξ , 모든 필기체, sy^h , sy^{sch} (페시타), cop^{bo} , *arm*, *eth*, 압도적 다수의 교부들 인용구.

G.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을 '하나님'으로 대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평 본문들과 많은 현대 역본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불린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인 알레프, B, C가 $\nu\iota\omicron\varsigma$ 대신에 $\theta\epsilon\omicron\varsigma$ 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고쳐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순전히 아리안주의이다. 아리안주의는 예수님을 영원 전에 태어나신 신이라고 가르친다.

니케아 공회(주후 325년) 이후에 아리안주의는 이단으로 선언되었기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우수한' 본문들은 불법이다!

H.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물이 움직임

본문 비평가들은 선의를 지닌 서기관에 의해 이 내용이 첨가되었다고 믿으며 알레프, B, p^{66} , p^{75} , cop^{sa} , cop^{bo} 와 일부 구 라틴어 사본에서 이것을 볼 수 없으므로 진짜라고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이 내용을 옹호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영설 사본 K, L, X, Δ , θ , Π , Ω ; A, C, D, L, W에는 일부분, 대부분의 소문자 사본, 디아테싸론(주후 170년), 터툴리안(주후 200년경)을 포함한 다수의 교부들.

I.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구절은 '페리코프 드 아둘테라'(Pericope de Adultera)로 불린다. (페리코프는 짧은 구절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평 본문들로부터 생략되었다.

1. 알레프, B, L, W, p^{66} , p^{75} , sy^{sin} , sy^{sch} , sy^{cu} 에서 볼 수 없다.
2. 본문 스타일이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적합하지 않다. (본질적 가능성!)
3. 이 부분을 담고 있는 사본들에서도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요7:36; 7:44; 21:24; 혹은 눅21:38 다음에).
4. 이 부분을 담고 있는 많은 사본들이 의심나는 구절을 가리키는 의구 표시(÷)를 붙이고 있다.
5. 12세기까지 그리스 교부들 중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 내용이 진실한 이야기이지만 최초의 원본의 일부라고는 믿지 않는다. 메츠거(Bruce Metzger)에 의하면 이것은 ‘유동적인 전통’이다.

이 절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코텍스 D; 영설 H, K, M, U, *Γ*, *Π*, *Δ*; 페라르 그룹을 포함한 많은 소문자; 구 라틴어 코텍스 *it^b*, *it^c*, *it^e*, *it^{ff}*, *it^g*, *it^h*, *itⁱ*, *sy^p*; 몇 명의 라틴 교부들.

이 구절의 생략은 문법적인 결함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그들’이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주후 354-430년)은 이 구절이 초창기에 그토록 많이 소란스러웠던 이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이 구절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이 구절이 분명히 간음죄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J.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

이 절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우수한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비평 본문들에서 생략되었다: 알레프, B, C, *p⁴⁵*, *p⁷⁴*, 필기체 049, 056, 0142, 81, 88, 181, 326, 436, 1241, 1505, 2127, *sy^p*, *sy^{sch}*, *cop^{sa}*, *cop^{bo}*.

이 구절에 대한 증거는 E, 필기체 629, 구 라틴어, 구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와 그루지야 번역본, 다수의 라틴 교부들에서 볼 수 있다.

이 구절도 ‘요한의 콤마’(Johannine comma)처럼 주로 라틴 전승으로 보존되었다.

K.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비평 본문들은 ‘주의 교회’나 ‘주와 하나님의 교회’로 기록한다.

그들은 이 구절을 합성의 한 가지 예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비잔틴 계열을 포함한) 다수의 사본들이 ‘주와 하나님의 교회’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A, C, D, E, 소문자 15, *cop^{sa}*, *sy^p* - ‘주의 교회’

알레프, B, 소문자 10 - ‘하나님의 교회’

H, L, P - ‘주와 하나님의 교회’

텍스트스 리셉투스에서 발견되는 본문은 라틴 전승으로 보존되었다. (비평의 기준들은 더 짧은 본문을 요구한다.)

L.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 성품의 신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고 쓰여 있다.

비평 그리스어 본문들은 “하나님”(God, $\theta\epsilon\omicron\varsigma$)을 “그”(Who, $\omicron\varsigma$)로 바꾸면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우수한 사본 - 특히 시내 사본 -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서기관이 영설 사본에서 실수로 하나님에 해당하는 약어- $\theta\varsigma$ -를 $\omicron\varsigma$ 로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쉽게 가능하다 - 부패시키려는 어떤 사람이 편리하게 그 단어를 바꾸기 위해서 상단 표시를 지웠다.)

단어 $\overline{\theta\varsigma}$ 위의 선은 약어임을 가리키므로 이것은 서기관이 실수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무게 즉 중요도는 비잔틴 본문 형태에서 나온다.

M.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대언자들”에 대한 언급

이 구절은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라고 쓰여 있다. [복수]

비평 본문들은 알레프, B, D, L, θ , 33, 구 라틴어, 벌게이트의 본문에 근거하여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바”[단수]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장 2절은 구약성경에서 두 개의 관련 구절을 담고 있다. 하나는 이사야이고, 다른 하나는 말라기이다. 비잔틴 사본과 함께 A, K, P, W는 정확한 이 본문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비평가는 이 구절에 대한 사본 증거가 지리적으로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근거로 비평 본문을 채택한다.

N.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아무 까닭 없이”

비평 본문은 이 구절에서 “아무 까닭 없이”(그리스어 $\epsilon\iota\kappa\eta$)를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한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단어는 p^{67} , 알레프, B, 라틴 벌게이트에서 생략되었다.
2. 이 단어는 주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려는 좋은 의도를 지닌 서기관에 의해서 첨가되었을 것이다. “ $\epsilon\iota\kappa\eta$ 이란 본문이 2세기 이후로 널리 퍼졌더라도, 이 단어는 필경사들이 불필요한 한 것을 생략하기 보다는 교훈의 엄격함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첨가했을 가능성이 많다.”⁽²⁸⁾

이 단어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본질적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더 긴 (정확한) 본문은 D, 구 라틴어(서방), L, 콥트어(알렉산드리아), K, W, 비잔틴(시리아어)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앞의

(28) Black, Op. cit. pg. 47 Citing Metzger (Critical Commentary, p.13)

마가복음 1장 2절 참조

더욱이 더 짧은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반대로 제시된다.

O.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에베소에”

이 구절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쓰여 있다.

UBS 비평 본문은 p^{46} , 알레프, B, 오리겐의 작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 $\epsilon\nu\ \epsilon\varphi\epsilon\sigma\omega$ ”라는 단어를 괄호에 묶어 따로 구분하고 있다.

(그들이 더 길고 합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 증거는 매우 많다: A, D, G, K, P, 33, 다수의 서방 사본들, 구 라틴어, 별게이트, 시리아어, 콕터어, 암브로스, 크리소스톰, 시릴, 테오도렛, 물론 비잔틴 사본들.

P.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도 계시는가? 요한복음 3장 13절

이 구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쓰여 있다.

NIV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왜곡시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 the Son of Man). 또 각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사본에는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NASB도 마찬가지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And no one hath ascended into heaven, but he who descended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난외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후대의 사본에는 하늘에 있는 자가 첨가되었다.”

이 본문은 p^{66} , p^{75} , 알레프, B, L, 33, cop^{sa} , cop^{bo} , 이디오피아, 오리겐, 디디무스에서 생략되었다.

이 본문은 구 라틴어 e, syr^c , syr^s 에서 변경되었다(“who was in/is from heaven”).

그렇지만 이 본문은 (A, E, F, G, K, θ , Π 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설 사본, 실제로 모든 소문자 사본(비잔틴), 대부분의 고대 역본(구 라틴어, 별게이트,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보하이르) 그리고 오리겐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사본 증거의 압도적 무게, 넓은 지리적 분포뿐만 아니라 참된 본문과의 교리적 조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본문 비평가들은 알레프와 B의 증거 때문에 자신들이 생략한 것을 옹호한다.

연구 과제 5

이 연구 과제를 위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인기 있는 현대 역본이나 번역본을 선택해야 한다: RSV, NASB, NIV, LB, TEV, NKJB 등.

역본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하고 가능한 한 다음의 정보를 제시하라.

A. 역사적 배경

1. 출판 시기
2. 참가한 번역자들
3. 교단의 힘이나 배경
4. 사용과 인기

B. 본문 배경

1. 구약성경에 사용된 본문
2. 신약성경에 사용된 본문
3. 사용된 번역 방법
4. 문학적 스타일

C.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

최소 중요한 10 구절을 사용해서 비교를 하라.

필요한 정보는 대개 당신이 선택한 현대 역본의 서문에서 입수할 수 있다. Way of Life Literature도 개괄적이고 구체적 방법으로 이 주제를 포괄하는 많은 소책자를 보유하고 있다.⁽¹⁾

1) Way of Life Literature는 Bible Baptist Church의 사역이다. 1219 N. Hams Road, Oak Harbor, Washington 98277

제 13 장

복습 문제

1. 성경 본문 비평으로 알려진 ‘과학’은 무엇인가?
2. 현대 본문 비평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3. ‘자연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 ‘경험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5. ‘고등’과 ‘저등’ 비평을 구별해 보라.
6. 무엇이 ‘계몽주의’였는가?
7. ‘추측 교정’은 무엇인가?
8. 최초의 본문 비평가는 누구인가?
9. 트레겔레스는 누구인가?
10. 모세오경의 저작에 대한 ‘문서 이론’은 무엇인가?
11. 복음서의 저작에 대한 ‘공관복음 이론’은 무엇인가?
12. 진술된 본문 비평의 목적은 무엇인가?
13. 본문 비평의 다섯 가지 규칙이나 기준을 제시하시오.
14. 본문 비평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15. ‘필사상의 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16. ‘본질적 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17. 본문 비평의 기본적 가정 중에서 필사상, 본질적 가능성의 방법들이 맞서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18. ‘현대 본문 비평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19. 네 가지 본문 ‘계열’을 열거하시오.
20. 본문 계열의 가설은 어떻게 비잔틴 본문 형식을 손상시키는가?
21.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어느 나라에 살았는가?
22.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정설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23.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향한 호르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2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어떤 본문 형태를 최고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는가?

25.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가장 많이 의존한 사본 증거는 무엇인가?
26. 비잔틴 본문의 기원에 관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은 무엇인가?
27.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신들이 텍스트스 리셉투스를 거부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한 세 가지 논증은 무엇인가?
28. 버건은 누구인가?
29. 버건이 이론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인가?
30. 사본 증거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우수하다'에 답변하십시오.
31. 알레프는 무엇인가?
32. 알레프와 B는 복음서에서 대략 얼마나 다른가?
33. 텍스트스 리셉투스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비평 그리스어 본문은 대략 얼마만큼 다른가?
34. 비평 그리스어 본문과 몇몇 현대 번역본의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요1:18)이란 구문에는 어떠한 교리적 부패가 드러나고 있는가?

제 14 장

확 산

킹제임스 성경은 빠르게 영어를 사용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이 되었고 전혀 도전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70년 동안 경쟁 상대 없는 상태로 존속했다. 이 기간 동안 다량의 개인 번역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대개 사본 발견과 종교개혁 이후 학문에서 나온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위한 길은 준비했다.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기 위한 최초의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시도는 1881년이 돼서 영어 개역성경(RV)의 신약성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다량의 역본과 번역판이 있었으며 20세기 후반부 무렵에 특히 많았다.

이번 강의에서는 1881년부터 현재까지의 영어 번역본을 검토하려 한다.

I.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수정주의'의 공격

이러한 공격은 영어 개역성경(Revised Version, RV)과 미국표준역(ASV)으로 알려진 한 쌍의 개정본들과 더불어 생겨났다.

A. 영어 개역성경 - RV

신약성경: 1881

구약성경: 1885

외경: 1895

1. RV의 추진력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을 위한 검토는 19세기 초부터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몇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다.

a. 교회적 원인

'옥스퍼드 운동' - 영국 교회 내에서 카톨릭화 하려는 영향 - 은 자연스럽게 '프로테스탄트'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려고 시도했다.

번역 위원회의 몇몇 위원은 로마와 그것의 교리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호르트 박사를 포함함)

b. 신학적 원인

고등 비평의 습격은 학자들 사이에서 진리의 말씀을 대체하려는 욕망을 만들어 냈다. 개정 위원회의 몇몇 위원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견해를 붙잡고 있었다. 스탠리(Dean Stanley)는 오경의 모세 저작을 거부했다. 주교 써웰(Bishop Thirwell)은 슬라이어마허의 견해를 활성화시켰다. 스미스 박사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과였다.

c. 본문적 원인

새로운 사본들의 발견과 그 결과 생겨난 본문 비평 이론들은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13장 참조]

수많은 개인 번역본들 - 그중에서도 다비(J. N. Darby)의 「정복 성경」(*Conquest Bible*)과 클라크, 굿윈, 샌데이가 편집한 1880년의 「베리오룸 신약성경」(*Variorum New Testament*)은 영국개역성경 이전에 나왔다. 이것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교정'하려는 학자들의 욕망을 반영했다.

d. 문학적 원인

킹제임스 성경에서 몇 개의 영어 단어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므로 본문의 단어들을 적절하게 바로잡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다.

e. 번역적 원인

고고학적 발견과 비교 섹어 연구의 진보로 인해 어떤 학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교정을 시도하였다.

2. RV의 역사

a. 개정의 투사들

1857년부터 (엘리콧, 라이트푸트, 모울톤 감독을 포함한) 다섯 명의 영국 교회 감독들이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요구를 이끌었다.

b. 개정을 위한 제안

윈체스터 감독 윌버포스는 1870년 2월 20일에 영국 교회의 남부지방 캔터베리 주교 회의 상원에서 다음을 제안했다.

“양원 합동 위원회가 임명되면 북부지방 감독 회의에 의해서 임명될 어떤 개정 위원회와도 협의할 권한을 갖고 또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성경

에 대한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일은 난외주에 의해서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되 정당한 조사를 통해 번역자들이 최초로 채택한 그리스어 본문이나 아니면 그 본문에서 번역된 번역본 안에 분명하고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모든 구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감독 엘리콧의 후원을 받았다. 구약성경을 포함한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결의문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i. 24명이 위원회를 결성하도록 지명되었다.

ii. (요크를 중심으로 한) 북부 감독 회의는 이 제안 사항을 승인했다.

iii. 캔터베리 감독 회의는 1870년 5월 3일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거룩한 성경기록인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정은 난외 번역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삽입할 필요가 있는 수정안들도 포함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 가장 유능한 학자들이 그러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성경 번역이나 언어의 변경을 꾀하지 않는다.
- 현존하는 역본에 사용된 언어 스타일을 엄밀히 따르도록 한다.
- 감독 회의가 개정을 착수할 위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위원들은 정부 조직에 속한 사람이든 종교 조직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저명한 학자들의 협조를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c. 개정 규칙

신약성경 개정 위원회는 여덟 가지 규칙에 동의했다.

- 가능한 한 신실하게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최소한의 변경 사항만을 도입한다.
- 가능한 한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를 변경하는 표현은 제한한다.
- 개정된 부분은 각 모임에서 두 번 검토한다.
- 증거가 명백히 우세한 본문을 채택하고 채택된 본문이 킹제

임스 성경이 나온 본문과 다른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을 여백에 표시한다.

- 참석자의 삼분의 이의 찬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다.
- 변경하도록 제안된 모든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모임 때까지 표결을 미룬다.
- 장(章)의 표제어, 페이지, 단락, 이탤릭체, 구두점은 개정한다.
- 성직자, 신학자, 문필가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d. 미국 위원회

미국 학자들의 협력을 초청하는 결의문이 1870년 8월 보내졌다. 유니온 신학교의 샤프 박사(Dr. Philip Schaff)는 1871년 12월 7일, 34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위원회를 조직했다.

e. 개정 절차

- i. 작업은 1870년 6월 22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예루살렘 회의실에서 시작되었다.
- ii. 신약성경 개정 그룹은 (8, 9월을 제외하고는) 매일 삼일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났다.
- iii. 구약성경 개정 그룹은 1870년 6월 30일에 모이기 시작했고 매일 십일 동안 만났다.
- iv. 각 회기마다 처음에 본문을 읽고 그 뒤에 본문과 번역 상 변경된 제안을 읽었다. 토의를 거친 후에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잠정적 개정안이 결정되었다.
- v. 모든 위원회는 비공개로 만났고 그들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작업에 관한 광고나 정보는 그들의 번역이 출간된 이후에나 제공되었다.
- vi. 미국 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검토와 건의를 위해 잠정적 개정안이 미국 위원회 앞으로 보내졌다.
- vii. 미국 위원회의 건의도 영국 위원회가 숙고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반복되었다.
- viii. 신약성경은 1880년 11월 11일에 완성되었고 1881년 5월 17일에 출간되었고 구약성경은 1884년 6월 20일에 완성되었고 1885년에 출간되었다.

3. RV의 번역자

- a. 모두 65명 - 구약성경에 37명, 신약성경에 28명 - 이 선정되었다. 이 중의 13명은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임했다.
- b. 신약성경 개정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감독 엘리콧 - 의장

호르트 박사

웨스트코트

라이트푸트 박사

모울튼 박사

스미스 박사

스크리브너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이고 후에 로마 카톨릭 추기경이 된 수석 사제 뉴만(J. H. Newman) 박사는 초청받았지만 거절했다.

- c. 영국 교회 학자들뿐만 아니라 장로교인 7명, 회중주의자 4명, 감리교도 2명, 침례교인 2명, 유니테리언과 1명(스미스 박사)이 위원회에 포함되었다.

4. RV의 본문적 기초

- a. 구약성경 본문

개정 위원들은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과 함께 다양한 이문(異文)들을 사용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본문이었다.

- b. 신약성경 본문

개정 위원들은 가능한 한 텍스트스 리셉투스에 최소한의 변화만 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비밀 맹세 하에 신약성경 위원회의 각 구성원에게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이 주어졌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두 사람은 (특히 호르트는) 성공적으로 그 위원회에 강력한 이면 공작을 펼쳐 자기들의 이론이 강요되고 자기들의 본문과 함께 트레켈레스의 본문이 우세해지도록 만들었다. ‘호르트 박사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예루살렘 회의실에서 매우 유창하게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그럴듯한 말로 피력했고 결국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호르트 박사는 10년 중에서 3년을 이야기하는 데 썼다.”⁽¹⁾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의

대중판이 RV가 나오기 5일 전인 1881년 5월 12일에야 공개된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크리브너 박사는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소수파를 이끌었고 많은 모임들이 스크리브너와 호르트 박사 사이의 가열된 논쟁으로 흥미를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원들은 일관되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편을 들었다.

5. RV의 문학적 스타일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RV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RV에 대한 강력한 비평은 주로 문학적 스타일과 관계가 있다.

a. RV는 문자적 번역이다.

RV는 문자적 번역이다. 따라서 매우 형식적이며 킹제임스 성경의 산문적 웅장함이 부족하다. [10장 I 참조]

b. RV는 따분한 번역이다.

다양한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동일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과는 달리 RV는 일관된 본문 번역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이 성구사전 저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스타일은 망가졌다.

c. RV는 '학문적' 번역이다.

RV에 대한 가장 좋은 말은 [부패한 본문에서 나온] 학문적 번역이라는 것이다.

스펠전은 RV에 대해 “그것은 그리스어는 강하지만 영어는 약하다.”고 말했다.

6. RV의 수용

RV는 열정적으로 환대받았고 첫 해에 삼백 만권 이상이 팔렸다. 시카고 타임즈와 시카고 트리뷴은 일요일 증보판에다 RV의 신약성경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처음의 폭발적 관심은 곧 거품이 꺼지고 말았다. 보통 사람들은 가독성 부족으로 실망했고 버건 같은 학자들은 RV에 대해 많은 비평을 쏟아 부었다.

(1) Grady, W. P. Final Authority. Schererville, Indiana: Grady Publication, 1993: pg. 258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삶과 편지를 인용함)

RV는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일시적 관심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7. RV의 평가

킹제임스 성경과 영국 개역 성경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두 가지 있다.

a. 본문적 기초

RV에 사용된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은 텍스트스 리셉투스스와 5,788군데가 다르다. 이 차이는 RV 신약성경에서만 36,191개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결과적으로 감독 엘리콧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규칙을 위반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 만족하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완성된 결과는 네 번째 규칙도 위반했다. 왜냐하면 개정 위원회가 채택한 본문 변화들이 여백에 표시되지 않고 본문에 직접 섞였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개정 위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기 위한 숨겨진 의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스크리너 박사를 제외하고는 개정 위원들은 원래 영어에는 능숙했지만 그리스어에는 그렇지 못했다!

RV 신약성경은 본질적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본문에 대한 영어 역본이다.

아무리 경건하고 성실하고 학식 있는 번역자라도 그가 부패한 본문을 번역한다면 부패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b. 번역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교리적으로는 다양했지만 각 사람은 자기가 영감 받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믿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개정 위원들은 교리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불신자와 로마 카톨릭 신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니테리언과의 스미스 박사를 위원회로부터 해임시키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감독 써윌(Bishop Thirwell)은 그 조치가 무효가 될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떠맡기를 거절했다.

그런 타협의 표시로 RV는 골로새서 1장 16절을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으로 해석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who

was manifest in the flesh”로 해석해서 개정하게 되었다. 여기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썼다. “오래된 본문 - 즉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 은 개정위원들에 의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표명되었는데 그것은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신중한 학생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알려진 바와 같다. 또 다른 예는 편리함인데 이 편리함으로 고대의 필경사들은 자신들의 사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본문은 초기 크리스천 시대에 증가하고 있던 경향의 자연적인 결과였다. 즉 그것은 겸손한 교사를 성육신한 말씀으로 또 그 때문에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²⁾

B. 미국 표준 역본 - ASV [차트 9 참조]

신약성경: 1901
구약성경: 1901

ASV는 원래 영국 RV에 상응하는 미국 성경이다.

1. ASV의 역사

a. 미국 개정 위원회의 구성

영국 개정위원들의 초청으로 미국 개정 위원회는 1871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RV 번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주의적 교회통합주의자인 샤프(Philip Schaff) 박사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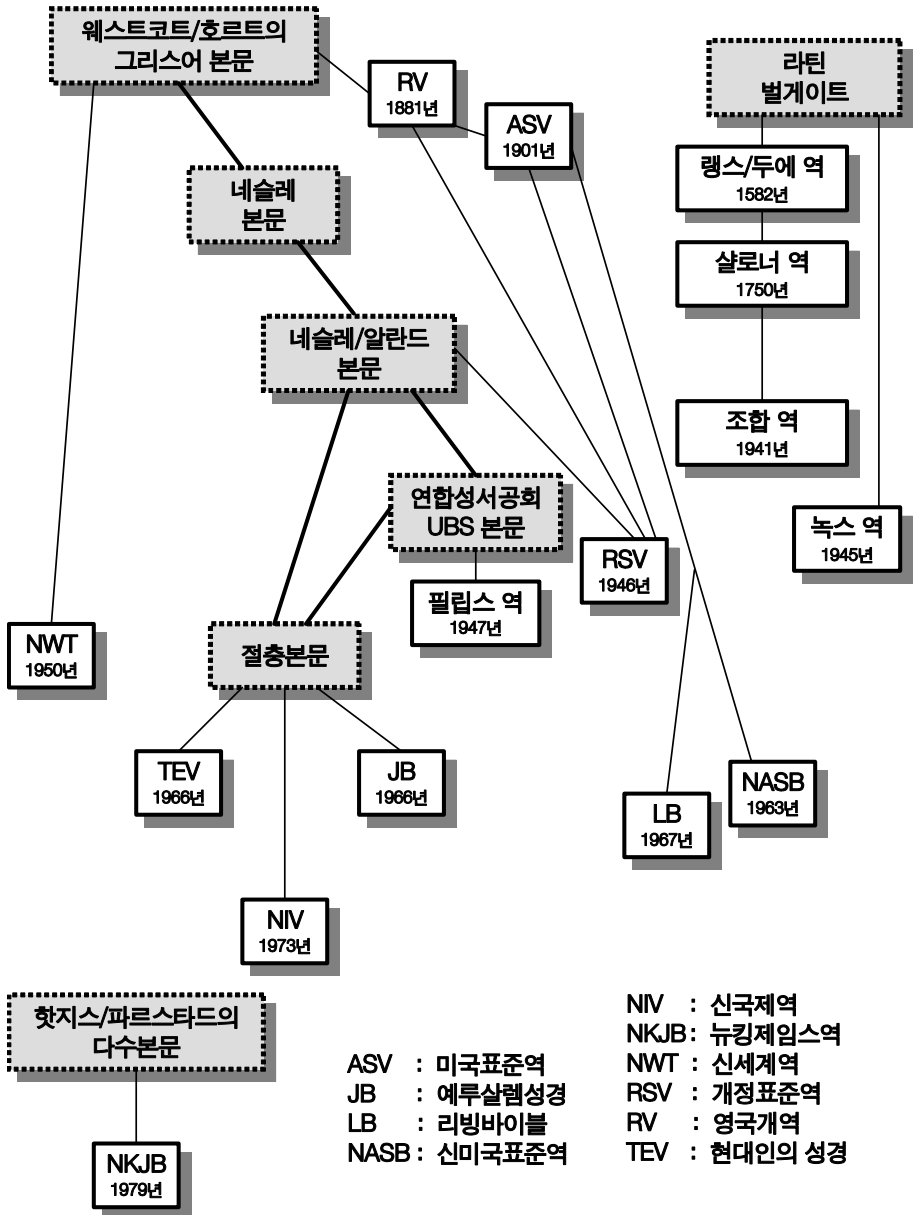
이 위원회는 곧 자문하는 일에서 실패에 부닥치게 되었다.

- i. RV는 미국 위원회가 기능을 하기 전에 이미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영국의 작업에 대해서 미국 위원회가 기여할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미국인들은 협력자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결과는 조언자에 불과했다.)
- ii. 미국인들의 많은 충고가 영국 위원회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RV는 미국위원회의 제의를 약 300개 채택했지만 대다수를 부록에 포함시켰다.

견해 차이와 영국 개정위원들의 더 보수적인 접근은 미국인들을 좌절시켰고 이들은 20년 동안 아무런 개정판도 출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b. ASV의 출판

(2) Ibid, pg 251 taken from Burgon, Revision Revised



<차트 9: 부패된 영어 성경의 계보(신약성경)>

29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RV의 출간에 이어 미국 개정 위원회는 해산하지 않고 자기들의 작업을 계속했다.

영국 사람들과 약속한 20년의 침묵 기간이 끝나자 이들의 작품은 토마스 넬슨 & 썬 출판사(Thomas Nelson & Son)에 의해서 ASV로 출간되었다.

2. ASV의 번역자들

이 위원회는 성공회, 회중교회, 화란 개혁교회, 감리교, 장로교, 퀘이커, 유니테리언파, 침례교단에서 나온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샤프 이외에도 유명한 개정 위원 중에는 핫지(Charles Hodge)와 세이어(J. H. Thayer, 세이어의 원어 사전 저자)가 포함되었다.

3. ASV의 본문적 기초

RV와 ASV의 본문적 기초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영국인들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들을 덜 애호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인들은 비평 본문에 마음이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을 옹호하는 사본 증거는 따르기로 했다.

4. ASV의 문학적 스타일

RV와 ASV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각각의 문학적 스타일에 있다. RV는 현학적이고 예스러우며 읽기에 꽤 어려웠다. 덜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많은 고문체를 집어 던졌고 언어를 미국식 어법으로 바꿨으며 일반적으로 더 읽기 쉬운 역본을 만들어 냈다.

5. ASV의 수용

가독성으로 인해 ASV가 RV보다는 더 인기가 있었지만 이것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는 데는 실패했다.

6. ASV의 평가

RV와 마찬가지로 ASV와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적 기초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성경은 시편에서 2,000군데, 예레미야에서 1,300군데, 욥기에서 1,400군데 차이가 난다. 16절은 전체가 생략되었고 122절은 일부가 생략되었으며 10구절은 첨가되었다. 쟁점이 되는 구절은 괄호로 묶거나 본문에서 뽑아 따라 분류하였다.

II. 20세기 초의 왜곡

RV와 ASV는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려는 시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공식적’ 개정판 이외에도 다수의 비공식 번역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통용되는 언어 속에 성경을 넣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A. 20세기 신약성경(The Twentieth Century New Testament)

이 성경은 20명의 작품으로 1898년과 1904년 사이에 출간되었다. 쉬운 ‘성경’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B. 현대어 신약성경(The New Testament In Modern Speech)

이것은 침례교 고전파 신학자 위마우스(Richard Weymouth)의 작품이다. 이것은 1903년에 그의 사후에 출간되었고 1943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개정되었다.

C. 신약성경: 새 번역(The New Testament: A New Translation)

1913년 모팻(James Moffatt)에 의해서 처음 출간된 이 역본은 양대 세계 대전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대어 번역본이 되었다. 모팻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실이 그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그는 또한 신학 면에서는 현대주의자였다.

D. 미국 번역(An American Translation)

이것은 자유주의 교수인 굿스피드(Edgar J. Good speed)의 작품이다.

E. 필립스 번역(The Phillips Translation)

필립스(Canon J. B. Phillips)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C. S. 루이스의 격려와 더불어 그는 1947년과 1958년 사이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에 근거한 의역 신약성경 일부를 출간했다.

이러한 것과 다른 작업의 결과로 영어를 사용하는 세상은 좀 더 현대어로 된 성경을 맞게 되었다.

[20세기 초 번역본들에 대한 더 완성된 목록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III. 20세기 후반의 왜곡

영향력 있는 20세기 번역본의 대다수는 마지막 40-50년 동안 출간되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요인 - 종교일치운동 - 이 전면에 일어났고 그 결과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 주의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성경을 추구하게 되었다.

많은 역본과 번역본들 중에서 우리는 다음의 성경들을 특별히 살펴보려 한다.

A. 개정 표준 역본 - RSV [차트 9 참조]

신약성경: 1946
구약성경: 1952
외경: 1956
카톨릭 판: 1966
공동성경: 1973
신 개정 표준 역본: 1990

1. RSV의 추진력

RV와 ASV는 표준 영어 성경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는 데 실패했다. ASV의 판권이 1928년에 종료되자, 국제 종교 교육 협의회 - 지금의 전 미국 교회 협의회(NCC) - 에 의해서 ASV를 개정할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목표는 ASV의 엄밀한 학문적 수준을 킹제임스 성경 산문의 품질까지 돌려놓는 것이었다.

이 개정의 공인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성경기록의 의미에 대하여 현대 학문이 밝힌 최상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대중적이고 사적인 예배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된 영어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영문학에서 최고로 자리 매김한 킹제임스 성경에 부여된 품질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표준 성경 위원회의 과업을 현대의 학문적 결과에 비추어서 현존하는 미국 표준역(ASB)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중적이고 사적인 예배에서 사용되도록 계획된 이 개정판은 킹제임스 성경의 단순하고 고전적인 영어 스타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2. RSV의 역사

a. 최초의 작업

번역 위원회는 두 개의 모임으로 나뉘어서 한 모임은 신약성경 다른 모임은 구약성경을 맡았다. 학자들은 할당된 책들을 맡아 개별적으로 번역하고 나서 일 년에 두 차례 만나서 검토했다.

이 성경은 토마스 넬슨 & 썬 출판사에 의해서 출간되었으며 출간 전에 먼저 미국 일반 대중에 대한 조사(마케팅 활동 -\$\$\$)가 있었다. 그리고 초판은 막대하게 백만 부가 인쇄되었다.

b. 연속적인 위원회

RSV 성경 위원회는 (위원들이 바뀌기는 했어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위원회가 행한 가장 최근의 작업은 NRSV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성 차별적' 용어들을 제거하여 최신 것으로 RSV를 개정한 것이다.

3. RSV의 번역자

와이글(Luther Weigle)이 개정 위원회의 32명의 학자들을 이끌었다. 모팻은 죽을 때까지 이 위원회의 간사로 있었다.

이전 위원회들과 같이 이 위원회와 자문단은 침례교, 형제회, 하나님의 교회, 나사렛 교단, 복음주의 개혁교회, 메노나이트,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와 다른 교단들로 이루어졌다.

- a. 굿스피드(Edgar J. Goodspeed)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며 마귀는 단지 망상이고 구약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종교적 허구라고 믿었다.
- b. 알브라이트(William F. Albright)는 요한복음(신격의 복음서!)의 정확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들만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었다.
- c. 캐드베리(Henry F. Cadbury)는 예수님께서 자부심이 강하고 과장해서 말했다(거짓말!)고 가르쳤다. 그는 초자연적 것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세월과 전통을 통해서 꾸며 낸 것이라고 가르쳤다.
- d. 그랜트(Frederick C. Grant)는 연옥을 믿었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오래된 견해가 전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대변에 인정할 수 있다.”
- e. 어윈(William A. Irwin)은 구약성경 대언자들이 다른 이방의 종교인들 과도 대등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대언자들이 줄곧 부족 신으로부터 온 ‘하나님’ 개념을 우주적 하나님으로 세련되게 바꿨다고 믿었다.
- f. 보워(Walter R. Bowie)는 구약성경의 모든 기적은 신화라고 믿으며 자연 현상에 의한 분명한 기적들을 설명했다. (유성, 일식 등)
- g. 크레이그(Clarence T. Craig)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순간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다.
- h. 제임스(Flemming James)는 모세가 오경의 저자임을 부인했고 구약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전설이라고 믿었다.

- ii. 스페리(william Sperry)는 요한복음의 역사적 정확성을 부인했다.
- j. 버러스(Millar Burrows)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은 먼 화산에서 온 연기였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나 일부가 우리가 믿고 행해야만 하는 것들을 신적인 권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4. RSV의 본문적 기초

a. 구약성경

마소라 본문이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사해 두루마리 본문(이사야)과 다른 고대 역본들도 참조되었다.

b. 신약성경

20세기 중엽을 지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의 위세는 본문 비평가들 사이에서 다소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정위원들은 절충 본문인 네슬레의 본문 14판(1941)을 사용했다.

5. RSV의 문학적 스타일

RSV는 현대 영어 스타일로 기록되었으며 번역에서 다양한 영어 동의어를 사용했다. 이 성경의 특징 중 하나는 고대 영어 단어의 종결 부분을 바꾼 것이다(saith를 says로, runneth를 runs로). 또 다른 특징은 thou, thee, thine, thy를 삭제한 것이다. 다만 신격을 부를 때는 예외로 했다. 이러한 것은 다소 번역자들의 편견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바울이 주님을 가리키며 “Who are you, Lord?”(참조 - 마16:16, 행1:6)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부른다면 you가 아니라 thou로 써야 한다.)

6. RSV의 수용

RSV는 대규모 홍보 활동과 함께 시장에 나왔다. 처음 10년 동안 판매 부수는 천이백 만 권, 처음 25년 동안은 이천오백만 권, 1969년까지는 삼천만 권이었다.

RSV는 앞선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은 호평을 얻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V는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지 못했다. 1970년에는 3대1의 비율로 킹제임스 성경이 더 많이 팔렸다.

7. RSV의 평가

RSV는 현대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RSV 원판은 마가복

음의 결말과 요한복음의 ‘페리코프 드 아둘테라’ - 간음한 여인 기사 - 같은 구절들을 각주에 넣었다. 나중 판들은 본문에다 넣기는 했으나 괄호로 묶어서 주석을 달았다.

이것의 부패한 본문적 기초로 인해 참된 번역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번역자들은 또한 급진적인 신학자들 - 사실은 불신자들 - 이었다(오펜 14장 4절 참조).

RSV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현격한 적개심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격을 언급할 때 ‘Thee’와 ‘Thou’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은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이 유명한 두 개의 왜곡 구절이 있다.

a. 이사야 7장 14절의 번역

RSV는 히브리어 ‘almah’를 ‘처녀’(virgin)가 아니라 ‘젊은 여자’(young woman)로 번역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관련된 메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예언이다. 따라서 처녀와 젊은 여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RSV는 창12:4; 시45:6; 잠8:22; 미5:2; 슥9:9; 12:10; 13:6에서도 단어를 변경하여 그리스의 인격과 과업을 깎아 내리고 있다.

b. ‘Begotten’의 생략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에서 RSV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로 언급한다. 여기서 ‘낳은’에 해당되는 begotten은 처녀 탄생과 관련 있는 단어이다.

B. 새 영어 성경 - NEB

신약성경: 1961
구약성경: 1970
외경: 1970

NEB는 미국에서 만든 RSV에 대한 영국의 대응 성경이었지만 두 역본은 완전히 달랐다.

1. NEB의 역사

이 작업의 추진력은 1946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에서 시작되었다. 번역 작업은 1949년에 시작되었고 20년이 걸려서 완성되었다.

2. NEB의 번역자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의 교회와 함께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회, 퀘이커 출신의 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도드(C. H. Dodd)는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다. 그는 성경이 무류하다고 믿지 않는 지유주의자였다. 그는 모세가 오경의 저자임을 거부했고, 창세기에서 처음 11장은 상징적인 신화라고 믿었으며,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부인했고, 모세가 마법사라고 믿었다. 또 다가올 심판 날과 계시록은 전설이며, 그리스도의 말씀 중 많은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믿었으며, 성경기록의 신성한 영감과 무류성을 믿는 사람은 종교와 공공 윤리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개개의 학자들이 할당된 책들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번역자 위원단이 검토를 했다. 그 다음에 초안은 영어 문장가들에게 맡겨서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예루살렘 회의실에서 만나는 합동 위원회 앞으로 가져갔다.

[참조 - 마태복음 7장 18절]

드라이버(G. R. Driver)는 1965년에 도드와 함께 공동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구약성경 번역자가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 전통적 본문의 배후를 조사해야”한다고 믿었다.

3. NEB의 본문적 기초

a. 구약성경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Kittel's Biblia Hebraica) 3판(사해 두루마리에 의거해 교정한 것을 포함한 비평적 판)이 구약성경의 기초였다.

b. 신약성경

번역자들이 그들 자신의 절충 본문을 구성했다. 이 본문은 1964년에 태스커(R. V. G. Tasker)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본문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Chester Beatty papyri), p⁵², 프리어와 코리데티 복음서(Freer and Koridethi Gospels) - 병합한 비평 본문이었다.

4. NEB의 문학적 스타일

RSV는 ASV에 대한 개정 판으로 계획되었고 ASV는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NEB는 전혀 새로운 번역이었다. NEB는 이전의 어느 성경과도 연결 고리를 갖지 않는다.

NEB는 '의미를 의미로' 옮긴 역본으로 RV와 같이 '단어를 단어로' 옮긴 (문자적) 번역과 다르다. 따라서 NEB는 '멋지게 의역한' 성경으로 20세기의 '현재 언어'로 기록되었다.

NEB의 스타일은 상류 계급의 현대 영어로 되어 있다.

5. NEB의 수용

RSV와 마찬가지로 이 번역의 출간 전에도 먼저 대규모 홍보 활동이 있었다. 그 결과 첫 해에 4백만 부 이상이 팔렸다.

NEB는 영국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인간적 권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었다.

이것은 훌륭한 번역으로 널리 갈채를 받았으나 결코 킹제임스 성경을 능가하지 못했다.

6. NEB의 평가

NEB는 극단적인 현대주의 성경으로 종종 번역자들의 신학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 처녀 탄생에 관해서

NEB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almah를 '젊은 여자'로 번역하고 있다.

b. 메시아와 관련 있는 예언에 관해서

NEB는 창3:15; 49:10; 시22:16; 45:6, 11; 69:21; 110:1; 사9:6; 53:9, 10; 미5:2, 5; 말3:1과 그 외 성경기록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 제거했다.

특히 시편 22편 16절의 복된 예언은 이단적이다. NEB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베어 내었나이다."(they have hacked off my hands and my feet)

c. 친 카톨릭 성향에 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NEB 번역은 베드로를 분명하게 반석과 동일시하고 있다.

d.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NEB는 그리스어 단어 'proskyne'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경배하다'(worship)로, 그리스도께 적용할 때는 '경의를 표하다'(pay homage)나 '절하다'(bow low)로 번역했다(히브리서 1장 6절에 대한 NEB의 번역을 보기 바란다.) 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편향된 번역본이다.

C. 신미국표준역 - NASB [차트 9 참조]

신약성경: 1963 구약성경: 1970

NASB는 근본적으로 ASV를 현대화시킨 것이다.

1. NASB의 역사

NASB를 만들어낸 로크만 재단은 ASV를 '성경적 정직성의 반석'으로 생각했으며 그러한 ASV가 완전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의 목표는 ASV 번역자들의 작품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2. NASB의 번역자

올슨(Reuben Olson) 박사는 익명의 학자 5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인도했는데 이들은 분명히 기독교계에서 좀 더 보수적인 인사들이다.

위원회는 초교파로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스도의 교회, 제사회, 메노나이트, 나사렛, 하나님의 회중, 회중교회, 복음주의 자유파가 모두 참석했다.

주목할 사항: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NASB에 서문을 쓴) 록스돈(S. Frank Frank Logsdon) 박사는 나중에 그 성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후에 이 '성경'을 거부해 버렸다.⁽³⁾

3. NASB의 본문적 기초

a. 구약성경

번역자들은 키텔의 3판을 따랐고 본문의 문제들은 난외주에다 달았다.

b. 신약성경

번역자들은 네슬레의 본문 23판을 사용했다. 이후의 개정판들은 UBS 본문도 사용했다.

4. NASB의 문학적 스타일

여기서 번역자들은 ASV를 따르며 (그것을 현대어로 바꿨다.) NASV는 상당

(3) 고(故) 록스돈 박사의 간증 사본은 Way of Life Literature에서 입수할 수 있는 NASV to The KJV라는 간행물에서 얻을 수 있다.

히 문자적 번역이다.

5. NASB의 수용

개인적 벤처 사업이므로 이 '성경'은 RSV와 NEB가 누렸던 교단적 지지는 받지 못했다. 이따금 보수 진영(심지어 근본주의)에서 스테디 성경으로 꽤 좋게 받아들였다.

6. NASB의 평가

NASB는 ASV를 뒤따랐고 그래서 그 성경이 기초한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장의 V. 섹션에서 요약된 테스트들은 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의 심각한 교리적 차이 중 일부를 강조해서 보여 준다.

D. 신세계 번역 - NWT [차트 9 참조]

신약성경: 1950 구약성경: 1961

NWT는 새로운 번역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수용하지 않으려는 유일한 현대 역본이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편향된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여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설에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1. NWT의 역사

이 번역에 앞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킹제임스 성경, (여호와의 증인들이 각주를 삽입한) ASV, (바티칸 사본을 기초한) 그리스바흐의 엠파틱 디아글롯(Emphatic Diaglott)을 사용했다.

2. NWT의 번역자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익명으로 남아 있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조사를 통해서 번역자들 중 일부가 밝혀졌는데 그들은 크노르(Nathan Knorr), 슈뢰더(Albert Schroeder), 간가스(George Gangas), 프란츠(Fred Franz) 등이다. 프란츠는 번역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으로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2년 동안 그리스어를 공부했고 히브리어는 독학을 했다. (창피스럽고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NWT 번역은 이 사람들이 익명으로 남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1961년과 1970년 (일부 난처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개정본이 나왔다.

3. NWT의 본문적 기초

신약성경 번역에 사용된 본문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이었다.

4. NWT의 문학적 스타일

이 번역은 매우 문자적이라서 읽기에 불편하다. 가장 유명한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Jehovah)를 사용한 것이다. 또 반(反)삼위일체적인 편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Holy Spirit)이란 단어를 소문자로 기록했다.

5. NWT의 수용

이 번역본은 이단에 속한 자들만 사용했다.

6. NWT의 평가

이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NWT는 *θεος*(하나님)과 *κυριος*(주님)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서 변덕스럽게 번역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a. 로마서 10장 13절에서 *kurios*가 ‘여호와’로 번역되었으나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주’(lord)로 남아 있다.
- b.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kurios*는 4절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준다는 단순한 이유로 ‘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지적하듯이)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 그것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여호와)이다. NWT의 구약성경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 c.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theos*는 ‘신’(a god)으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표준적인 논증은 그리스어에 관사가 없다는 것이다. 즉, ‘*ο θεος*’가 아니고 ‘*θεος*’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논증에서 96%나 일치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서 관사 없는 *θεος*는 282번 나타난다. NWT는 16군데에서 이것을 a god나 god나 gods나 godly로 번역했다. 282에서 16이 의미하는 바는 번역자들이 자신들의 번역 원칙에 단지 6%만 충실했다는 것을 뜻한다.”⁽⁴⁾

(4) Countess, R. H. The Jehovah's Witnesses' New Testament. Phillio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87: pp. 54,5.

E. 리빙 바이블 의역 - LB [차트 9 참조]

리빙 서신서: 1962
리빙 대언서: 1964
리빙 복음서: 1966
리빙 신약성경: 1967
리빙 시편, 잠언: 1967
삶과 사랑의 리빙 교훈: 1968
리빙 모세의 책: 1967
리빙 이스라엘의 역사: 1970
리빙 구약성경: 1970

1. LB의 역사

LB는 테일러(Kenneth Taylor)의 작품이다. 그는 1954년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일부를 의역하기 시작했다.

리빙 서신서의 첫 번째 인쇄는 자비로 이루어졌지만 이 번역은 만족스럽게 수용되었고 완성된 성경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LB는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The Reach Out Version’, ‘The Way’, ‘The Way: Catholic Edition’, ‘Soul Food’ 등.

2. LB의 본문적 기초

테일러는 ASV를 선택해서 의역했다.

3. LB의 문학적 스타일

의역은 매우 자유로운 번역이다. 그것은 이미 이야기된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 따라서 성경 주석이나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다.

리빙 바이블은 부정확한 의역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한 한 사람의 주석이다.

4. LB의 수용

빌리 그래함의 추천 이후에 판매량이 이천오백만 부를 넘어섰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광적으로 LB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며 종종 이 성경이 성경 공부를 더 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5. LB의 평가

이 번역본의 근본적 특성으로 인해 성경으로부터 꽤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성경기록, 그리스도의 신성, 은혜에 의한 구원, 지옥등과 같은 교리적 영역에서 이것은 매우 빈약하다.

각주의 사용 또한 본문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진다.

LB에 대한 다른 비평은 그것이 매우 조잡하고 상스러운 번역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삼상20:30; 삼하13:11; 요9:34.

F. 굿뉴스바이블 - GNB [차트 9 참조]

신약성경: 1966
구약성경: 1976
외경: 1979

1. GNB를 위한 추진력

도시 거주민들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인디언을 위해 준비된) 쉬운 스페인어 번역의 인기는 초급 영어로 기록된 번역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2. GNB의 역사

‘Good News For Modern Man - Today’s English Version(TEV)’로 알려진 값싼 신약성경이 미국 성서 공회에 의해서 1966에 첫 번째로 출간되었다. 이 신약성경은 그 이후로 최소한 3번의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수백 군데의 본문 변화뿐만 아니라 판형과 삽화 등도 변화되었다.

구약성경의 완성으로 1976년에 GNB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3. GNB의 번역자

이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 남침례교 학자 브래처(Robert Bratcher)의 작품인데 그는 공개적으로 성경의 영감과 절대 확실성을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

브래처는 ABS 번역진의 도움을 받았다.

4. GNB의 본문적 기초

a. 구약성경

키텔 3판

b. 신약성경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본문(UBS)

5. GNB의 문학적 스타일

브래처는 ‘동적 일치’로 알려진 방법을 사용했다. [아래 참조]

이것의 영어는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계획된 초급 영어다. TEV 초판의 표지는 세상 신문에서 따온 광고 페이지를 묘사했다. 이것은 이 역본이 조간신문을 읽는 것만큼 쉽다는 주장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500개의 밑그림이 포함되었다.

6. GNB의 수용

a. 이 현대어 ‘성경’은 큰 성공을 누렸다. TEV는 처음 3년 동안 천팔백만 부 가까이 팔렸고 처음 5년 동안 삼천만 부 이상 팔렸으며 처음 10년 동안 GNB는 이천만 부 이상 팔렸다.

b. 로마 카톨릭 교회는 1969년에 이 성경을 추천했다.

7. GNB의 평가

GNB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매우 많으며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 GNB는 ‘피 없는 성경’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번역자들이 ‘피’라는 단어를 ‘죽음’에 대한 은유로 믿었기 때문이다. 행20:28; 롬3:25;5:9; 엡1:7; 2:13; 골1:14, 20; 히13:20; 벧전1:19와 같은 구절은 그리스도의 피를 생략했다.

b. GNB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참조 구절에서 ‘처녀’란 단어를 제거했다(누가복음 1장 27절 - 1968년 2판 참조).

GNB는 누가복음 2장 33, 43절에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만들고 있다.

G. 신국제역본 - NIV [차트 9 참조]

신약성경: 1973
구약성경: 1978

1. NIV의 역사

NIV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공적인 예배, 사적인 연구, 개인적 암송에

적합한 성경을 만들어 내려는 복음주의자들의 열망으로부터 탄생했다. 처음에는 크리스천 개혁 교회가 그 다음에는 복음주의 전미 연합회(NAE)에서 이 의견을 진행시켰다. 뉴욕 성서 공회가 이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번역은 1968년에 시작되었다.

작업은 22개 팀이 수행했는데 각 팀에는 번역가 1명, 공동 번역가 1명, 고문 1명, 영어 문장가 1명이 있었다. 각 팀은 예비 번역을 준비했고 예비 번역은 두 번의 위원회 검토를 통과한 후에 수용되었다.

2. NIV의 번역자

이 프로젝트는 팔머(Edwin H. Palmer)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번역 위원회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110명 이상의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번역 팀은 전체적으로 34개 종교 집단을 대표했다.

3. NIV의 본문적 기초

a. 구약성경

키텔의 3판과 함께 사해 두루마리의 이문(異文)들, 사마리아 오경, 고대 서기관들의 전통, 난외 히브리어 본문, 초기 역본들(시마쿠스, 테오도티온, 칠십인역), 라틴 벌게이트, 시리아어 페시타, 탈굴 등이 참조되었다. 그들은 또한 다른 모음을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도 읽었다.

b. 신약성경

절충적 비평 본문이 사용되었다.

4. NIV의 문학적 스타일

NIV는 보수적이면서도 현 시대적인 영어 스타일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제적 영어'로 기록되었으므로 미국 색이나 영국 색을 띠고 있지 않다.

5. NIV의 수용

이 '성경'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크게 활성화 되었다. 서점에 다다르기 전에 백이십만 부가 팔렸다. NIV는 존더반(Zondervan) 출판사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맞서는 유일한 현대 역본이다. NIV는 사실상 복음주의적인 RSV이다. 즉 신복음주의자들의 성경이다. (오늘날에는 독립, 근본 '침례교회'이면서 NIV를 사용하는 교회도 있다.)

6. NIV의 평가

웨이트는 NIV에서 의역(동적 일치)의 예를 6,650개 이상 찾아냈다. NIV가 정확하게 번역한 곳에서도 그것은 부패한 본문을 번역했으며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할 때 일상적인 차이, 생략, 첨가를 반영하고 있다.

H. 뉴킹제임스 성경 - NKJB [차트 9 참조]

신약성경: 1979 구약성경: 1982

RSV는 현대주의자들의 성경이고, NIV는 신복음주의자들의 성경인 까닭에 NKJB는 근본주의자의 성경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NKJB는 '업데이트 된' 킹제임스 성경으로서 광고가 되었다. 이 성경에서 개정된 것은 1611년의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소소한 문법과 철자 변화를 거친 것 같은 정도라고 광고되었다.

1. NKJB의 역사

토마스 넬슨 & 썬스 출판사의 새 소유주인 무어(Sam Moore)는 기민한 사업가이다. 그는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진영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해서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음을 예측했다. 이 진영은 다른 역본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의 회사는 NKJB를 만들어서 출간했다. 그들은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소규모 개정 - 고어 몇 개를 최신 것으로 갱신하고 영어를 현대화한 정도 - 이라고 주장했다.

2. NKJB의 번역자

많은 종교 집단을 대표하는 119명의 학자, 편집자, 교회 지도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여하는 각 사람에게는 최초의 성경기록의 축자적 완전 영감에 동의하는 진술문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파스타드(Arthur Farstad)는 실행 편집인이었다.

3. NKJB의 본문

a. 구약성경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Biblia Hebraica Stuttgarten-

sia) - 1966/77년판

b. 신약성경

수용 본문 - 1881년 스크리브너 판

4. 문학적 스타일

킹제임스 성경을 유지하며 영어를 업데이트 한다고 공언했으나 NKJB은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현대 영어도 아닌 묘한 혼합물로 울타리에 양다리를 걸친 작품으로 끝났다.

5. NKJB의 수용

이 성경은 팔웰(Jerry Falwell) 박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근본주의 진영에서 많은 격려를 받아 왔다. 라디오 성경 학교는 ‘매일의 양식’(Our Daily Bread)이라는 경건 서적을 통해서 이 성경을 장려했다.

6. NKJB의 평가

a. NKJB의 번역자들은 실제로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NKJB의 신약성경 서문에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극찬한 것이 보인다. “더 깊은 존경”, “형식의 웅장함”, “언어의 아름다움”과 같은 구문을 읽으면, 누구나 여기에 참여한 번역 위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서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도 읽게 된다. “발행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보물을 열어 줄 개정된 영어판을 만들기 위해 최초 번역자들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평범한 사람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보물을 열어 줄 수밖에 없음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b. 번역자들은 비평 본문에 대한 존중을 표했다.

NKJB의 서문에서 편집자들은 자기들의 신약성경 본문은 수용 본문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각주가 있는 NKJB판(신약성경)에는 다수 본문(The Majority Text)에 근거한 대체 본문이 약 500개 담겨 있다. (다수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과 매우 가깝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실제로 그것은 ‘비평 텍스트스 리셉투스 판’이다.

어떤 NKJB 판에는 신약성경 각주에서 “NU-Text”에 속한 본문을 인용한

- 다. 여기서 약어 NU는 네슬레-연합성서공회를 나타낸다. 또 사복음서에서 NKJB는 150개의 이문(異文)과 190개의 생략을 각주에 인용한다.
- c. 번역자들은 고어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번덕스러웠다.
에스라 8장 36절, 다니엘 3장 3절의 ‘satrap’과 누가복음 19장 16절의 ‘minas’ 같은 단어들은 실제로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들이다.
- d. 번역자들은 몇몇 절의 의미를 번개시켰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i. 마태복음 20장 20절 - ‘경배하며’를 ‘무릎을 꿇으며’로
 - ii. 고린도후서 2장 17절 - ‘부패시키는’을 ‘소리치며 팔며’로
 - iii. 디모데후서 2장 15절 - ‘연구하라’를 ‘힘쓰라’로
- e. 번역자들은 동적 일치 방법을 사용했다.
웨이트는 번역자들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하는 대신에 의역한 예를 2,000개 이상 찾아냈다.

IV. 현대의 번역 방법

앞서 10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형식 일치(Formal equivalence) 번역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에 대한 최고의 예가 된다. 한편 다른 쪽 끝에는 의역(Paraphrase)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본문을 다시 기록하는 것으로 리빙 바이블이 이에 대한 유명한 예다. 이 방법과 비슷한 것이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인데 굿뉴스 바이블이 이에 대한 표준적 예가 된다.

동적 일치는 GNB의 출판 이후로 매우 인기 있게 되었고 비(非) 영어 번역 작업에서 중대한 것들을 의미한다.

A. 세계 복음화에 직면하는 큰 문제

선교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때면 즉시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 그 사람들의 언어로 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가?
- 있다면, 그 성경은 어떤 종류의 성경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 성경도 없다!’ 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은 있으나 절망적으로 부패했다!’이다.

31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외국어 성경은 성서 공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동적 일치 방법에 의해 부패한 UBS 비평 본문에서 번역되었다. (심지어 종교개혁 텍스트스 리셉투스 신약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새로운 번역본들이 우세하다. 구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옛 언어 성경들이 많은 사례에서 부패되었다.)

여기에는 큰 딜레마가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대개 스스로 언어를 배우려고 몹시 애쓰기 때문이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그는 부패한 '성경'을 사용하고 그 성경을 고치는가? 그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가? 그는 단순히 이런 문제를 무시하는가?

꽤 심각한 이 수수께끼에 대한 쉬운 대답은 하나도 없다.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딤후3:15)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교회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성경 본문 연구 과정에서 다른 대답을 줄 수 없다.

B. 동적 일치는 무엇인가?

번역은 글자 그대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은 단어, 의미, 스타일, 한 구절의 강조 등에 관심을 둔다. 또한 번역은 형식적 영어(킹제임스 성경)나 일상적 영어(RSV)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역은 개념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 또한 형식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NEB),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LB) 번역할 수도 있다.

동적 일치 방법은 의미와 감명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충격 번역'(impact translation)으로 불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동적 일치의 주된 관심사가 원본이 원래 독자에게 영향을 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독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C. 동적 일치의 가설

이 방법이 신봉하는 주요한 원칙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성경기록을 독자들은 쉽게 이해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0-13절, 베드로전서 1장 10-11절,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되어야 한다(디모데후서 2장 15절).

2. 성경기록은 반드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TEV와 같은 역본들의 배후 사상은 성경도 반드시 일간 신문처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8장 27-35절과 같은 데서 드러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고린도전서 1장 21절).

3. 성경기록은 반드시 독자의 문화 속에 있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

「문화 속의 기독교」(*Christianity In Culture*)라는 책에서 크라프트(Charles Kraft) 박사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하나의 예로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논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양은 상스럽고 돼지가 성스러운 문화 속으로 들어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돼지를 보라’⁽⁵⁾라고 말해야만 한다.

(네팔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세웠던) 클라우드(David Cloud)는 남동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떤 번역자가 이와 같이 논증했다고 기록했다. “이 부족에게는 제물로 바치는 어린양은 없었고 과거에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수탉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수탉을 보라’”⁽⁶⁾

D. 동적 일치외의 사도

연합성서공회의 니다(Eugene Nida) 박사는 다른 언어들에서 이 번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다.

사실 니다는 이단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절대 확실성, 권위를 부인한다.

E. 동적 일치외의 오류

클라우드는 자신의 책 「동적 일치: 순수한 성경기록을 죽이는 일」(*Dynamic Equivalency : Death knell Of Pure Scripture*)에서 이 번역 방법이 갖는 몇 가지 오류를 나열하고 있다.

1. 성경의 특성을 부인한다.

- a. 성경이 하늘에 속한 계시임을 부인한다. 성경은 문화에 속한 계시가 아니다.
- b. 성경이 독자적으로 영감 받았음을 부인한다. 중요한 것은 단어이지 감동이 아니다.

(5) Cited by: Cloud D. W. *Dynamic Equivalency : Death knell Of Pure Scripture*. Oak Harbor, Washington: Way Of Life Publications, 1990: pg. 13

(6) Ibid

- c. 성경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담고 있음을 부인한다.
- 2.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는 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
- 3. 성령님의 일(조명)과 번역자의 일을 혼동하게 만든다.
- 4.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대체한다.
- 5. 복음전파와 성경 가르치는 것과 번역을 혼동하게 만든다.

V. 현대판 왜곡에 대한 시험

현대 성경 역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유용한 책과 소책자가 많이 있다. 이것들은 많은 역본을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고 있다. 페이지마다 들어 있는 분명한 차이는 대개 부패의 증거로 언급되고 제시된다. 학생들은 개인적 연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객관적 테스트나 ‘확실한 왜곡의 증거’는 아닐지라도 실제로 주후 1611년 이후로 나온 모든 ‘성경’은 다른 (부패한) 본문에서 번역되었다. 그 결과 이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르다.

역본들의 비교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 사이에 본질적인 (용어만이 아닌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각 성경이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인가?!

다른 것들은 같은 것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역본들 간의 큰 차이들을 보여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 중에서 몇 구절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A.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다음 구절을 확인하기 바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 ‘하나님’이 삭제되었는지 살펴보라.

요한복음 1장 18절 - ‘아들’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라.

사도행전 8장 37절 - 이 구절이 생략되었는지 살펴보라.

사도행전 20장 28절 - ‘하나님의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로마서 9장 5절 - ‘모든 것 위에’(over all) 다음에 구두점이 있는지 유념하라.

요한일서 5장 7-8절 - 이 구절들이 짧아졌거나 분리되었는지 살펴보라.

B.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관하여

다음 구절을 확인하기 바란다.

이사야 7장 14절 - ‘처녀’가 바뀌었는지 살펴보라.

마태복음 1장 25절 - ‘말’이 생략되었는지 살펴보라.

누가복음 2장 23절 -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리는지 살펴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begotten’이 생략되었는지 살펴보라.

요한일서 4장 3절 - ‘육체 안에 오신’이가 생략되었는지 살펴보라.

C.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관하여

다음 구절에서 ‘피’가 삭제되었는지 살펴보라.

골로새서 1장 14,20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2장 13절

D. 성경기록의 영감과 중요성에 관하여

다음 구절을 확인하기 바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 ‘모든 성경기록’(All scripture)인가 ‘각각의 성경기록 (every scripture)’인가?

누가복음 4장 4절 - 단어가 다 있는지 살펴보라.

E. 구원과 관련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다음 구절을 확인하기 바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보라.

마태복음 18장 11절 - 이 구절이 있는지 살펴보라.

마가복음 9장 44, 46절 - 이 구절들이 있는지 살펴보라.

요한복음 6장 47절 -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하는지, ‘그리스도를 믿어야’하는지 살펴보라.

로마서 5장 1절 -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지, ‘화평을 누리자’인지 살펴보라.

로마서 1장 16절 - 어떤 ‘복음’인가? (‘복음’도 많다.)

계시록 21장 24절 - ‘구원 받은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라.

314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F. 생략되고 변개된 구절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라.

마가복음 16장 9-20절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

G. 관련 있는 다른 구절들

다음 구절을 확인하기 바란다.

마가복음 1장 2절 - '대언자들'인가, '대언자 이사야'인가?

야고보서 5장 16절 - '잘못들'인가, '죄들'인가?

누가복음 2장 22절 - '그녀'의 정결을 말하는가, '그들'의 정결을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 - '부패'라는 단어가 바뀌었는가?

제 14 장

복습 문제

1.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기 위한 최초의 공식적 시도는 무엇이었는가?
2. 킹제임스 성경 신약성경에 대한 최초의 공식 개정판은 몇 년에 출간되었는가?
3.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시오.
4. RV 영국 개정위원들을 지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5. ASV 미국 개정위원들을 지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6. RV의 기초가 된 그리스어 본문은 무엇인가?
7. 대략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변화가 RV에서 일어났는가?
8. 영국인들이 미국 개정위원들을 어떻게 취급했기에 나중에 ASV가 출간되게 되었는가?
9. RV와 ASV의 문학적 스타일을 비교하시오.
10. 20세기 초에 인기 있던 개인 번역본 세 개를 말하시오.
11. RSV는 어떤 역본을 개정해서 만들었는가?
12. RSV 번역자들의 일반적인 교리적 입장을 논의하시오.
13. RSV에 대한 강력한 비평 중 하나는 무엇인가?
14. RSV에 대한 영국에서의 대응물은 어떤 '성경'이었던가?
15. RSV와 NEB의 문학적 스타일을 비교하시오.
16. NASB 출간을 위한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17. 특정 집단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의 예를 한 가지 제시하시오.
18. NWT가 변덕스럽게 번역한 예를 제시하시오.
19. 리빙 바이블은 누가 기록했는가?
20. TEV/GNB의 주 번역자는 누구였는가?
21. GNB와 NIV의 영어를 비교하시오.
22. '피 없는 성경'은 무엇인가?
23. '복음주의적 RSV'는 무엇인가?
24. NKJB는 어떤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해서 번역되었는가?

25. NKJB는 어떤 신약성경 본문을 사용해서 번역되었는가?
26. 번역하는 방법의 스펙트럼은 무엇인가?
27. '동적 일치' 번역 방법은 무엇인가?
28. 동적 일치의 거짓된 가설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29. 어떤 그리스어 본문에서 번역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 조사할 다섯 구절을 제시하시오.

제 15 장

격 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도달한 성경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이 교과 과정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에 도달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간에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 문제'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 논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하려 한다.

성경 번역본과 역본에 대한 논쟁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맨 먼저 명예가 걸려 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보편적으로 증명되고 수용된다면 본문 '과학'이라는 전체 학문이 붕괴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데이트하는 데 평생을 소모한 학자들의 일자리는 언급할 것도 없다! 더군다나 돈이 걸려 있다. 출판업자들은 '가장 최신판이고 가장 우수한' 역본을 만들고 인쇄하고 판촉 하는 데 막대한 금액을 들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을 믿는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은 이 쟁점에 대해 확고한 관심을 갖고 있다.

I.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 문제 개요

성경 역본을 둘러싼 전쟁은 대개 기독교계에서도 더 보수적인 스펙트럼 - 복음주의자, 신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 성경을 믿는 침례성도들 -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지도 않는다.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견해들은 다음과 같이 (폭넓게) 분류될 수 있다.

A.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을 방어하려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다. 특히 20세기 후반부에 - RSV의 출현 이후 - 풀러(D. O. Fuller), 래키(Bruce Lackey), 무어맨(Jack Moorman), 레이(J. J. Ray), 클라우드(David Cloud), 스미스(Jewell Smith), 카터(Mickey Carter), 라모어(Gary Lamore), 클리크(Peter van Kleeck), 웨이트(Donal A. Waite)와 같은 침례 성도들이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움을 싸워왔다. 그러나 수많은 신실한 목회자들도 이름 없는 믿음의 영웅들로서 '옛날의 검은색 책'을 대표하며 전쟁 중에 있다.⁽¹⁾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자들의 범주에서도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이들은 보존이 번역에까지 미치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으로 설교자로서 형성되어 가는 동안에 항상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책의 저자도 이런 견해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다.)

2. 킹제임스 성경은 매우 훌륭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믿는 사람들

이들은 보존이 근간이 되는 본문에까지만 미치며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의 번역이지만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대개 안 쓰이는 영어 단어들을) 개선하는 것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킹제임스 성경 문제로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무엇을 바꾸려는 진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B.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고 현대 역본으로 돌아섰다. 어떤 사람은 특정 역본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다수의 역본으로 돌아섰다. “성경을 공부하는 주의 깊은 학생들은 한 가지 성경 역본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역본들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그 역본들을 원어와 비교해야만 한다.”⁽²⁾

가장 뜨거운 열기는 근본주의 진영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방어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많은 근본주의 설교자들과 학자들은 소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우수한 사본들이라 불리는 것들에 근거해서 공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1) 학생들은 킹제임스 문제를 둘러싼 역사와 인물에 대한 훌륭한 개요를 클라우드의 「For Love of the Bible」에서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Way of Life(www.wayoflife.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Lewis J. P. The English Bible From KJV To NIV. Grand Rapids, Michigan: Baker, 1981:pp.10,11

II.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주장들

다른 역본들을 지지하며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격 방향을 제시한다.

A. 비평적 반대 - 본문과 번역

1.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적 기초는 빈약하다.

평판이 나쁜 비평 이론들을 비굴하게 따르는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은 '가장 오래되고 더 나은' 사본을 선호하며 비잔틴 본문을 거부한다.

앞선 강의에서 이런 반대를 다루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2.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오류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한 가지 예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비평가들은 'strain at a gnat'이 아니라 'strain out a gnat'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답변: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의 극단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작은 모기를 발견하면 그것에 긴장하지만 너무나 잘 속아서 낙타는 삼켜버린다!

오역으로 보이는 것들은 모두 성경기록과 성경기록을 비교할 때 이해될 수 있다(성경 해석의 황금률).

3.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텍스트스 리셉투스가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스테파누스 3판을 사용했다. 그것은 엘제비어 본문과 287군데 다르다.

답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번역자들을 인도하셔서 올바른 본문을 사용하게 하셨고 영어로 그분의 말씀을 만들어 내셨다.

B. 문학적 반대 - 스타일과 단어들

이것은 성경 독자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것이다.

'영어는 변화하는 언어'이고 우리는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스타일의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불만거리는 원래 세 가지이다.

1. 제임스 시대의 영어는 쓰이지 않는다.

'thee'와 'thou'는 현시대에 사용되지 않는다.

답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가 엘리자베스

320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시대 영어나 제임스 시대의 영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백아피가 표현한 대로) 이것은 언어의 역사 속에 들어 있는 영어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그 시대의 말을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어는 처음부터 그 말을 취했으며 형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³⁾

둘째로,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시간을 초월한다. “번역자들은 그들의 작품이 문학적 유행의 변화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계속 남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특성들과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⁴⁾

2.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가 들어 있다. 다음은 고어라고 하는 단어들이다.

- assuage - 창8:1
- minish - 출5:19
- murrain - 출9:3
- ouches - 출28:1
- meteyard - 레19:35
- assay - 신4:34
- champaign - 신11:30
- maw - 신18:3
- amerce - 신22:19
- rereward - 수6:9,13
- descry - 샷1:23
- withs - 샷16:7-9
- coulter - 삼상13:20
- polled - 삼하14:26
- felloes - 왕상7:33
- chapmen - 대하9:14
- collops - 욥15:27
- mallows - 욥30:4
- neesings - 욥41:18

(3) McAfee, C. B. The Greatest English Classic, New York,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12: pg. 84

(4) Muir, W. Our Grand old Bible, New York, New York: Fleming Revell, 1911: pg.135

leasing - 시5:6
 pate - 시7:16
 inditing - 시45:1
 holpen - 시86:17
 bewrayeth - 잠27:16
 bray - 잠27:22
 cauls - 사3:18
 wimples - 사3:22
 stomacher - 사3:24
 bestead - 사8:21
 fitches - 사28:25,27
 astonied - 사52:14
 sottish - 렘4:22
 bruit - 렘10:22
 chapt - 렘14:4
 clouts - 렘38:12
 infolding - 겔1:4
 sith - 겔35:6
 marishes - 겔47:11
 pulse - 단1:12,16
 tabering - 나2:7
 scrip - 마10:10
 anon - 마13:20
 lowring - 마16:3
 trow - 눅17:9
 holden - 눅24:16
 hoised - 행27:40
 listeth - 요3:8
 reins - 계2:23

322 킹제임스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

답변: 첫째 이 단어들의 대다수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에서 기본적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고어는 훌륭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좋은 설교와 가르침, 주의 깊은 성경 연구, 난외주를 사용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⁵⁾

셋째, 실제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매우 적다.

“위업과 함께 인기도 보존하기 위해 [번역자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은 그 영어 역본에서 아주 적은 수의 단어만이 후대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킹제임스 성경 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더 많은 단어가 쓰이지 않거나 그 의미가 바뀌었다.”⁽⁶⁾

왜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려는가?’

3. 킹제임스 성경에는 의미가 바뀐 단어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다.

prevent - 시88:13; 119:147,148

let - 롬1:13

mean - 잠22:29

bowels - 고후6:12

carriages - 행21:15

coasts - 마2:16

답변: 아래 참조

4. 킹제임스 성경에는 점잖지 못한 단어들이 들어 있다.

몇 가지 실례를 열왕기상 14장 10절(piss), 열왕기하 18장 27절(piss), 히브리서 12장 8절(bastards)에서 볼 수 있다.

답변: 첫째로 이 단어들은 정확하게 번역되었다. (번역자들이 사용한 영어의 특성과 정확도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단어들이 1611년에는 조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누가 이 단어들을 점잖지 못하다고 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현재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취하여 저주의

(5) ‘Way of Life Encyclopaedia of The Bible and Christianity’는 소위 고어와 폐어를 더 충분하게 열거하고 정의한다. 이 책은 Way of Life Literature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드커버와 컴퓨터 판 두 가지가 있다.)

(6) McAfee, Cp. Cit. pp.86,7

말로 바꿔 버렸다. 더욱이 어떤 단어들은 특정한 문화에서 나쁜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피 흘리는’(bloody, 시59:2; 겔7:23)이란 단어는 호주에서 저주의 말로 사용된다(‘대 호주의 형용사!’). 저자는 이 단어를 크게 낭독하려 하면서 많이 망설인 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단어는 일반적인 것이고 정확하게 사용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가독성이다. 맥아피는 이와 같이 논평했다. “주의를 끄는 첫 번째 사항은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사용에 있다. 단어들은 모든 문학의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읽는 도중에 잠시 동안 단어들 앞에 멈춰 서는 일은 가치가 있다. 단어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단어의 수가 적다는 것이고, 둘째는 단어의 길이가 짧다는 것이다. 영어 성경의 어휘는 광범위하지 않다. 셰익스피어는 만 오천에서 이만 단어를 사용한다. 밀턴은 자신의 운문에서 만 삼천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전체에는 약 6천 개의 단어가 있다. 성경 전체의 평균 단어는 긴 고유명사를 포함하더라도 네 글자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고유 명사를 전부 빼다면 평균 단어는 네 글자 이하이다. 십계명에는 모두 319 단어가 있는데 그 중 259개가 1 음절 단어이다. 50개만이 2 음절 이상이다. 짧은 단어는 강력한 단어이다. 짧은 단어에는 긴 단어들에 갖지 못하는 활기와 매력이 있다. 성경에는 한 줄도 시시한 것이 없다.”⁽⁷⁾

C. 교리적 반대 - 편견과 오류

1. 침례 성도들의 킹제임스 성경 비난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국교회의 번역본이라는 강력한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ἐκκλησία*’를 ‘집회’(assembly) 대신에 ‘교회’로 번역하고 *βαπτισμός*를 ‘담그다’(dip)나 ‘적시다’(immerse) 대신에 음역(Baptize)한 것으로 인해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침례 성도들이 지난 300년 이상 변창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닌가. 이 두 단어의 교리적 의미는 성경기록과 성경기록을 비교하여 손쉽게 설명될 수 있다.

baptism, baptize에 관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가 실제로는 영국 국교회의 해석을 물리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baptized’ 대신에 ‘sprinkled’로 바꾸어 보기 바란다. 요르단 강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이 가능한 해석인가?

(7) Ibid, pp.105-9

2.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비난

사도행전 12장 4절의 '이스터'(Easter)란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이 교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자주 언급되는 한 가지 예다. 그들은 이스터(Easter)는 여신 이쉬타르(Ishtar)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이교도들의 축제이며 거기 나오는 *πασχα*-pascha의 '정확한' 번역은 유월절(Pasover)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답변: 예뚸 사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교도 축제일을 지켰을 것이다.

더욱이 사도행전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레위기 23장 5-6절에 의하면 무교절은 주님의 유월절 다음에 온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계산에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활절처럼) 이스터는 항상 유월절 다음에 온다.

D.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들

킹제임스 성경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요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학생들은 앞으로 분명히 이것들과 마주치겠지만 몇 개의 실례를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

1. 킹제임스 성경은 싸움 없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 역본들도 싸움을 거쳐 수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원래 한 사람[브루턴, Hugh Broughton]과 한 정파[칼빈주의 청교도]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한테 반하여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중들이 현대 역본들을 공격했다.

2. 제임스 왕은 구원받지 못한 동성연애자였고 침례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이다.

a. 제임스 왕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 제임스 왕은 성경기록의 일부분을 개인적으로 번역했다.

b. 그가 동성연애자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단지 웰돈(A. Weldon)만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는 왕궁에서 면직된 사람이었다.

c. 영국 교회의 감독들은 그의 생애 말년에 침례 성도들을 박해하라고 그를 설득했다. 사실 다수의 초기 프로테스탄트들 - 루터 교인, 칼빈주의자, 영국 국교회 - 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박해와 처형을 저질렀다. (물론 피해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제임스 1세와 그 번역자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침례 성도들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3.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번역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참조: 독자들에게 드리는 서문 - 부록 2]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문은 성경기록이 아니다. 심지어 그 속에는 침례 성도들이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도 언급되어 있다.

4.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번역에 다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위의 대답과 같다. 그들이 생각한 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모든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은 세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 a. 사람들은 1611년 이전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답변: 일부 사람은 고대 이탈리아어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한 라틴 벌게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접근하는 것도 거절되었다.)

- b.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대부분의 주요 언어에는 텍스트스 리셉투스에 근거한 번역본 - 통상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 이 있었다. 일찍이 대부분 - 다는 아닐지라도 - 의 민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한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었다(딤후2:9)

(이 주장은 '카톨릭 국가는 어떤가? - 그들에게 복음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거의 유사하다.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적 복음 전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탄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 머물도록 일하고 있다. 침례 성도들은 그들에게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 c. 부패한 역본으로도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썩지 아니할 씨는 참된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대의 왜곡된 역본들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부분까지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롬10:17). 성령님께서 특정 종이 쪼가리만 사용하도록 매인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검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엡6:17; 히4:12).

III.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논증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논증이 이 연속 강의의 주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주관적이지만 매우 실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사용을 옹호하는 몇 가지 논증들 - 암송이 용이한 점, 전통, 스타일, 경외심 등 - 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 받고,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으며 나는 거기에 세 번째 이유를 덧붙이고자 한다.

A. 본문적 기초

킹제임스 성경을 뒷받침하는 사본 증거는 가장 중요한 논증이다. 모든 주장들은 부패한 본문과 순수한 본문의 두 종류 본문이 있다는 사실로 귀착된다. 따라서 부패한 역본과 순수한 역본의 두 종류 역본만이 존재할 수 있다!

B. 번역자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과 현대 '성경들'의 번역자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C. 세 번째 이유 - 믿음

이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전체 문제는 믿음에 속한 문제이다.

1.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셨음을 믿는 믿음

시편 12편 6-7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힘을 통하여 번역자로서의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들을 섭리로 보존하실 수 있었고 보존하셨음을 믿을 수 있다.

2.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려함을 믿는 믿음

현대 번역본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결코 정통이 아니었음에 동의한다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넘기며 그들의 위대한 학문적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롬1:25)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고후2:17) 사람들과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상품 취급하는'(벧후2:3)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하고 있다.

연구 과제 6

강의록을 보고 답하시오.

1.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거한 ‘고어’ 중에서 20개를 정의하시오.
2. 또 지난 30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바뀐 단어들을 정의하시오.

제 15 장

복습 문제

1. '킹제임스 성경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2. '킹제임스 성경 논쟁'의 가운데 있는 두 편은 누구인가?
3.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믿는 두 가지 견해는 무엇인가?
4.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요한 주장은 무엇인가?
5. '고문체'(archaism)는 무엇인가?
6. 왜 침례 성도들은 때때로 교회론의 영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했는가?
7. 다음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1611년 이전에는 무엇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8.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논증은 무엇인가?
9. 두 종류의 성경은 무엇인가?
10. 믿음의 논증은 무엇인가?

논문

다음 주제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1,500에서 2,500 단어로 논문을 쓰시오.

1. 영국의 종교개혁이 킹제임스 성경의 제작에 끼친 중대한 영향
위대한 영어 성경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 요인들에 대한 고찰
2. ...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의 중대한 영향
이 성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고 반드시 명확한 실례를 제시해야 한다.
3.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본문 비평에 끼친 중대한 영향
이론은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 비평의 영역과 현대 번역본에서의 그 영향에 대해 집중하십시오.
4. 동적 일치가 현대 선교에 끼친 중대한 영향
5. 킹제임스 성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_____의 중대한 영향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 싸운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